

2017년도 학술회의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주최 : 한일관계사학회 /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아셈연구원



## ◆ 초대의 글 ◆

안녕하십니까?

금년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한 지 7주갑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정유재란에 관한 연구는 주로 7년 전쟁 임진왜란의 후반부로서 다루어져왔습니다. 정유재란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기보다는 임진왜란의 후반전 내지 종반전으로 위치시키고, 종전 협상 이전에 전개되었던 1592~1593년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해왔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7년 전쟁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이면서, 각각의 국면이 지니는 특수성과 의미, 전쟁 전개의 차별적 양상 등은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탐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학회는 한 덩어리의 전쟁을 국면의 전환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과 차별성을 인식함으로써 임진왜란 7년 전쟁의 전체상을 좀 더 체계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이해할 목적으로 「정유재란과 동아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재발(정유재란)의 원인과 일본의 도발 목적을 구명하고, 전쟁의 전개 양상 및 전쟁의 경험과 기억을 실증하며 ‘전쟁의 파장’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위안부문제를 비롯해 한일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전쟁의 위협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안타까운 동아시아의 현실에서 420년 전의 전쟁의 시작과 종결, 그리고 이후의 영향을 성찰해보는 것은 향후 동아시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오셔서 고견을 들려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본 학술회의를 후원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과 아셈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6월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김동명 올림



## ▣ 전체 일정

### 제 1 부 사 회 : 남상호 (경기대학교)

13:30~13:40 **개회사** 김동명,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13:40~13:50 **축 사**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

### 발표 및 토론

14:00~14:30 【제1주제】 전쟁 ‘재발’의 배경 이해  
: 丁酉再亂時の日本の目的と日本側の軍事行動

발 표 : 津野倫明 高知大學

토 론 :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14:30~15:00 【제2주제】 전쟁의 전개 양상 1  
: 정유재란시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연합군

발 표 : 김경록 군사편찬연구소

토 론 : 김태훈 서울대학교

15:00~15:30 【제3주제】 전쟁의 전개 양상 2  
: 정유재란시 조·일 양국의 군사전략과 전투 양상

발 표 : 박제광 건국대학교

토 론 : 이상훈 한국국제대학교

15:30~15:40 휴 식

15:40~16:10 【제4주제】 전쟁의 파장,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 정유재란 이후 조·명·일 삼국 관계의 변화  
- 에도막부의 초기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

발 표 : 김문자 상명대학교

토 론 : 김경태 고려대학교

16:10~16:40 【제5주제】 전쟁의 경험과 기억  
: 황석산성(黃石山城) 전투와 김해부사 백사림(白士霖)

발 표 : 민덕기 청주대학교

토 론 : 한성주 강원대학교

### 제 2 부 사 회 : 이창훈 (아셈연구원장)

17:00~18:30 종합 토론과 질의 응답



## 목차

|                                               |     |
|-----------------------------------------------|-----|
| 제1주제   전쟁 ‘재발’의 배경 이해 .....                   | 9   |
| : 丁酉再亂時の日本の目的と日本側の軍事行動                        |     |
| 발 표 : 津野倫明(高知大学) / 토 론 :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     |
| 제2주제   전쟁의 전개 양상 1 .....                      | 75  |
| : 정유재란시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연합군                     |     |
| 발 표 :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 토 론 : 김태훈(서울대)           |     |
| 제3주제   전쟁의 전개 양상 2 .....                      | 107 |
| : 정유재란시 조·일 양국의 군사전략과 전투 양상                   |     |
| 발 표 : 박제광(건국대학교) / 토 론 : 이상훈(한국국제대학교)         |     |
| 제4주제   전쟁의 파장,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               | 145 |
| : 정유재란 이후 조·명·일 삼국관계의 변화-에도막부의 초기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     |
| 발 표 : 김문자(상명대학교) / 토 론 : 김정태(고려대학교)           |     |
| 제5주제   전쟁의 경험과 기억 .....                       | 169 |
| : 황석산성(黃石山城) 전투와 김해부사 백사림(白士霖)                |     |
| 발 표 : 민덕기(청주대학교) / 토 론 : 한성주(강원대)             |     |



## 제1주제

### 전쟁 '재발'의 배경 이해

#### 정유재란시 일본의 목적과 일본측의 군사행동 (丁酉再乱時の日本の目的と日本側の軍事行動)

발 표 : 츠노 토모아키(고치대학)

津野倫明(高知大学)

토 론 :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2. 정유재란시 일본의 목적
3. 정유재란시 히데요시의 전략
4. 부산회의와 선봉의 전주집결
5. 전주회의와 충청도 침공·전라도 침공
6. 정읍회의와 전라도 침공·'전략거점성' 축성
7. 일본측의 조선남부지배와 히데요시의 순천 왜성·울산 왜성에 대한 집념
8. 맺음말



## 1. 머리말

16세기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두 차례 출병했다. 첫 번째는 약 16만 명, 두 번째는 약 14만 명, 총 30만 명에 달하는 군사 수에서 보이듯이 출병은 이전에 없었던 해외 파병이었다. 우선 본고의 표제 및 논의에 관계되는 출병의 호칭에 관하여 서술해두고자 한다. 1) 출병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선출병’ 혹은 ‘조선침략’이라고 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개시 당시의 연호를 붙여 전자를 ‘분로쿠의 역’ 두 번째를 ‘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각각 개시 당시의 간지에 따라 ‘임진왜란’, ‘정유재란’ 혹은 둘을 합쳐서 ‘임진왜란’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중국에서는 둘을 합쳐서 ‘임진왜화’, ‘항왜원조’ 혹은 연호에 따라 ‘만력조선역’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호칭은 모두 일국사적 호칭이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간지를 사용한 ‘임진전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창되고 있다. 2) 그 번역어에 해당하는 ‘The Imjin War’는 영어논문에서 산견된다. 또한 출병의 목적은 명 정복이었으므로, ‘대륙침공’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는 지적도 있다. 3)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요하나, ‘임진전쟁’, ‘대륙침공’ 모두 보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본 학술대회의 전체테마가 ‘정유재란과 동아시아’인 것, 발표장소가 한국이라는 것 등의 이유에 의거하여, 첫 번째 출병을 임진왜란, 두 번째 출병을 정유재란이라고 표기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정유재란 발발의 배경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이 과제를 설정하였다. 제1장에서는 정유재란시 일본의 목적에 관한 지론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 5장에서는 종래의 연구성과에 근거하여 지론의 논거인 정유재란시 일본측의 군사행동을 확인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제6장에서 일본측의 조선남부 지배를 검토하고, 지론에 대한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겠다.

1) 호칭의 개요에 대해서는 津野倫明 「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高橋典幸編 『戦争と平和』 竹林舎, 2014年), 米谷均 「文禄・慶長の役 / 壬辰戦争の原因 実像編」(堀新・井上泰至編 『秀吉の虚像と実像』 笠間書院, 2016年)등을 참조.

2) 鄭杜熙・李璟珣編著 『壬辰戦争』(明石書店, 2008年).

3) 中野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吉川弘文館, 2006年).

## 2. 정유재란시 일본의 목적

이 장에서는 정유재란시 일본의 목적에 관한 지론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우선 지론의 대전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출병 최고지휘관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과 명에 대한 인식이다. 4) 1590년(덴쇼18) 11월, 히데요시가 대면한 황윤길 등 조선사절은 천하통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이었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사절의 일본 방문을 조선의 복속으로 오해하였고, 조선국왕에게 정명향도를 요구하였다. 고니시 유키나가 등이 그 요구를 가도입명으로 바꾸어 교섭하였으나, 당초부터 교섭이 성립할 여지는 없었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도쿠토미 이이치로씨는 ‘요컨대 히데요시는 철두철미하게 조선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는 조선이 이미 일본에 복종하고 있다고 속단했다’라고 지적하고 그 오해를 ‘히데요시의 대오해’라고 명명하였다. 5) 후술하는 나카노 설에서도 이 오해가 중시되고 있다.

도쿠토미씨의 지적과 같이 ‘히데요시의 대오해’가 해소되는 일은 없었다. 1592년(덴쇼20, 분로쿠1) 5월 초순 한성함락 소식을 접한 히데요시는 삼국분할계획을 입안하였다. 5월 18일자 도요토미 히데츠클 앞 히데요시 슈인조(朱印狀)의 6) 요점은 다음과 같았다. 7) 명도 정복하여 내년에는 히데츠클을 ‘대당의 간파쿠직’으로 삼는다. 일본의 간파쿠는 하시바 히데야스나 우키타 히데이에로 하고, ‘고려’에는 하시바 히데카즈나 히데이에를 둔다. 히데요시 자신은 우선 북경으로 옮겼다가, 이후 ‘천축’ 정복을 위해 영파(寧波)로 이주한다. 내후년인 1594년에는 고요제 천황을 북경에 이주하게 하여 중화황제로 삼고 일본의 제위는 황태자 가타히토나 천황의 동생 도시히토로 한다. 이 계획은 과대망상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국적 판단을 결여한 공상적 플랜’이기는 하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본 미키 세이치로씨의 지적에 따르고 싶다. 8) 한성함락 소식은 ‘히데요시의 대오해’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조선은 물론 명도 정복할 수 있다는 ‘히데요시의 착각’을 확신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4) 이하, 津野倫明 「日本文獻の壬辰倭亂(文祿・慶長の役)の記録とその限界」 (『東国史学』 第62輯, 2017年6月30日予定) 참조.

5)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国民史 豊臣氏時代丁篇朝鮮役 上巻』(民友社, 1925年)306쪽. 또한, 본고에서는 본서도 포함하여 인용시에는 방점과 루비(ルビ)를 생략하였다.

6) 東京大学史料編纂所架蔵写真帳 「尊經閣古文書纂」.

7) 中野等 「侵攻の緒戦」(前掲中野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前掲津野 「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賞書」 등을 참조.

8) 三鬼清一郎 「関白外交体制の特質をめぐって」(同 『豊臣政権の法と朝鮮出兵』 青史出版, 2012年, 初出1987年).

이상과 같은 ‘히데요시의 대오해’, ‘히데요시의 착각’을 대전제로하여, 정유재란시 일본의 목적에 관한 지론을 제시하겠다.<sup>9)</sup> 임진왜란·정유재란의 목적과 원인을 둘러싼 논의는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했다. 예를 들면, 히데요시의 과대망상, ‘감함무역’의 부활,<sup>10)</sup> 히데요시의 공명심, 명 정복, 영토확장, 국제(해역)질서의 확립, 정권유지 등이 있다. 이들 논의의 대부분은 임진왜란·정유재란을 구별하지 않고 논해졌다. 즉 양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에 문제를 제기하여, 목적이 복합적이었던 것으로 이해하면서, 또한 고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변천론을 주장한 연구자도 있었다. 미키 세이치로씨는 ‘감함무역진흥설과 대외영토확장설의 이차택일 차원에서 논쟁이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면서 종래의 학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했다. 그러한 다음 미키씨는 도요토미 정권의 외교 기조가 어디까지나 ‘가라이리’ 즉 명 정복이었으며, ‘감함무역’을 포함한 강화교섭은 히데요시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에’ 가능해진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sup>11)</sup> 목적이 변화하였다는 점을 명쾌하게 지적한 것은 나카노 히토시씨였다. 그는 ‘원래는 동아시아의 맹주인 명 제국을 타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륙출병의 목적은 당초부터 어디까지나 명 정복’이었다고 명언하였다.<sup>12)</sup> 다만, 정유재란에 와서는 ‘정명’의 의도가 크게 후퇴하여, 오히려 ‘조선침략’에 주안점을 둔 전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출병은 ‘서서히 그 의미를 변화시켜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나카노설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감함무역’ 요구가 1593년 강화교섭에서 갑자기 등장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다보하시 키요시의 학설을 나카노씨와 같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며,<sup>13)</sup> 또한 다음 장에서 확인할 정유재란시 일본측의 군사행동은 나카노씨가 ‘이번의 파병은 어디까지나 조선반도 남부의 제압, 영토확장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단적으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sup>14)</sup> 조선남부의 정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유재란 초기인 1597년(게이쵸2) 2월 21일자 히데요시 슈인쵸에 제시된 군령(이하 본고에서는 2월 명령이라고 지칭함)에서는 우선

9) 이하, 前掲津野「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참조.

10) 도요토미기의 사료에 등장하는 ‘감함(勘合)’은 무로마치기의 감함무역의 그것과는 다르다. 슈인선(朱印船) 무역의 도항 슈인쵸로 판단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田中健夫「勘合符・勘合印・勘合貿易」(同『対外関係と文化交流』思文閣出版, 1982년, 初出1981년), 藤木久志「海の平和=海賊停止令」(同『豊臣平和令と戦国社会』東京大学出版会, 1985년), 北島万次「豊臣政権の外交折衝と五山僧」(同『豊臣政権の対外認識と朝鮮侵略』校倉書房, 1990년, 初出1988년) 참조.

11) 前掲三鬼「関白外交体制の特質をめぐって」.

12) 이하, 前掲中野『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2~3쪽, 95쪽.

13) 田保橋潔「壬辰役雑考」(『青丘学叢』第14號, 1933년).

14) 中野等「慶長の再派兵」(前掲中野『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303쪽. 前掲「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이 지적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본고에서는 정유재란시 일본의 목적에 관한 지론을 명시해야 하기에 인용하였다.

## 14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전라도를 제압하고 충청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침공할 것을 제장에게 명하고 있었다.<sup>15)</sup> 더구나 경상도는 장악이 끝났다고 인식되고 있었던 듯하다.<sup>16)</sup> 즉, 정유재란시 일본의 목적은 조선남부의 정복이었다. 클라우제비츠에 의하면 전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1은 적의 완전한 타도를 목적으로 한 전쟁’, ‘제2는 적국의 국정부근에 적국 영토의 일부분을 약취하고자 하는 전쟁’이다.<sup>17)</sup> 이에 따르자면, 명 정복을 목적으로 한 임진왜란은 ‘제1의 전쟁’, 조선남부의 정복을 목적으로 한 정유재란은 ‘제2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병의 목적은 변천하였던 것이다. 다만 2월 명령에서도 명의 대군이 출격한 경우에는 히데요시 자신이 도해하여, ‘대명국까지 공격하는 일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므로’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명 정복이었다. 그 대전제가 ‘히데요시의 대오해’, ‘히데요시의 착각’이었다. 이 대전제의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1598년 8월 히데요시 사망에 의해 출병은 2회에 그쳤으나, 같은 해 5월까지의 다음해 대규모의 파병계획이 유지되고 있었다.<sup>18)</sup> 실제로 동년 4월, 히데요시는 250척이 넘는 공출용 선박을 토사 지역에서 건조할 것을 명한 바가 있다.<sup>19)</sup> ‘기해재란’이라고 이름 할 전란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정유재란시의 목적에 관한 필자의 지론에는 반대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1596년 화의파탄의 원인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 기반하고 있다. 화의파탄은 정유재란 발발 원인이므로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경과와 그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서술해두고자 한다.<sup>20)</sup>

1595년 5월, 히데요시는 고니시유키나가 등에게 화의 3개조를 제시했다.<sup>21)</sup> 3개조란 ‘대명균명(大明鈞命)’에 의해 조선을 ‘서유(恕宥)’할 것이므로, 조선 왕자는 일본에 와서 히데요시 막하에 속하게 할 것(이 경우 ‘조선8도 중의 4도’ 즉 조선남부 4도는 일본에 속해야 할 것이나, 왕자에게 부여한다), 심유경과 조선 왕자가 웅천왜성에 도착하면 왜성 15개소 중에서 10개소를 파괴할 것, 명의 사신이 일본에 오면 ‘감함무역’을 부활시킬 것이었다. 다음해 9월 1일, 명의 사절 양방형·심유경이 오사카성에서 히데요시와 대면하고 책봉은 실현되었으나, 화의는

15)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 402號. 또한, 前掲津野「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에서는 해당 문서에 근거하여, ‘우선 조선남부인 전라도와 충청도를 침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였으나, 문서의 문언을 엄밀하게 해석하자면 본문과 같이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16) 中野等『戦争の日本史16 文禄・慶長の役』(吉川弘文館, 2008年)190~191쪽.

17) クラウゼヴィッツ著・篠田英雄訳『戦争論(上)』(岩波書店, 1968年)13쪽.

18) 前掲中野「慶長の再派兵」, 津野倫明「朝鮮出兵期における造船に関する一試論」(同『長宗我部氏の研究』吉川弘文館, 2012年, 初出2009年).

19) 前掲津野「朝鮮出兵期における造船に関する一試論」.

20) 이하, 前掲津野「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참조.

21) 「江雲隨筆」(東京大学史料編纂所架蔵謄写本). 또한 화의에 대해서는 北島万次「壬辰倭乱における二つの和議条件とその風聞」(同他編『日朝交流と相克の歴史』校倉書房, 2009年) 등을 참조.

파탄에 이르렀다.

여기서 필자가 지지를 표명한 나카노 히토시씨의 견해를 확인해두겠다.<sup>22)</sup> 9월 1일 책봉의 레가 끝난 후, 히데요시는 명 사절의 거처에 승려를 파견했다. 명 사절은 그들에게 왜성의 완전 파괴와 군사 철퇴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고, 이를 알게 된 히데요시는 격노했다. 나카노씨는 히데요시에게 강화의 전제가 명의 항복이었던 이상, 일정한 영토 할양이 실현될 필요가 있었고, 화의 3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명목상의 ‘해외영토’라도 원했으나, 명은 이 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카노씨에 의하면, 히데요시는 명과의 화의는 체결하고, 조선과의 전쟁만은 지속하여 ‘해외영토’를 확보하려고 획책하였다고 보이는데, 어느 쪽이든 교섭결렬의 책임을 조선에 부가하는 것으로, 즉 ‘항복의 증거’인 조선 왕자가 일본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화의결렬의 주된 원인으로 삼는 것으로 화의를 파기하고 재출병을 명했다고 보았다.

화의 3개조 중 ‘대명황제가 간절히 요구한(大明皇帝懇求)’이라는 문언에 착목한다면, 나카노씨의 지적과 같이 히데요시는 명의 항복을 전제로 하여 강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책봉성립은 일견 기이하게 보인다. 그러나 “외교의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프로토콜이며, 의례에 관해서 쌍방은 자유로운 해석을 부여하고 자국 나름의 속셈을 관철하는 것까지 가능했다.”라는 지적에 입각하자면, <sup>23)</sup> 수봉(受封)은 당연한 일이었다. 의례는 “히데요시와 책봉사는 다다미를 사이에 두고 앉았는데, 이는 일본식으로 대등을 나타내는 형식”이었다고 보이며,<sup>24)</sup> 히데요시는 명 사절을 명 황제로부터의 항복사절로 보는 해석을 부여하면서 책봉을 받아들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명 사절과 함께 일본에 온 조선 사절 황신이 “천조가 이미 사절을 보내어 책봉을 해주었으니, 내가 우선 참도록 하겠다”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sup>25)</sup> 히데요시는 조선에 대해서는 수봉(受封)을 자신이 양보한 것으로 드러내면서, 왕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비례(非禮)로 책망하는 구실의 하나로 삼았다. 왕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야 말로 화의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한 이가 아토베 마코토씨이다. <sup>26)</sup> 그 유력한 근거는 9월 7일자 슈인조에서 히데요시가 “이번에 조선 왕자가 건너오지 않은 일은 꽤 씁하다”라고 했다는 데 있다.<sup>27)</sup> 이 슈인조를 화의 파탄 직후의 것으로 보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sup>28)</sup> 또

22) 中野等「講和交渉の推移」(前掲中野『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23) 橋本雄「室町殿の《中華幻想》」(『中華幻想』勉誠出版, 2011年, 初出2007年・2008年).

24) 米谷均「日明・日朝間における肅拜儀礼について」(中島榮章・伊藤幸司編『寧波と博多』汲古書院, 2013年).

25) 「万曆丙申秋冬通信使一行日本往還日記」(『青丘学叢』第11號, 1933年).

26) 跡部信「豊臣政権の対外構想と秩序観」(同『豊臣政権の権力構造と天皇』戎光祥出版, 2016年, 初出2011年).

27)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424號.

28) 津野倫明「朝鮮出兵における鍋島直茂の一時帰国について」(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

## 16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한 영토 할양에 관해 언급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카노설에서도 히데요시가 왕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화의파탄의 주원인이라는 점은 지적하고 있다. 차이점은 왕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원인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있다. 아토베씨는 “왕자를 일본에 보내라는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협박문언으로서 영토요구가 제시되었다. 명 사절의 철병요청은 협박을 허세로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히데요시를 더욱 격노케 하였다”라고 하면서, 정유재란은 “협박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왕자 ‘어례(御禮)’를 촉구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아토베씨의 견해에 대해 다음의 견해를 제시했다.<sup>29)</sup>

만약 주원인이 왕자가 오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면, 게이초의 역(정유재란-츠노 주석)의 목적은 아토베씨가 지적하는 바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게이초의 역에서 히데요시가 왕자의 ‘어례(御禮)’를 요구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료적 소견을 접한 적이 없다. 히데요시 사후에 ‘조선 왕자가 (일본에) 올 것’이라는 강화조건으로서 등장하지만, 왕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공물[御調物]’이라도 좋다고 하였다. 게이초의 역 당초에 히데요시가 조선남부에 대한 침공을 명한 사실이 명시하고 있듯이, 게이초의 역은 “제2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화의 파탄의 주원인도 또한 영토할양의 문제였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토베씨로부터 이 견해에 대한 반론을 받았다. 그러나 정유재란시에 히데요시가 왕자의 ‘어례(御禮)’를 요구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협박이 진심임을 보이기 위해 감행한 것이 게이초의 역이었다”라는 지론을 확인하고 있다.<sup>30)</sup> 견해의 차이가 용이하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으나, 이 글에서, 그 중에서도 제6장에서 해소를 지향하는 재반론을 제시하였다.

## 3. 정유재란시 히데요시의 전략

앞 장에서는 정유재란시 일본의 목적은 조선 남부의 정복이었으며, 클라우제비츠의 표현을

---

13號, 2006年).

29) 前掲津野「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290쪽. ‘朝鮮王子相越候’ ‘御調物’은『黒田家文書 第一巻 本編』(福岡市博物館, 1999年)24號에서 인용한 것이다.

30) 반론은, 前掲跡部「豊臣政権の対外構想と秩序観」를前掲跡部『豊臣政権の権力構造と天皇』에 수록할 때 같은 책231~232쪽에서 제시되었다.

빌리자면, 정유재란은 ‘제2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론을 제시했다. 본장에서 제5장까지는 이러한 지론의 논거인 정유재란시 일본측의 군사행동을 확인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종래의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sup>31)</sup> 히데요시가 내린 2월 명령의 내용과 일본측 군사행동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장에서는 2월 명령에서 제시된 전략을 살펴보겠다.

1596년(분로쿠5, 게이초1) 9월 7일자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서장에 의하면, <sup>32)</sup> 히데요시는 연내에 모리 요시나리 등을 조선에 선봉으로 파견하고, 다음해에는 주고쿠, 시코쿠의 장수들을 파견할 방침을 표명했다. 실제 선봉부대의 도해는 1597년 1월에 개시되었고, 2월 21일에 히데요시는 도해한 장수들에게 2월 명령을 내렸다.<sup>33)</sup>

2월 명령에서 히데요시는 정유재란에 투입할 약 14만 명의 병력 중 선봉[先手] 1번 부대~8번 부대와 왜성에 주둔할 부대를 편성했다. (표1·표2)<sup>34)</sup> 다만, 이 부대편성과 실제에는 괴리가 있었다. 예를 들어, 3번 부대의 상황을 살펴보겠다.<sup>35)</sup> 모리 요시나리는 4월 중순까지, 1595년부터 아들 요시마사와 휴가[日向] 지역 부대(시마즈 토요히사, 다카하시 모토타네, 아키츠키 타네나가, 이토 스케타카)가 주둔하고 있던 안골포에 도착했고, 사가라 나가츠네도 도착했다. 그러나 구로다 나가마사는 합류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요시나리 등과 3번 부대로 함께 행동하는 일은 없었다.<sup>36)</sup> 같은 현상은 임진왜란시에도 관찰된다. 예를 들면, 4번 부대는 요시나리·휴가 지역 부대·시마즈 요시히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요시히로가 다른 장수들과 함께 행동하는 일은 드물었다. 왜성 주둔 부대편성도 마찬가지였다. 히데요시는 2월 명령에서 안골포에 다치바나 무네시게, 가덕에 다카하시 나오횀구·츠클시 히로카도, 김해 죽도에 고바야카와 히데카네를 배치하였으나, 3월이 되면 이들 장수들에게 부산 주둔을 명했다. 때문에 7월 중순

31) 津野倫明 「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 (『海南史学』 第42號, 2004年), 同 「朝鮮出兵の在番体制に関する一朱印状写」 (『日本歴史』 第684號, 2005年), 同 「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 (『織豊期研究』 第8號, 2006年), 同 「朝鮮出兵と西国大名」 (佐藤信・藤田覚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 山川出版社, 2007年), 同 「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 (地方史研究協議会編 『歴史に見る四国』 雄山閣, 2008年), 同 「黒田長政宛鼻請取状について」 (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 『人文科学研究』 第17號, 2011年), 同 「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 (前掲津野 『長宗我部氏の研究』, 初出2004年), 同 「軍目付垣見一直と長宗我部元親」 (同前, 初出2010年) 등.

32) 『鹿児島県史料旧記雑録 後編三』 (鹿児島県, 1983年)107號.

33) 2월 명령을 고지한 히데요시 슈인조는 다수 존재하나, 본고에서 제시한 조문의 문언은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 402號에서 인용한 것이다.

34) 장수들의 병력수는『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403號, 『大日本古文書 毛利家文書』932號 등에서 의거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장수들의 실명의 경우 사전류의 항목명으로 채용되고 있는 일반적 호칭을 사용하였다.

35) 이하, 津野倫明 「文禄・慶長の役における毛利吉成の動向」 (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 『人文科学研究』 第9號, 2002年)参照.

36) 前掲津野 「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

## 18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에 도해한 무네시게 등이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를 부산에서 보좌하게 되었다.<sup>37)</sup> 이러한 경위 때문에 전술한 요시나리 등이 안골포에 재변하게 되었다.

표1

| 부대    | 편성된 장수와 병력수                                                                                                                                                                                    |
|-------|------------------------------------------------------------------------------------------------------------------------------------------------------------------------------------------------|
| 1 · 2 |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0000<br>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7000, 소 요시토시(宗義智) 1000, 마츠라 시게노부(松浦鎮信) 3000,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 2000, 오무라 요시아키(大村喜前) 1000, 고토 하루마사(五島玄雅) 700<br>※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는 제비 뽑기로 1번 부대와 2번 부대를 교대함 |
| 3     |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5000,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 · 모리 요시마사(同吉政) 2000, 시마즈 토요히사(島津豊久) 800, 다카하시 모토타네(高橋元種) 600, 아키츠키 타네마사(秋月種長) 300, 이토 스케타카(伊東祐兵) 500, 사가라 나가즈네(相良長每) 800                                    |
| 4     |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 나베시마 카즈시게(同勝茂) 12000                                                                                                                                                         |
| 5     |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10000                                                                                                                                                                           |
| 6     | 쥬소카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 3000, 토도 다카토라(藤堂高虎) 2800, 이케다 히데카즈(池田秀雄) 2800,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2400, 구루시마 미치후사(来島通總) 600, 나카가와 히데시게(中川秀成) 1500, 간 미치나가(菅達長) 200                                                |
| 7     | 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 7200, 이코마 카즈마사(生駒一正) 2700,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 1200                                                                                                                               |
| 8     | 모리 히데모토(毛利秀元) 30000,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10000<br>※모리 히데모토와 우키타 히데이에를 교대한다.                                                                                                                        |

표2

| 왜성 | 주둔 장수와 병력수                                             |
|----|--------------------------------------------------------|
| 부산 | 고바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 10000<br>※군감찰[軍目付] 오타 카즈요시(太田一吉) 390 |

37) 中野等「文禄の役における立花宗茂の動向」(『日本歴史』第597號, 1998年).

|       |                                         |
|-------|-----------------------------------------|
| 안골포   | 다치바나 무네시게(立花宗茂) 5000                    |
| 가덕    | 다카하시 나오힌구(高橋直次) 500, 츠쿠시 히로카도(筑紫広門) 500 |
| 김해 죽도 | 고바야카와 히데카네(小早川秀包) 1000                  |
| 서생포   | 아사노 요시나가(浅野幸長) 3000                     |

임진왜란시와 정유재란시의 차이인 군메츠키의 등장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야만 한다. 히데요시는 2월 명령에서 7명의 군메츠키에 임명했다.<sup>38)</sup> 장수들을 군메츠키가 감찰하는 제도는 정유재란시의 특징이다.<sup>39)</sup> 히데요시는 군메츠키의 보고만을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보고를 통해 상벌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군메츠키에는 히데요시의 이목으로서의 활동이 기대되었다. 히데요시는 2월 명령에서 부산에 주둔하는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군메츠키로서 오타카즈요시, 선봉의 군메츠키로서 모리 시게마사·다케나카 다카시게·가키미 카즈나오·모리 토모시게·하야카와 나가마사·구마가이 나옴리 등 총 7명을 군메츠키에 임명했다. 이 중에서 나가마사가 5월에 병사하였기 때문에 히데요시는 히데아키의 군메츠키로서 새로이 후쿠하라 나가타카를 임명하고 카즈요시를 선봉 군메츠키로 변경했다.<sup>40)</sup> 당연하겠지만, 군메츠키가 발급한 코영수증[鼻請取狀]도 또한 정유재란시의 특징이다.<sup>41)</sup> 코영수증이란 장수들이 베어서 모은 코를 받아 조사한 후 군메츠키가 장수들 앞으로 발급한 문서이다. 1597년 8월 16일부터 동년 10월 9일자까지 총 28장이 알려져 있다. 확인된 발급대상자는 구로다 나가마사·깃카와 히로이에·나베시마 가즈시게·도도 다카토라 등 4명 뿐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된 코의 수는 합계 29,678개(머리 13, 생포 2를 포함)에 이른다. 정유재란시의 전장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2월 명령에서 정해진 선봉[先手]과 왜성 주둔 부대편성, 그리고 군메츠키의 배치는 구상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동시에 제시된 전략은 이후 일본측의 군사행동의 근본 조건이 되었다. 그 전략의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38) 北島万次『朝鮮日々記·高麗日記』(そしえて, 1982年) 등 참조. 군메츠키에 대해서는 ‘메츠키(目付)’ ‘요코메(横目)’ ‘부고(奉行)’ 등 여러 가지 호칭이 사료상에서 확인되나, 본고에서는 기타지마씨의 연구에 따라 군메츠키로 부르기로 한다.

39) 前掲中野「慶長の再派兵」.

40) 前掲津野「軍目付垣見一直と長宗我部元親」.

41) 이하, 前掲津野「黒田長政宛鼻請取狀について」 참조. 한편 시미즈 카츠유키씨의 지적과 같이 코베기 행위는 일본 전국시대 이래의 뿌리 깊은 습속으로 보인다. (清水『耳鼻削ぎの日本史』洋泉社, 2015年, 131쪽).

## 20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 A : 선봉[先手]의 군사행동은 장수들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 B : 선봉은 '적국[赤國]은 남김없이 평정하고, 청국[靑國]과 그 외의 지역은 될 수 있는 만큼 군사행동을 취할 것'. 즉 우선 전라도를 제압하고 충청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침공한다.
- C : B가 종료된 후에 '전략거점성[仕置之城]'을 쌓을 지역을 선정하고 장수들의 다수결로 결정한 후, 축성 등은 귀국이 결정된 장수가 담당한다.

B에서 경상도에 관한 지시가 없는 것은, 경상도에는 강화교섭기에도 표2에 보이는 부산왜성을 비롯하여 '전략거점성[仕置之城]'과 주둔 부대가 존재하였기에 이미 장악이 끝났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42)</sup> 『邦訳日葡辞書』에 의하면, '시오키(仕置)'의 의미는 '정복한 나라나 토지에 작은 성채를 만드는 것, 또는 수비병을 두는 것'이다.<sup>43)</sup> 그 의미를 통해 보자면, 나카노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략거점성'이란 '안정적인 실효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전을 목표로 하여 설치·운영된 군사거점·성채'이다.<sup>44)</sup> 따라서 C의 지시에 근거하자면, B에서 간취해야 할 점은 최고지휘관인 히데요시의 목적, 즉 일본의 목적은 조선남부의 정복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목적이 제시된 2월 명령은 제3장~제5장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정유재란시 장수들의 군사행동의 근본적 조건이 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 4. 부산회의와 선봉의 전주집결

본 장에서는 1597년 7월 선봉 장수들이 개최한 부산회의로부터 장수들이 같은 해 8월에 전라도 전주에 집결하기까지 일본측의 군사행동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유재란의 서전은 1597년 7월 거제도 해전이다. 일본에서는 '가라시마[唐島] 전투'<sup>45)</sup> 한국에서는 '칠천량 해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투는,<sup>46)</sup> 이민웅씨가 '중요해전 중에서 최대 규모의

42) 前掲中野『戦争の日本史16 文禄・慶長の役』190~191쪽.

43) 『邦訳日葡辞書』(岩波書店, 1980年).

44) 前掲中野『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209쪽.

45) 『国史大辞典第三卷』(吉川弘文館, 1983年)の「唐島の戦」の項など.

46) 李炯錫『壬辰戦乱史 中巻』(東洋図書出版, 1977年) 등.

해전 중 하나'이며, '일본수군이 조선수군을 격파한 유일한 전투'라고 평한 바와 같이,<sup>47)</sup> 일본 측에게는 획기적인 승리였다.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의 사본인 '적선 격파 보고서[番船取申帳]'에 의하면,<sup>48)</sup> 일본측이 노획한 선박은 34척, 불태운 선박은 130척에 이른다.<sup>49)</sup> 후쿠하라 나가 나카는 노획선 1척을 탑재품과 함께 히데요시에게 진상했다. 10월 5일자 나가타카 앞 세이쇼 죠타이 저장안에 의하면<sup>50)</sup> 히데요시는 '각별히 감사를 표하셨다'라며 기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제도 해전의 승리는 '히데요시의 대오해', '히데요시의 착각'이 연장되는 데 공헌하고 말았다.<sup>51)</sup>

거제도 해전이 있었던 7월, 장수들은 모리 히데모토의 부산 도착과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선봉을 '두 부대[二手]'로 나누어 '적국 지역[赤國表]'을 침공하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히데요시는 이를 승인하였다.<sup>52)</sup> 장수들은 B에 의거하여 전라도 침공을 개시하게 되었고, 작전 시행 중에 A에 의거하여 부대편성을 '각각 상담하여' 결정하였던 것이다. 장수들에게 '전략적인 결정권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지만,<sup>53)</sup> 부대편성은 현지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결정에 의해 '두 부대' 즉 우군·좌군이 편성되었고 또한 별도로 수군도 편성되었다.<sup>54)</sup> (표3)

표3

| 부대 | 소속 장수                                                                                           |
|----|-------------------------------------------------------------------------------------------------|
| 좌군 | 우키타 히데이에, 하치스카 마사이에, 이코마 카즈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시마즈 요시히로, 모리 요시나리·모리 요시마사<br>※군메즈케는 오타 카즈요시, 다케나카 다카시게 |

47) 李敏雄 「丁酉再乱期における漆川梁海戦の背景と主要経過」 (黒田慶一編 『韓国の倭城と壬辰倭乱』 岩田書院, 2004年)395쪽.

48) 東京大学史料編纂所架蔵写真帳「対馬古文書」の「洲河文書」. 또한 이 문서에 대해 일찍부터 언급한 연구는 三鬼清一郎「朝鮮出兵における水軍編成について」(前掲三鬼『豊臣政権の法と朝鮮出兵』, 初出1968年)이다.

49) 이하, 津野倫明「巨濟島海戦に関する一注進状」(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19號, 2013年)참조.

50) 伊藤真昭·上田純一·原田正俊·秋宗康子編『相国寺蔵西笑和尚文案自慶長二年至慶長十二年』(思文閣出版, 2007年)15號.

51) 이러한 연장에 대해서는, 2017年3月10日·11일에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에서 개최된 2017 One Asia Forum/Korean Studies Lab Conference “The Imjin War in Premodern East Asia and its Aftermath”에서의 구두발표「文禄・慶長の役における日本の戦意」에서 언급했다.

52) 『下関市史 資料編Ⅳ』(下関市, 1996年)所収「長府毛利家文書」の「豊公朱章参」2號.

53) 前掲中野『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2 쪽.

54) 표3 및 이하의 서술에 대해서는,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 同「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 同「朝鮮出兵と西国大名」, 同「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등을 참조.

## 22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    |                                                                                                                                    |
|----|------------------------------------------------------------------------------------------------------------------------------------|
| 우군 | 모리 히데모토, 구로다 나가마사, 가토 기요마사, 나베시마 나오시게·나베시마 가즈시게, 조소카베 모토치카, 깃카와 히로이에, 이케다 히데카즈, 나카가와 히데시게<br>※군메즈케는 하야카와 나가마사, 가키미 카즈나오, 구마가이 나오모리 |
| 수군 | 도도 타카토라, 와키자카 야스하루, 가토 요시아키, 구루시마 미치후사, 간 미치나가, 간 유타치(同右八)<br>※군메즈케는 모리 토모시게                                                       |

부산회의후, 이들 세 부대는 부산, 혹은 그 주변으로부터 전라도로 향해 진군했다. 우군은 경상도를 북상하여, 8월 14일~16일 황석산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라도에 침공하여 전주에 이르렀다. 좌군은 경상도 남부를 하동까지 서진하여 마찬가지로 이 지역으로 서진해 온 수군과 8월 10일 경에 합류하고, 함께 전라도를 침공한 후 8월 13일 ~ 15일 남원성을 공략하고 전주에 이르렀다. 이렇게 세 부대의 군사 행동은 B에 의거하였던 것이다.

## 5. 전주회의와 충청도 침공·전라도 침공

본장에서는 1597년 8월 26일 전주회의에서의 제 결정과 이에 의거한 일본측의 군사행동을 확인하겠다.

전주에 집결한 장수들은 8월 26일에 회의를 열었다. 선봉 장수들이 그야말로 한 자리에 모인 회의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이후 장수들의 군사행동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도출된 다음과 같은 제 결정은 ‘多分ニ相究申候’ 즉 다수결에 의한 것이었다.<sup>55)</sup>

- ① 충청도 침공에 임하여 부대는 표4와 같이 재편성한다. (이하, 전주회의 이전의 부대편성과 구별하기 위해 <>로 표기하겠다. 수군의 경우에는 소속 장수의 변경이 없었다) 당연하겠지만, 부대 재편성의 전제인 충청도 침공도 이 때 결정되었을 것이다.
- ② 충청도 침공 후, <우군> 가토 기요마사와 <중군> 구로다 나가마사 두 부대에 <중군> 모리

55) 『中川家文書』(臨川書店, 1987年)76號. 해당 문서에는 ‘仕置城’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仕置之城’으로 표기한다. 이하, 전주회의의 제 결정과 실시상황에 대해서는,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 同「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 同「朝鮮出兵と西国大名」, 同「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 同「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 등을 참조.

히데모토 부대 중 2,000명을 더하여 함께 35,000명이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로 바로 돌아가, 가토 기요마사와 구로다 나가마사의 '성 지역[城所]'으로 이동하여 축성[普請]에 임한다. 또한 경상도로 향하는 '귀환로[罷戻ミチ筋]'를 진공(進攻)한다. 축성에는 경상도에 주둔하고 있는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아사노 요시나가 두 부대도 합류한다.

- ③ 충청도 침공 후, 기요마사 부대를 제외한 <우군>과 <중군> 히데모토 부대 일부(깃카와 히로이에가 인솔하는 '주고쿠 지역 부대') 그리고 <좌군>, 함께 78,700명이 전라도로 돌아가 '육해군이 함께 섬멸[海陸共ニ撫切]'에 임한다.
- ④ <수군> 7,000여 명은 충청도를 침공하지 않고, 전라도 연안으로 진격한다.
- ⑤ 전라도 침공이 종료 되는대로 '전략거점성' 축성에 임한다.

표4

| 부대   | 소속 장수                                                                                              |
|------|----------------------------------------------------------------------------------------------------|
| <좌군> | 우키타 히데이에, 하치스카 이에마사, 이코마 카즈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시마즈 요시히로<br>※군메츠키는 가키미 카즈나오, 구마가이 나옴ORI                   |
| <중군> | 모리 히데모토, 구로다 나가마사<br>※군메츠키는 하야카와 나가마사                                                              |
| <우군> | 가토 기요마사, 나베시마 나오시게·나베시마 가즈시게, 조소카베 모토치카, 히케다 히데카즈, 나카가와 히데시게, 모리 요시나리<br>※군메츠키는 오타 카즈요시, 다케나카 다카시게 |
| <수군> | 도도 다카토라, 와키자카 야스하루, 가토 요시아키, 구루시마 미치후사, 간 미치나가·간 유하치(同右八)<br>※군메츠키는 모리 토모시게                        |

이러한 제 결정은 2월 명령에서 히데요시가 제시한 전략에 따른 것이다. 즉, 결정은 다수결에 의하라는 A에, ①~④와 같이 전라도·충청도의 침공계획이 세워진 것이 B(②의 기요마사 등이 경상도로 바로 돌아간 것은 C)에, ⑤와 같이 전라도 침공 종료 후 '전략거점성' 축성이 확인되는 것은 C에, 각각 따르고 있다. 2월 명령에서 히데요시가 제시한 전략은 장수들의 군사행동에 근본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결정 중에서 ①④가 거의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후술할 1597년 9월 16일 정읍회의에서 작성된 '고려진 장수들의 지역 분할 및 부대편성 안[高麗陣諸將郡割並ニ陣立人数書出案]'이다.<sup>56)</sup> 이 안에서 후반부분에는 ①의 부대편성에 대응하는 형태로 장수들과 침공지역

## 24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이 적기되어 있고, 정음회의까지의 침공 개황을 알 수 있다.<sup>57)</sup> 그 개황을 정리한 것이 표5이다.

표5

| 부대   | 장수                  | 전라도            | 충청도        |
|------|---------------------|----------------|------------|
| 〈좌군〉 | 우키타 히데이에            | 沃溝             |            |
|      | 하치스카 이에마사, 이코마 카즈마사 | 臨陂             | 扶余         |
|      | 고니시 유키나가            | 益山, 咸悅         |            |
|      | 시마즈 요시히로            | 龍安             | 石城         |
| 〈중군〉 | 모리 히데모토             |                | 連山, 尼山, 公州 |
|      | 구로다 나가마사            | 高山, 礪山         | 恩津         |
| 〈우군〉 | 가토 기요마사             | 龍潭             | 鎮岑         |
|      | 나베시마 나오히데           | 錦山             | 懷德         |
|      | 조소카베 모토치카           | 珍山             |            |
|      | 이케다 히데카즈            | 기재없음           | 기재없음       |
|      | 나카가와 히데시게           | 기재없음           | 기재없음       |
|      | 모리 요시나리             | 茂朱             | 沃川         |
| 〈수군〉 | 장수명 기재없음            | 咸平, 務安, 珍島, 興陽 |            |

‘고려진 장수들의 지역 분할 및 부대편성 안[高麗陣諸將郡割並ニ陣立人数書出案]’ 후반부분은 어디까지나 적기한 것일 뿐이다. 장수들과 침공지역과의 관계는 표5와 같이 정연하였던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장수들이 연대하여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침공하였다.

우선 ②에서 충청도 침공은 경상도에 바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장수들의 군사행동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다.<sup>58)</sup> 구로다 나가마사의 경우 전라도 고산·여산, 그리고 충청도 은진이 남쪽에서부

56) 『佐賀県史料集成 古文書編第三卷』(佐賀県立図書館, 1958年)所収「鍋島家文書」133號.

57)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등을 참조.

터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으며, 모리 히데모토의 경우에는 충청도 연산·니산·공주가 마찬가지로 남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열거되어있다. 이들 침공지역을 나가마사와 히데모토 순으로 역자면 전주에서 공주로 향하는 북진루트가 된다. 이에 비해 가토 기요마사의 경우에는 그 동쪽에 위치하는 전라도 용담과 충청도 진잠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장수의 침공루트에 관해서는 나카오 히로시씨의 연구에 의하면, 8월 말에 기요마사와 군메츠케 오타 카즈요시 등이 충청도 청주를 향한 것에 비해, 나가마사와 히데모토는 함께 여산·은진 방면으로 침공했다고 추측하고 있다.<sup>59)</sup> 나가마사와 히데모토에 대해서 나카무라 히데타카씨는, 9월 1일부터 ‘여산·은진·연상 등을 경유하여 금강을 건너, 니산(노성) 등 연안 지방에 들어가’, 2일~3일 경에는 ‘공주로 진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60)</sup> 『宣祖實錄』에는 ‘은진·여산 등지에서 적과 싸웠다’면서 일본력 9월 2일에 은진·여산에서 교전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61)</sup> 이 전투에 나가마사가 참전하였던 것은 확실하며, 히데모토도 동행했을 것이다. 나가마사와 히데모토의 침공지역은 개별적으로 기재되어있으나, 두 장수는 8월 하순에 전주를 떠나 함께 고산·여산·은진, 나아가 연산·니산 순으로 북상하였고, 9월 초순에는 공주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12월 8일자 나가마사 앞 나즈카 마사이에 등의 연서장에 의하면,<sup>62)</sup> 나가마사 등은 공주 침공 후 충청도 천안을 침공하고, 9월 6일에는 충청도 직산에서 명군과 교전하였다고 한다.<sup>63)</sup> 이 직산 전투에 대해서는 ‘구로다 나가마사에게는 악몽과 같은 직산 전투’로, 명군이 일본측의 ‘한성 재점령이라는 전략적 야망을 분쇄하는 데 절대적 효과’가 있었으며, 일본측의 군사행동이 소극적으로 변한 한 계기였다는 설이 있다.<sup>64)</sup> 그러나 상기한 연서장에 의하면, 나가마사는 ‘대명인[大明人]’의 ‘패배’ 즉 ‘자군의 승리’를 선전하고 있으며, 그 ‘승리’는 히데요시에게도 피로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구로다·모리 부대로서는 적의 군세를 후퇴시키고, 경기도(죽산 부근-필자 주)에 대한 침공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명·조선측은 이 전투에서 전과를 올림으로써 한성침공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라는 나카노씨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sup>65)</sup> 충청도 진잠이 침공지역이었던 가토 기요마사는 9월 8일에는 충

58) 이하,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참조.

59) 仲尾宏「丁酉・慶長の役戦場と慶念」(朝鮮日々記研究会編『朝鮮日々記を読む』法蔵館, 2000年).

60) 中村栄孝『日鮮関係史の研究 中』(吉川弘文館, 1969年)231쪽.

61) 『李朝実録第二九冊』(学習院東洋文化研究所, 1961年)『宣祖實錄』卷92, 宣祖30年9月壬辰条.

62) 『黒田家文書 第一卷 本編』108號.

63) 이하, 前掲津野「黒田長政宛鼻請取状について」참조.

64) 前掲李『壬辰戦乱史 中巻』629~636쪽.

65) 前掲中野『戦争の日本史16 文禄・慶長の役』204쪽.

## 26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청도 북부 진천에 도착하였다. 진천에서 기요마사는 나가마사 등과 합류하여, 이후 전략에 대해 합의했다. 일거에 한성을 공략하자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경상도로 돌아가자는 안이 채택되어 일동은 이전에 기요마사가 침공한 청주로 향했다. 청주에서 나가마사는 다시 모리 부대와 합류하여 충청도 청산·황간, 나아가 경상도 성주 등을 경유하여 경상도 양산에 도착했다. 한편 기요마사는 경상도 상주·경주를 경유하여 10월 8일에 경상도 울산에 도착하였다.<sup>66)</sup> 이와 같이 진천에서의 합류와 합류 후 경상도로 회군하는 군사행동은 ②에서 규정된 것이었다.

또한 9월 5일 시점에서 <중군>에 속한 모리 부대 중 10,000명은 군메츠케 하야카와 나가마사와 전라도를 침공할 계획이었다. 후술하는 정읍회의에서는 깃카와 히로이에가 하야카와 나가마사와 함께 참가하고 있었는데, 모리 부대 10,000명의 지휘관은 히로이에였으며, 따라서 이 부대가 전라도를 침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리 부대의 분리는 ②③의 실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③에서 충청도 침공 후, 전라도로 돌아가 ‘육해군 함께 섬멸’한다는 계획이 세워져있던 <우군> <좌군>의 군사행동을 나베시마 나오시게와 시마즈 요시히로의 예를 통해 살펴 보겠다.<sup>67)</sup> ‘고려진 장수들의 지역 분할 및 부대편성 안’ 후반부에 의하면, 나베시마 부대는 <우군>의 일부로서 전주에서 금산, 그리고 충청도 회덕을 침공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宣祖實錄』에 의하면, 9월 3일 일본군이 전라도 북부 금산에서부터 충청도로 침입하여, 회덕·임천·한산 등을 방화·약탈하였다고 한다.<sup>68)</sup> 이 군사행동 모두를 <좌군> 시마즈 부대로 보는 설도 있으나 그것은 오류이다. 시마즈 부대는 8월 29일 전라도 용안, 9월 1일에는 충청도 석성을 침공하였고, 2일에는 부여, 4일에는 임천, 6일에는 한산을 침공하면서 전진하고 있었다. 용안과 석성에 관해서는 ‘고려진 장수들의 지역 분할 및 부대편성 안’ 후반부의 기재와 부합하고 있다. 임천·한산에 대해서는 시마즈 부대의 군사행동일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용안·석성의 위치에서 보자면 금산을 넘어 회덕을 침공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나베시마 부대에 의한 임천·한산 침공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하지만, 전주에서 금산, 그리고 회덕으로 침공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와 같이 나베시마 부대를 포함한 장수들이 전라도에서 충청도를 침공하였다는 사실은 정읍회의 다음날인 9월 17일자로 나베시마 카츠시게가 일본에 있는 가신들에게 보낸 서장 사본에서도 확인된다.<sup>69)</sup> 카츠시게는 장수들의 군사행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라도의 과반을 석권

66)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에서는 기요마사의 울산 도착을 11월 8일이라고 하였으나, 前掲中野「慶長の再派兵」지적과 같이 10월 8일이 맞다.

67) 이하,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참조.

68) 『宣祖實錄』卷92, 宣祖30年9月癸巳条.

하고 충청도까지 침공하였으며, 다시 전라도에 돌아와 주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군> <좌군>의 장수들은 ③에 의거하여 행동하고 있었다. 실제로 전주회의의 결정 ③에서 전라도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던 장수들은 정읍에 집결하여 정읍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으로, ④에서 충청도에 침공하지 않고 전라도 연안으로 진격하기로 계획된 <수군>의 군사행동을 살펴보겠다.<sup>70)</sup> ‘고려진 장수들의 지역 분할 및 부대편성 안’ 후분부분에는 <수군> 장수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정읍회의에도 참가하고 있지 않기에 기재되어 있는 전라도 연안부 지역 침공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군> 장수 앞으로 발급된 10월 15일자 히데요시 슈인조에서 제시되어 있듯이,<sup>71)</sup> 진도 주변을 침공하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슈인조는 9월 16일 명량 해전에서 구루시마 미치후사가 전사하였다는 보고를 접한 히데요시가 발급한 것이다. 명량은 우수영과 진도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수신자에도 착목하자면 구루시마 부대뿐만 아니라 도도 다카토라와키자가 야스하루가토 요시아카·간 미치나가와 군메츠케 모리 토모시게 등도 진도 주변을 침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군>에 편성된 장수들은 진도 등 전라도 연안부를 침공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6. 정읍회의와 전라도 침공‘전략거점성’ 축성

본장에서는 1597년 9월 16일 정읍회의의 결정과 이에 의거한 일본측의 군사행동을 확인하고자 한다.

전주회의 ③에서 전라도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던 장수들은 정읍에 집결하여, 9월 16일 정읍회의를 개최했다.<sup>72)</sup> 장수들은 결정사항과 침공상황을 히데요시에게 보고하기 위해 이시다 미츠나리 등 앞으로 연서장을 작성했다.<sup>73)</sup> 이 연서장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제 결정은 다음과 같다.

69) 『佐賀県近世史料 第一編第二巻』(佐賀県立図書館, 1994年)所収『勝茂公譜考補』200~201쪽.

70) 이하,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참조.

71) 『今治郷土史資料編古代・中世(第二巻)』(今治郷土史編さん委員会, 1989年)所収「久留島家文書」522쪽.

72) 이하, 정읍회의의 제 결정과 그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 同「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 同「朝鮮出兵と西国大名」, 同「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 同「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등을 참조.

73)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988號. 해당 문서에는 ‘仕置城’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仕置之城’으로 표기하였다.

## 28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 ❶ '적국' 중에서 남은 지역들[赤國うち相殘こほり / \] 즉, 전라도 미침공 지역에 대한 침공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침공 종료 후에는 '전략거점성'을 축성한다.
- ❷ 전주회의에서 정읍회의까지의 충청도·전라도 침공상황을 '지도[繪圖]'에 기재하여 히데요시에게 보고한다. (이 '지도'의 내용을 적기한 것이 전술한 '고려진 장수들의 지역 분할 및 부대편성 안'의 후반부이다)
- ❸ 장수들이 주둔과 축성에 임하는 '전략거점성'을 지을 지역을 결정하고 히데요시에게 보고한다. 고니시 유키나가가는 히데요시로부터 '백국(しろ國) 중에서' 즉 경상도 지역 안에 배치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적국 순천군 지역[赤國順天郡内]' 즉, 전라도 순천으로 변경한다.
- ❹ 히데요시로부터는 다치바나 무네시게의 부산 주둔이 지시되었으나, 부산은 일본과 조선 사이의 정보 전달 요지이므로 모리 요시나리가 주둔한다.
- ❺ ❹에 따라, 무네시게는 시마즈 요시히로·나베시마 나오시게가 주둔하는 '전략거점성' 사이에 하나의 성을 쌓고 주둔한다.

연서장의 차출처로부터 확인되는 회의 참가 장수는, 〈좌군〉 우키타 히데이에·하치스카 이에마사·이코마 카즈마사·고니시 유키나가·시마즈 요시히로(시마즈 타다츠네 포함)·군메츠케 가키미 카즈나오·구마가이 나오모리 〈우군〉 나베시마 나오시게·조소카베 모토치카(조소카베 모리치카 포함)·이케다 히데카즈·나카가와 히데시게 〈중군〉에서 분리된 모리 부대의 지휘관 잇카와 히로이에와 군메츠케 하야카와 나가마사이다. 이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읍회의는 전주회의 ❸에 따라 전라도에 돌아온 장수들이 개최한 회의였던 것이다. 다만 모리 요시나리만은 연서하지 않았는데, 이는 ❹에 의해 이미 부산으로 돌아갔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❶의 침공계획(혹은 계획안)을 보여주는 '고려진 장수들의 지역 분할 및 부대편성 안'의 전반부에는 요시나리가 담당하는 지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표6) 실제로는 아들 요시마사가 부젠[豊前] 지역 모리 부대와 휴가[日向] 지역 부대를 데리고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기에, 그 부대도 정읍에 집결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2월 명령과 전주회의 및 정읍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1598년 1월 26일자 우키타 히데이에 외 연서장에는 '지난해 적국 공략시에 정읍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수결에 부쳐 전략거점성 장소 및 축성병력 등을 대략 정했습니다[去年赤国御働之間ニ井邑と申所ニテ各相談仕, 多分ニ付テ, 御仕置之城所并御普請人数割等大方相究]'라고 되어있듯이,<sup>74)</sup> 정읍회의의 제 결정은 A에 따라 다수결에 따르고 있었다. ❶은 ①③⑤ 즉, B와 C에 따른 결정이다. ❷는 ①④의 실시 상황 즉, B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는 결정이다.

74)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1206號.

③~⑤는 ⑤ 즉, C에 따른 결정이다. 이와 같이 히데요시가 2월 명령에서 제시한 전략은 전주 회의·정읍회의의 결정, 나아가 정유재란시 일본측 군사행동의 근본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고려진 장수들의 지역 분할 및 부대편성 안’ 전반부는 ‘1번 지역 분할 담당에 대한 건[一番郡割之事]’ ‘2번째 지역 분할 담당에 관한 건[二番目郡割之事]’ 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라도 지역명과 그에 대한 담당 장수가 열거되어 있고, 뒤에 기재된 지역이 앞에 기재된 지역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1번’ ‘2번째’ 등의 명칭과 같은 순으로 전라도를 남하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한편 ‘수군 부대[船手衆]’ 즉, <수군>의 경우 ‘1번 지역 분할 담당에 대한 건’에 기재된 지역명은 ‘고려진 장수들의 지역 분할 및 부대편성 안’ 후반부에도 기재되어 있다. (표5) 전주회의의 ④에 따라 전라도 연안을 침공하였던 <수군>이 정읍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침공상황이 불명하였기에 발생한 혼란일 것이다.

표6

| 장수                                 | ‘1번 지역 분할<br>담당에 대한 건’ | ‘2번째 지역 분할<br>담당에 대한 건’ |
|------------------------------------|------------------------|-------------------------|
| 시마즈 요시히로<br>※요시히로는 사천으로, 타다즈네가 지휘  | 万頃, 扶安                 | 康津, 海南                  |
| 나베시마 나오시게<br>※나오시게는 마산으로, 카즈시게가 지휘 | 金溝, 金堤                 | 和順, 綾城                  |
| 모리 요시나리<br>※요시나리는 부산으로, 요시마사가 지휘   | 興德                     | 同福                      |
| 조소카베 모토치카                          | 古阜                     | 羅州                      |
| 이케다 히데카즈·나카가와 히데시게                 | 泰仁                     | 光州                      |
| ‘주고쿠 부대’(깃카와 히로이에 등)               | 茂長, 靈光                 | 珍原, 昌平                  |
| 하치스카 이에마사·이코마 카즈마사                 | 井邑, 高敞                 | 南平, 靈岩                  |
| 우키타 히데이에                           | 長城, 潭陽                 | 宝城, 長与                  |
| 고니시 유키나가                           | 浮呂, 玉果, 谷城             | 樂安, 順天, 光陽              |
| ‘수군 부대’(<수군>)                      | 咸平, 務安                 | 興瑞                      |

### 30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아래에서 제시할 장수들의 군사행동으로부터 보자면, ‘1번 지역 분할 담당에 대한 건[一番郡割之事]’ ‘2번째 지역 분할 담당에 관한 건[二番目郡割之事]’은 어디까지나 계획(혹은 계획안)이었다. 예를 들어, 나베시마 부대의 경우, 전자는 금구김제, 후자에서는 화순·능성이 담당 지역이었는데, 금구김제에는 침공한 사실이 확인되나, 화순·능성은 알 수 없다. 한편, 후바에서 시마즈 부대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던 강진에는 주둔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깃카와 히로이에 등 ‘주고쿠 부대’의 경우, 전자에서는 무장·영광, 후자에서는 진원·창평인데, 영광과 진원에 침공한 사실은 확인되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치스카 부대의 경우, 9월 27일에는 휘하의 모리 수군이 정희득을 영광 연해에서 사로잡고 있다. 바로 이 영광 지역은 전술하였듯이 깃카와 히로이에 등의 담당 지역인데 하치스카 부대가 침공하기 이전에 침공한 바 있다. 아마 하치스카 부대는 우선 정읍에서 고창으로 진격한 후, 영광을 거쳐 남평·영암을 침공하였다고 추측된다. 한편 표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치스카 부대와 이코마 부대는 함께 행동하고 있었는데, 전주 회의 이래 하치스카·이코마 부대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경우, ㉓에 따라 ‘2번째 지역 분할 담당에 관한 건’에 기재된 순천에서 ‘전략거점성’을 축성하였고 그곳에 주둔하였다. 조소카베 부대에 대해서는 2차적 사료이긴 하지만 『모토치카기[元親記]』에 의거하자면,<sup>75)</sup> 고부나주를 침공했다는 부분이 보인다. 이상과 같이 ‘1번 지역 분할 담당에 대한 건[一番郡割之事]’ ‘2번째 지역 분할 담당에 관한 건[二番目郡割之事]’에 기재된 대로 계획이 실시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읍회의 이후 장수들이 ㉑에 따라 전라도 미침공 지역을 침공했다는 것은 틀림없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나베시마 부대와 시마즈 부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sup>76)</sup>

㉓㉔㉕와 같이 장수들은 ‘전략거점성’ 담당을 결정했다. 나베시마 부대가 담당한 것은 창원의 마산왜성이었고 시마즈 부대의 담당은 사천왜성이었다. 따라서 나오시게는 창원으로 이동했고, 전라도 침공을 지휘한 이는 아들 카츠시게였다. 이는 시마즈 부대와 부젠 모리 부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요시히로가 사천왜성으로, 요시나라기 부산왜성으로 이동하였고, 각각 아들 다타츠네와 요시마사가 전라도 침공에 임했다.

10월 1일자 나베시마 카츠시게 앞 가키미 카즈나오·구마가이 나오모리·하야카와 나가마사 연서 코 영수증에 의하면,<sup>77)</sup> 나오시게와 헤어진 카츠시게가 ‘1번 지역 분할 담당에 대한 건’대

75) 『元親記』(『統群書類従 第二十三輯上』統群書類従完成会, 1927年).

76) 이하, 특히 前掲津野, 「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 참조.

77) 東京大学史料編纂所蔵写真帳「大阪城天守閣所蔵文書」.

로 정읍에서 다시금 북상하여 9월 중에 금구김제에서 ③에 따라 ‘섬멸’작전에 임했다는 것이 판명된다. ‘2번째 지역 분할 담당에 관한 건’에서 나베시마 부대의 담당 지역은 화순·능성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카츠시게가 두 지역을 침공한 형적은 없다. 한편, 강진을 침공하고 주둔하였다는 것은 확인된다. 장수들은 농민지배를 위해 환주를 요구하는 방문(榜文)을 각지에 내걸었다. 방문은 1597년 9월자로, 우키타 히데이에의 이름으로 발급된 것과 다른 장수들의 연서로 발급된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 『鍋島家文書』에 수록된 전라도 ‘全羅道康津県定榜文写’, 『直茂公譜考補』에 수록된 ‘慶尚道昌原·恭原定榜文写’, 『島津家文書』에 수록된 ‘全羅道海南定榜文写’가 확인된다.<sup>78)</sup> 후자의 경우 『島津家文書』에 수록된 ‘全羅道海南定榜文写’, ‘慶尚道昆陽定榜文写’, ‘慶尚道丹城定榜文写’가 확인되며, 또한 『直茂公譜考補』에 의하면 ‘慶尚道昌原·恭原定榜文写’도 있었다고 생각된다.<sup>79)</sup> ‘海南定榜文写’와 ‘昌原·恭原定榜文写’의 예에서 보자면, 히데이에 단독 방문과 장수들이 연서한 방문이 한 세트가 되어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히데이에와 연서한 장수들이 정읍회의의 참가자였다는 점에서 보자면, 방문은 정읍회의 때에 일괄하여 작성된 후, 해당 지역 담당 장수들이 배포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방문 사본의 잔존 상황으로부터 미루어보자면, 나베시마 부대가 주둔하면서 지배를 시도한 지역은 전라도 강진, 경상도 창원·공원이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창원은 마산 왜성이 있고, 이 성을 축성하고 주둔하기 위해 나오시게가 이동하였으므로, 나오시게가 주둔지배에 임하였을 것이다. (공원은 창원 부근에 있던 지역으로 생각된다) 강진은 카츠시게가 담당한 지역이었다.<sup>80)</sup> 카츠시게는 정읍에서 일단 북상하여 금구김제를 침공한 후, 주둔지배를 위해 강진으로 남하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화순·능성을 경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전술한 대로 그러한 형적은 보이지 않는다. ‘2번째 지역 분할 담당에 관한 건’에서는 강진과 해남이 시마즈 요시히로의 담당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요시히로는 사천 왜성으로 이동하였고, 그의 아들 타다츠네가 해남을 침공했다. 이 타다츠네 주둔지에 9월 26일부터 카츠시게의 부하가 빈번히 방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진과 해남 관계에서 보건대, 카츠시게는 이 당시에는 강진에 도착해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11월 3일자 타다츠네 앞 후쿠하라 나가타카 서장에 의하면,<sup>81)</sup> 타다츠네는 10월 10일에 해남을 출발하여, 같은 달 28일에

78) 『鍋島家文書』 122號, 『佐賀県近世史料 第一編第一卷』(佐賀県立図書館, 1993年)所収 『直茂公譜考補』 750~751쪽,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 970號.

79)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 971號, 972號, 973號, 『直茂公譜考補』 751쪽.

80) 『勝茂公譜考補』 200~201쪽.

81) 『鹿児島県史料旧記雑録 後編三』 337號.

## 32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는 사천에 도착하였으며, 도중에 카즈시게와 합류하여 남원까지 동행했다. 남원에서 타다츠네는 부친 요시히로가 기다리는 사천으로 향했고, 카즈시게는 부친 나오시게가 기다리는 창원으로 향했다. 두 사람의 이동은 ❶에 따른 ‘전략거점성’의 축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정읍회의 후에 전라도를 침공한 장수들, 그리고 전주회의 ④에 의해 전라도 연안으로 진격한 〈수군〉 장수, 모두가 전주회의 ⑤에 따라 ‘전략거점성’ 축성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 ‘전략거점성’ 축성을 살펴보겠다.<sup>82)</sup> 조소카베 모토치카·이코마 히데카즈·나카가와 히데시게·모리 요시마사·후가 부대와 군메츠케 가키미 카즈나오는 10우리 하순부터 시마즈 요시히로가 주둔하는 사천 왜성을 축성했다. 하치스카 이에마사는 10월 중순과 12월 하순에 창원에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므로,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주둔하는 마산 왜성을 축성하였다고 생각되며, 종전에 한 부대로 행동했던 이코마 카즈마사도 참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2월 2일자 우키타 히데이에·도도 다카토라 앞 고니시 유키나가 서장 사본에는 ‘적국 지역 순천 여성(御城)의 축성이 모두 마무리되어 (성을) 접수하였습니다. [赤國之内順天之御城御普請悉相済、請取申候]’라고 하여, 히데이에·다카토라 두 사람이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순천 왜성 축성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3)</sup> 이 순천 왜성 축성은 후술하겠지만 놀랄 만한 상황을 불러왔다. 가토 요시아키는 소 요시토시가 주둔한 남해 왜성 축성에 임하였고, 구루시마 요시키요(전사한 미치후사의 동생)도 참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구로다 나가마사와 모리 히데모토는 충청도 청주에서 청산·횡간, 나아가 경상도 성주 등을 거쳐 양산에 도착하였고, 가토 기요마사는 상주를 경유하여 10월 8일에 울산에 도착했다. 구로다 나가마사는 양산 왜성에 주둔하게 되었고, 축성은 주로 히데모토 지휘하의 모리 부대가 담당했다. 기요마사는 서생포 왜성에 들어갔는데, 기요마사가 이후에 주둔하게 되는 울산 왜성의 축성은 아사노 요시나가와 시시도 모토츠구 지휘하의 모리 부대가 담당했다. 이러한 ‘전략거점성’ 축성은 전주 회의의 ② 즉, C에 규정된 군사행동이었다.

이상과 같은 ‘전략거점성’ 축성에 의해, 정유재란시에는 조선남부인 울산·양산·마산·고성·사천·남해·순천에 성이 새로 만들어졌다. 즉, C가 실현되었던 것이다.

82) 이하, 笠谷和比古·黒田慶一 『秀吉の野望と誤算』(文英堂, 2000年), 白峰旬 『文禄・慶長の役における秀吉の城郭戦略』(同 『豊臣の城・徳川の城』校倉書房, 2003年, 初出2001年), 太田秀春 『序章』(同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清文堂出版, 2006年), 織豊期城郭研究会編 『倭城を歩く』(サンライズ出版, 2014年), 前掲津野 『朝鮮出兵と西国大名』, 同 『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 同 『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 등을 참조.

83) 『大日本古文書 浅野家文書』255號. 行長も普請にあたっていた点に関しては太田秀春 『倭城の「城下」と「叛逆」朝鮮人』(前掲太田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참조.

## 7. 일본측의 조선남부지배와 히데요시의 순천 왜성·울산 왜성에 대한 집념

제3장~제5장에서는 일본측 장수들의 전라도·충청도 침공과 그 이후의 ‘전략거점성’ 축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군사행동이 정유재란시 일본의 목적은 조선남부의 정복이라는 지론의 논거이다. 다만 주둔 지배에 대해 약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정복의 제1단계에 해당하는 침공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정복의 제2단계에 해당하는 지배 상황을 검토하고, 지론에 대한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앞장에서 언급한 나베시마 카츠시게의 강진에서의 주둔 지배를 살펴보겠다.<sup>84)</sup> 1597년(게이초2) 9월 23일자 이코마 카즈마사 앞 구마가이 나오모리 외 연서장 사본에 의하면,<sup>85)</sup> 나오모리 등의 군메츠케는 ‘이번 납부에 대하여, 5분의 1을 받을 것인지, 4분의 1을 운송할 것인지,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볍게 여겨 판단에 실수가 없도록 할 것[当納之儀, 五の物を一ツ可致納所歟, 又四分一可運上歟, 百姓請相候様ニ, かろ／＼と不可過御分別事]’ 등, 다기에 걸쳐 농민지배에 관한 지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한 조언이라는 사실로부터 볼 때, 방문(榜文)이 주둔 지역에 내걸려 그에 입각한 지배가 시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판명된다. 나아가 연서장의 추신에 의하면, 이러한 지시·조언은 카츠시게와 시마즈 타다츠네에게도 전달되었다. 카츠시게의 종군승 다이쵸인 메이린(泰長院明琳)이 작성한 ‘全羅道康津県十八社数書出’에는,<sup>86)</sup> ‘4분의 1 및 5분의 1의 쌀, 1152석 12두 일본에 상납할 것’이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 문서는 ‘납곡지정문서[納穀割付状]’로 보고 있다.<sup>87)</sup> 날짜는 카츠시게가 강진을 출발할 때인 1597년 10월 9일이므로, 수납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미묘한 부분이 있으나, 카츠시게가 군메츠케의 지시에 따라 강진 주둔 지배에 임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나카노씨는 ‘불완전하나마 조선의 재지사회와 ‘일본’ 사이에는 연공(年貢) 상납 계약이 성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88)</sup>

이 지적과 관련하여 놀랄 만한 다음과 같은 상황은, 오타 히데하루씨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sup>89)</sup> 1597년 10월 경, 순천 왜성 축성에서 ‘면사첩(免死帖)’ (노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

84)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참조.

85) 『鹿児島県史料旧記雑録 後編三』313號.

86) 「鍋島家文書」123號.

87) 前掲中村『日鮮関係史の研究 中』217~219쪽.

88) 前掲中野『戦争の日本史16 文禄・慶長の役』219쪽.

### 34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가로 얻은, 그야말로 생명 보장증서'로 여겨지는 것)을 지닌 조선 민중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진영에서 노역에 종사하고 있었다.<sup>90)</sup> 또한 같은 해 12월 22일에 일어난 울산 전투에서는, 울산 왜성에 약500명의 조선인이 농성하고 있었는데, 무기를 소지하고 '조적(助賊)', 다시 말해 일본측을 돕고 있었다.<sup>91)</sup> 이러한 상황에 착목한 오타씨는, 정유재란시에는 '도요토미 정권이 기획하고 있던 조선의 영토화가 진행되고 있던 양상을 확실히 목격할 수 있었다', '면사첩'을 발급하여 노역에 동원하는 등 임진왜란시보다 '한층 진전된 지배를 실현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카노·오타 두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일본의 목적인 조선남부의 정복이 일단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성 부대가 처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에 놓였던 울산 전투를 계기로, 장수들 사이에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1598년 1월 26일, 우키타 히데이에·모리 히데모토 등은 정음 회의에서 결정되었고 히데요시에게도 보고를 마친 제 계획을 변경하자는 요청을 올렸다.<sup>92)</sup>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전선 동쪽 끝인 울산 왜성을 방기하고, 주둔 장수인 기요마사를 서생포 왜성으로 이동시키고, 그 공사는 모리 부대가 담당한다. 전선 서쪽 끝인 순천 왜성도 방기하고, 주둔 장수인 고니시 유키나가를 사천 왜성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연동하여 사천 왜성 주둔 장수인 시마즈 요시히로와 부선 왜성 주둔자인 모리 요시나리를 고성 왜성으로 이동시키며, 이 공사는 우키타도도 두 부대가 담당한다. 나아가 양산 왜성을 방기하고, 주둔자인 구로다 나가마사를 구포 왜성으로 이동시키며, 공사는 모리 무대가 담당한다. 울산 왜성 방기의 이유는 '울산은 앞서 (히데요시님의) 판단에 따라 정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잘 살펴보니 지역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강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방어하기) 불안한 지역입니다. [蔚山之儀, 最前御左右次第ニ可相定と雖致言上候, 能々吟味仕候へハ, 所柄出過, 難所川越ニテ, 以来迄無心元所ニテ御座候]', 순천 왜성 방기의 이유는 '고니시가 주둔하는 순천은, 큰 강을 건너 있으며, 가는 길이 험하고, 배를 정박시킬 곳에 갯벌이 넓게 깔려있으므로, 만약의 경우 육지와 바다로 모두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小西在城順天之儀, 大河をへたて, 路次筋難所ニテ手苦候て, 船付遠干潟に候へハ, 自然之時, 海陸共ニ加勢難成所ニテ御座候]'로 제시되었다. 모두 구원시 곤란함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전선 축소책은

89) 前掲太田「倭城の「城下」と「附逆」朝鮮人」.

90) 『宣祖實錄』卷93, 宣祖30年10月己卯条.

91) 『宣祖實錄』卷97, 宣祖31年2月丁巳条.

92)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1206號. 이하,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 同「軍目付垣見一直と長宗我部元親」등 참조.

히데요시의 역린을 건드리게 되었다.

히데요시는 하치스카 이에마사·구로다 나가마사를 전선 축소책을 ‘부추긴 자[興行人]’로서 견책하고, 군메츠케인 하야카와 나가마사, 다케나가 다카시게, 모리 토모시게 등을 ‘가장 쾌심한 자[第一之曲者]’라며 꾸짖었다.<sup>93)</sup> 이와 좋은 대비가 되는 일이 가토 요시아키에 대한 처우이다. 1598년 5월 3일자 요시아키 앞 히데요시 슈인쥬에 의하면,<sup>94)</sup> 히데요시는 요시아키의 공적, 그 중에서도 전선 축소책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포상하여 37,100석의 가증을 결정하고, 구니모치 다이묘(國持大名)로 삼는 복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별이 보여주듯이, 히데요시는 울산·순천 왜성에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히데요시는 양산 왜성의 방기는 허용했으나, 울산·순천 왜성의 방기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울산 전투 당시에 울산 왜성에는 약 500명의 조선인이 농성하면서 일본측을 도왔으며, 순천 왜성 공사에는 ‘면사첩’을 지닌 조선 민중이 노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정유재란에서 ‘전략거점성’으로서 신축된 두 성의 주변에서는 ‘도요토미 정권이 기획한 조선 영토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거점성’을 히데요시가 2월 명령에서 선봉의 가장 앞에 지명한 가토 기요마사·고니시 유키나가 두 사람이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은, 히데요시가 입안한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였다. 즉, 조선남부인 경상도는 물론, 전라도도 정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중에서도 순천 왜성은 ‘적국’ 즉 전라도의 ‘전략거점성’이라는 의미가 존재하고 있었다. 순천 왜성의 방기를 허락한다면, 최고 지휘관인 히데요시 자신이 전라도 정복의 실패, 즉 정유재란의 일본측 좌절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히데요시의 지시대로 주둔을 지속하게 된 유키나가도 또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순천 왜성 접수 당시인 12월 2일자 유키나가 서장 사본에서 ‘적국 지역 순천 어성(御城)’이라고 하였던 바와 같이, 유키나가는 순천 왜성을 ‘적국’에 설치된 히데요시의 ‘어성(御城)’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애초에 전선 축소론에 동의하지도 않았다.<sup>95)</sup> ‘적국’ 유일의 ‘전략거점성’으로서 신축된 순천 왜성은 전라도 정복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히데요시는 울산 왜성과 함께 순천 왜성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와 같이 히데요시가 집착의 괴물[執心の鬼]이 되어가고 있었던 사실은 정유재란시의 목적이 조선남부의 정복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93)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 978號.

94) 東京大学史料編纂所架蔵影写本「近江水口加藤文書」.

95)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 978號, 1206號.

## 8. 맺음말

본고의 과제는, 정유재란시의 일본의 목적에 관한 지론을 제시하고, 그 지론의 논거인 정유재란시 일본측의 군사행동을 확인한 후, 지론에 대한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는 것에 있었다.

제1장에서는, 정유재란시 일본의 목적은 조선남부의 정복이었으며, 클라우제비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유재란은 ‘제2의 전쟁’이라는 지론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지론의 대전제는 히데요시의 조선명에 대한 인식 즉, ‘히데요시의 대오해’ ‘히데요시의 착각’이다.

제2장에서는, 정유재란 당초인 1597년 2월 21일에 내려진 명령에서 히데요시가 도해 장수들에게 제시한 전략을 검토했다. 전략의 골자는 이하와 같았다.

- A : 선봉[先手](표1)의 군사행동은 장수들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 B : 선봉은 우선 전라도를 제압하고, 충청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침공한다.
- C : B가 종료된 후에 ‘전략거점성[仕置之城]’을 쌓을 지역을 선정하고 장수들의 다수결로 결정한 후, 축성 등은 귀국이 예정된 장수가 담당한다.

B에서 경상도에 관한 지시가 없는 것은, 이미 장악이 끝났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C의 ‘전략거점성’에 관한 지시에 근거하자면, B로부터는 최고 지휘관인 히데요시의 목적 즉, 일본의 목적은 조선남부의 정복이었다는 사실을 간취해야할 것이다. 이 2월 명령에서 히데요시가 제시한 전략은 제3장~제5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주회의·정읍회의의 제 결정, 나아가 정유재란시 일본측의 군사행동의 근본적 조건이었다.

제3장에서는 1597년 7월 부산회의에서의 결정과 이에 기반한 일본측 군사행동을 확인했다. 이 회의에서는 선봉을 ‘두 부대’로 나누어 전라도를 침공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표3) 경상도를 북상한 우군은 8월 14~16일에 황석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전라도 전주에 이르렀고, 경상도 남부를 서진한 좌군과 수군은 하동에서 합류하여 8월 13~15일에 전라도 남원성을 공략한 후 전주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부산회의의 결정과 전라도 침공은 2월 명령, 그 중에서도 A와 B를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조선남부 정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제4장에서는 상기한 선봉 장수들이 한 곳에 모여 개최한 전주회의의 제 결정과 이에 근거한 일본측의 군사행동을 확인했다. 제 결정은 이하와 같았다.

- ① 충청도 침공에 임하여 부대는 표4와 같이 재편성한다. (표4) 당연히 부대 재편성의 전제인 충청도 침공도 이 때 결정되었을 것이다.
- ② 충청도 침공 후, <우군> 가토 기요마사와 <중군> 구로다 나가마사 두 부대, 그리고 <중군> 모리 히데모토 부대의 일부는 경상도로 바로 돌아가며, 가토 기요마사와 구로다 나가마사의 '성 지역[城所]'으로 이동하여 축성[普請]에 임한다. 또한 경상도로 향하는 '귀환로[罷戻ミチ筋]'를 진공(進攻)한다. 축성에는 경상도에 주둔하고 있는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등도 합류한다.
- ③ 충청도 침공 후, 기요마사 부대를 제외한 <우군>과 <중군> 히데모토 부대 일부(깃카와 히로이에게 인솔하는 '주گو쿠 지역 부대') 그리고 <좌군>은 전라도로 돌아가, 육해군이 함께 섬멸[海陸共ニ撫切]에 임한다.
- ④ <수군>은 충청도를 침공하지 않고, 전라도 연안으로 진격한다.
- ⑤ 전라도 침공이 종료 되는대로 '전략거점성' 축성에 임한다.

이러한 제 결정이 다수결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은 A를, ①~④와 같이 전라도-충청도의 침공계획이 세워진 것은 B(②의 기요마사 등이 경상도로 직접 돌아간 것은 C)를, ⑤와 같이 전라도 침공 종료 후 '전략거점성' 축성이 확인되는 것은 C를, 각각 조건으로 삼고 있다. ①④는 거의 실시되었으며, 장수들은 전라도-충청도 각지를 침공하였다. (표5). 또한 ②의 결정대로 기요마사나가마사와 모리 히데모토 부대 일부는 두 도를 침공한 후 경상도로 돌아왔다. ②③의 실시에 해당하는 모리 히데모토 부대의 분리도 관찰된다. 이와 같은 전주회의의 제 결정과 충청도 침공-전라도 침공은 2월 명령 A~C를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조선남부 정복을 목적으로 한 군사행동에 다름 아니다.

제5장에서는 ③에서 전라도에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 장수들이 9월 16일에 개최한 정읍회의의 제 결정과 이에 기반한 일본측의 군사행동을 확인했다. 회의의 제 결정은 이하와 같았다.

- ❶ 전라도 미침공 지역에 대한 침공계획을 정하고 실행한다. 침공 종료 후에는 '전략거점성'을 축성한다.
- ❷ 정읍회의까지의 충청도-전라도 침공상황을 '지도[繪圖]'에 기재하여 히데요시에게 보고한다.
- ❸ 장수들이 주둔과 축성에 임하는 '전략거점성'을 지을 지역을 결정하고 히데요시에게 보고한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히데요시로부터 경상도 지역 안에 배치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전라도 순천으로 변경한다.
- ❹ 부산 주둔 장수는 다치바나 무네시게에서 모리 요시나리로 변경한다.
- ❺ 다치바나 무네시게는 시마즈 요시히로와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주둔하는 '전략거점성' 사이의 1개 성에 주둔한다.

## 38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이와 같은 제 결정도 A에 따라 다수결에 의했다. ❶은 ①③⑤ 즉, B와 C에 따른 결정이다. ❷는 ①④의 실시 상황 즉, B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는 결정이다. ❸~❺는 ⑤ 즉, C에 따른 결정이다. ❶에서 결정된 전라도 침공 계획(표6)은 계획대로 실시되었던 것은 아니나, 장수들이 전라도 미침공 지역을 침공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 침공 후에는 마찬가지로 ❶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전략거점성’을 축성했다. 또한 ❹❺에 따라 모리 요시나리가 부산 왜성,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마산 왜성, 시마즈 요시히로가 사천 왜성으로 각각 이동했다. 한편, ② 즉, C에 따라 경상도로 돌아간 구로다 나가마사는 양산 왜성에,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 왜성에 주둔하게 되었고, 모리 히데모토 등이 두 성의 축성을 담당했다. ‘전략거점성’ 축성에 의해 정유재란시에는 울산·양산·마산·고성·사천·남해·순천에 성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정읍회의의 제 결정과 그 이후의 전라도 침공 ‘전략거점성’ 축성도 모두 2월 명령 A~C를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조선남부 정복을 목적으로 한 군사행동에 다름 아니었다.

제2장~제5장의 고찰에 의해, 2월 명령의 전략에서 간취해야 할 정유재란시 히데요시의 목적 즉, 일본의 목적은 조선남부의 정복이며, 이 2월 명령을 근본적인 조건으로 삼아 전개된 정유재란시 일본측의 군사행동은 조선남부의 정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군사행동이 일본의 목적에 관한 지론의 논거이나, 논거는 대부분 정복의 제1단계인 침공의 확인에 그쳤다.

따라서 제6장에서는 지론에 대한 새로운 논거를 제시해야했고, 정복의 제2단계에 해당하는 지배 상황을 검토했다. 제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수들은 정읍회의에서 농민지배를 위해 환주 등을 요구하는 방문을 작성하였고, 전라도·경상도에서의 주둔 지배를 시도했다. 예를 들면, 전라도 강진에서 주둔 지배에 임한 나베시마 카츠시게는 ‘납곡지정문서[納穀割付狀]’까지 작성하였는데, 나카노 히토시씨는 ‘불완전하나마 조선의 재지사회와 ‘일본’ 사이에는 연공(年貢) 상납 계약이 성립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❸대로 실시된 순천 왜성 축성은 ‘면사첩’을 지닌 조선 민중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진영에서 노역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울산 전투에서는 무장한 약 500명의 조선인이 울산 왜성에서 농성하며 일본측을 돕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착목한 오타 히데하루씨는 정유재란시에는 ‘도요토미 정권이 기획하고 있던 조선의 영토화가 진행되고 있던 양상을 확실히 목격할 수 있다’, 임진왜란시보다 ‘한층 진전된 지배를 실현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나카노·오타 두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일시적이기는 하나 조선남부의 정복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났고, 우키타 히데이에 등은 전선 축소 동쪽 끝인 울산 왜성과 서쪽 끝인 순천 왜성을 방기하는 전선 축소책을 히데요

시에게 제안하였다. 히데요시는 하치스카 이에마사 등을 전선 축소책을 ‘부추긴 자[興行人]’로서 견책하고, 군체츠케 하야카와 나가마사 등을 ‘가장 패심한 자[第一之曲者]’라며 꾸짖는 한편, 전선 축소책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상으로서 가토 요시아키에게 37,000석을 가증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벌이 보여주듯이, 히데요시는 울산·순천 왜성에 집념을 가지고 있었고, 두 성의 방기를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유재란시기 ‘전략거점성’으로서 새로 축성된 두 성의 주변에서는 ‘도요토미 정권이 기획한 조선 영토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선 양단의 ‘전략거점성’을 히데요시가 2월 명령에서 선봉의 가장 앞에 지명한 가토 기요마사·고니시 유키나가 두 사람이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은, 히데요시가 입안한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순천 왜성의 방기를 허락하는 것은 최고 지휘관인 히데요시 자신이 전라도 정복의 실패 즉, 정유재란의 일본측 좌절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적국’ 유일의 ‘전략거점성’으로서 신축된 순천 왜성은 정유재란시 전라도 정복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히데요시는 울산 왜성과 함께 순천 왜성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히데요시가 집착의 괴물[執心の鬼]이 되어가고 있었던 사실은 정유재란시의 목적이 조선남부의 정복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지론에 대한 새로운 논거가 된다.

히데요시는 정유재란시에도 궁극적인 목적으로서는 명 정복을 계속해서 주창하고 있었으며, ‘기해재재란’이라고도 할 만한 전란도 야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2월 명령에서 제시된 전략과 이를 근본적 조건으로 삼아 전개된 군사 행동, 그리고 전라도 정복의 상징인 순천왜성에 대한 히데요시의 집착, 이러한 사실이 명시하듯이, 정유재란은 조선남부의 정복을 목적으로 한 ‘제2의 전쟁’에 다름 아니었다.

[付記]

本稿는 JSPS科研費(JP16K03016) 조성금을 받은 것임.

〈参考文献〉

跡部信『豊臣政権の権力構造と天皇』（戎光祥出版, 2016年）

李炯錫『壬辰戦乱史 中巻』（東洋図書出版, 1977年）

李敏雄「丁酉再乱期における漆川梁海戦の背景と主要経過」（黒田慶一編『韓国の倭城と壬辰倭乱』岩田書院, 2004年）

太田秀春『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清文堂出版, 2006年）

笠谷和比古・黒田慶一『秀吉の野望と誤算』（文英堂, 2000年）

北島万次『朝鮮日々記・高麗日記』（そしえて, 1982年）

『豊臣政権の対外認識と朝鮮侵略』（校倉書房, 1990年）

「壬辰倭乱における二つの和議条件とその風聞」（同他編『日朝交流と相克の歴史』校倉書房, 2009年）

クラウゼヴィッツ著・篠田英雄訳『戦争論(上)』（岩波書店, 1968年）

清水克行『耳鼻削ぎの日本史』（洋泉社, 2015年）

織豊期城郭研究会編『倭城を歩く』（サンライズ出版, 2014年）

白峰旬『豊臣の城・徳川の城』（校倉書房, 2003年）

鄭杜熙・李璟珣編著『壬辰戦争』（明石書店, 2008年）

田中健夫『対外関係と文化交流』（思文閣出版, 1982年）

田保橋潔「壬辰役雑考」（『青丘学叢』第14號, 1933年）

津野倫明「文禄・慶長の役における毛利吉成の動向」（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9號, 2002年）

「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海南史学』第42號, 2004年）

「朝鮮出兵の在番体制に関する一朱印状写」（『日本歴史』第684號, 2005年）

「朝鮮出兵における鍋島直茂の一時帰国について」（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13號, 2006年）

「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織豊期研究』第8號, 2006年）

「朝鮮出兵と西国大名」（佐藤信・藤田覚編『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 2007年）

「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地方史研究協議会編『歴史に見る四国』雄山閣,

2008年)

「黒田長政宛鼻請取状について」(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17號, 2011年)

『長宗我部氏の研究』(吉川弘文館, 2012年)

「巨済島海戦に関する一注進状」(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19號, 2013年)

「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高橋典幸編『戦争と平和』竹林舎, 2014年)

「日本文献の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の記録とその限界」(『東国史学』第62輯, 2017年6月30日予定)

徳富猪一郎『近世日本国民史 豊臣氏時代丁篇朝鮮役 上巻』(民友社, 1925年)

仲尾宏「丁酉・慶長の役戦場と慶念」(朝鮮日々記研究会編『朝鮮日々記を読む』法蔵館, 2000年)

中野等「文禄の役における立花宗茂の動向」(『日本歴史』第597號, 1998年)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吉川弘文館, 2006年)

『戦争の日本史16 文禄・慶長の役』(吉川弘文館, 2008年)

中村栄孝『日鮮関係史の研究 中』(吉川弘文館, 1969年)

橋本雄『中華幻想』(勉誠出版, 2011年)

藤木久志『豊臣平和令と戦国社会』(東京大学出版会, 1985年)

三鬼清一郎『豊臣政権の法と朝鮮出兵』(青史出版, 2012年)

米谷均「日明・日朝間における肅拝儀礼について」(中島楽章・伊藤幸司編『寧波と博多』汲古書院, 2013年)

「文禄・慶長の役 / 壬辰戦争の原因 実像編」(堀新・井上泰至編『秀吉の虚像と実像』笠間書院, 2016年)はじめに

[토론문]

丁酉再亂時の日本の目的と日本側の軍事行動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이 발표는 정유재란 시 일본의 목표가 「한반도 남부 지배」에 있었다는 발표자의 지론을 제기하고, 그 지론의 논거로써 일본 측 장수들이 취한 일련의 군사행동 구체적으로는 전라도충청도 침공 및 한반도 남부 각지에서 진행된 왜성(仕置之城) 구축 상황에 관해 논한 것이다.

각주나 참고문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듯이 발표자는 정유재란기 四國 다이묘를 비롯하여 西國 지역 다이묘들의 개별적인 동향에 관해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고, 오늘의 발표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압축하여 소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유재란에서 일본의 목적이 명정복이 아니라 강화교섭 때 요구했던 한반도 남부의 할양을 실력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은 종래의 연구를 통해서도 제기된 바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히데요시의 전략(1597년 2月令)과 그에 따라 諸將들이 취한 군사적인 동선, 주둔지에서 실시한 시책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정유재란기 일본군 내부의 실상과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1. 일본의 諸將들이 각자의 주둔지에서 실시한 농민지배의 구체적인 실태는 어떠했는가는 문제에 관하여, 전라도 강진(康津)을 주둔 지배했던 鍋島勝茂가 「納穀割府狀」을 작성했다는 점, 순천(順天) 왜성을 건축할 당시 「면사첩(免死帖)」을 받은 조선의 민중이 小西行長の 陣中에서 노역에 종사했으며, 울산 전투시에는 무장한 약 500명의 조선인이 울산 왜성에서 농성하면서 일본군에 조력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들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조선 남부의 정복이 달성되었다고 평가함.

A. 鍋島勝茂가 康津 농민들로부터 실제로 곡물을 수납했는지 여부는 미묘하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軍目付의 지시에 의거한 행위이며 軍目付는 히데요시가 임명하는 지위임을 고려할 때 鍋島에 대한 軍目付의 지시를 곧 諸將들에 대한 히데

요시의 지시로 이해해도 되는가.

- B. 정유재란의 목표가 한반도 남부 지배라고 규정할 경우 임진왜란과 비교하여 조선의 민중에 대한 지배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히데요시로부터 諸將들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적인 「지배 지침」이 하달된 바 있는가.
- C. 조선 민중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곡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 D. 순천 왜성을 건설할 때 노역에 종사한 조선의 민중이 받았던 「면사첩(免死帖)」, 이 「免死帖」에 일본군이 부여한 구체적인 효능은 무엇인가.

2. 제5장에서 인용한 사료 중에 「赤国」 「しろ国」이라는 용어가 등장함. 문맥상으로 볼 때 당시 일본 측은 「赤国」은 전라도, 「しろ国」은 경상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이 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된 유래는 무엇인가.

3. 津野 선생님이 그간 축적해 온 연구 성과들을 보며 갖게 된 소박한 의문. 그간의 성과 중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전체를 아우른 총론적인 성격의 연구도 있으나 정유재란을 다룬 성과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함.

### 1.はじめに

16世紀末、豊臣秀吉は朝鮮に2度出兵した。1回目が約16万人、2回目が約14万人、のべで約30万人にも達する軍役人数が示すように出兵は空前の海外派兵であった。

まず、本稿の標題および論述にかかわる、出兵の呼称について述べておきたい<sup>1)</sup>。出兵は日本では一般に「朝鮮出兵」あるいは「朝鮮侵略」と称され、1回目・2回目を区別する場合には開始時の年号にちなみ、前者を「文禄の役」、後者を「慶長の役」と呼んでいる。一方、韓国ではそれぞれの開始時の干支にちなむ「壬辰倭乱」「丁酉再乱」あるいはあわせて「壬辰倭乱」などの呼称、中国ではあわせて「壬辰倭禍」「抗倭援朝」あるいは年号にちなむ「万曆朝鮮役」などの呼称が使用されている。これらはいずれも一国史的な呼称なので、国際的に通用する名称を定めるべきとの観点から、干支を用いた「壬辰戦争」なる呼称の使用が提唱されている<sup>2)</sup>。その訳語にあたる「The Imjin War」は英語論文に散見する。また、出兵の目的は明征服であるから、「大陸侵攻」なる表現が相応しいとの指摘もある<sup>3)</sup>。こうした問題意識は重要であるが、「壬辰戦争」「大陸侵攻」ともに普及してはいない。本稿では、本学術大会の全体テーマが「丁酉再乱と東アジア」であること、発表の場が韓国であること、これらの理由により、1回目の出兵を壬辰倭乱、2回目の出兵を丁酉再乱と表記する。

本学術大会において発表者に与えられた主題は丁酉再乱勃発の背景について論じることである。そこで、本稿では課題を次のように設定した。第1章では、丁酉再乱時の日本の目的に関する持論を提示する。第2章～第5章では、従来の研究成果にもとづいて、持論の論拠である丁酉再乱時の日本側の軍事行動を確認してゆく。しかるのちに、第6章で日本側の朝鮮南部の支配を検討し、持論の新たな論拠を提示する。

---

1) 呼称の概要については津野倫明「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高橋典幸編『戦争と平和』竹林舎、2014年)、米谷均「文禄・慶長の役 / 壬辰戦争の原因 実像編」(堀新・井上泰至編『秀吉の虚像と実像』笠間書院、2016年)など参照。

2) 鄭杜熙・李璟珣編著『壬辰戦争』(明石書店、2008年)。

3) 中野等『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吉川弘文館、2006年)。

## 2. 丁酉再乱時の日本の目的

本章では、丁酉再乱時の日本の目的に関する持論を提示してゆく。まず、持論の大前提を確認しておきたい。それは、出兵の最高指揮官たる豊臣秀吉の朝鮮・明に対する認識である<sup>4)</sup>。1590(天正18)年11月に秀吉が対面した黄允吉らの朝鮮使節は天下統一を賀する使節であった。しかし、秀吉は使節来日により朝鮮は服属したと誤解し、朝鮮国王に征明嚮導を要求する。小西行長らが要求を仮途入明にかえて交渉にあたったものの、もとより交渉成立の余地はなく、壬辰倭乱が勃発した。徳富猪一郎氏は「要するに秀吉は、徹頭徹尾、朝鮮を誤解して居た。彼は朝鮮は既に、日本に服従して居たと速断した」と指摘し、この誤解を「秀吉の大誤解」と命名した<sup>5)</sup>。後述の中野説でもこの誤解が重視されている。

徳富氏指摘のように、「秀吉の大誤解」が解けることはなかった。1592(天正20、文禄1)年5月初旬の漢城陥落の報に接した秀吉は三国国割計画を立案する。5月18日付豊臣秀次宛秀吉朱印状によれば<sup>6)</sup>、その要点は次のとおりであった<sup>7)</sup>。明も征服し、翌年には秀次を「大唐之関白職」とする。日本の関白は羽柴秀保か宇喜多秀家とし、「高麗」には羽柴秀勝か秀家を配する。秀吉自身はまず北京に移り、のち「天竺」征服のために寧波に移住する。翌々年の1594年には後陽成天皇を北京に移して中華皇帝とし、日本の帝位は皇太子周仁か皇弟智仁とする。この計画は誇大妄想とされることもある。しかし、「大局的判断を欠いた空想的プラン」ではあるものの、「真面目に考えられていた」とみる三鬼清一郎氏の指摘にしたがいたい<sup>8)</sup>。漢城陥落の報は「秀吉の大誤解」のみならず、朝鮮はもとより明も征服しうるという「秀吉の錯覚」を確たるものに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

4) 以下、津野倫明「日本文献の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の記録とその限界」(『東国史学』第62輯、2017年6月30日予定)参照。

5) 徳富猪一郎『近世日本国民史 豊臣氏時代下篇朝鮮役 上巻』(民友社、1925年)306頁。なお、本稿では本書も含めて引用に際して傍点・ルビは省略している。

6) 東京大学史料編纂所架蔵写真帳『尊経閣古文書纂』。

7) 中野等「侵攻の緒戦」(前掲中野『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前掲津野『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など参照。

8) 三鬼清一郎『関白外交体制の特質をめぐって』(同『豊臣政権の法と朝鮮出兵』青史出版、2012年、初出1987年)。

以上のような「秀吉の大誤解」「秀吉の錯覚」を大前提として、丁酉再乱時の日本の目的に関する持論を提示してゆこう<sup>9)</sup>。壬辰倭乱・丁酉再乱の目的や原因をめぐる議論は諸説紛々であった。例えば、秀吉の誇大妄想、「勘合貿易」復活<sup>10)</sup>、秀吉の功名心、明征服、領土拡張、国際（海域）秩序の確立、政権維持などである。これらのほとんどは壬辰倭乱・丁酉再乱を区別せずに論じてきた。つまり、両乱の差異を考慮しない傾向があった。

こうした傾向を問題視して、目的を複合的に理解しつつ、また固定的にはとらえない変遷論を唱える研究者もいた。三鬼清一郎氏は「勘合貿易振興説と対外領土拡張説が二者択一の次元で論じられて来たきらいがある」と従来の問題点を摘示した。そのうえで、三鬼氏は豊臣政権の外交の基調はあくまで「唐入り」つまり明征服であり、「勘合貿易」を含む講和交渉は秀吉が「勝利を確信していたから」可能になったと指摘する<sup>11)</sup>。明快に目的の変遷を指摘したのは中野等氏であり、「本来は東アジアの盟主たる明帝国の打倒を目的とした」「大陸出兵の目的は当初からあくまで征明」と明言する<sup>12)</sup>。ただし、丁酉再乱に関しては「征明」の意図は大きく後退し、むしろこれこそが「朝鮮侵略」を主眼にした戦争と位置付け、出兵は「徐々に意味合いを変化させていく」と主張した。この中野説が説得的であると考えている。なぜなら、「勘合貿易」の要求は1593年の講和交渉において突如登場すると摘言した田保橋説を中野氏同様に支持するからであり<sup>13)</sup>、また次章以下で確認する丁酉再乱時の日本側の軍事行動は、中野氏が「今回の派兵は、あくまで朝鮮半島南部の制圧、領土確保を目論んだもの」と端的に指摘したように<sup>14)</sup>、朝鮮南部の征服を目的としていたと考えるからである。

実際、丁酉再乱当初の1597（慶長2）年2月21日付秀吉朱印状で示された軍令（以

9) 以下、前掲津野「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参照。

10) 豊臣期の史料に登場する「勘合」は室町期の勘合貿易における勘合と別物であり、朱印船貿易の渡航朱印状とみられている。この点については、田中健夫「勘合符・勘合印・勘合貿易」（同『対外関係と文化交流』思文閣出版、1982年、初出1981年）、藤木久志「海の平和＝海賊停止令」（同『豊臣平和令と戦国社会』東京大学出版会、1985年）、北島万次「豊臣政権の外交折衝と五山僧」（同『豊臣政権の対外認識と朝鮮侵略』校倉書房、1990年、初出1988年）参照。

11) 前掲三鬼「関白外交体制の特質をめぐって」。

12) 以下、前掲中野「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2～3頁、95頁。

13) 田保橋潔「壬辰役雑考」（『青丘学叢』第14号、1933年）。

14) 中野等「慶長の再派兵」（前掲中野「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303頁。前掲「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では紙幅の都合上、この指摘を引用していなかったが、本稿では丁酉再乱時の日本の目的に関する持論を明示すべく引用した。

下、本稿では2月令と呼ぶ)では、まず全羅道を制圧し、忠清道などについては可能な範囲で侵攻することが諸将に命じられていた<sup>15)</sup>。なお、慶尚道は掌握済みと認識されていたようである<sup>16)</sup>。つまり、丁酉再乱時の日本の目的は朝鮮南部の征服であった。クラウゼヴィッツによれば、戦争には2種があり、「第一は、敵の完全な打倒を目的とする戦争」、「第二は、敵国の国境付近において敵国土の幾許かを略取しようとする戦争」である<sup>17)</sup>。これにしたがえば、明征服を目的とする壬辰倭乱は「第一の戦争」、朝鮮南部の征服を目的とする丁酉再乱は「第二の戦争」といえよう。出兵の目的は変遷したのである。ただし、2月令でも明の大軍が出撃してきた場合には秀吉自身が渡海し、「大明国迄可被仰付事、案之内候条」と壮語しているように究極の目的は明征服であり続けた。その大前提が「秀吉の大誤解」「秀吉の錯覚」であった。この大前提のゆえであろう、1598年8月の秀吉死去により出兵は2度にとどまったが、同年5月までは翌年の大規模な派兵計画が堅持されていた<sup>18)</sup>。現に同年4月、秀吉は250艘もの供出用船舶を土佐で建造するよう命じている<sup>19)</sup>。「己亥再々乱」ともいうべき戦乱もおこりえたのである。

丁酉再乱時の目的に関する持論には異論が唱えられている。それは1596年の和議破綻の真因をめぐる見解の相違にもとづいている。和議破綻は丁酉再乱勃発の原因なので、真因をめぐる論争の経過とこれに関する私見を述べておきたい<sup>20)</sup>。

1595年5月、秀吉は小西行長らに和議3箇条を提示した<sup>21)</sup>。3箇条とは、「大明鈞命」により朝鮮を「恕宥」するので、朝鮮王子は来日して秀吉幕下に属すること(この場合、「朝鮮八道之中四道」つまり朝鮮南部の4道は日本に属すべきではあるが、王子に与える)、沈惟敬と朝鮮王子の熊川到着を条件に倭城15箇所のうち10箇所を破却すること、明使節来日を条件に「勘合貿易」を復活させることであった。翌年9月1日、楊方亨・沈惟敬の明使節が秀吉と大坂城で対面し、冊封は実現したが、和議は破綻した。

15)『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402号。なお、前掲津野「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では当該文書にもとづいて、「まず朝鮮南部の全羅道・忠清道への侵攻が命じられていた」と述べたが、文書の文言をより厳密に解釈するならば、本文のように修正すべきである。

16) 中野等『戦争の日本史16 文禄・慶長の役』(吉川弘文館、2008年) 190～191頁。

17) クラウゼヴィッツ著・篠田英雄訳『戦争論(上)』(岩波書店、1968年) 13頁。

18) 前掲中野「慶長の再派兵」、津野倫明「朝鮮出兵期における造船に関する一試論」(同『長宗我部氏の研究』吉川弘文館、2012年、初出2009年)。

19) 前掲津野「朝鮮出兵期における造船に関する一試論」。

20) 以下、前掲津野「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参照。

21) 「江雲隨筆」(東京大学史料編纂所架蔵謄写本)。なお、和議については北島万次「壬辰倭乱における二つの和議条件とその風聞」(同他編『日朝交流と相克の歴史』校倉書房、2009年) など参照。

ここで、私見において支持を表明した中野等氏の見解を確認しておこう<sup>22)</sup>。9月1日の受封終了後、秀吉は明使節のもとに僧侶らを派遣した。明使節は彼らに倭城の完全破却と軍勢撤退などを要求する書翰を付し、これを知った秀吉が激怒した。中野氏は、秀吉にとって講和の前提は明の降伏である以上、一定の領土割譲は実現する必要がある、和議3箇条で示したように名目のみの「海外領土」でもよかったが、明はそれすらも許容しなかったと指摘する。中野氏によれば、秀吉は明とは講和を成立させ、朝鮮とのみ戦争を継続して「海外領土」を確保しようと画策したとみられるが、いずれにせよ交渉決裂の責任を朝鮮に押しつけることで、すなわち「降伏の証」である朝鮮王子の不参を和議不成立の主因とすることで、和議を破棄して再出兵を命じたとされる。

和議3箇条の「大明皇帝懇求」なる文言に着目するならば、中野氏指摘のように秀吉は明の降伏を前提として講和を進めていたとみてよい。だとすれば、冊封成立は一見奇異にみえる。しかし、「外交儀礼というのは文字通りのプロトコルであり、その儀礼に関して双方が勝手な解釈を付与し、自国なりの思惑を貫くことさえ可能であった」との指摘をふまえるならば<sup>23)</sup>、むしろ受封は当然であった。儀礼は「秀吉と冊封使は畳の間に座り、日本式に、対等の形」であったとみられ<sup>24)</sup>、秀吉は明使節を明皇帝からの降伏使節とする解釈を付与し、受封したのだと考えられる。ところが、明使節とともに来日した朝鮮使節の黄慎が「天朝則既已遣使冊封、我姑忍耐」と記録したように<sup>25)</sup>、秀吉は朝鮮に対しては受封を自身の譲歩として示し、王子不参の非礼を責める口実の1つにした。

この王子不参こそ和議破綻の真因とみる見解を提示したのが跡部信氏である<sup>26)</sup>。その有力な根拠は、9月7日付朱印状で秀吉が「今度朝鮮王子不差渡之段、不相届儀候」と語ったことである<sup>27)</sup>。この朱印状を和議破綻直後のものとみる点には異論はなく<sup>28)</sup>、

22) 中野等「講和交渉の推移」(前掲中野「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23) 橋本雄「室町殿の《中華幻想》」(『中華幻想』勉誠出版、2011年、初出2007年・2008年)。

24) 米谷均「日明・日朝間における肅拝儀礼について」(中島栄章・伊藤幸司編『寧波と博多』汲古書院、2013年)。

25) 「万曆丙申秋冬通信使一行日本往還日記」(『青丘学叢』第11号、1933年)。

26) 跡部信「豊臣政権の対外構想と秩序観」(同『豊臣政権の権力構造と天皇』戎光祥出版、2016年、初出2011年)。

27)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424号。

28) 津野倫明「朝鮮出兵における鍋島直茂の一時帰国について」(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13号、2006年)。

また領土割譲に関する言及がないのも事実である。しかし、中野説でも秀吉が王子不参を和議破綻の主因とした点は指摘されており、見解の相違は王子不参を真因とみるか否かである。跡部氏は「王子来日要求を実現するために、脅迫文言として領土要求が掲げられていた。明使の撤兵要請は脅迫をこけおどしと軽んずるふるまいとうけとめられ、なおさら秀吉を激怒させた」と述べ、丁酉再乱は「脅迫が本気であったことを証明し」、「王子「御礼」をうながすための戦いだった」と説明した。こうした跡部氏の見解に対して、次の見解を提示した<sup>29)</sup>。

もし、真因が王子不参ならば、慶長の役（丁酉再乱―津野註）の目的は跡部氏が指摘するようなものになっていたであろう。しかし、慶長の役において秀吉が王子の「御礼」を要求した事実を示す史料的所見には接したことがない。もっとも、秀吉死後に「朝鮮王子相越候」ことが和議条件として登場するが、王子不参の場合には「御調物」でもよいとされていた。慶長の役当初に秀吉が朝鮮南部の侵攻を命じた事実が明示するように、慶長の役は「第二の戦争」だったのである。よって、和議破綻の真因もまた領土割譲の問題だったと考えるべきであろう。

この見解に対する反論を跡部氏からいただいた。しかし、丁酉再乱時に秀吉が王子の「御礼」を要求した事実を示す史料は提示されないまま、「脅迫の本気度を示すために敢行したのが慶長の役だった」と持説が確認されている<sup>30)</sup>。見解の相違の解消は容易ではなさそうであるが、本稿とりわけ第6章は解消にむけた再反論としての意義を有している。

### 3. 丁酉再乱時の秀吉の戦略

前章では、丁酉再乱時の日本の目的は朝鮮南部の征服であり、クラウゼヴィッツの表

29) 前掲津野「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290頁。なお、「朝鮮王子相越候」「御調物」は『黒田家文書 第一巻 本編』（福岡市博物館、1999年）24号からの引用である。

30) 反論は、前掲跡部「豊臣政権の対外構想と秩序観」を前掲跡部『豊臣政権の権力構造と天皇』に収録する際に同書231～232頁で示された。

現をかりるならば、丁酉再乱は「第二の戦争」といえるとの持論を提示した。本章～第5章では、こうした持論の論拠である丁酉再乱時における日本側の軍事行動を確認してゆく。具体的には、従来の研究成果にもとづいて<sup>31)</sup>、秀吉が発した2月令の内容と日本側の軍事行動を確認してゆく。本章では、2月令で示された戦略をみてゆこう。

1596(文禄5、慶長1)年9月7日付小早川隆景書状によれば<sup>32)</sup>、秀吉は年内に毛利吉成らを朝鮮に先遣し、翌年には中国・四国の諸将を派遣する方針を表明した。実際の先遣部隊の渡海開始は1597年1月であり、2月21日に秀吉は渡海諸将に2月令を発した<sup>33)</sup>。

2月令で秀吉は丁酉再乱に投入する約14万人の軍勢を先手の1番隊～8番隊と倭城在番の部隊に編成した(表1・表2)<sup>34)</sup>。ただし、この部隊編成と実態とは乖離していた。例として、3番隊の状況をみておこう<sup>35)</sup>。毛利吉成は4月中旬までに、1595年から子息吉政や日向衆(島津豊久・高橋元種・秋月種長・伊東祐兵)が在番していた安骨浦に到着し、同地には相良長毎も来着した。しかし、黒田長政は合流せず、以後も吉成らと3番隊として行動することはなかった<sup>36)</sup>。同様の現象は壬辰倭乱時にも観察される。例えば、4番隊は吉成・日向衆・島津義弘の諸将であったが、義弘が他の諸将とともに行動することはまれであった。倭城在番の部隊編成もまた同様であった。秀吉は、2月令で安骨浦に立花宗茂を、加徳に高橋直次・筑紫広門を、金海竹島に小早川秀包を配置することにしていたが、3月になるとこれら諸将の釜山在番を命じる。そのため、7月中旬に渡海した宗茂らが小早川秀秋を釜山で補佐することになる<sup>37)</sup>。こうした経緯によって、前述の吉成らは安骨浦に在番していた。

31) 津野倫明「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海南史学』第42号、2004年)、同「朝鮮出兵の在番体制に関する一朱印状写」(『日本歴史』第684号、2005年)、同「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織豊期研究』第8号、2006年)、同「朝鮮出兵と西国大名」(佐藤信・藤田覚編『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2007年)、同「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地方史研究協議会編『歴史に見る四国』雄山閣、2008年)、同「黒田長政宛鼻請取状について」(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17号、2011年)、同「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前掲津野「長宗我部氏の研究」、初出2004年)、同「軍目付垣見一直と長宗我部元親」(同前、初出2010年)など。

32) 『鹿児島県史料旧記雑録 後編三』(鹿児島県、1983年)107号。

33) 2月令を告知する秀吉朱印状は多数存在するが、本稿で掲げる条文の文言は『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402号から引用している。

34) 諸将の軍役人数は『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403号、『大日本古文書 毛利家文書』932号などによっている。なお、本稿では諸将の実名は辞書類の項目名として採用されている一般的な呼称を使用している。

35) 以下、津野倫明「文禄・慶長の役における毛利吉成の動向」(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9号、2002年)参照。

36)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

37) 中野等「文禄の役における立花宗茂の動向」(『日本歴史』第597号、1998年)。

表1

| 番隊  | 編成された諸将と軍役人数                                                                                          |
|-----|-------------------------------------------------------------------------------------------------------|
| 1・2 | 加藤清正10000<br>小西行長7000、宗義智1000、松浦鎮信3000、有馬晴信2000、大村喜前1000、<br>五島玄雅700<br>※加藤清正と小西行長らは籤引きで1番隊・2番隊を交代する。 |
| 3   | 黒田長政5000、毛利吉成・同吉政2000、島津豊久800、高橋元種600、<br>秋月種長300、伊東祐兵500、相良長每800                                     |
| 4   | 鍋島直茂・同勝茂12000                                                                                         |
| 5   | 島津義弘10000                                                                                             |
| 6   | 長宗我部元親3000、藤堂高虎2800、池田秀雄2800、加藤嘉明2400、<br>来島通総600、中川秀成1500、菅達長200                                     |
| 7   | 蜂須賀家政7200、生駒一正2700、脇坂安治1200                                                                           |
| 8   | 毛利秀元30000、宇喜多秀家10000<br>※毛利秀元と宇喜多秀家は交代する。                                                             |

表2

| 倭城   | 在番将と軍役人数               |
|------|------------------------|
| 釜山   | 小早川秀秋10000 ※軍目付太田一吉390 |
| 安骨浦  | 立花宗茂5000               |
| 加徳   | 高橋直次500、筑紫広門500        |
| 金海竹島 | 小早川秀包1000              |
| 西生浦  | 浅野幸長3000               |

注目すべき、壬辰倭乱時と丁酉再乱時の相違は軍目付の登場である。秀吉は2月令で7名の軍目付を任命した<sup>38)</sup>。諸将に軍目付がつく体制は丁酉再乱時の特徴である<sup>39)</sup>。秀

吉は軍目付の注進こそを正しいものとするとし、その注進により賞罰を決すると宣言しており、軍目付には秀吉の耳目としての活動が期待されていた。秀吉は2月令で釜山在番の小早川秀秋の軍目付として太田一吉、先手の軍目付として毛利重政・竹中隆重・垣見一直・毛利友重・早川長政・熊谷直盛、これら計7名の軍目付を任命した。重政が5月に病死したため、秀吉はあらたに秀秋の軍目付として福原長堯を任命し、一吉を先手の軍目付に変更する<sup>40)</sup>。当然ではあるが、軍目付発給の鼻請取状もまた丁酉再乱時の特徴である<sup>41)</sup>。鼻請取状とは、諸将により削ぎ集められた鼻を査収した軍目付が諸将宛に発給する文書である。1597年8月16日付から同年10月9日付までの計28通が知られている。確認される受給者は黒田長政・吉川広家・鍋島勝茂・藤堂高虎の4将のみにもかわらず、記載鼻数の合計は29678（首13、生捕2を含む）にもおよぶ。丁酉再乱時の戦場は凄惨をきわめていた。

2月令で定められた先手と倭城在番の部隊編成や軍目付の配置はそのまま実現したわけではなかったが、同令で示された戦略は以後の日本側の軍事行動の根本的な条件となる。その戦略の骨子は次のとおりである。

- A：先手の軍事行動は諸将の多数決で決定する。
- B：先手は「赤国不残悉一篇ニ成敗申付、青国其外之儀者、可成程可相動事」すなわちまず全羅道を制圧し、忠清道などについては可能な範囲で侵攻する。
- C：B終了後に「仕置之城」の城地を選定し、諸将の多数決で城主を決定し、普請などは帰国予定の諸将が担当する。

Bに慶尚道に関する指示がないのは、同道には講和交渉期にも、表2にある釜山倭城をはじめとする「仕置之城」とその在番部隊が存在しており、すでに掌握済みと秀吉が認識していたからであろう<sup>42)</sup>。『邦訳日葡辞書』によれば、「仕置」の意は「征服した国や土

38) 北島万次『朝鮮日々記・高麗日記』（そしえて、1982年）など参照。軍目付に関しては「目付」「横目」「奉行」など様々な呼称が史料上確認されるが、本稿では北島氏の研究にならい軍目付と呼ぶことにする。

39) 前掲中野「慶長の再派兵」。

40) 前掲津野「軍目付垣見一直と長宗我部元親」。

41) 以下、前掲津野「黒田長政宛鼻請取状について」参照。なお、清水克行氏が指摘するように、鼻削ぎ行為は日本の戦国期以来の習俗に根ざしたものとみられる（清水『耳鼻削ぎの日本史』洋泉社、2015年、131頁）。

42) 前掲中野『戦争の日本史16 文禄・慶長の役』190～191頁。

地に砦を造っておく、または、守備兵をおく」である<sup>43)</sup>。この語意に照らしても、中野等氏が指摘するように、「仕置之城」とは「安定的な実効支配を実現すべく、長期戦を見越して設営される軍事拠点・城塞」である<sup>44)</sup>。よって、Cの指示をふまえるならば、Bから看取すべきは、最高指揮官たる秀吉の目的すなわち日本の目的は朝鮮南部の征服であった事実である。この目的を掲げた2月令は、第3章～第5章でみてゆくように丁酉再乱時の諸将の軍事行動の根本的な条件となるきわめて重要な位置をしめていた。

#### 4. 釜山会議と先手の全州集結

本章では、1597年7月に先手の諸将が開催した釜山会議からその諸将が同年8月に全羅道全州に集結するまでの日本側の軍事行動を確認してゆく。

丁酉再乱における緒戦は1597年7月の巨済島海戦である。この日本では「唐島の戦い」<sup>45)</sup>、韓国では「漆川梁海戦」とも呼ばれる戦いは<sup>46)</sup>、李敏雄氏が「主要海戦中、最大規模の海戦のひとつ」であり、「日本水軍が朝鮮水軍を破った唯一のもの」と評したように<sup>47)</sup>、日本側にとっては画期的な勝利であった。戦果を報じた注進状の写である「番船取申帳」によれば<sup>48)</sup>、日本側が鹵獲した船は34艘、焚毀した船は130艘にも達する<sup>49)</sup>。福原長堯は鹵獲船の1艘を搭載品とともに秀吉に進上した。10月5日付長堯宛西笑承兌書状案によれば<sup>50)</sup>、秀吉は「別而被成御感候」という喜びようであり、巨済島海戦の勝利は「秀吉の大誤解」「秀吉の錯覚」の延命に貢献してしまった<sup>51)</sup>。

43) 『邦訳日葡辞書』(岩波書店、1980年)。

44) 前掲中野『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209頁。

45) 『国史大辞典第三巻』(吉川弘文館、1983年)の「唐島の戦い」の項など。

46) 李炯錫『壬辰戦乱史 中巻』(東洋図書出版、1977年)など。

47) 李敏雄「丁酉再乱期における漆川梁海戦の背景と主要経過」(黒田慶一編『韓国の倭城と壬辰倭乱』岩田書院、2004年)395頁。

48) 東京大学史料編纂所架蔵写真帳「対馬古文書」の「洲河文書」。なお、この文書につとに言及した研究は三鬼清一郎「朝鮮出兵における水軍編成について」(前掲三鬼『豊臣政権の法と朝鮮出兵』、初出1968年)である。

49) 以下、津野倫明「巨済島海戦に関する一注進状」(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19号、2013年)参照。

50) 伊藤真昭・上田純一・原田正俊・秋宗康子編『相国寺蔵西笑和尚文案自慶長二年至慶長十二年』(思文閣出版、2007年)15号。

## 54 領有資源と 東アジア

巨済島海戦があった7月、諸将は毛利秀元の釜山到着をうけて会議を開き、先手を「二手」に分けて「赤国表」に侵攻する方針を決定し、秀吉もそれを認めた<sup>52)</sup>。諸将はBにしたがって全羅道侵攻を開始するのであり、それに際してAにしたがって部隊編成を「各相談」のうえ決定したのである。諸将には「戦略的な決定権はほとんど与えられていない」ものの<sup>53)</sup>、部隊編成は現地の裁量に委ねられていたのである。この決定により「二手」すなわち右軍・左軍が編成され、また別に水軍も編成された(表3)<sup>54)</sup>。

表3

| 部隊 | 所属諸将                                                                 |
|----|----------------------------------------------------------------------|
| 左軍 | 宇喜多秀家、蜂須賀家政、生駒一正、小西行長、島津義弘、毛利吉成・同吉政<br>※軍目付は太田一吉、竹中隆重                |
| 右軍 | 毛利秀元、黒田長政、加藤清正、鍋島直茂・同勝茂、長宗我部元親、吉川広家、池田秀雄、中川秀成<br>※軍目付は早川長政、垣見一直、熊谷直盛 |
| 水軍 | 藤堂高虎、脇坂安治、加藤嘉明、来島通総、菅達長・同右八<br>※軍目付は毛利友重                             |

釜山会議後、これら3軍は釜山あるいはその周辺から全羅道に向けて進軍していった。右軍は慶尚道を北上し、8月14～16日の黄石山の戦いで勝利をおさめ、全羅道に侵入して全州にいたる。左軍は慶尚道南部を河東まで西進して同地でやはり西進してきた水軍と8月10日頃までに合流し、ともに全羅道に侵入したのち8月13～15日に南原城を攻略して全州にいたる。こうした3軍の軍事行動はBにしたがったものである。

51) 延命については、2017年3月10日・11日にブリティッシュコロンビア大学で開催された2017 One Asia Forum/Korean Studies Lab Conference “The Imjin War in Premodern East Asia and its Aftermath” における口頭発表「文禄・慶長の役における日本の戦意」で言及した。

52) 『下関市史 資料編Ⅳ』(下関市、1996年)所収「長府毛利家文書」の「豊公朱章参」2号。

53) 前掲中野『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2頁。

54) 表3および以下の記述については、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同「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同「朝鮮出兵と西国大名」、同「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など参照。

## 5. 全州会議と忠清道侵攻・全羅道侵攻

本章では、1597年8月26日の全州会議の諸決定とそれらにもとづく日本側の軍事行動を確認してゆく。

全州に集結した諸将は8月26日に全州会議を開いた。先手の諸将がまさに一堂に会した会議であり、ここでの決定は以後の諸将の軍事行動を規定してゆくことになる。この会議では、次のような諸決定が「多分ニ相究申候」すなわち多数決によってなされた<sup>55)</sup>。

- ① 忠清道侵攻にあたり部隊を表4のように再編する（以下、全州会議以前の部隊編成と区別するために部隊名に〈〉を付すが、水軍の場合は所属諸将の変更はなかった）。当然ではあるが、部隊再編の前提である忠清道侵攻もこの時に決定されたはずである。
- ② 忠清道侵攻後、〈右軍〉加藤清正・〈中軍〉黒田長政の両勢に〈中軍〉毛利秀元勢のうち2000人を加えた計35000人は全羅道ではなく慶尚道に直接戻り、加藤清正・黒田長政の「城所」に移動して普請にあたる。また、慶尚道への「罷戻ミち筋」を進攻してゆく。普請には、慶尚道に駐留している小早川秀秋・浅野幸長の両勢も加わる。
- ③ 忠清道侵攻後、清正勢を除く〈右軍〉や〈中軍〉秀元勢の一部（吉川広家率いる「中国衆」）そして〈左軍〉の計78700人は全羅道に戻り、「海陸共ニ撫切」にする。
- ④ 〈水軍〉の7000余人は忠清道に侵攻せず、全羅道沿岸に進撃してゆく。
- ⑤ 全羅道侵攻が終了次第、「仕置之城」の普請にとりかかる。

55) 『中川家文書』（臨川書店、1987年）76号。当該文書には「仕置城」と記されているが、本稿では煩を避けるために「仕置之城」と表記する。以下、全州会議の諸決定とその実施状況については、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同「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同「朝鮮出兵と西国大名」、同「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同「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など参照。

表4

| 部隊   | 所属諸将                                                  |
|------|-------------------------------------------------------|
| 〈左軍〉 | 宇喜多秀家・蜂須賀家政・生駒一正・小西行長・島津義弘<br>※軍目付は垣見一直・熊谷直盛          |
| 〈中軍〉 | 毛利秀元、黒田長政<br>※軍目付は早川長政                                |
| 〈右軍〉 | 加藤清正、鍋島直茂・同勝茂、長宗我部元親、池田秀雄、中川秀成、毛利吉成<br>※軍目付は太田一吉・竹中隆重 |
| 〈水軍〉 | 藤堂高虎、脇坂安治、加藤嘉明、来島通総、菅達長・同右八<br>※軍目付は毛利友重              |

こうした諸決定は2月令で秀吉が提示した戦略にしたがったものである。すなわち、決定が多数決によったのはAに、①～④のように全羅道・忠清道の侵攻計画がたてられたのはB(②の清正らが慶尚道に直接戻るのはC)に、⑤のように全羅道侵攻終了後の「仕置之城」普請が確認されたのはCに、それぞれしがつている。2月令で秀吉が示した戦略は諸将の軍事行動の根本的な条件だったのである。

諸決定のうち①④がほぼ実施されていた事実を示すのが、後述の1597年9月16日の井邑会議で作成された「高麗陣諸将郡割並ニ陣立人数書出案」である<sup>56)</sup>。この案の後半部分には①の部隊編成に対応するかたちで諸将と侵攻地域が摘記されており、井邑会議までの侵攻の概況が知られる<sup>57)</sup>。その概況を整理したのが表5である。

表5

| 部隊   | 諸将            | 全羅道 | 忠清道 |
|------|---------------|-----|-----|
| 〈左軍〉 | 宇喜多秀家         | 沃溝  |     |
|      | 蜂須賀家政<br>生駒一正 | 臨陂  | 扶余  |

56) 『佐賀県史料集成 古文書編第三巻』(佐賀県立図書館、1958年)所収「鍋島家文書」133号。

57)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など参照。

|      |        |             |          |
|------|--------|-------------|----------|
|      | 小西行長   | 益山、咸悦       |          |
|      | 島津義弘   | 龍安          | 石城       |
| 〈中軍〉 | 毛利秀元   |             | 連山、尼山、公州 |
|      | 黒田長政   | 高山、礪山       | 恩津       |
| 〈右軍〉 | 加藤清正   | 龍潭          | 鎮岑       |
|      | 鍋島直茂   | 錦山          | 懷徳       |
|      | 長宗我部元親 | 珍山          |          |
|      | 池田秀雄   | 記載なし        | 記載なし     |
|      | 中川秀成   | 記載なし        | 記載なし     |
|      | 毛利吉成   | 茂朱          | 沃川       |
| 〈水軍〉 | 将名記載なし | 咸平、務安、珍島、興陽 |          |

「高麗陣諸将郡割並ニ陣立人数書出案」の後半部分はあくまで摘記であり、諸将と侵攻地域との関係は表5のように整然としていたわけではなく、実際には諸将が連携しつつ全羅道から忠清道へと侵攻していった。

まず、②で忠清道侵攻後は慶尚道に直接戻る計画になっていた諸将の軍事行動を追ってみよう<sup>58)</sup>。黒田長政の場合は全羅道の高山・礪山そして忠清道の恩津が南から順に列挙されており、毛利秀元の場合は忠清道の連山・尼山・公州がやはり南から順に列挙されている。これらの侵攻地域を長政・秀元の順で結ぶと全州から公州に向かって北進するルートとなる。これに対して、加藤清正の場合はその東方に位置する全羅道の龍潭と忠清道の鎮岑があげられている。これらの諸将の侵攻ルートに関しては仲尾宏氏が8月末に清正と軍目付太田一吉らが忠清道の清州に向かったのに対して、長政・秀元はともに礪山・恩津方面に侵攻したと推測しており<sup>59)</sup>、長政・秀元については中村栄孝氏が9月1日より「礪山・恩津・連山などを経過して錦江を渡り、尼山（魯城）など沿岸の地方

58) 以下、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参照。

59) 仲尾宏「丁酉・慶長の役戦場と慶念」（朝鮮日々記研究会編『朝鮮日々記を読む』法蔵館、2000年）。

に入り」、2・3日頃には「公州に進撃した」とつとに指摘している<sup>60)</sup>。『宣祖実録』には「与賊戦于恩津・礪山等地」と和暦9月2日の恩津・礪山における交戦が記されており<sup>61)</sup>、これに長政が参戦していたことは確実で、秀元も同行していたはずである。長政・秀元の侵攻地域は別々に記載されているものの、両者は8月下旬に全州を発ち、ともに高山・礪山・恩津さらに連山・尼山の順で北上してゆき、9月初旬には公州に到着したとみてよい。

12月8日付長政宛長束正家等連署状によれば<sup>62)</sup>、長政らは公州侵攻後に忠清道天安へと侵攻し、9月6日に忠清道稷山で明軍と交戦している<sup>63)</sup>。この稷山の戦いについては、「黒田長政にとっては悪夢のような稷山戦闘」で、明軍が日本側の「漢城再占領の戦略的な野望を打ち砕いた効果は絶大」であり、日本側の軍事行動が消極的となった一契機とする説があった<sup>64)</sup>。しかし、上記の連署状によれば、長政は「大明人」の「敗北」つまり「自軍の勝利」を喧伝しており、その「勝利」は秀吉にも披露されていた。こうしてみると、「黒田・毛利勢としては敵の軍勢を後退させ京畿道（竹山付近—津野註）への侵攻を果たしたという点で重要な意味があり、明・朝鮮側はこの会戦で戦果をあげたことによって漢城侵攻の企てを挫くことができたと考えたのである」という中野等氏の説明が説得的であろう<sup>65)</sup>。

忠清道の鎮岑が侵攻地域であった加藤清正は9月8日には同道北部の鎮川に到着していた。この鎮川で清正は長政らと合流し、以降の戦略について合議した。一挙に漢城を攻略する案が提示されたものの、慶尙道に戻る案が採用され、一同は以前清正が侵攻した清州に向かった。この清州から長政は再び毛利勢と一隊を構成して忠清道の青山・黄澗さらに慶尙道星州などを経て慶尙道梁山に到着し、一方の清正は慶尙道の尚州・慶州を経由して10月8日に蔚山に到着した<sup>66)</sup>。このような鎮川での合流や合流後に慶尙道に戻るといった軍事行動は②に規定されたものである。

60) 中村栄孝『日鮮関係史の研究 中』（吉川弘文館、1969年）231頁。

61) 『李朝実録第二九冊』（学習院東洋文化研究所、1961年）『宣祖実録』巻92、宣祖30年9月壬辰条。

62) 『黒田家文書 第一巻 本編』108号。

63) 以下、前掲津野「黒田長政宛鼻請取状について」参照。

64) 前掲李「壬辰戦乱史 中巻」629～636頁。

65) 前掲中野『戦争の日本史16 文禄・慶長の役』204頁。

66)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では、清正の蔚山到着を11月8日としていたが、前掲中野「慶長の再派兵」指摘のように10月8日が正しい。

また、9月5日の時点で、〈中軍〉に属する毛利勢のうち10000人は軍目付早川長政と全羅道に侵攻してゆく計画がたてられていた。後述の井邑会議には吉川広家が早川長政とともに参加しており、毛利勢10000人の指揮官が広家であり、この部隊が全羅道に侵攻していったことがわかる。こうした毛利勢の分離は②③の実施にあたる。

次に、③で忠清道侵攻後、全羅道に戻り、「海陸共ニ撫切」にしてゆく計画になっていた〈右軍〉〈左軍〉の軍事行動を鍋島直茂や島津義弘の例にそくしてみよう<sup>67)</sup>。「高麗陣諸将郡割並ニ陣立人数書出案」の後半部分によれば、鍋島勢は〈右軍〉の一部として全州から錦山、さらに忠清道の懷徳に侵攻したことになる。実際、『宣祖実録』によれば、9月3日に日本側の軍勢が全羅道北部の錦山から忠清道に侵入し、懷徳・林川・韓山などに侵攻して放火・掠奪している<sup>68)</sup>。この軍事行動すべてを〈左軍〉の島津勢のものとみる説もあったが、誤りである。島津勢は8月29日に全羅道龍安、9月1日には忠清道石城に侵攻し、2日に扶余、4日に林川、6日には韓山と忠清道を転戦してゆくのであり、龍安・石城に関しては「高麗陣諸将郡割並ニ陣立人数書出案」の後半部分の記載と符合している。林川・韓山に関しては島津勢の軍事行動の可能性は残るものの、龍安・石城の位置からすると錦山を越え、懷徳に侵攻したとは考えにくい。鍋島勢による林川・韓山の侵攻については検討を要するかもしれぬが、全州から錦山そして懷徳へと侵攻したことはまちがいない。

このように鍋島勢を含む諸将が全羅道から忠清道に侵攻していった事実は、井邑会議翌日の9月17日付で鍋島勝茂が日本の家臣に発した書状の写からも確認される<sup>69)</sup>。勝茂は諸将の軍事行動として、全羅道を過半掃討して忠清道まで侵攻し、再び全羅道に在陣中であると報じている。このように〈右軍〉〈左軍〉の諸将は③にしたがって行動していた。現に全州会議の決定③で全羅道に戻るとされていた諸将は井邑に集結し、井邑会議を開催する。

続いて、④で忠清道に侵攻せず、全羅道沿岸に進撃してゆく計画になっていた〈水軍〉の軍事行動をみておこう<sup>70)</sup>。「高麗陣諸将郡割並ニ陣立人数書出案」の後半部分には〈水軍〉諸将の名は記載がなく、さらに井邑会議に参加していないので、記載された全羅道

67) 以下、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参照。

68) 『宣祖実録』巻92、宣祖30年9月癸巳条。

69) 『佐賀県近世史料 第一編第二巻』（佐賀県立図書館、1994年）所収『勝茂公譜考補』200～201頁。

70) 以下、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参照。

沿岸部の地域への侵攻は慎重に判断する必要がある。しかし、〈水軍〉諸将宛に発給された10月15日付秀吉朱印状が示すように<sup>71)</sup>、珍島周辺に侵攻したのは確かである。この朱印状は9月16日の鳴梁の海戦における来島通総戦死の報に接して秀吉が発給したものである。鳴梁は右水営と珍島間の海峡であり、宛所にも着目すると来島勢だけでなく藤堂高虎・脇坂安治・加藤嘉明・菅達長や軍目付毛利友重らも珍島周辺に侵攻していたと判断される。よって、〈水軍〉に編成された諸将は珍島など全羅道沿岸部に侵攻したとみてよからう。

## 6. 井邑会議と全羅道侵攻・「仕置之城」普請

本章では、1597年9月16日の井邑会議の諸決定とそれらにもとづく日本側の軍事行動を確認してゆく。

全州会議の③で全羅道に戻るとされていた諸将は井邑に集結し、9月16日に井邑会議を開く<sup>72)</sup>。諸将は決定事項や侵攻状況を秀吉に報告すべく石田三成等宛連署状を作成した<sup>73)</sup>。その連署状から知られる、諸決定は次のとおりである。

- ① 「赤国うち相残こほり / \」すなわち全羅道の未侵攻地域への侵攻計画を定め、実行してゆく。侵攻終了後は「仕置之城」を普請する。
- ② 全州会議から井邑会議までの忠清道・全羅道の侵攻状況を「絵図」に記載して秀吉に報告する（この「絵図」の内容を摘記したのが前述の「高麗陣諸将郡割並ニ陣立人数書出案」の後半部分である）。
- ③ 諸将が在番・普請にあたる「仕置之城」の城地を決定し、秀吉に報告する。小西

71) 『今治郷土史資料編古代・中世（第二巻）』（今治郷土史編さん委員会、1989年）所収「久留島家文書」522頁。

72) 以下、井邑会議の諸決定とその実施状況については、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同「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同「朝鮮出兵と西国大名」、同「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同「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など参照。

73)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988号。当該文書には「仕置城」と記されているが、本稿では煩を避けるために「仕置之城」と表記する。

行長は秀吉から「しろ国之内」つまり慶尚道内への配置が指示されていたが、「赤国順天郡内」つまり全羅道順天に変更する。

- ④ 秀吉からは立花宗茂の釜山在番が指示されていたが、釜山は日本・朝鮮間の情報伝達の要地なので、毛利吉成が釜山に在番する。
- ⑤ ④にともない、宗茂は島津義弘と鍋島直茂が在番する「仕置之城」の間に1城を普請し、在番する。

連署状の差出書により確認される会議参加の諸将は、〈左軍〉の宇喜多秀家・蜂須賀家政・生駒一正・小西行長・島津義弘（同忠恒も）・軍目付垣見一直・同熊谷直盛、〈右軍〉の鍋島直茂・長宗我部元親（同盛親も）・池田秀雄・中川秀成、〈中軍〉から分離した毛利勢の指揮官吉川広家と軍目付早川長政である。こうした諸将の顔ぶれが示すように、井邑会議は全州会議の③にしたがって全羅道に戻った諸将が開いた会議であった。ただし、毛利吉成だけは連署していない。これは④によりすでに釜山に向かっていたためと推測される。しかし、①の侵攻計画（もしくは計画案）を示す「高麗陣諸将郡割並ニ陣立人数書出案」の前半部分には吉成の担当地域が記載されており（表6）、実際には子吉政が豊前毛利勢や日向衆を率いて転戦しているので、その軍勢も井邑に集結していたとみてよい。

ここで2月令と全州会議・井邑会議における諸決定との関係を整理しておこう。1598年の1月26日付宇喜多秀家連署状に「去年赤国御働之間ニ井邑と中所ニて各相談仕、多分ニ付て、御仕置之城所并御普請人数割等大方相究」とあるように<sup>74)</sup>、井邑会議の諸決定はAにしたがって多数決によっている。①は①③⑤つまりはB・Cにしたがった決定である。②は①④の実施状況つまりはBの実施状況を報告する決定である。③～⑤は⑤つまりはCにしたがった決定である。このように、秀吉が2月令で示した戦略は全州会議・井邑会議の諸決定ひいては丁酉再乱時における日本側の軍事行動の根本的な条件となっていた。

「高麗陣諸将郡割並ニ陣立人数書出案」の前半部分は「一番郡割之事」「二番目郡割之事」からなっており、全羅道の地域名とその担当諸将が列挙され、後者記載の地域が前者のそれよりも南に位置しているので、「一番」「二番目」の名称どおりの順で全羅道を

74)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1206号。

南下してゆく計画であったことが知られる(表6)。なお、「船手衆」すなわち〈水軍〉については「一番郡割之事」記載の地域名は「高麗陣諸將郡割並ニ陣立人数書出案」の後半部分にも記載がある(表5)。これは全州会議の④にしたがい全羅道沿岸に侵攻していた〈水軍〉が井邑會議に参加しておらず、侵攻状況が不明であったために生じた混乱であろう。

表6

| 諸將                 | 「一番郡割之事」 | 「二番目郡割之事」 |
|--------------------|----------|-----------|
| 島津義弘 ※義弘は泗川へ、忠恒が指揮 | 万頃、扶安    | 康津、海南     |
| 鍋島直茂 ※直茂は馬山へ、勝茂が指揮 | 金溝、金堤    | 和順、綾城     |
| 毛利吉成 ※吉成は釜山へ、吉政が指揮 | 興徳       | 同福        |
| 長宗我部元親             | 古阜       | 羅州        |
| 池田秀雄・中川秀成          | 泰仁       | 光州        |
| 「中国衆」(吉川広家ら)       | 茂長、靈光    | 珍原、昌平     |
| 蜂須賀家政・生駒一正         | 井邑、高敞    | 南平、靈岩     |
| 宇喜多秀家              | 長城、潭陽    | 宝城、長与     |
| 小西行長               | 浮呂、玉果、谷城 | 樂安、順天、光陽  |
| 「船手衆」(〈水軍〉)        | 咸平、務安    | 興瑞        |

以下で例示してゆく諸將の軍事行動からすると、「一番郡割之事」「二番目郡割之事」はあくまで計画(もしくは計画案)であった。例えば、鍋島勢の場合、前者では金溝・金堤、後者では和順・綾城が担当地域となっており、金溝・金堤に侵攻した事実は確認されるが、和順・綾城は不明である。一方、後者で島津勢の担当地域とされていた康津に駐屯した事実が確認される。また、吉川広家ら「中国衆」の場合、前者では茂長・靈光、後者では珍原・昌平が担当地域となっており、靈光と珍原に侵攻した事実は確認されるが、他は不明である。蜂須賀勢の場合、9月27日に配下の森水軍が鄭希得を靈光沿

海で捕らえており、この靈光は前述のように吉川広家らの担当地域であり、蜂須賀勢よりも先に同地に侵攻していた。おそらく、蜂須賀勢はまず井邑から高敞に進撃し、靈光を経て南平・靈岩に侵攻したと推測される。なお、表6に示したように、蜂須賀勢と生駒勢は1つの組となっており、全州会議以来の蜂須賀・生駒の組が健在であったとみてよい。小西行長の場合、③にしたがって、「二番目郡割之事」記載の順天で「仕置之城」を普請し、在番する。長宗我部勢に関しては、二次的な史料の『元親記』ではあるが<sup>75)</sup>、古阜・羅州に侵攻したとする所見がえられる。以上のように、「一番郡割之事」「二番目郡割之事」の記載どおりに計画が実施されたわけではないが、井邑会議以降に諸将が①にしたがって全羅道の未侵攻地域に侵攻していったのはまちがいない。より具体的な状況を鍋島勢・島津勢を例にみておこう<sup>76)</sup>。

③④⑤のように諸将は「仕置之城」の担当を決定した。鍋島勢の担当は昌原の馬山倭城であり、島津勢の担当は泗川倭城であった。そのため直茂は昌原に移動してゆき、全羅道侵攻における鍋島勢の指揮は子息勝茂がとることになる。これは島津勢や豊前毛利勢の場合も同様で、義弘が泗川倭城に、吉成が釜山倭城に移動したのに対し、それぞれの子息忠恒と吉政は全羅道侵攻にあたった。

10月1日付鍋島勝茂宛垣見一直・熊谷直盛・早川長政連署鼻請取状によれば<sup>77)</sup>、直茂と別れた勝茂が「一番郡割之事」のとおり井邑から再北上して9月中旬に金溝・金提で③にしたがい「撫切」していたことが判明する。「二番目郡割之事」では鍋島勢の担当地域は和順・綾城とされていたが、勝茂が両地に侵攻した形跡はない。一方で、康津に侵攻・駐屯したことが確認される。諸将は農民支配のために還住などを呼びかける榜文を各地で掲げた。榜文は1597年9月日付であり、宇喜多秀家の名で出されたものと他の諸将の連名で出されたものがある。前者に関しては「鍋島家文書」所収の全羅道康津県定榜文写、『直茂公譜考補』所収の慶尚道昌原・恭原定榜文写、『島津家文書』所収の全羅道海南定榜文写が確認される<sup>78)</sup>。後者に関しては『島津家文書』所収の全羅道海南定榜文写、慶尚道昆陽定榜文写、慶尚道丹城定榜文写が確認され、さらに『直茂公譜考補』によれば慶

75) 『元親記』（『続群書類従 第二十三輯上』続群書類従完成会、1927年）。

76) 以下、とくに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参照。

77) 東京大学史料編纂所所蔵写真帳「大阪城天守閣所蔵文書」。

78) 「鍋島家文書」122号、『佐賀県近世史料 第一編第一巻』（佐賀県立図書館、1993年）所収『直茂公譜考補』750～751頁、『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970号。

尚道昌原・恭原定榜文写もあったと考えられる<sup>79)</sup>。海南定榜文写と昌原・恭原定榜文写の例からすると、秀家単独の榜文と諸将連署の榜文が1セットとなって機能したと推測される。また、秀家や連署した諸将が井邑会議の参加者であった点からすると、榜文は井邑会議の際に一括して作成され、該当地域担当の諸将に配布されたと考えてよい。

これら榜文写の残存状況からすると、鍋島勢が駐屯支配を試みたのは全羅道の康津、慶尚道の昌原・恭原であったと判断すべきである。昌原は馬山倭城があり、その普請・在番のため直茂が移動していった地なので、直茂が駐屯支配にあたったのであろう(恭原は昌原の近近と思われる)。康津は勝茂の担当地域であり<sup>80)</sup>、勝茂は井邑から一旦北上して金溝・金堤に侵攻したのち駐屯支配のために康津に向けて南下していったと考えられよう。その過程で、和順・綾城を経由した可能性もあるが、前述のようにその形跡はない。

「二番目郡割之事」では康津と海南が義弘の担当地域とされていたが、実際には義弘は泗川倭城に移動し、その子忠恒が海南に侵攻した。この忠恒のもとに9月26日から頻繁に勝茂の使者が訪れるようになる。よって、康津と海南の位置関係からすると勝茂はこの頃には康津に到着していたと考えてよい。11月3日付忠恒宛福原長堯書状によれば<sup>81)</sup>、忠恒は10月10日に海南を出発、同28日には泗川に到着しており、その途次で勝茂と合流して南原まで同行していた。この南原から忠恒は父義弘の待つ泗川に向かい、勝茂は父直茂の待つ昌原に向かった。両人の移動は①にしたがい「仕置之城」を普請するためであった。こうして井邑会議後に全羅道に侵攻した諸将、そして全州会議の④により全羅道沿岸に進撃した〈水軍〉の諸将、いずれもが全州会議の⑤にしたがって「仕置之城」の普請に従事することになる。

その「仕置之城」の普請をみてゆこう<sup>82)</sup>。長宗我部元親・池田秀雄・中川秀成・毛利吉政・日向衆や軍目付垣見一直は10月下旬から義弘在番の泗川倭城を普請していた。蜂

79)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971号、972号、973号、『直茂公譜考補』751頁。

80) 『勝茂公譜考補』200～201頁。

81) 『鹿児島県史料旧記雑録 後編三』337号。

82) 以下、笠谷和比古・黒田慶一『秀吉の野望と誤算』(文英堂、2000年)、白峰旬「文禄・慶長の役における秀吉の城郭戦略」(同『豊臣の城・徳川の城』校倉書房、2003年、初出2001年)、太田秀春「序章」(同『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清文堂出版、2006年)、織豊期城郭研究会編『倭城を歩く』(サンライズ出版、2014年)、前掲津野「朝鮮出兵と西国大名」、同「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同「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など参照。

須賀家政は10中旬・12月下旬に昌原にいたことが判明するので、直茂在番の馬山倭城を普請していたと考えられ、従前の組としての行動からすると生駒一正も参加していた可能性が高い。12月2日付宇喜多秀家・藤堂高虎宛小西行長書状写には「赤国之内順天之御城御普請悉相済、請取申候」とあり、秀家・高虎の両名が順天倭城の普請に在番者行長とともにあたっていたことが知られる<sup>83)</sup>。この順天倭城の普請は後述のように刮目すべき状況をとまっていた。加藤嘉明は宗義智在番の南海倭城の普請にあたっており、来島吉清（戦死した通総の弟）も参加していたとみてよい。

他方、前述のように黒田長政と毛利秀元は忠清道清州から同道青山・黄澗さらに慶尚道星州などを経て同梁山に到着し、清正は慶尚道尚州を經由して10月8日に同蔚山に到着した。長政は梁山倭城に在番することになり、普請はおもに秀元指揮下の毛利勢が担った。また、清正は西生浦倭城に入り、清正がのちに在番することになる蔚山倭城の普請は浅野幸長や穴戸元統指揮下の毛利勢が担った。こうした「仕置之城」普請は全州会議の②つまりはCに規定された軍事行動である。

以上のような「仕置之城」普請によって、丁酉再乱時には朝鮮南部に蔚山・梁山・馬山・固城・泗川・南海・順天の諸城が新築された。すなわち、Cが実現していたのである。

## 7. 日本側の朝鮮南部支配と秀吉の順天倭城・蔚山倭城への執心

第3章～第5章では日本側諸将の全羅道・忠清道への侵攻とその後の「仕置之城」普請を確認した。こうした軍事行動が、丁酉再乱時の日本の目的は朝鮮南部の征服とする持論の論拠である。ただし、駐屯支配に若干言及したものの、征服の第1段階にあたる侵攻を確認したに過ぎない。そこで、本章では征服の第2段階にあたる支配の状況を検討し、持論の新たな論拠を提示したい。

83) 『大日本古文書 浅野家文書』255号。行長も普請にあたっていた点に関しては太田秀春「倭城の「城下」と「附逆」朝鮮人」（前掲太田『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参照。

まず、前章でふれた鍋島勝茂の康津における駐屯支配をみておこう<sup>84)</sup>。1597 (慶長2) 年の9月23日付生駒一正宛熊谷直盛他連署状写によれば<sup>85)</sup>、直盛ら軍目付は「当納之儀、五の物を一ツ可致納所歟、又四分一可運上歟、百姓請相候様ニ、かろ / \ と不可過御分別事」など多岐にわたり農民支配に関する指示を出しており、その実施に関する助言からは榜文が駐屯地域に掲げられ、それに則った支配が試みられた事実が判明する。さらに連署状の追而書によれば、こうした指示・助言は勝茂や島津忠恒にも伝えられた。勝茂の従軍僧泰長院明琳が作成した全羅道康津県十八社数書出には<sup>86)</sup>、「四分一并五分一米、一千一百五十二石十二斗 日本御上納」といった記載があり、この書出は「納穀割付状」とみられている<sup>87)</sup>。日付は勝茂の康津出発間際の1597年10月9日なので収納の達成は微妙であるが、勝茂が軍目付の指示にそって康津の駐屯支配にあたったことは確かであり、中野等氏は「曲がりなりにも朝鮮の在地社会と「日本」との間に年貢上納の契約が成立した」と指摘している<sup>88)</sup>。

この指摘と関連する刮目すべき次のような状況が、太田秀春氏によって明らかにされている<sup>89)</sup>。1597年10月頃、順天倭城の普請では「免死帖」(「労役を提供することで得た、まさに命の保障証」とされる)を帯びて朝鮮の民衆が小西行長の陣で労役に従事していた<sup>90)</sup>。また、同年12月22日におこった蔚山の戦いでは、蔚山倭城に約500人の朝鮮人が籠城しており、武器を所持して「助賊」つまり日本側を助けていた<sup>91)</sup>。こうした状況に着目して太田氏は、丁酉再乱時には「豊臣政権が企図していた朝鮮の領土化が進行していた様子をはっきりとみることができる」、「免死帖」を発給して労役に動員するなど壬辰倭乱時より「一層進んだ支配を実現していた」と指摘している。中野・太田の両氏の指摘をふまえるならば、日本の目的である朝鮮南部の征服が一応は達成されていたといえよう。

ところが、籠城部隊が凄惨をきわめた蔚山の戦いを契機として諸将の間には消極性が

84) 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参照。

85) 『鹿児島県史料旧記雑録 後編三』313号。

86) 「鍋島家文書」123号。

87) 前掲中村『日鮮関係史の研究 中』217～219頁。

88) 前掲中野『戦争の日本史16 文禄・慶長の役』219頁。

89) 前掲太田「倭城の「城下」と「附逆」朝鮮人」。

90) 『宣祖実録』巻93、宣祖30年10月己卯条。

91) 『宣祖実録』巻97、宣祖31年2月丁巳条。

生じる。1598年1月26日、宇喜多秀家・毛利秀元らは井邑会議で決定して秀吉にも上申済みの諸計画を変更すると言上した<sup>92)</sup>。変更の内容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戦線東端の蔚山倭城を放棄し、同城在番者の清正を西生浦倭城に移動させ、その普請には毛利勢があたる。戦線西端の順天倭城も放棄し、同城在番者の小西行長を泗川倭城に移動させ、これと連動して泗川倭城在番者の島津義弘と釜山倭城在番者の毛利吉成を固城倭城に移動させ、その普請には宇喜多・藤堂の両勢があたる。さらに、梁山倭城を放棄し、同城在番者の黒田長政を亀浦倭城に移動させ、その普請には毛利勢があたる。蔚山倭城放棄の理由は「蔚山之儀、最前御左右次第ニ可相定と雖致言上候、能々吟味仕候へハ、所柄出過、難所川越ニて、以来迄無心元所ニて御座候」、順天倭城放棄の理由は「小西在城順天之儀、大河をへたて、路次筋難所ニて手苦候て、船付遠干潟に候へハ、自然之時、海陸共ニ加勢難成所ニて御座候」とされていた。いずれも、救援時の困難を理由としており、こうした消極的な戦線縮小策の献策は秀吉の逆鱗にふれることになる。

秀吉は、蜂須賀家政・黒田長政を戦線縮小策の「興行人」として譴責し、軍目付の早川長政・竹中隆重・毛利友重らを「第一之曲者」と難じた<sup>93)</sup>。これと好対照なのが、加藤嘉明の処遇である。1598年5月3日付嘉明宛秀吉朱印状によれば<sup>94)</sup>、秀吉は嘉明の功績とりわけ戦線縮小策に同意しなかったことを賞して37100石の加増を決定し、国持大名にする腹案も提示した。こうした賞罰が示すように、秀吉は蔚山・順天の倭城に執心していたのである。

実際、秀吉は梁山倭城の放棄は許容したものの、蔚山・順天両城の放棄を断固として許さなかった。前述のように、蔚山の戦いに際して蔚山倭城には約500人の朝鮮人が籠城して日本側を助けており、順天倭城の普請では「免死帖」を帯びた朝鮮の民衆が労役に従事していた。丁酉再乱で「仕置之城」として新築された両城の周辺では「豊臣政権が企図していた朝鮮の領土化が進行していた」のである。そのような「仕置之城」を2月令において秀吉が先手の前衛に指名した加藤清正・小西行長の両人が維持している状況は、秀吉が立案した戦略の奏功の証となる。つまり、朝鮮南部の慶尚道はもとより全羅道も征服している証となる。とりわけ順天倭城は「赤国」すなわち全羅道の「仕置之城」たる

92)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1206号。以下、前掲津野「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同「軍目付垣見一直と長宗我部元親」など参照。

93)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978号。

94) 東京大学史料編纂所架蔵影写本「近江水口加藤文書」。

ことに意義が存在した。順天倭城の放棄を許すことは、最高指揮官たる秀吉自身が全羅道征服の失敗すなわち丁酉再乱の日本側の挫折を認めることを意味する。秀吉の指示どおり在番を継続した行長もまたその意味を知悉していたのであろう。順天倭城受取時の12月2日付行長書状写に「赤国之内順天之御城」とあったように、行長は順天倭城を「赤国」に設置された秀吉の「御城」と認識しており、そもそも戦線縮小策に同意していなかった<sup>95)</sup>。「赤国」唯一の「仕置之城」にして新築の順天倭城は、全羅道征服の象徴であった。ゆえに、秀吉は蔚山倭城とともに順天倭城に執心したのであり、このように秀吉が執心の鬼と化していた事実は丁酉再乱時の目的が朝鮮南部の征服にはかならなかったことを如実に示していよう。

## 8. おわりに

本稿の課題は、丁酉再乱時の日本の目的に関する持論を提示し、その持論の論拠である丁酉再乱時の日本側の軍事行動を確認し、しかるのちに持論の新たな論拠を提示することであった。

第1章では、丁酉再乱時の日本の目的は朝鮮南部の征服であり、クラウゼヴィッツの表現をかりれば、丁酉再乱は「第二の戦争」であるとの持論を提示した。なお、こうした持論の大前提は秀吉の朝鮮・明に対する認識すなわち「秀吉の大誤解」「秀吉の錯覚」である。

第2章では、丁酉再乱当初の1597年2月21日の2月令で秀吉が渡海諸将に示した戦略を検討した。戦略の骨子は以下のとおりであった。

- A：先手（前掲表1）の軍事行動は諸将の多数決で決定する。
- B：先手はまず全羅道を制圧し、忠清道などについては可能な範囲で侵攻する。
- C：B終了後に「仕置之城」の城地を選定し、諸将の多数決で城主を決定し、普請などは帰国予定の諸将が担当する。

---

95) 『大日本古文書 島津家文書』978号、1206号。

Bに慶尚道に関する指示がないのは、すでに掌握済みと秀吉が認識していたからで、

Cの「仕置之城」に関する指示をふまえるならば、Bからは最高指揮官たる秀吉の目的すなわち日本の目的は朝鮮南部の征服であった事実を看取すべきである。この2月令で秀吉が示した戦略は、第3章～第5章で確認したように、全州会議・井邑会議の諸決定ひいては丁酉再乱時における日本側の軍事行動の根本的な条件となっていた。

第3章では、1597年7月の釜山会議における決定とこれにもとづく日本側の軍事行動を確認した。この会議では先手を「二手」に分けて全羅道に侵攻する方針が決定された（前掲表3）。慶尚道を北上した右軍は8月14～16日に黄石山の戦いで勝利をおさめて全羅道全州にいたり、慶尚道南部を西進した左軍と水軍は河東で合流して8月13～15日に全羅道の南原城を攻略したのち全州にいたった。こうした釜山会議の決定と全羅道への侵攻は2月令とりわけA・Bを条件としており、朝鮮南部の征服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った。

第4章では、上記の先手の諸将が一堂に会した8月26日の全州会議の諸決定とこれらにもとづく日本側の軍事行動を確認した。諸決定は以下のとおりであった。

忠清道侵攻にあたり部隊を再編する（前掲表4）。当然、部隊再編の前提である忠清道侵攻もこの時に決定されたはずである。

忠清道侵攻後、〈右軍〉加藤清正・〈中軍〉黒田長政の両勢と〈中軍〉毛利秀元勢の一部は慶尚道に直接戻り、清正・長政の「城所」に移動して普請にあたる。また、慶尚道への「罷戻ミち筋」を進攻してゆく。普請には慶尚道駐留中の小早川勢等も加わる。

忠清道侵攻後、加藤清正勢を除く〈右軍〉や〈中軍〉毛利秀元勢の一部（吉川広家が率いる「中国衆」）そして〈左軍〉は全羅道に戻り、「海陸共ニ撫切」にしてゆく。

〈水軍〉は忠清道に侵攻せず、全羅道沿岸に進撃してゆく。

全羅道侵攻が終了次第、「仕置之城」すなわち倭城の普請にとりかかる。

これらの諸決定が多数決によってなされたのはAを、①～④の全羅道・忠清道の侵攻計画はB（②の清正らが慶尚道に直接戻るのとはC）を、⑤の全羅道侵攻終了後の「仕置之城」普請の確認はCを、それぞれ条件としていた。①④はほぼ実施されており、諸将は全羅道・忠清道の各地に侵攻していった（前掲表5）。また、②の決定どおり清正・長政と毛利秀元勢の一部は両道侵攻後に慶尚道に戻っていった。②③の実施にあたる毛

## 70 精霊界と 東アジア

利秀元勢の分離も観察された。こうした全州会議の諸決定と忠清道侵攻・全羅道侵攻は2月令A～Cを条件としており、朝鮮南部の征服を目的とした軍事行動にほかならない。

第5章では、③で全羅道に戻るとされていた諸将が9月16日に開いた井邑会議の諸決定とこれらにもとづく日本側の軍事行動を確認した。会議の諸決定は以下のとおりであった。

- ① 全羅道の未侵攻地域への侵攻計画を定め、実行してゆく。侵攻終了後は「仕置之城」を普請する。
- ② 井邑会議までの忠清道・全羅道の侵攻状況を「絵図」に記載して秀吉に報告する。
- ③ 諸将が在番・普請にあたる「仕置之城」の城地を決定し、秀吉に報告する。小西行長は秀吉から慶尚道内への配置が指示されていたが、全羅道順天に変更する。
- ④ 釜山在番者を立花宗茂から毛利吉成に変更する。
- ⑤ 立花宗茂は島津義弘と鍋島直茂が在番する「仕置之城」の間の1城に在番する。

これらの諸決定もAにしたがって多数決によっている。①は①③⑤つまりはB・Cにしたがった決定である。②は①④の実施状況つまりはBの実施状況を報告する決定である。③～⑤は⑤つまりはCにしたがった決定である。①で決定された全羅道侵攻計画（前掲表6）は計画どおりに実施されたわけではないが、諸将が全羅道の未侵攻地域に侵攻していったのはまちがいでなく、侵攻後は同じく①で決定されたように「仕置之城」を普請した。また、④⑤により毛利吉成が釜山倭城、鍋島直茂が馬山倭城、島津義弘が泗川倭城へそれぞれ移動していた。他方、②つまりはCどおり慶尚道に戻った黒田長政は梁山倭城に、加藤清正は蔚山倭城に在番することになり、毛利秀元勢などが両城の普請を担った。「仕置之城」普請によって、丁酉再乱時には蔚山・梁山・馬山・固城・泗川・南海・順天の諸城が新築された。このように井邑会議の諸決定とその後の全羅道侵攻・「仕置之城」普請もまた2月令A～Cを条件としており、朝鮮南部の征服を目的とした軍事行動にほかならなかった。

第2章～第5章における考察により、2月令の戦略から看取すべき丁酉再乱時の秀吉の目的すなわち日本の目的は朝鮮南部の征服であり、この2月令を根本的な条件として展開された丁酉再乱時の日本側の軍事行動は朝鮮南部の征服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った

事実が確認された。こうした軍事行動が日本の目的に関する持論の論拠であるが、ほとんど征服の第1段階である侵攻の確認に終始した。

そこで、第6章では持論の新たな論拠を提示すべく、征服の第2段階にあたる支配の状況を検討した。第5章で言及したように、諸将は井邑会議で農民支配のために還住などと呼びかける榜文を作成し、全羅道・慶尚道での駐屯支配を試みていた。例えば、全羅道康津の駐屯支配にあたった鍋島勝茂は「納穀割付状」まで作成しており、中野等氏は「曲がりなりにも朝鮮の在地社会と「日本」との間に年貢上納の契約が成立した」と指摘している。さらに、㊸どおり実施された順天倭城の普請では「免死帖」を帯びた朝鮮の民衆が小西行長の陣で労役に従事しており、蔚山の戦いでは武装した約500人の朝鮮人が蔚山倭城に籠城して日本側を助けていた。こうした状況に着目して太田秀春氏は、丁酉再乱時には「豊臣政権が企図していた朝鮮の領土化が進行していた様子をはっきりとみることができる」、壬辰倭乱時より「一層進んだ支配を実現していた」と指摘している。中野・太田の両氏の指摘をふまえるならば、かりそめながら、朝鮮南部の征服は達成されていたといえる。

しかし、蔚山の戦いを契機として諸将の間には消極性が生じ、宇喜多秀家らは戦線東端の蔚山倭城と戦線西端の順天倭城を放棄する戦線縮小策を秀吉に上申する。秀吉は蜂須賀家政らを戦線縮小策の「興行人」として譴責し、軍目付早川長政らを「第一之曲者」と難じる一方、戦線縮小策に同意しなかったことを賞して加藤嘉明に約37000石を加増するとした。こうした賞罰が示すように秀吉は蔚山・順天の倭城に執心しており、両城の放棄を断固として許さなかった。前述のように、丁酉再乱で「仕置之城」として新築された両城の周辺では「豊臣政権が企図していた朝鮮の領土化が進行していた」。そのような戦線両端の「仕置之城」を秀吉が2月令において先手の前衛に指名した清正・行長の両人が維持している状況は、自身が立案した戦略の奏功の証、つまりは朝鮮南部を征服している証となる。順天倭城の放棄を許すことは、最高指揮官たる秀吉自身が全羅道征服の失敗すなわち丁酉再乱の日本側の挫折を認めることを意味する。「赤国」唯一の「仕置之城」にして新築の順天倭城は、丁酉再乱時の全羅道征服の象徴であった。ゆえに、秀吉は蔚山倭城とともに順天倭城に執心したのである。かくも秀吉が執心の鬼と化していた事実は丁酉再乱時の目的が朝鮮南部の征服にほかならなかったことを如実に示しているのであり、持論の新たな論拠となる。

## 72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秀吉は丁酉再乱時にも究極の目的としては明征服を唱え続け、「己亥再々乱」ともいうべき戦乱も惹起しかねなかった。しかし、2月令で示された戦略とこれを根本的な条件として展開された軍事行動、そして全羅道征服の象徴である順天倭城への秀吉の執心、これらが明示するように、丁酉再乱は朝鮮南部の征服を目的とした「第二の戦争」にほかならなかった。

### [ 付記 ]

本稿はJSPS科研費 JP16K03016の助成を受けたものである。

〈参考文献〉

- 跡部信『豊臣政権の権力構造と天皇』（戎光祥出版、2016年）
- 李炯錫『壬辰戦乱史 中巻』（東洋図書出版、1977年）
- 李敏雄「丁酉再乱期における漆川梁海戦の背景と主要経過」（黒田慶一編『韓国の倭城と壬辰倭乱』岩田書院、2004年）
- 太田秀春『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清文堂出版、2006年）
- 笠谷和比古・黒田慶一『秀吉の野望と誤算』（文英堂、2000年）
- 北島万次『朝鮮日々記・高麗日記』（そしえて、1982年）
- 『豊臣政権の対外認識と朝鮮侵略』（校倉書房、1990年）
- 「壬辰倭乱における二つの和議条件とその風聞」（同他編『日朝交流と相克の歴史』校倉書房、2009年）
- クラウゼヴィッツ著・篠田英雄訳『戦争論（上）』（岩波書店、1968年）
- 清水克行『耳鼻削ぎの日本史』（洋泉社、2015年）
- 織豊期城郭研究会編『倭城を歩く』（サンライズ出版、2014年）
- 白峰旬『豊臣の城・徳川の城』（校倉書房、2003年）
- 鄭杜熙・李璟珣編著『壬辰戦争』（明石書店、2008年）
- 田中健夫『対外関係と文化交流』（思文閣出版、1982年）
- 田保橋潔「壬辰役雑考」（『青丘学叢』第14号、1933年）
- 津野倫明「文禄・慶長の役における毛利吉成の動向」（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9号、2002年）
- 「慶長の役における黒田長政の動向」（『海南史学』第42号、2004年）
- 「朝鮮出兵の在番体制に関する一朱印状写」（『日本歴史』第684号、2005年）
- 「朝鮮出兵における鍋島直茂の一時帰国について」（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13号、2006年）
- 「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織豊期研究』第8号、2006年）
- 「朝鮮出兵と西国大名」（佐藤信・藤田覚編『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2007年）
- 「慶長の役における「四国衆」」（地方史研究協議会編『歴史に見る四国』雄山閣、2008年）
- 「黒田長政宛鼻請取状について」（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17

号、2011年)

『長宗我部氏の研究』(吉川弘文館、2012年)

「巨済島海戦に関する一注進状」(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第19号、2013年)

「朝鮮出兵の原因・目的・影響に関する覚書」(高橋典幸編『戦争と平和』竹林舎、2014年)

「日本文献の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の記録とその限界」(『東国史学』第62輯、2017年6月30日予定)

徳富猪一郎『近世日本国民史 豊臣氏時代丁篇朝鮮役 上巻』(民友社、1925年)

仲尾宏「丁酉・慶長の役戦場と慶念」(朝鮮日々記研究会編『朝鮮日々記を読む』法蔵館、2000年)

中野等「文禄の役における立花宗茂の動向」(『日本歴史』第597号、1998年)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吉川弘文館、2006年)

『戦争の日本史16 文禄・慶長の役』(吉川弘文館、2008年)

中村栄孝『日鮮関係史の研究 中』(吉川弘文館、1969年)

橋本雄『中華幻想』(勉誠出版、2011年)

藤木久志『豊臣平和令と戦国社会』(東京大学出版会、1985年)

三鬼清一郎『豊臣政権の法と朝鮮出兵』青史出版、2012年)

米谷均「日明・日朝間における肅拝儀礼について」(中島楽章・伊藤幸司編『寧波と博多』汲古書院、2013年)

「文禄・慶長の役 / 壬辰戦争の原因 実像編」(堀新・井上泰至編『秀吉の虚像と実像』笠間書院、2016年)

## 제2주제

---

### 전쟁의 전개 양상 1

---

#### 정유재란시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연합군

발 표 :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토 론 : 김태훈(서울대)

1. 머리말
2. 정유재란의 발발과 명군의 파견
3. 파병 명군의 구성과 지휘체계
4. 조·명연합군의 전쟁수행과 전황
5. 맺음말



## 1. 머리말

시대를 초월하여 임진전쟁에 대한 관심은 높다. 이는 전통시대 국제전쟁으로 그 원인, 과정, 결과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임진전쟁이 가지는 의미는 현재, 전쟁을 부르는 명칭의 차이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임진전쟁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여 정유재란은 상대적으로 임진전쟁의 후반부로 인식하고, 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향후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방대하게 이루어졌다. 임진전쟁에서 조선·명·일본의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국제전쟁으로서 성격을 분석하였다.<sup>1)</sup> 임진전쟁은 명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쟁으로 성격을 가지는데, 임진전쟁시기 명군에 관한 연구는 파병정세와 파병자체에 대한 연구<sup>2)</sup>, 파병된 명군으로 인한 정치·사회·경제적 영향에

1) 최영희, 「임진왜란중의 대명사대에 대하여」, 『사학연구』 18, 1964; 이현중, 「임진왜란시 琉球 東南亞國人の 來援」, 『일본학보』 2, 1974; 최소자, 「임진왜화와 명조」, 『아시아문화』 8, 1992; 하우봉, 「壬辰倭亂 以後의 釜山과 日本關係」, 『항도부산』 9, 1992; 이민호, 「임난과 한중일의 외교관계」,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 1993; 김종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대명청관계」,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 1993; 이지영, 「임진왜란과 대외관계」, 『동국역사교육』 4, 1996;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관계사 연구』, 이대출판부, 1997;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최소자, 「壬辰倭亂前後 明과 朝鮮」, 『사명당유정』, 지식산업사, 2000; 김문자, 「전쟁과 평화의 근세 한일 관계 -임진왜란과 통신사-」, 『일본역사연구』 18, 2003; 계승범, 「파병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 2006; 하우봉, 「해양사관에서 본 조선시대의 재조명-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10, 2006; 유보전, 「임진난 후 조선 對明인식의 변화-再造之恩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11, 2006; 정두화·이경순,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민덕기, 「임진왜란기 조선의 북방 여진족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책: 「南倭北虜」란 측면에서」, 『한일관계사연구』 34, 2009; 조흥국, 「임진왜란에 대한 태국의 실용 외교와 중국의 以夷制夷 외교」, 『동남아시아연구』 19(3), 2009; 이계황, 「에도[江戶]막부의 대외관계 형성과정」, 『한국학연구』 19, 2009; 한일관계사연구회논집 편찬위원회 편,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경인문화사, 2010; 한일문화교류기금 동북아역사재단 편,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0; 민덕기, 「임진왜란의 「戰後처리」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 『한일관계사연구』 36, 2010;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11;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계승범, 「임진왜란 중 조명관계의 실상과 조공책봉관계의 본질」, 『한국사학사학보』 26, 2012;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경계』 85, 2012; 金墩, 「임진왜란사의 庚寅通信使 관련 역사서술의 문제」, 『한일관계사연구』 43, 2012; 민덕기, 「임진왜란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박정민, 「임진왜란과 여진인 「來朝」의 종언」, 『만주연구』 18, 2014; 한성주, 「임진왜란 전후 女眞 藩胡의 朝鮮 침구 양상과 조선의 대응 분석」, 『동양사학연구』 132, 2015; 홍운기, 「東廟의 明 使臣이 지은 懸板에 대한 考證과 그 외교적 문화적 의미에 관하여 -壬辰倭亂 직후부터 丙子胡亂 직전까지」, 『중국학논총』 49, 2015; 장정수, 「16세기 말~17세기 초 朝鮮과 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申忠一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 25, 2016.

2) 장학근, 「倭軍嚮導論에 대한 明·日의 압력과 조선의 대응」,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 1993; 김한식 「明代

대한 분석<sup>3)</sup> 등이다. 이러한 조·일간 전쟁 뿐만 아니라 명군과 연관된 전쟁사 조망은 임진전쟁사 연구에 필수적인 분야라 할 것이다. 수군의 측면에서 조명연합 및 전략전술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sup>4)</sup>

무엇보다 국제전쟁으로 임진전쟁, 정유재란을 인식하면서 정작 국제전쟁으로서 각 국가에서 왜 참전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전쟁을 소재로 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임진전쟁에 명군의 참전은 많은 조망이 있었지만, 정유재란에 왜 명군이 참전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참전으로 인식한다. 또한, 전쟁의 주체로서 조선군, 명군, 일본군의 기본적인 구성과 지휘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유재란 발발과 동시에 명군이 파병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파병된 명군의 특징은 무엇이며, 명군과 조선군의 관계 및 전쟁수행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글은 첫째, 임진전쟁과 비교하여 정유재란 시기 조선의 파병요구, 명군의 참전과정 및 배경을 분석하고, 둘째, 파병된 명군의 구성 및 지휘체계를 명대 지휘체계와 비교하여 정리하며, 셋째, 파병된 명군의 작전 및 조명연합군 구성과 주요 전투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정유재란 시기 파병 명군과 조명연합군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분석한다.

본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1596년부터 1599년까지이며, 정유재란을 조명연합군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대외관계사 및 전쟁사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명연합군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결과 등에 대한 접근은 논외로 한다.<sup>5)</sup>

---

援朝抗倭의 실상 및 그 역사계기성』, 『황중동 교수 정년 기념논총』, 1994; 정병철, 「명말의 화북사회와 조선의 왜란」, 『명청사연구』 10, 1999; 차혜원, 「정유재란기 명조의 파병결과와 “공의” 文興君控於錄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69, 2010.

3)

4) 이만웅, 「조·명 연합함대의 형성과 노량해전 결과」, 『역사학보』 178, 2003;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임진왜란 해전을 통해 본 朝·明·日 삼국의 전략전술 비교」, 『군사』 51, 2004; 이만웅, 「임진왜란과 동북아 삼국의 해양전략」, 『도서문화』 25, 2005.

5) 이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장희, 「임란중 양향고」 『사충』 15·16, 1971; 유구성, 「임란시 명병의 래원고」 『사충』 20, 1976; 이장희, 「임진왜란 중 둔전경영에 대하여」 『동양학』 26, 1996; 한명기, 「壬辰倭亂 시기 明軍 참전의 社會·文化的 영향」 『군사』 35, 1997.

## 2. 정유재란의 발발과 명군의 파견

의주에서 명군을 간절히 기다리던 선조에게 명군의 파견과 평양성전투 승리는 통치 권의 명분을 회복시키고, 전쟁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명에 대해 再造之恩을 가슴에 새겨주었다.<sup>6)</sup> 이후 임진전쟁의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선조의 명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조의 과도한 명군 의존은 일본의 재침소식이 예견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임진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하였던 명은 강화파를 중심으로 강화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명군의 입장에서 조선에서 명군의 전력을 소모하는 강력한 전투의지는 없었으며, 특히, 평양성전투이후 일본군을 추격하여 남하하던 李如松이 碧蹄전투에서 패퇴한 뒤로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져 명과 일본은 講和協商을 통해 전쟁을 끝내고자 했다.

명·일본의 최초 강화교섭은 명군의 대규모 파병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1592년 7월에 명군 선발대였던 祖承訓이 평양성 공격 실패이후 협상을 시작하면서였다. 명의 강화협상을 실무차원에서 주도하였던 沈惟敬은 1592년 8월부터 小西行長과 협상을 시작했다. 결국 1596년 말까지 명과 일본은 조건의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지속했다. 최종적으로 강화협상의 파탄은 정유재란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sup>7)</sup> 심유경은 159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의 降福院에서 小西行長과 강화회담을 열었다. 조선을 배제한 이 회담에서 양국은 평양과 順安의 중간에 위치한 斧山院을 경계로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잠정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 최초 회담을 통해 명은 일본군의 전투를 중지시키고, 본격적인 파병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선을 배제한 명일간 강화협상에 대해 조선은 직접 강화교섭을 가등청정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일명 ‘서생포회담’으로 불리는 1594년에 3차례 회담을 통해 조선은 강화교

6) 『선조실록』권34, 선조 26년 1월 乙丑. “禮曹啓曰 平壤之賊 俱就殲滅 再造邦國 實在於此 神人胥慶 喜氣洋溢 卽涓吉告于廟社 且隨駕臣子慶抃之情 自不容已 請陳賀何如”

7) 명과 일본 사이의 강화협상에 대해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65; 岡野昌子, 「秀吉の朝鮮侵略と中國」『中山八郎教授頌壽紀念明清史論叢』, 1977; 小野和子, 「明日和平交渉をめぐる政争」『山根教授退休紀念明代史論叢』, 1980; 鄭樑生, 『明·日關係史の研究』, 雄山閣, 1984; 閔德基, 「朝鮮後期 朝·日講和와 朝·明關係」『國史館論叢』12, 1990; 佐島顯子, 「壬辰倭亂講和の破綻をめぐって」『年譜 朝鮮學』, 九州大朝鮮學研究會, 1994; 李啓煌, 『文祿·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 1997.

섭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명이 강화교섭 대상으로 하는 소서행장과 관계가 좋지 않은 가등청정을 상대함으로써 이간책을 목적하기도 했다.<sup>8)</sup>

이와 같이 강화교섭은 명과 일본의 전쟁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주는 데, 명과 일본 내부에 주전과 강화의 이중적인 입장이 존재하여 복잡하게 전쟁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임진전쟁은 조선이 처음으로 외국군대의 국내진입 및 주둔이란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각종 문제가 초래되었다.<sup>9)</sup> 무엇보다 내정간섭과 명군의 군수지원을 조선이 담당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였다. 전쟁의 최대 피해국입장에서 조선을 배제한 강화교섭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적극적인 전쟁수행 의지가 없었던 명은 전쟁상황 종료를 위한 출구전략으로 강화교섭을 선호하였다. 강화교섭은 양측과 조선의 입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렬과 재개를 거듭하면서 직할통치론 등 내용도 변화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풍신수길을 일본 국왕으로 책봉한다는 책봉론으로 포장되어 진행되었다. 강화교섭은 전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주도하는 주체가 수시로 변화되었고, 오히려 강화교섭을 활용하여 전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기도 했다. 조선, 명, 일본 등 전쟁당사자간에 중첩적이고 복잡하게 진행된 강화교섭은 전대미문의 국제전쟁이었던 임진전쟁의 종식을 불안정하게 추진하였던 것으로 16세기말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주요 국가들의 국제전략이 가지는 한계를 잘 보여준다.

강화교섭의 결과로 풍신수길을 일본국왕으로 책봉하는 방책이 결정되자 명군은 우선적으로 參軍 沈懋時를 부산에 파견하여 일본군을 정탐하도록 했다.<sup>10)</sup> 임무를 마무리한

8) 최효식, 「壬亂時 慶州 중심의 朝·日 講和交渉 展開」 『경주사학』 15, 1996.

9) 홍성덕, 「丁酉再亂 이후 明日 政전협상과 조명관계」, 『全北史學』 18, 1995; 김영작, 「임진왜란 전후의 한 일교섭사를 통해서 본 전쟁과 평화의 변증법 -사명대사의 대일교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권 1호, 1999; 이완범, 「임진왜란의 국제정치학 : 일본의 조선분할요구와 명의 對조선 중주권 확보의 대립, 1592~1596」, 『정신문화연구』 25(4), 2002; 김문자, 「임진왜란기 일·명 강화교섭의 파탄에 관한 一考察 : 사명당(松雲大師)·加藤清正 간의 회담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8(3), 2005; 김경태, 「임진왜란 직후, 대일강화정책의 성격연구」, 『한국사연구』 138, 2007; 「임진왜란 후 강화교섭기 국서문제의 재검토」, 『한국사학보』 36, 2009; 김문자, 「임진왜란기의 강화교섭과 加藤清正 : 조선왕자의 送還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허남린, 「명분과 실리의 정치역학 : 임진왜란 시기의 강화논의를 둘러싼 유성룡의 역할과 경쟁」, 『안동학』 11, 2012; 김경태, 「임진전쟁 전반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동향 -戰功의 위기와 講和交渉으로의 가능성」, 『대동문화연구』 77, 2012; 이계황, 「임진왜란과 강화교섭 : 쓰시마번과 고니시 유키나가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34, 2013; 김경태, 「임진전쟁 강화교섭 전반기(1593.6~1594.12), 조선과 명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166, 2014; 「임진전쟁 초기의 군량 문제와 강화교섭 논의」, 『역사와 담론』 70, 2014;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임진전쟁기 강화교섭의 결렬 원인에 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87, 2014; 「임진전쟁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강화조건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8, 2014; 「임진전쟁기 경주 안강 전투와 강화교섭 국면의 변동」, 『한국사학보』 62, 2016.

심무시는 1596년 1월 4일에 부산의 일본군영에서 한양으로 돌아와 병조판서 이덕형과 면담했다. 이때 심무시는 명의 책봉사절이 도왜할 때 조선의 관원이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 동안 철저히 강화협상에서 배제되었던 조선의 입장에서 강화협상을 마무리하는 책봉사절의 파견에 조선 통신사가 함께 간다는 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정식으로 황제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sup>11)</sup> 조선이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자 심무시는 거듭 조선의 관원 동행을 요구했다.<sup>12)</sup>

조선은 이미 명·일간의 封倭事가 현실적으로 결렬될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그 동안 심유경이 명군과 일본군 사이를 왕래하며 진행한 강화협상이 불안정하다는 정보를 수시로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만력제가 전장에서 진행 중인 강화협상의 불안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봉왜사의 결렬에 따른 책임소재에 관련되기 싫었다. 이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 황제에게 보고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이었다. 조선이 단호하게 통신사의 파견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가 별도로 있었다. 이는 명군 파병을 주도하였던 석성이 강화협상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화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마냥 모르는 체할 수도 없었다.

당시 석성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 풍신수길의 바라는 바와 책봉사절 파견은 상호간 요구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에 파견되는 明使를 통해 私書를 보내어 조선에서 명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말의 착오가 없도록 주의시키기도 했다.<sup>13)</sup> 결국 조선은 병부에 파견하는 주문사를 통해 통신사 파견을 만력제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결정하고, 진주사로 호조참판 具晟을 차견했다. 이후 부산 일본병영의 책봉사절을 감찰하기 위해 2월에 遼東察院差官 程學聖과 王誠中, 遼東巡按差官 鐵萬照 등이 차례로 부산을 방문했다.<sup>14)</sup> 명의 감찰계열 관원이 파견한 차관이 수시로 부산을 방문한 것은 명분은 책봉사절의 행동을 점검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는 형과급사중이 황제에게 보고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10) 『명신종실록』권297, 만력 24년 5월辛巳. 심무시가 정탐한 내용 및 심유경의 보고내용은 병부에서 만력제에게 올린 題本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11) 『선조실록』권71, 선조 29년 1월 신미.

12) 『선조실록』권71, 선조 29년 1월 계미.

13) 『선조실록』권71, 선조 29년 1월 갑신.

14) 『선조실록』권73, 선조 29년 3월 무인.

15) 『명신종실록』권296, 만력 24년 4월 경자.

3월에 兵部差官 劉夢麟이 부산에서 한양으로 돌아와 명으로 귀국하였는데, 이때 조선은 책봉정사 李宗城이 辭意를 표명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책봉정사가 정작 일본에 가기도 전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과 책봉정사의 차관 唐必勝이 한양에 오고, 뒤이어 李宗城이 부산 일본군영을 탈출하여 도망한 사실을 통해 명·일간의 封倭事가 잘못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조는 비변사 대신과 사태를 논의하여 즉시 요동에 자문을 보내고, 북경에 奏達하여 황제의 조치를 기다리자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책봉정사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황제의 권위를 손상시킨 점이 문제였다. 조선의 입장에서 강화협상의 핵심내용이 잘못되면 전쟁이 재발할 것을 염려하여 즉시 방비책을 마련하고자 했다.<sup>16)</sup>

사행의 결과가 이미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종성은 부산의 일본군영을 변복하고 탈출한 뒤 한양을 거쳐 북경으로 돌아갔다.<sup>17)</sup> 책봉정사의 탈출사건이 발생하자 강화교섭을 총괄하던 소서행장이 名護屋에서 급거 부산으로 돌아왔다. 책봉사행의 파견에 문제가 발생하자 당황한 일본의 강화교섭 주장세력은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독촉하였다.<sup>18)</sup> 책봉사행 문제에 당황한 것은 명도 마찬가지였다. 명은 부사 楊方亨을 정사로, 沈惟敬을 부사로 삼아 사행업무를 진행시키도록 했다.<sup>19)</sup>

우여곡절을 겪은 책봉사행은 통신사행과 함께 도일하였으며, 뒤이어 兵部の 差官 劉應選이 誥勅을 가지고 부산에 도착하고, 中軍 李大諫 등이 誥勅을 가지고 渡日한 뒤, 李大諫 등이 通信使 일행과 동행하였다. 명 만력제와 일본 풍신수길에게 정확한 협상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된 강화교섭은 결국 9월 2일, 풍신수길이 大阪城에서 명 책봉사행 접견에서 파국을 맞이하여 정유재란으로 이어졌다.

책봉사행의 일본행이 진행되면서 일본군은 조선에 주둔하였던 병력을 점진적으로 철수하였다. 주요 일본군 지휘관으로 5월 10일에 가등청정이 西生浦에서 철수하고, 6월 25일에 부산에 宗義智, 加德島에 島津忠恒만이 잔류하였을 뿐이었다.

한편, 책봉정사의 탈출사건이 있었던 시기 遼東巡撫 李化龍이 조선의 전황을 보고하고 일본의 재침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1596년 4월에 명은 조선의 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일본군이 재침하면 조선군이 방어능력이 없어 요동이 위험해 질수 있다

16) 『선조실록』권74, 선조 29년 4월 갑진.

17) 『명신종실록』권301, 만력 24년 윤8월 기사; 계유. 북경에 도착한 이종성은 하옥되어 처벌되었다.

18) 『선조실록』권75, 선조 29년 5월 무진.

19) 『명신종실록』권296, 만력 24년 4월 을축; 권297, 24년 5월 정묘; 기사; 경오.

는 전망을 하였다. 이는 遼東巡撫 李化龍이 만력제에게 제출한 제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화룡은 임진전쟁에서 일본군이 모두 16개 첩이었지만, 당시 5개 병영만을 남해 연안에 주둔시키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재발할 전쟁에서 조선군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병부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sup>20)</sup> 선조는 강화교섭을 위해 부산에 파견되었다가 명으로 귀국하는 유격 陳雲鴻을 접견하여 부산지역의 일본군에 대해 정세를 파악하고자 했다. 진운홍은 일본군이 귀향하려는 마음이 많다는 엉뚱한 분석을 선조에게 전달하고, 다만 조선에서 일본군의 재침빌미를 제공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sup>21)</sup>

정유재란에 직면한 명은 임진전쟁 초기 참전하며 내세웠던 위기에 처한 藩國 조선을 돕는다는 명분에 입각하여 내부적으로 별다른 갈등없이 파병하였다.<sup>22)</sup> 그러나 파병의 실질적인 이유는 이미 전쟁 중 명이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강화교섭의 결렬에 대한 황제국으로서 징벌성격이 있었다.<sup>23)</sup>

임진전쟁의 발발은 명에 있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명은 요동과 산동의 연해지역 방어를 강화하고, 薊遼總督 蹇達의 건의로 遼左의 방어강화를 위해 保定總兵 倪尙忠을 天津으로 파견하고, 參將 陳璘을 파견하여 일본군의 동향을 정탐하기도 했다.<sup>24)</sup> 임진전쟁시 파병은 명 내부적으로 ‘보바이(倭拜)의 난(寧夏의 變)’으로 주요 전력의 진압작전에 투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 조정은 동시에 대규모 전쟁을 수행한다는 상황을 우려했다.<sup>25)</sup> 영하의 난에 대한 진압군에 李如松, 麻貴 등 파병 명군의 최고 지휘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다.<sup>26)</sup> 당시 만력연간은 다양한 외침과 전쟁이 발발하여 전비지출이 과다하여 국가재정을 위협할 정도였다. 1592년(만력 20) 2월부터 1600년(만력 28) 6월까지 萬曆三大征으로 불리는 보바이(倭拜)의 난, 임진왜란, 楊應龍의 난 등이 있었다.<sup>27)</sup>

20) 『명신종실록』권296, 만력 24년 4월 경자.

21) 『선조실록』권84, 선조 30년 1월 신축.

22) 崔韶子, 「壬辰亂時 明의 派兵에 대한 論考」 『東洋史學研究』11, 1977; 「明末 中國의 世界秩序의 變化 - 壬辰·丁酉倭禍를 中心으로-」 『明末·清初社會의 照明』, 한울, 1990.

23) 한명기, 「임진왜란기 明·日의 협상에 관한 연구 -명의 강화 집착과 조선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98, 2002.

24) 『명신종실록』권248, 만력 20년 5월 기사; 경진; 권249, 만력 20년 6월 임인; 경인; 기유; 『萬曆邸鈔』, 만력 20년 5월.

25) 『명신종실록』권249, 만력 20년 6월 을묘.

26) 岡野昌子, 「萬曆二十年寧夏兵變」 『明末清初の社會と文化』, 京都大人文科學研究所, 1996. 601~60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은 조선의 안위가 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판단에서 조선에 파병을 결정했다. 파병결정과정은 명 내부적으로 매우 치열한 논쟁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유재란의 발발과 조선의 명군 파병 요청에 대해 보다 자연스러운 파병결정을 가져왔다. 파병을 결정한 명은 현실적으로 파병을 하기엔 어려운 정치, 재정, 군사적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1596년(만력 23) 5월부터 楊應龍亂의 전조가 나타났다.

播州 楊氏는 唐末 播州에 들어온 이후 명대에 이르기까지 유력 토사로 상당한 세력을 이루었다. 만력연간에 양응룡은 반란이전에 1573년(만력 원년)부터 1587년(만력 16)까지 10회의 조공을 했다. 점차 세력을 확대하면서 관료세력과 충돌하면서 1588년(만력 17) 반란을 일으켰지만, 척계광을 비롯한 명군에 의해 제압이 되었다. 이후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사면을 받았다가 명군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1595년부터 반란의 전조가 나타났다. 그러나 임진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명의 입장에서 전면적인 진압전투를 시행하지는 못했다. 명은 1597년~1598년의 진압작전이 실패하자 1599년 임진전쟁에서 활약하였던 군사지휘관을 총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정유재란 직전에 요동순무로 정유재란을 지원하였던 李化龍이 병부시랑에 임명되어 진압작전을 총괄했으며, 정유재란시 경략이었던 형개, 군사지휘관이었던 마귀, 유정, 진린 등 정유재란시 파병 최고지휘관들이 명군을 지휘했다. 1595년 5월에 이미 양응룡문제는 명 조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시점이었다. 물론 본격적인 양응룡의 난은 정유재란과 겹쳐 진행되었으며, 투입된 전비 역시 임진전쟁과 비교될 정도였기 때문에 명의 국력소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만력삼대정의 세 전쟁은 임진전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두 전쟁은 명 영토내에서 발생한 전쟁이었으며, 세 전쟁을 연이어 수행하면서 명군의 작전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sup>28)</sup> 군사 측면에서 파주뿐만 아니라 황하 중상류의 河套지역은 임진전쟁을 전후한 시기 지속적으로 침략과 군사분쟁이 지속되었으며,<sup>29)</sup> 요동지역의 군사충돌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7)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파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 137, 2016. 68~69쪽.

28) 중국학계에서 임진전쟁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播州 및 양응룡의 난에 관련한 연구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李世模, 「平播战争胜利原因初探」 『贵州师大学报』 1987-3; 张贵淮, 雷昌蛟, 「播州杨氏兴亡与平播之役」 『贵州文史丛刊』 2001-2; 姚香勤, 「李化龙与播州之役」 『平原大学学报』 21-1, 2004; 陈对, 「明代平播战争研究」, 西南大学硕士学位论文, 2009; 刘旭东, 「李化龙与平播战争」 『乐山师范学院学报』 28-4, 2013; 陈季君, 陈旭, 「论明代播州杨氏土司的历史终结」 『云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6-5, 2014; 李崇龙, 「邢玠勘播州土司杨应龙始末」 『鄂州大学学报』 22-10, 2015; 朱皓轩, 「陈璘与平播之役」 『陕西学前师范学院学报』 32-12, 2016; 王航, 「论万历朝播州杨氏土司之覆灭」 『赤峰学院学报(汉文哲学社会科学版)』 38-1, 2017.

29) 『명신종실록』 권234, 만력 19년 윤3월 갑신; 권282, 23년 2월 을묘; 권295, 24년 3월 계유; 권312, 25년 7월 계묘; 권327, 26년 10월 계해.

군사측면은 군사작전과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었다. 비록 군사활동은 아니더라도 국가재정의 고갈을 가져온 만력제의 재정정책이 이 시기에 문제를 초래했다. 유난히 財貨를 좋아하였던 만력제는 각종 稅目을 만들어 재화를 모았다. 특히, 1596년 7월부터 시작한 광산채굴과 채굴량의 부족을 세금으로 부과한 采權의 禍가 발생했다.<sup>30)</sup> 전비소모로 인해 태창이 비었을 정도임에도 거둬들인 황실 소요 각종 재화를 징수함으로서 국가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황궁의 핵심지역인 황제의 숙소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1596년 3월에 황궁의 坤寧宮, 乾清宮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당시 만력제는 養心殿에 있어 위험은 없었지만, 황제의 숙소, 황후의 숙소가 동시에 화재로 전소되었음은 황제의 신변에 대한 위협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31)</sup> 황궁의 대규모 화재는 다음 해에도 이어져 1597년 6월에 皇極殿, 中極殿, 建極殿 등 삼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의 전각까지 전소하는 큰 피해를 주었다.<sup>32)</sup> 만력제는 이후 2궁 3전의 재건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켰다. 즉, 군사적으로 조선에 전념할 수 없었으며, 경제·재정적으로 재정의 소갈이 초래될 정도로 열악하였으며, 정치·사회적으로 황궁의 화재와 각 정치세력간 갈등이 존재하는 등 혼란한 상황이었다.

책봉사행이 파행으로 종결되자 조선은 전쟁의 재발을 대비하여 명에 파병을 요구했다. 선조는 파병을 요구하는 사행을 연이어 파견했다. 선조는 임진전쟁 과정에 빈번한 사행파견을 통해 조명관계를 밀접하게 전개시킴과 동시에 조공국으로서 조선의 친명정책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는 아래 표와 같이 시기 파견된 사행의 빈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행은 지참하는 외교문서에 따라 사행명이 정해지고, 외교문서에 사행목적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사행은 사행명에 추가하여 시대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외교목적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정유재란을 전후한 시기 조선의 대명사행은 명군의 파병을 요구하는 사안에 집중했다.

30) 『명신종실록』권298, 만력 24년 6월 을축; 권299, 24년 7월 무진; 을유.

31) 『명신종실록』권295, 만력 24년 3월 을해.

32) 『명신종실록』권311, 만력 25년 6월 무인.

&lt;표 1&gt; 정유재란 전후 조선의 대외사행 현황(1596~1599)

| 년도   | 연호   | 날짜    | 사행내용              |
|------|------|-------|-------------------|
| 1596 | 선조29 | 1.21  | 陳奏使 호조참판 具晟 차건    |
|      |      | 3.23  | 兵部에 回報            |
|      |      | 4.15  | 李宗城件을 遼東都持揮使司에 移咨 |
|      |      | 5.4   | 요동에서 咨文 3통이 옴     |
|      |      | 6.3   | 進慰使 이조판서 盧稷 차건    |
|      |      | 6.25  | 黃愼, 朴弘長을 跟隨使臣 임명  |
|      |      | 7.9   | 奏聞使 공조참판 柳永詢 차건   |
|      |      | 8.8   | 통신사 黃愼 일행 渡海      |
|      |      | 8.19  | 冬至使 이조참판 朴東亮 차건   |
|      |      | 윤8.9  | 陳慰使 李軸 차건         |
|      |      | 11.12 | 告急奏聞使 鄭期遠 차건      |
|      |      | 11.22 | 奏聞使 盧稷 歸朝         |
|      |      | 11.23 | 통신사 黃愼 일행 귀국      |
| 1597 | 선조30 | 1.24  | 奏聞使 權帙 과건         |
|      |      | 2.18  | 告急使 鄭曄 차건         |
|      |      | 3.25  | 奏聞使 鄭期遠이 義州에 귀국   |
|      |      | 4.10  | 謝恩使 尹承勳 차건        |
|      |      | 5.2   | 聖節使 南復興 차건        |
|      |      | 5.12  | 奏請使 沈喜壽 차건        |
|      |      | 7.27  | 進慰使 형조참판 李晬光 차건   |
|      |      | 9.23  | 奏聞使 예조판서 尹惟幾 차건   |

|      |      |       |                   |
|------|------|-------|-------------------|
|      |      | 11.13 | 冬至進賀使 호조참판 奇自獻 차견 |
|      |      | 12.1  | 사은사 영증추부사 鄭崐壽 차견  |
| 1598 | 선조31 | 2.9   | 迎慰使 崔崐 拿鞠罷職       |
|      |      | 2.28  | 건주여진의 구원제안 거부     |
|      |      | 7.1   | 진주사 崔天健 차견(楊鎬陳辨)  |
|      |      | 8.7   | 동지사 鄭曄 차견         |
|      |      | 8.9   | 陳奏使 崔天健 啓奏        |
|      |      | 8.28  | 진주사 李元翼 차견(楊鎬진변)  |
|      |      | 10.21 | 진주사 李恒福 차견        |
| 1599 | 선조32 | 1.    | 사은사 韓應寅 차견        |

\* 전거 : 『선조실록』, 『명신종실록』

이들 사행은 일본의 전쟁준비 및 전쟁기간에는 전황을 전달하고, 전쟁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외교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조선의 간절한 사행파견을 통한 요구에 의해 명군의 파병이 어려운 명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다루었던 강화교섭의 실패가 가장 큰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596년 10월에 일본의 주요 군사지휘관인 加藤清正, 黒田長政 등이 재침준비에 착수하였으며, 귀국하는 도중에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책봉사와 통신사는 12월에 부산에 도착하자 즉시 보고했다. 1597년(만력 25) 1월에 조선은 명에 명군의 출병을 요청하였다. 조선의 출병요구에 대해 명 조정은 2월에 논의를 거듭하여 前都督同知 麻貴를 備倭總兵官으로 삼아 명 국내의 南北諸軍을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3월에 山東右叅政 楊鎬를 僉都御史로 임명하여 실제 전장이었던 朝鮮의 전쟁관련 각종 軍務를 經略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에서 전쟁관련 업무를 총괄할 병부상서를 교체하여 兵部侍郎 邢玠를 상서로 임명하고 전쟁관련 주변 薊州遼東保定의 軍務를 總督하도록 함으로써 禦倭를 전체적으로 經略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1597년(만력 25)은 조선, 명, 일본, 안남, 유구 등 동북아의 여러 국가가 긴박하게 충돌과 국제정치를 전개하였던 해였다. 1월에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조선은 긴급하게 명군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명은 임진전쟁의 전열 및 군수관련 지출에 대한 정비도 못한 상황에서 병부상서를 교체하고 명군의 파견을 결정하여 참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6월에 皇極·中極·建極의 三殿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는 국가적 재앙이 있었다. 연이어서 『國史』의 편찬을 중지하였다. 7월에 접어들어 楊應龍이 모반을 일으켜 合江·綦江 등지를 휩쓸면서 내정이 불안해지자 천하에 詔赦를 반포하여 민심의 동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8월에 접어들어 정유재란의 전세가 불리하여져 일본군이 한산을 점령하고, 남원을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副總兵 楊元이 남원성을 버리고 달아나는 등 패전소식이 이어졌다. 일본군의 진격이 급박하게 한양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내부적으로 북경에 지진까지 발생하여 민심이 흉흉하였다. 9월에는 前兵部尚書 石星을 잡아 下獄시키고 논쟁끝에 사형시켰다. 안남의 경우, 10월에 黎惟潭이 찬탈하여 스스로 왕이 되자 명은 安南都統使를 통해 안남을 안정시키도록 하였다. 일본 막부세력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 유구가 입공하여 명 중심 조공체제에 여전히 편입되어 있음을 천명하기도 하였다.<sup>33)</sup>

명의 파병결정과정은 정상적이고 정방향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주목하여 명의 임진전쟁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4가지 중대한 오류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전쟁이전에 전쟁정보가 있음에도 무시하여 전쟁준비가 없었으며, 전쟁초기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主戰과 主和의 논쟁이 지속되어 단일한 전쟁수행이 어려웠으며, 벽제관 전투를 전후하여 신속한 전쟁수행과 신중한 화의를 통한 전쟁종료가 충돌하여 전황을 단축시킬 기회를 놓쳤으며, 일본군의 철군과 강화회담 논의에서 일본의 재침을 고려하지 못한 것 등이 명의 임진전쟁 정책실수로 지적될 수 있다.<sup>34)</sup> 또한, 1차 임진전쟁시기 명군의 파병과정은 갈등의 연속이었으며, 파병이 결정된 이후에도 파병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거듭 논쟁하였다. 이때 논쟁은 용맹한 장수로 하여금 불의에 출병하여 급습하면 병력의 손실없이 제압할 수 있는 방책(策之上), 일본군이 군량으로 곤란을 겪을 것이니 일본군을 차단하여 곤경에 빠뜨려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는 방책(策之次), 처음부터 무력의 위엄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조선에 신의와 약속을 보이는 방책(策之又

33) 『明史』권21, 本紀21, 神宗2, 만력 25年 春正月 丙辰.

34) 魏鵬, 顏廷宏, 「壬辰戰爭前後明政府決策失誤探究」『北方論叢』227, 2011.

次) 등이었다.<sup>35)</sup> 이에 비하여 정유재란시기 명군의 파병은 혼란한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단일하게 결정되었는데, 황제의 책봉에 대한 일본의 태도 및 황제를 기만한 강화파의 행위 때문이었다.

### 3. 파병 명군의 구성과 지휘체계

명군의 경우, 황제의 명령으로 몽골이나 대외정벌에 임하거나 내부적인 반란진압의 목적이 아니라 임진전쟁과 같이 파병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기에 지휘 체계가 일반적인 전쟁수행시 지휘체계와 달리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물자 조달을 위한 체계가 이원화되었으며, 조선군과의 연합작전을 시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기본은 일반적인 명군의 전쟁수행 방식을 적용하여 시행했다.

조선에 파견되는 명군은 지휘체계가 군정지휘와 군령지휘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는 명대 군사지휘체계에서 연원한다.<sup>36)</sup> 즉, 군정지휘의 정점은 經略으로 지칭되는 軍門이며, 그 아래에 贊畫, 경리, 감군 등이 소속되어 군무와 군량 등을 관리·감독하였다. 군령지휘의 정점은 提督이었으며, 휘하에 실질적인 副總兵, 叅將, 遊擊 등이 전투를 수행했다. 문관에 의한 군직관리라는 명분으로 군정지휘관이 총괄 지휘관을 겸하였기 때문에 파병 명군의 총지휘관은 경략이라 할 것이다. 군정지휘체계는 명대 환관과 문관에 의해 주도되어 주요 직책을 문관이 수행하고 휘하에 물론 무관이 두어져 군정지휘체계가 일정한 전투를 수행할 수도 있었다. 군령지휘체계는 세습하는 무관들이 주로 담당하였는데, 최고지휘관은 征伐總兵, 鎮守總兵, 漕運總兵 가운데 주로 정벌총병과 진수총병이 임명되었다.<sup>37)</sup> 명대 무관편제는 천하의 要害地方에 설치된 統兵鎮戍의 국방체계와 연관된다. 한 지방을 방비하는 總鎮에 ‘鎮守’가 주어졌으며, 총진의 예하에 한 방면을 방비하는 ‘分守’가, 분수의 예하에 堡나 城을 방비하는 ‘守備’가, 추가로 성을 함께 방비하는 ‘協守’ 등이 주어졌다. 總鎮에 ‘總兵’, 분수에 ‘副總兵’, 수비에 ‘叅將’, 협수에 ‘遊擊將軍’

35) 『명사기사본말』권62, 援朝鮮.

36)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파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137, 2016. 참조.

37) 肖立軍, 張麗紅, 「明代的天津總兵官」 『歷史教學』545期, 2008年4期. 104쪽.

등 무관이 임명되었다. 그러므로 임진전쟁에 참전하여 파병된 명군 지휘관의 관직을 통해 이들의 군사지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sup>38)</sup>

파병된 명군의 지휘관은 작전계획 수립, 군수조달체계의 시행, 처벌권 행사, 전공의 보고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sup>39)</sup> 홍무연간에 정립되어 부분적인 수정만 이루어졌던 명대 군사지휘체계는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지향하였다. 엄격하게 군령권과 군정권이 구분되어 정벌과 파병 등 주요 군사작전이 있으면 황제가 지명하는 군사지휘관이 차임되고, 각 군진에서 차출된 병력을 지휘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군사작전에 필수적으로 감군체계가 동반되어 황제를 대신하여 군사지휘 및 군사작전 전반에 대한 감시·감찰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유재란시기 파병 명군의 구성을 살펴보자. 조선으로부터 일본군의 재침 보고를 받고 파병을 결정하며, 구성한 명군 지휘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기본적으로 명군은 군사지휘관이 직속으로 운영하는 병력과 지휘관이 있었으며, 지휘계통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병력과 지휘관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아래 표는 총괄 표이다.

<표 2> 정유재란시기 파견명군의 작전지휘체계(1597년 11월)

| 구분   | 지휘관    | 소속 지휘관                                                                                                                                                                                                                     |
|------|--------|----------------------------------------------------------------------------------------------------------------------------------------------------------------------------------------------------------------------------|
| 總指揮  | 邢玠(經略) | 高策(副總兵), 戴延春(署都督僉事), 蔣弘濟(中軍旗鼓官), 張九經(旗鼓官), 楊廉(參將), 祖承訓(副總兵), 葉思忠(遊擊), 喬一麟(遊擊), 宗應魁(指揮使), 張隆(指揮使), 藍芳威(遊擊), 斯天爵(千總), 王成(千總), 王宗義(委官), 蔡仲宇(指揮使), 李輔國(千總), 龐淳(廳用官), 李大諫(廳用官), 張彥池(廳用官), 蕭應宮(按察使), 董漢儒(糧餉戶部), 張登雲(右參議), 楊位(外郎) |
| 軍政指揮 | 楊鎬(經理) | 彭友德(副總兵), 李開先(旗鼓官), 李逢陽(備御指揮僉事), 劉武仲(指揮僉事), 李勝(千總), 李益喬(千總), 章煥然(寬典中軍), 黃應鳴(指揮使)                                                                                                                                           |
| 軍令指揮 | 麻貴(提督) | 吳惟忠(副總兵), 楊元(副總兵), 李芳春(副總兵), 李如梅(副總兵), 解生(副總兵), 佟養正(副總兵), 李寧(副總兵), 牛伯英(遊擊), 陳愚衷(遊擊), 頗貴(遊擊), 柴登科(遊擊), 茅國器(遊擊), 李化龍(遊擊), 楊萬金(遊擊),                                                                                           |

38) 김경록,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 체계와 수군파병 과정」 『이순신연구논총』 19, 2013. 6~7쪽.

39)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파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 137, 2016. 65쪽.

|  |  |                                                                                                                |
|--|--|----------------------------------------------------------------------------------------------------------------|
|  |  | 擺賽(遊擊), 盧得功(遊擊), 陳寅(遊擊), 塗寬(遊擊), 安本立(遊擊), 季金(遊擊), 薛虎臣(營官), 盧繼忠(參將), 楊登山(參將), 李寧(參將), 陳愚聞(參將), 葉邦榮(千總), 葉朝桂(千總) |
|--|--|----------------------------------------------------------------------------------------------------------------|

\* 전거 : 『象村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記.

정유재란의 발발로 명군은 1597년 3월에 2차 파병되었다. 병부상서 석성의 주도로 진행되던 일본의 봉공사안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1597년 2월, 만력제는 일본 책봉사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병부상서를 田樂으로 교체하여 명군의 파병을 결정했다. 東閣大學士 張位の 추천으로 山東右叅政 楊鎬를 經理朝鮮軍務로, 兵部左侍郎 邢玠를 兵部尙書兼都察院右副都御史總督薊遼保定軍務兼理糧經略御倭로, 도독 麻貴로 備倭總兵官으로 임명했다.<sup>40)</sup>

경략 형개는 부총병 高策, 署都督僉事 戴延春, 中軍旗鼓官 蔣弘濟, 旗鼓官 張九經, 참장 楊廉, 부총병 祖承訓, 遊擊將 葉思忠, 喬一麟, 指揮使 宗應魁, 張隆, 유격장 藍芳威, 千總 斯天爵, 王成, 委官 王宗義, 指揮使 蔡仲宇, 천총 李輔國, 廳用 龐淳, 李大諫, 張彥池, 按察使 蕭應宮, 糧餉戶部 董漢儒, 右叅議 張登雲, 外郎 楊位 등의 보좌를 받았다. 경리 양호는 부총병 彭友德, 기고관 李開先, 備御指揮僉事 李逢陽, 指揮僉事 劉武仲, 천총 李勝, 李益喬, 寬典中軍 章煥然, 지휘사 黃應暘 등을 지휘하였다.

군사지휘관 제독 마귀는 부총병 吳惟忠, 楊元, 李芳春, 李如梅, 解生, 佟養正, 李寧, 유격장 牛伯英, 陳愚衷, 頗貴, 柴登科, 茅國器, 李化龍, 楊萬金, 擺賽, 盧得功, 陳寅, 塗寬, 安本立, 營官 薛虎臣, 유격장 季金, 참장 盧繼忠, 楊登山, 李寧, 陳愚聞, 천총 葉邦榮, 葉朝桂 등을 지휘하였다.<sup>41)</sup> 1592년과 달리 명 수군이 파견된다는 사실에 조선은 수로를 잘 아는 이를 뽑고 선적을 정비하여 嚮導하도록 준비하였다.<sup>42)</sup>

파병 명군의 총지휘관은 경략 邢玠였다. 임진전쟁이 실질적으로 휴전상태였던 시기에 도 명군은 조선에 파병된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경략은 孫鑛이었는데, 1597년 2월에 병부상서와 경략을 교체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兵部尙書에 田樂, 經略에 邢玠가 임명되었다. 당시 형개가 임명받은 공식적인 직책은 欽差總督薊遼保定等處軍務經略禦倭兼理糧餉兵部尙書兼都察院右副都御史였으며, 휘하 지휘관을 정하고, 병력을

40) 『명 신종실록』 권308, 만력 25년 3월 임인; 을사; 기미.

41) 『象村稿』 권39, 志,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明史記事本末』 권62, 援朝鮮.

42) 『事大文軌』 권19, 3월 22일; 4월 10일; 12일쯤.

정비하여 10월에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들어왔다. 지휘체계에서 경략은 반드시 조선에 있을 수 없었는데, 이는 형개가 맡은 지역이 제주, 요동, 보정 등 여러 곳이었기 때문이다. 형개는 1598년 3월부터 요동에 가서 업무를 보으며, 경리 양호의 탄핵이 있자 다시 조선에 들어와 전체 명군에 대해 지휘했다. 경략으로서 형개는 휘하 경리에 대한 탄핵을 변호하기도 하였으며, 1598년 겨울에 4路병진을 총괄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형개가 직속으로 지휘한 부대와 병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정유재란시기 경략 형개의 직속 지휘관과 병력

| 직책          | 성명  | 지휘병력      |
|-------------|-----|-----------|
| 統領中協征倭兵馬副總兵 | 高策  |           |
| 中軍都督僉事      | 戴延春 |           |
| 中軍旗鼓官       | 蔣弘濟 |           |
| 票下騎兵左營守備參將  | 楊廉  | 官兵 990명   |
| 旗鼓官         | 張九經 |           |
| 副總兵         | 祖承訓 | 보병 7,000명 |
| 聽用官         | 龐渤  |           |
| 原任游擊        | 葉思忠 |           |
| 原任游擊        | 喬一麟 |           |
| 原任指揮        | 宗應魁 |           |
| 廳用官         | 李大諫 |           |
| 廳用官         | 張彥池 |           |
| 票下騎兵指揮      | 張隆  | 마병 760명   |
| 票下遊擊        | 董用威 | 夷兵 300명   |
| 永平後部千總      | 斯天爵 | 마병 700명   |

|        |     |                       |
|--------|-----|-----------------------|
| 左營千總   | 王成  | 보병 1,150명             |
| 大同委官   | 王宗義 | 마병 980명               |
| 遼兵營指揮  | 蔡仲宇 | 마병 760명               |
| 右營千總   | 李國輔 | 보병 880명               |
| 管理備倭糧餉 | 董漢儒 |                       |
| 贊畫軍務   | 楊位  |                       |
| 軍門贊畫   | 丁應泰 |                       |
| 총병력    |     | 마병 3,200명, 보병 10,320명 |

예를 들면, 高策의 경우 이미 임진전쟁이 발발했을 때, 파병되었다가 귀국하였던 인물이다. 고책의 정식 관직명은 欽差薊遼軍門管理中軍事務, 統領中協征倭兵馬副總兵, 後軍都督府都督僉事였다. 즉, 정유재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평시 薊遼軍門의 管理中軍事務였는데, 薊遼軍門의 총독인 형개가 파병 명군의 경략으로 임명되자 그 휘하 병력으로 함께 파병된 것이며, 이때 파병군에서 맡은 직책이 統領中協征倭兵馬副總兵이다. 또한, 명대 군제는 오군도독부체제였기 때문에 도독부직제로 하면 後軍都督府都督僉事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관직명은 欽差薊遼軍門管理中軍事務統領中協征倭兵馬副總兵後軍都督府都督僉事이다. 고책은 薊兵 2,500명을 지휘하여 울산성전투에 참여하였다.

또한, 경략은 휘하에 직속으로 管理備倭糧餉, 贊畫軍務, 軍門贊畫 등을 두어 군수물자보급, 고과평정, 감찰 등의 업무를 관장했다. 예를 들면, 董漢儒가 欽差管理備倭糧餉으로 원래 戶部山東清吏司郎中이었다. 파병된 명군의 군량운반을 총괄하였는데, 요동까지 이송은 명의 운송체계를 활용하지만, 문제는 조선에서의 운반이었다. 또한, 필요시 조선에 군량조달을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조·명관계의 긴장은 대부분 양향이 어떻게 계획하고 시행하느냐에 달려있었다. 동한유의 경우는 조선의 사정에 밝아 임진전쟁과 같은 군량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군량에 관련된 업무였기 때문에 호부의 산동청리사 낭중이 차임된 것이다.

1597년 6월에 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로 임명된 楊鎬는 9월에 한양에 도착한 뒤, 12월에 울산성전투를 지휘하였다가 1598년 2월에 한양으로 돌아와 6월에 탄핵을 받고 귀국했다. 경리 양호는 남원전투에서 명군이 패배하자 사기진작을 위해 직접 울산성전투를 지휘하였다. 울산성전투에서 많은 병력을 손실보자 양호는 盧得功과 茅國器 부대를 星州에 배치하고, 李芳春과 牛伯英 부대를 남원에 배치시켜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기가 떨어진 명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提督 마귀를 안동에 보내 휘하 부대를 안정시켰다.

〈표 4〉 경리 양호 직속 휘하의 지휘관과 병력

| 직책               | 성명  | 지휘병력               |
|------------------|-----|--------------------|
| 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 | 楊鎬  |                    |
| 中軍副總兵署都督僉事       | 彭友德 |                    |
| 旗鼓官守備指揮僉事        | 李開先 | 마병 1,520명          |
| 備禦指揮僉事           | 李逢陽 |                    |
| 指揮               | 劉仲武 | 마병 100명            |
| 遼營親兵千總           | 李友勝 | 보병 800명            |
| 統領坐營調兵千總         | 李益喬 | 마병 1,290명          |
| 寬奠中軍             | 章煥然 |                    |
| 寬奠中軍             | 黃應陽 |                    |
| 총병력              |     | 마병 2,910명, 보병 800명 |

양호가 맡았던 경리는 군사작전에 대한 관리, 감독, 공과에 대한 적합성, 지휘권의 남용 등을 포괄적으로 감찰하는 업무였다. 그러나 전장에서 필요할 때는 직접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여 군사작전을 시행할 수도 있었다. 정응태의 탄핵을 받아 결국 만세덕과 교체되었다.<sup>43)</sup> 경리에 임명된 만세덕은 자신의 직속 지휘체계를 아래 표와 같이 구성했다.

43) 解祥偉, 『壬辰戰爭期間朝鮮對明辨誣問題研究—以“丁應泰彈劾朝”事件爲中心』 暨南大學碩士學位論文,

<표 5> 정유재란시기 파견명군의 작전지휘체계(1598년 7월)

| 구분   | 지휘관     | 소속 지휘관                                                                                                                                                                                                                     |
|------|---------|----------------------------------------------------------------------------------------------------------------------------------------------------------------------------------------------------------------------------|
| 總指揮  | 邢玠(經略)  | 高策(副總兵), 戴延春(署都督僉事), 蔣弘濟(中軍旗鼓官), 張九經(旗鼓官), 楊廉(參將), 祖承訓(副總兵), 葉思忠(遊擊), 喬一麟(遊擊), 宗應魁(指揮使), 張隆(指揮使), 藍芳威(遊擊), 斯天爵(千總), 王成(千總), 王宗義(委官), 蔡仲宇(指揮使), 李輔國(千總), 龐淳(廳用官), 李大諫(廳用官), 張彥池(廳用官), 蕭應宮(按察使), 董漢儒(糧餉戶部), 張登雲(右參議), 楊位(外郎) |
| 軍政指揮 | 萬世德(經理) | 俞尙德(中軍原任副總兵都指揮), 孫邦禧(中軍), 李開先(旗鼓官), 郭朝亨(把總管千戶), 鄭全斌(天津營領兵千總), 王在沼(票下委官), 洪居高(旗牌官指揮號頭)                                                                                                                                      |

\* 전거 : 『象村集』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記.

제독 麻貴는 처음 정유재란 발발과 함께 파병되었을 때는 전체 명군의 군령권을 장악하고 군사작전을 지휘했다. 그러나 경리 양호와 함께 울산성전투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병력 손실만 보자 4명의 제독체제로 군령권을 나누어 행사하게 되었다. 원래 大同衛출신으로 回回人이었던 마귀는 경략 형개와 함께 1597년 6월에 欽差提督南北官兵禦倭總兵官後軍都督府都督同知에 임명되었다. 파병된 명군지휘관 가운데 강화교섭에 반대하였던 인물로 전형적인 무관이었다.

<표 6> 제독 마귀 직속 휘하의 지휘관과 병력

| 직책     | 성명  | 지휘병력      |
|--------|-----|-----------|
| 中軍指揮僉事 | 張維城 | 마병 1,620명 |
| 隨營參將   | 沈棟  |           |
| 旗鼓官    | 龐渤  |           |
| 領兵都司   | 鄭印  | 마병 2,500명 |

2014.

|           |     |                    |
|-----------|-----|--------------------|
| 宣府兵營千總衛鎮撫 | 梁巖  | 마병 500명            |
| 坐營        | 王勘定 | 보병 500명            |
| 총병력       |     | 마병 4,620명, 보병 500명 |

이상과 같은 지휘체계를 가졌던 명군은 1차 임진전쟁시기와 다른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다. 여전히 홍무연간에 정립된 군령권과 군정권의 분리, 감군에 의한 감찰이란 특징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유재란시기에는 울산성전투이후 군령권이 분리되어 4로병진전략에 따라 제독이 4명 임명되었다. 또한, 출신에 따라 남병과 북병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었으며, 처음으로 수군이 파병되기도 했다.

명대 군사지휘체계와 감군체계는 기본적으로 충돌하였다. 변방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던 무관중심의 지휘체계와 문관이 이를 관리, 감독하면서 지휘체계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울산성전투이며, 군령권을 분리시키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sup>44)</sup> 명대 동원체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군적으로 구성된 위소체제가 전국적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한 위소 뿐만 아니라 여러 위소를 겸하여 지휘하는 지휘체계가 갖추어지면서 특정 전쟁에 다양한 지역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색다른 오랜 전투경험이 있어 전투방식과 행동방식마저 차이가 났다. 또한, 전투에서 전공을 쌓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논공행상에 몰두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지휘관은 중앙 정치세력과 연결되어 각기 모함과 경쟁관계에 있었다. 지휘부는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과 연결로 대립하고, 병사들은 출신지역과 전투경험의 차이로 조화하지 못하였다. 이런 남병과 북병의 갈등은 정유재란이 벌어진 조선의 지리적 위치성과 관련된다. 가장 인접한 요동과 북경근처는 북병으로 충원된 병력이 주력을 이루지만, 보배의 난을 진압하고 투입된 병력은 남병이 주력을 이루었다. 그래도 1차 임진전쟁시기 파병된 병력은 제독 이여송의 일원적인 군령권 하에서 군사작전이 시행되었지만, 2차 임진전쟁시기 병력은 4명의 독자적인 군령권 하에서 군사작전이 시행되었다.

일레로 전사한 이여송을 대신하여 요동총병관으로 전보된 이여매를 대신한 동일원이 지휘한 부대는 휘하 지휘관이 지휘하는 병력이 다양하다.

44)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파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137, 2016. 참조.

&lt;표 7&gt; 동일원(董一元) 지휘부대 병력수

| 성명                                      | 원적 | 직책     | 병력수          |
|-----------------------------------------|----|--------|--------------|
| 董一元                                     | 宣府 | 御倭總兵   | 騎兵 5,000     |
| 茅國器                                     | 浙江 | 遊擊將軍   | 浙兵, 步兵 3,100 |
| 葉邦榮                                     |    |        | 浙兵 1,500     |
| 盧得功                                     |    | 遊擊將軍   | 浙兵 1,500     |
| 李寧                                      | 遼東 | 副總兵    | 遼兵, 騎兵 2,000 |
| 郝三聘                                     | 大同 | 遊擊將軍   | 騎兵 1,000     |
| 塗寬                                      |    | 遊擊將軍   | 步兵 850       |
| 安本立                                     | 廣寧 | 遊擊將軍   | 騎兵 2,500     |
| 張榜                                      | 浙江 | 備倭都指揮使 | 步兵 4,600     |
| 祖承訓                                     | 遼東 | 副總兵    | 遵化, 보병 7,000 |
| 총병력 : 기병 9,500명, 보병 19,550명, 총수 29,050명 |    |        |              |

사천성전투에 참전한 동일원의 부대는 동일원 직속부대 포함 모두 10명의 지휘관이 각지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기병은 주로 요동과 대동, 광녕 등 북병으로 구성되었으며, 보병은 절강병과 북병이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혼합은 제독 동일원부대로 보면 혼합이지만, 실제 전투에서 휘하 부대는 지휘관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천성전투는 약 3배의 병력으로 공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에 의해 패배하고 대구까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 기병과 보병은 분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군이라는 의식보다는 일단 달아나자는 인식이 팽배하였으며, 지휘관을 달리는 부대는 아주 높은 유대감을 가지기 어려웠다.

#### 4. 조·명연합군의 전쟁수행과 전황

1차 임진전쟁의 전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과정을 거친 일본군은 전쟁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2가지 방향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첫째는 수군전력을 강화하여 1차 임진전쟁에서 병력의 수송에 초점이 있었다면, 정유재란시기 본격적인 해전을 위해 전함을 큰 규모로 확대했다. 둘째는 지상전도 국왕을 사로잡기 위한 신속한 북진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점령하고, 중요 거점을 우회하지 않고 진주, 남원 등을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진격하는 전쟁수행이었다. 전쟁경험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명군의 경우도 정유재란에 반영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군을 얹잡아보던 전쟁경험을 되새겨 소규모 선발대 파견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최고지휘관 경략과 제독을 임명하고 약 5만 5천여명의 병력을 파병하였다. 또한, 소극적인 전투의지로 일관하였던 전쟁경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전투의지로 다양한 전투활동을 전개했다.

1597년(선조 30) 1~2월에 일본군은 전체 병력 14만 1,5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재침했다. 이들 부대는 지역별로 할당되어 배치되다보니 1597년 초반에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않았다. 정유재란시기 있었던 주요 전투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8> 정유재란 시기 주요 전투열람

| 일자           | 지역     | 지휘관          | 비고                       |
|--------------|--------|--------------|--------------------------|
| 1597.7.14~16 | 칠천량해전  | 통제사 원균 · 이억기 | 조선(100여 척), 일본(600척), 패배 |
| 1597.8.15~16 | 고령전투   | 상주목사 정기룡     | 고령 지역 수복                 |
| 1597.8.17    | 황석산성전투 | 안음현감 곽준      | 패배                       |
| 1597.8.16    | 남원성전투  | 전라병사 이복남     | 조명연합작전, 패배               |
| 1597.9.7     | 직산전투   | 명장 해생        | 명군, 패배                   |
| 1597.9.14    | 금구전투   | 전라조방장 원신     | 승리                       |
| 1597.9.16    | 명량해전   | 통제사 이순신      | 조선(13척), 일본(133척), 승리    |

|                     |           |                 |                            |
|---------------------|-----------|-----------------|----------------------------|
| 1597.9.20           | 보은전투      | 경상우병사 정기룡       | 승리                         |
| 1597.12.18          | 광양전투      | 전라병사 이광악        | 승리                         |
| 1597.12.22~1598.1.4 | 울산성전투(1차) | 도원수 권율, 제독 마귀   | 조명연합작전, 패배                 |
| 1598.3.24           | 삼가전투      | 경상우병사 정기룡       | 승리                         |
| 1598.4.8            | 무주전투      | 전라병사 이광악        | 승리                         |
| 1598.4.20           | 함양 사근역전투  | 경상우수사 정기룡       | 조명연합작전, 승리                 |
| 1598.6.?            | 순천전투      | 전라병사 이광악        | 승리                         |
| 1598.9.22~25        | 울산성전투(2차) | 별장 김응서, 제독 마귀   | 조명연합작전, 패배                 |
| 1598.9.17~10.1      | 사천성전투     | 경상우수사 정기룡       | 패전                         |
| 1598.9.19~10.24     | 왜교성전투     | 도원수 권율, 통제사 이순신 | 수륙협공작전, 명군의 비협조            |
| 1598.11.18          | 노량해전      | 통제사 이순신, 제독 진린  | 조·명연합군(200척), 일본(500척), 승리 |

정유재란시기 조명연합군의 전쟁수행과 전황을 시기별 특징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정유재란의 전투는 우연하게도 해전으로 시작하여 해전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소한 군사충돌은 제외하고 대규모 전투만을 정리하면 위 표와 같은데, 실질적으로 1597년에 접어들면서 조선군은 일본군의 재침에 따라 전체 병력 약 3만명을 동원하여 대구에 權慄부대를, 경주에 權應銖부대를, 창녕에 郭再祐부대를, 나주에 李福男부대를, 추풍령에 李時言부대를 배치하여 일본군의 북진에 대비하였다.

### 1) 정유재란 초기는 상호 교섭 및 전력배치 기간이었다.(1597.1~6)

1월에 긴급하게 서생포에 도착한 가등청정은 일본군 주력부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에 惟政의 파견을 요구하였다. 1월부터 일본군의 주력이 도착하기까지는 조선군과 일본군 사이에 상호간 이간책과 교란책을 시행한 시기였다.<sup>45)</sup> 그 일환이 김응서와 소서행장, 유정과 가등청정의 교섭이 이루어졌으며, 조선군과 일본

군은 상호간에 대립뿐만 아니라 같은 군 내에서 세력갈등을 노출하기도 했다. 일본군 주요 지휘관의 도해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기   |      | 지휘관   | 도착 및 주둔지역      |
|------|------|-------|----------------|
| 1596 | 12.8 | 小西行長  | 釜山浦            |
| 1597 | 1.14 | 加藤清正  | 多大浦 도착, 西生浦 주둔 |
|      | 5.1  | 島津義弘  | 加德島            |
|      | 7.17 | 小早川秀秋 | 釜山浦            |

조선과 일본뿐만 아니라 명의 교섭도 있었다. 이 시기 1월에 조선에 도착한 책봉사행은 정사 楊方亨은 명으로 귀국하지만, 부사 沈惟敬은 여전히 조선에 남아 일본군과의 교섭을 지속했다. 2월에 심유경은 要時羅와 宜寧에서 회견하고, 3월 6일에 柳川調信과 회견했다. 일본군과 교섭하던 심유경은 가등청정과 교섭하는 조선을 견제하기 위해 4월 28일에 惟政과 회견하여 일본군과의 교섭은 자신이 전담할 것을 주장했다. 풍신수길의 전권을 위임받은 小早川秀秋가 부산에 도착한 7월에 가서야 일본군은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시행했다. 좌군과 우군으로 편제된 일본군은 8월 3일, 小早川秀秋가 좌우 兩軍에게 竝進하도록 명령함으로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다. 이 시점은 7월 선조의 강력한 출전명령을 받은 통제사 원균이 칠천량해전에서 조선수군의 전멸한 뒤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본군의 우세가 예상되었다.

## 2) 1차 울산성전투까지(1597.7~1598.1)

7월초 주력군을 재편한 일본군이 小早川秀包를 총사령관으로, 좌우군의 양군체제로 공세적이었던 시기이다. 일본군은 남해·사천·고성·하동·광양 등 전라도 일대를 점령하고

45) 『선조실록』권84, 선조 30년 1월 갑인.

남원을 공격하여 정유재란 최초의 조명연합군을 패배시켰다. 명군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으로 직산전투가 벌어졌지만, 해생이 패배하였다. 이에 비하여 조선군은 지상전투와 해전에서 지속적으로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승리하였다. 조선군의 승리에 비하여 지속적인 패전을 경험한 명군은 경리 양호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1차 울산성전투를 벌였다. 1597년 12월 제독 마귀와 화동하여 울산, 서생포로 이어지는 경상도 진격작전을 계획한 양호는 일본군 가운데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가등청정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명연합작전을 시행했다. 조명연합군 5만명이 울산성전투를 치루고, 島山倭城으로 물러난 일본군을 압박했다.<sup>46)</sup>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도산왜성을 화공전으로 공격한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의 고사작전을 구사했다. 군량·식수의 부족으로 가등청정의 군대는 1만명에서 1천명으로 줄었지만, 주변 지역의 일본 구원군으로 오히려 조명연합군은 위협을 받았다. 추운 겨울 한달간의 공세에도 성과가 없던 과정에 가등청정의 공격으로 조명연합군은 패배하였다. 제독 마귀와 경리 양호간에 작전지휘에 의견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도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sup>47)</sup> 이 전투이후 명군 내부의 지휘갈등이 표출되어 경리 양호는 탄핵받게 되었다. 한편, 조명연합군의 측면에서 경리 양호는 울산·도산왜성전투이후 남해안의 防守를 위한 조치를 軍門·監軍과 논의하여 전라·경상 지방의 요해처 다섯 곳에 명군 지휘관 1명과 조선군 지휘관 1명이 협동하여 성을 쌓고 둔전하여 일본군을 압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sup>48)</sup>

### 3) 4로병진작전시기(1598.2~11)

<표 10> 四路竝進作戰시기 명군의 작전지휘체계(1598년 9월)

| 구분 | 지휘관    | 소속 지휘관                                                   |
|----|--------|----------------------------------------------------------|
| 東路 | 提督 麻貴  | 副總兵 吳惟忠, 解生, 參將 楊登山, 王國棟<br>遊擊 陳蠶, 陳寅, 頗貴, 葉思忠, 指揮同知 薛虎臣 |
| 中路 | 提督 董一元 | 副總兵 張榜, 遊擊 郝三聘, 彭信古, 塗寬, 葉邦榮, 盧得功, 茅國器                   |

46) 『선조실록』권97, 선조 31년 2월 신미.

47) 『선조실록』권99, 선조 31년 4월 갑자.

48) 『선조실록』권97, 선조 31년 2월 을해.

|    |       |                                          |
|----|-------|------------------------------------------|
| 西路 | 提督 劉綎 | 副總兵 李芳春, 吳廣, 參將 李寧, 遊擊 牛伯英, 藍芳威          |
| 水路 | 都督 陳璘 | 參將 王元周, 把總 李天常, 遊擊 許國威, 季金, 沈懋, 福日昇, 梁天胤 |

기존의 독단적인 명군지휘의 조명연합작전이 실패하면서 명군 지휘부는 조선군과의 효과적인 연합작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에 명 수군의 파병을 긴급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상군을 3군으로 하여 편제했다.

지상전에서 조선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명군은 패전을 거듭했다. 1598년 9월 명군의 대대적인 공세를 앞세워 2차 울산성전투가 벌어졌지만, 함께 참전한 조선과 함께 조명연합군은 패배했다. 이 시기 울산성전투 뿐만 아니라 사천성전투에서 제독 동일원이 지휘하는 명군은 조선군의 배제하고 공세적으로 사천왜성을 공격하여 처참한 패전을 경험했다. 사천성전투는 36,700여명의 조명연합군과 8천명의 일본군이 사천성을 두고 벌인 전투였다. 이미 일본으로 퇴각을 준비하던 일본군을 대상으로 조명연합군은 연합작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기병과 보병의 자충지란을 초래하여 후원군마저 없는 상황에서 전면 퇴각하였다. 감군 진효의 조사에 의해 마정문과 학삼방은 군법처벌이 상신되었으며, 유격 師道立·柴登科·茅國器·葉邦榮·藍芳威·彭信古, 副將 祖承訓 등은 공을 세워 면죄받도록 하고, 제독 董一元은 도독의 직에서 해임이 건의되었다.

제독 유정이 지휘하는 명군은 도원수 권율의 조선군과 연합으로 왜교성전투를 치루었다. 수륙합동작전으로 수행된 왜교성전투는 일본군의 열세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소서행장의 뇌물을 받은 제독 유정이 비협조적인 행위를 함과 동시에 조선군의 공격을 지연시켰다. 수륙합동작전에서 한계를 절감한 수군통제사 이순신은 왜교성에서 해상으로 벗어나려는 소서행장과 이를 지원하는 일본수군과 1598년 11월 18일, 노량해전을 벌였다. 조선 수군의 적극적인 전투의지와 달리 명 수군의 소극적인 전투는 대비되었으며, 최초이자 최대 조명연합수군작전은 승리로 이어졌지만, 조명연합군의 피해도 많았다.

## 5. 맺음말

정유재란시기 명군의 파병은 1차 임진전쟁에 비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단순히 1차 임진전쟁 참전으로 인한 전쟁 당사자라는 인식에 더하여 강화협상 및 황제 명의의 책봉사 파견에 대한 일본의 파행을 황제권에 대한 도전 및 손상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파병된 명군은 1차 임진전쟁 시기와 유사하게 군령권과 군정권의 분리로 인한 문제, 문관출신 감군에 의한 군사작전 관리·감찰 문제, 관리·감찰의 권한을 넘어서 직접 군사작전 지휘로 인한 혼란, 군사지휘관들의 정치적 연결, 남병과 북병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쟁수행과정에 전투의 패배로 이어졌다.

지상과 해전에서 조명연합작전은 전체적으로 실패하였다. 조선군을 정당한 연합작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명군 지휘관의 인식 및 명군 자체의 문제점이 대부분 연합작전에서 표출되었다. 강화협상이 무의미하게 되어 1차 임진전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전투의지가 있었으며, 일본군의 작전 및 전략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없어 막대한 전력손실을 가져왔다.

[토론문]

‘정유재란시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 연합군(김경록)’에 대한 토론문

김태훈(서울대학교)

상기 연구는 정유재란 당시 반격에 나선 명군의 구성/지휘체계와 조·명연합군의 전쟁 수행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요 논지는 “홍무연간에 정립된 명의 군사지휘 체계가, 해외(조선) 파병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가? 정유재란의 와중에 어떤 지점(울산성전투?)을 기점으로 변용되었는가. 어떤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며, 전쟁 수행에 어떤 장애가 발생되었는가?” 등이다. 일반적으로 재구성되어 제시되는 전쟁의 像이 ‘전장’이나 최종적/결과적으로 벌어지는 ‘전투’에만 시각을 집중 시켰다면, 이 연구는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장치인 ‘전열’을 재구성하여 보여준다. 역학구도/정치공학의 큰 프레임 안에서 그 부산물로서 전쟁을 바라봄으로써 자칫 피상적으로만 이해되기 십상이던 전쟁 수행 과정을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방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두루 섭렵한 토대 위에서 한국과 중국의 자료를 넘나들며 연구를 진행한 발표자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아쉽게도 토론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이렇다 할 식견과 관점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발표자의 논지에 유익한 반론/이견을 제기하는 등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련 연구자/독자로서, 논문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나 논문의 구성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점을 짚어봄으로써 근근이 면피하기만을 바랄 따름이다.

## 1. 개선의 여지

- 전쟁의 명칭 : ‘임진왜란’이 아닌 ‘임진전쟁’을 사용하고 있으며, 논문의 후반부에는 정유재란을 ‘2차 임진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논문의 초두에 짧게 정리하여

혼란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 이러한 용어 사용이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것인지, 설득력을 지닌 것인지 궁금하다.

- 각주 : 대상 시기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라 기존 연구나 자료의 인용/해석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하다.

- 각주 1 : 대표적으로 참고할 만한 연구면 충분하다고 여겨지며, 중국/일본학계의 성과 배제되었다. 현재 수준에서 참고가 될 만한 한·중·일 학계의 대표적 성과를 선별하여 제시하면 독자들에게 훨씬 유익하겠다.
- 각주 7 : 최근의 대표적 성과로서 참고할 만한 김경태, 한명기 등의 연구 성과 누락된 점이 아쉽다.
- 각주 9 : 각주 1과 같다.
- 각주 27 : 굳이 각주를 달지 않아도 될 듯하며, 굳이 필요하다면 만력 삼대정을 주요 주제로 분석한 참고할 만한 연구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각주 45 : 참고할 만한 기존 연구를 인용해야 한다. 만약 기존의 연구가 없고 발표자만의 독창적 분석이라면 해당 기사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논증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선조실록84권, 선조 30년 1월 23일 갑인

- 왕이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을 명초하여 인견하다
- 경상도 위무사 황신의 장계
- 17일의 경상 우병사 김응서의 장계를 비변사에 계하하다
- 1월 15일에 성첩한 경상도 제진 위무사 황신의 장계를 비변사에 계하하다

- 각주 46~48 역시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인용한다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10개의 〈표〉

- 원고 분량에 비해 표가 과다하다는 느낌이다. 만약 발표자가 자료를 분석/정리한 노고가 담겨 있는 독자적 성과물이라서 선점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으

나, 그러하더라도 <표3><표4><표6><표7> 등은 본문의 논지 전개로 볼 때 필수불가결하다 여겨지지 않는 만큼, 논문의 말미에 일괄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보인다. 전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표3,4,6>의 ‘지휘병력’항목의 공란은 휘하 병력이 0인 것인지?
- <표2><표5>는 ‘작전지휘체계’라기 보다는 현재 상태로는 ‘지휘부 구성’으로 보인다. 논지를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 표인 만큼, 각 파트별 기능/역할(?) 등의 항목을 적절히 보강하여 표를 구성하면 논지를 한층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표2>와 <표5>의 핵심적 차이는 ‘군정지휘 양호→만세덕’의 변화이다. 소속지 휘관 항목은 변화된 부분을 명료하게 하면 좋겠다. <표5>에는 ‘군령지휘’ 항목이 없는데, 단순 누락? 토론자의 독해력 부족?
- <표10> : 한참 찾았다. ‘4로 병진’의 구성이 궁금한데, 본문의 말미에야 나왔다.
- \*<표2><표5>의 항목 보강과, 가능하다면 <표5>와 <표10>의 융합을 바란다.

## 2. 제안과 기대

### - 구성상의 제안

- 1장의 경우 기존의 연구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유재란의 발발’을 일 본측의 시각에 중점을 두고 ‘명군의 파견’은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명 조정의 동향을 좀더 명확하게 대비시켜 간략하게 서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3장과 4장의 위치를 바꾸어 주요 전쟁의 추이나 상황을 앞에 두고, 각 시기별로 효율적으로 작동한 면, 그렇지 못한 면을 부각시킨다면 좋겠다.

## 3. 총평

관련 연구자로서 발표자의 역량에 감탄하면서 무척 흥미롭게 읽었다. 토론자 본인의 식견의 부족이 역설적이게도 외람된 지적으로 표출되었지만, 실상은 원고를 읽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점들이 늘어나고 얻어갈 것이 많다는 기대로 인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 제3주제

---

### 전쟁의 전개 양상 2

---

#### 정유재란기 조·일양국의 군사전략과 전투양상

발 표 : 박제광(건국대학교)

토 론 : 이상훈(한국국제대학교)

1. 머리말
2. 정유재란 초기 조·일양국의 군사전략
3. 주요 전투경과와 양상
4. 정유재란 초기 군사전략과 전투의 특성



## 1. 머리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자신이 제시한 강화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에 불만을 품고 재침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유재란시 일본군은 군사전략을 수정하여 임진왜란과 같이 한반도 전역을 침략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도 그리고 경상도에 한정되었다.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호남지방의 장악이 1차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일본군은 전군을 좌·우 양군과 수군으로 구분하여 전라도와 충청도를 점령하고자 했다.

그러나 히데요시의 초기 예상과는 달리 일본군은 1597년 7월 15일, 칠천량해전에서 원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둔다. 이에 일본군은 수륙양면으로 전라도를 향해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즉 수군은 광양의 豆恥津에 상륙, 사천·하동을 거쳐 좌군의 주력부대와 합세한 뒤 구례·남원을 향해 쳐들어가고, 우군은 호남과 영남 사이의 요충지인 황석산성을 공략한 다음 육십령을 넘어 진안을 거쳐 전주를 향해 북상하였다.

그러나 전력의 절대적 열세에 처해있는 조선은 일본군의 전라도 공격을 저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따라서 명군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명군 주도로 진행된 남원성전투에서 엄청난 희생과 함께 성이 함락되었다. 남원성 함락 이후 조선군과 명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전라도의 首府인 전주까지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남원·전주의 함락은 호남지방 전부를 잃은 것과 다를 없었고, 조선이 호남지방을 잃은 것은 곧 국가 존망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었기에 조선 조정은 절대적인 위기감에 휩싸이게 된다.

한편 남원·전주를 점령한 일본군 제 장수들은 전주에서 차후의 군사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모리·가토·구로다가 이끄는 일부 군사만이 충청·경기도를 향해 북상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이 남해안 방면에 회군하거나 전라우도 지역으로 남하하였다. 특히 9월 초에 벌어진 직산전투에서 명군과 결전을 벌인 일본군은 9월 중순 이후 전군이 전라도와 경상도 남해안 지역으로 남하하여 각 지역의 요해처를 택하여 왜성을 쌓았다. 일본군이 전라도와 경상도 남해안 지역에 겹겹이 왜성을 쌓고 영구 진지를 구축한

이유는 이를 통해서 주변 백성들에게 회유·포섭과 강압이라는 양면정책을 취하면서 일본군의 장기 주둔과 군량 확보와 전열 정비를 통해 수시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sup>1)</sup>를 토대로 정유재란 초기 일본의 재침 전략과 조선의 대응전략, 또 칠천량해전을 비롯한 남원성전투, 직산전투, 명량해전의 양상과 이에 따른 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2. 정유재란 초기 조·일양국의 군사전략

### 1) 일본군의 재침 전략

1596년 9월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요구한 강화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에 불만을 품고 재침을 결정하고 준비를 하였다. 이 점에 대해 조선도 어느 정도 감지하였기에 일본의 전면적인 재침에 대비하여 지상에서 방어전을, 해상에서 선제공격전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히데요시의 재침 결정에 따라 일본군의 선봉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는 1596년 12월과 1597년 1월 사이에 다대포·부산포·서생포 등지에 교두보를 재구축하였다. 특히 가장 주도적으로 재침략을 강조했던 가토는 고니시 보다 먼저 공을 세우기 위해 1597년 1월 14일에 제1진으로 군선 130여 척을 이끌고 다대포에 당도했다. 이후 부장 美濃部 金大夫에게 일부 군사로 부산을 침략하게 하고 이어서 양산을 점령하여 家藤喜作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자신의 주력은 서생포성으로 들어간 뒤 백성들을 위무하는 패문을 내걸기도 했다.<sup>2)</sup>

1) 금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성과가 상당하고 학설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그 분의 논점을 하나 하나 제시·소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구하며 향후 논문으로 정식 게재시에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겠다.

2) “일본국 풍신수길의 신하 加藤主計頭 平清正은 太閤殿下의 명을 받고 다시 항해하여 본도에 도착하여 조선에 사자를 보내니, 이 사자가 왕래하는 동안에 경상좌도 백성들은 이 글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여 退散하지 말라. 이로 인하여 먼저 신 김대부를 보내어 고하노라. 慶長 정유년 1월 12일 平清正.”(『선조실록』 권84, 30년 1월 임자)

한편 고니시도 1월 15일에 들어와 부산 외양으로부터 두모포 등 여러 포구에 그칠새 없이 진입하여 언덕 위에 사색기를 세우고 “조선 인민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말고 돌아와서 평안하게 살라”는 패문을 내걸었다. 이후 2월 1일에는 새로 목재를 날라서 부산진에 있던 성곽을 수축하고 외부에 해자를 설치하고 주위 목책을 세워 장기 주둔 및 재침 준비를 했다. 이후로 일본군은 연달아 도해하여 각영에는 군향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반되었다.

이처럼 가토의 제1군과 고니시의 제2군이 각기 거점을 확보하자 2월 21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 제 장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 지침을 하달하였다.

- ① 선봉으로 앞서 나서는 것은 加藤主計頭(加藤清正)·小西摂津守(小西行長)이 하되, 서로 의논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할 것이며 한 두사람이 서로 先登의 공을 다투는 것은 불가하다.
- ② 3번대는 黒田甲斐守(黒田長政)·毛利壱岐守(毛利吉成)·嶋津又七郎(嶋津豊久)·高橋九郎(高橋元種)·秋月三郎(秋月種長)·伊藤民部大輔(伊藤祐兵)·相良宮内大輔(相良長每)로 한다.
- ③ 4번대는 鍋嶋加賀守(鍋嶋直茂)·同信濃守(同信勝茂)로 한다.
- ④ 5번대는 羽柴薩摩侍從(島津義弘)로 한다.
- ⑤ 6번대는 羽柴土佐侍從(長宗我部元親), 藤堂佐渡守(藤堂高虎), 池田伊与守(池田秀氏), 加藤左馬助(加藤嘉明), 来嶋出雲守(来嶋通聡), 中川修理大夫(中川秀成), 菅平右衛門尉(菅平達長)로 한다.
- ⑥ 7번대는 蜂須賀阿波守(蜂須家政), 生駒讃岐守(生駒一正), 脇坂中務少輔(脇坂安治)로 한다.
- ⑦ 8번대는 安芸宰相(毛利秀元) 備前中納言(宇喜多秀家)로 한다.
- ⑧ 부산포성에는 筑前中納言(小早川秀秋)의 감군이 太田小源五(太田一吉)가 在番하여 先陣에 대한 보고를 틀림없이 하라
- ⑨ 안골포성에는 羽柴柳川侍從(立花宗茂)이 주둔하라
- ⑩ 가덕도성에는 高橋主膳(直治次)과 筑紫上野介(筑紫廣門)이 주둔하라
- ⑪ 죽도성에는 羽柴久留目侍從(小早川秀包)가 주둔하라
- ⑫ 서생포성에는 浅野左京大夫(浅野幸長)이 주둔하라
- ⑬ 御目付(감독관) 6인을 毛利豊後守(毛利重政)·竹中源介(竹中隆重)·垣見和泉守(垣見一直)·毛利民部大輔(毛利高政)·早川主馬首(早川長政)·熊谷内蔵丞(熊谷直盛)으로 정하고 제성 수비대의 감독관이 太田一吉과 도합 7인에게 서약서를 내게 하여 정보와 전공具申에 공정을 기하라.

- ⑭ 어디서든지 野陣토록 하라
- ⑮ 赤國(전라도)를 빠짐없이 공략하고 靑國과 그외 지역은 가급적 공략하라
- ⑯ 수군 작전시에는 藤堂佐渡守(藤堂高虎), 加藤左馬助(加藤嘉明), 그리고 脇坂中務少輔(脇坂安治) 등 2,3명의 지시로 四國 수군의 菅平右衛門과 기타 각군 선박이 참가토록 하라
- ⑰ 작전행동이 완료되면 각 축성 구분에 따라 성주를 정하고 성 보수공사를 견고히 하여 귀환자를 抽出할 수 있도록 하라
- ⑱ 감독관 7인은 진상대로 보고하여 忠功者는 포상하고 법도를 어기는 자는 誰何를 막론하고 刑死로 논할 것이니 방심하지 말라. 모든 보고를 조선 진중에서는 7인이 담당할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니 그리 알고 비록 친척, 지기라 할지라도 偏頗없이 공정하게 보고하라
- ⑲ 대명국의 군사가 한성에서 5,6일의 里程까지 큰 부대로 쳐나오면 서로 연락하여 곧 보고하라. 나는 좌우의 근신만을 거느리고 단신으로 바다를 건너가서 즉각 섬멸하고 대명국까지 공략할 생각이니 방심하는 자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되리라.<sup>3)</sup>

위의 작전 지시의 핵심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먼저 작전의 공간적 대상으로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도를 설정했다. 이는 임진왜란에 비해 공간을 좁혀 설정하고 있는데, 강화조건에서 남도 4개도를 요구한 점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②가토와 고니시를 선봉으로 삼되 두 장수의 갈등은 차단했다. 또한 두 장수를 포함한 제 장수들의 전투상황을 감독하게 하기 위해 7명의 御目付(감독관)를 임명했다. ③ 수군 작전에 따른 작전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도도 타카토라(藤堂高虎),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가 지휘하여 운용하도록 했다. ④부산포성을 비롯하여 안골포성, 가덕도성, 죽도성, 서생포성에 대한 전담 수비장수를 설정하여 성곽을 수축하여 후방기지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⑤ 명나라 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했다. 명나라 군사가 한성에서 5,6일의 里程까지 내려오게 되면 곧 보고하라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당시 일본군은 조선의 남부지역을 점령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 몇 가지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먼저 1597년 충청병사 이시언이 사로잡은 일본군 포로 후쿠다 칸스케(福田勘介)의 다음의 심문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행장과 청정의 뜻은 세 길로 나누어 직접 서울로 올라가려 했는데 관백이 사람을 보내어 전령하기를 '서울은 침범하지 말고 9월까지 닥치는 대로 무찔러 죽이고 10월

3) 『毛利秀元記』 권3. 이 문서는 같은 시기 『島津家文書』·『淺野家文書』에 삽입된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로 판단된다.

안으로 서생포나 부산 등의 소굴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3일 길밖에 안 되는데 곧바로 돌아간 것이며 전라도에도 머물 뜻이 없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걸을 수 있는 자는 사로잡아 가고 걷지 못하는 자는 모두 죽였으며, 조선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은 일본에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일본에서 농사짓던 사람을 군사로 바꾸어 해마다 침범하고 아울러 중국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습니다.4)

라고 하여 ‘서울은 침범하지마라’, ‘10월안으로 서생포, 부산 등의 후방 주둔지로 후퇴하라’, ‘걸을 수 있는 자는 사로잡아가고 나머지는 모두 죽여라’라는 지침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1597년 4월 25일, 경상도관찰사 이용순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난 박계생을 통해 파악한 다음의 적정(賊情) 보고에서도

20만의 병력을 시방 조발하여 5~6월경 바다를 건너 부산에서 합진(合陣)하고 7~8월 경 싸우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 (중략) 수길에 여러 장수들에게 통지하기를 「조선의 병력이 조금 훈련되었으니, 진주·경주처럼 군사가 강한 곳은 함부로 먼저 침범하지 말고 반드시 병력이 약한 곳을 먼저 공격하여 아군의 군세를 확장하라.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기필코 싸울 것 없다. 행장과 청정이 선봉이 되어 서로 번갈아 드나들며 날마다 싸우라」고 하니5)

라고 하여 역시 이전 전투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곳은 피하고 약한 곳을 공략하여 군세를 확장토록 지시하고 있다. 10월 2일, 접반사 장운익이 일본군 포로를 통해서 파악한 보고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

당초에 關伯은 여러 장수들에게 분부하기를 「조선의 남녀를 모두 죽이고 닭과 개도 남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한 뒤에 다음 분부를 듣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남원을 함락시켰을 때 왜적의 전사한 자가 백여 명이나 되었고 서울로 진격하고자 직산에 이르렀다가 중국군에게 저지당해 죽은 자가 5백여 명이었으며, 천 파총도 20여 명이나 죽었다. 이 때문에 가등청정이 붉은 깃발을 가진 사람을 시켜 전령하여 철수해 돌아가게 하였고, 관백도 전령하기를 「이미 전라·충청 2도를 공략했으면 급히 군사를 철수하되 10월 2일에 배에 올라 20일 이내에 일본에 도착해야 하니 여기는 자는 참수한다」하므로, 각

4)『선조실록』 권93, 30년 10월 경신.

5)『선조실록』 권87, 30년 4월 을유.

병영의 장수들이 그 기한을 어기게 될까 두려워서 당황하여 물러가고 있다.....' 하였습니다.<sup>6)</sup>

이상의 여러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정유재란 초기 일본군의 전략적 목표가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확보하여 강화조건에 들어있던 남부지방 4도 할양을 무력으로 실행하려는데 있다고 본다.<sup>7)</sup> 특히 임진왜란에서 그들의 목표 달성이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군량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실패했다는 판단에서 재침시에는 전라도부터 가혹하게 공략하여 지역을 장악하려는데 있었다.<sup>8)</sup>

전라도와 경상도는 조선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전라도는 국력 회복의 물적인 근거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했다.<sup>9)</sup> 더욱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7도가 유린된 가운데 유일하게 전라도만이 보존되었던 까닭에 유리한 전세를 유지했다는 점도 감안되었다. 일본군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호남지역을 전략 목표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군의 호남에 대한 예상 공격로는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해로를 통해서 순천방향에서 상륙하여 북상하거나 경상도 서부지역에서 상륙하여 섬진강 연안을 따라 올라가 구례-남원-전주로 북상하는 길이다. 또 하나는 진주-함양을 거쳐 운봉-남원-전주로 가는 길이다. 나머지 하나는 거창-안의를 거쳐 육십령을 넘은 다음 진안-전주로 북상하는 방법이다.<sup>10)</sup>

일본군은 전군을 좌우 양군과 수군으로 나누어 우군은 모리가 이끌고 전주를 향하게 하고, 좌군은 우키다가 지휘하여 해상으로 진격케 한 뒤 남원성을 공략한 뒤에 양군이 합세하여 일거에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sup>11)</sup> 이에 따라 일본군은 군량의 현지 조달이 용이한 가을철을 앞둔 시점인 7월 8일에 침략군의 주력을 6백여 척의 선단에 의해 경상도 남해안 일대에 상륙시켰다. 이로서 일본군 병력은 육군 115,000여 명, 수군 7,200여명 등이 차례로 바다를 건너와 조선에 잔류하고 있던 병력

6)『선조실록』 권93, 30년 10월 기미.

7)北島萬次,『壬辰倭亂と秀吉・島津・李舜臣』,校倉書房, 2002, 62쪽

8)北島萬次,『朝鮮日記・高麗日記-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そしえて, 1982, 280쪽

9)『선조실록』 권93, 30년 10월 계해.

10)조원래,「정유재란과 호남의병」『전남사학』8, 전남대사학과, 61쪽

11)이형석,『임진전란사』, 임진전란사편찬위원회, 947쪽

2만여 명과 함께 총 141,400여명에 달했다.

일본군의 주력이 부산에 도착하였을 때 조선에 주둔하던 잔류병력은 서생포성·부산포성·죽도성·안골포성·가덕도성 등 경상도의 5개 지역에 분산 주둔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전라도 진출을 위한 수륙병진작전을 계획하였고, 이들은 수군의 승리 소식과 더불어 전라도로 진출하게 된다.

일본 수군의 장수인 도도 타카토라(藤堂高虎),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그리고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 등은 7월 15일,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을 격파한 뒤 부산에 선착한 모리 히데모토(毛利秀元)은 17일에 도착한 대장 고바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를 중심으로 사천, 진주, 고성, 함안, 단성 등에 진을 치고 전라도로 침략하려던 제장들과 의논한 끝에 먼저 다음과 같이 연해지방에 진을 굳게 치기로 하였다. 이후 8월 3일, 일본군 장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우키다 히데이에를 좌군(49,600명) 대장으로 삼고 모리 히데모토를 우군(64,300명) 대장으로 삼아 좌군을 고성-사천-하동-구례-남원-전주로 진군하게 하고 우군을 거창-안의-진안-전주로 진군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군(7,200명)은 좌군과 병진하여 하동으로 진출 섬진강을 따라 올라가 구례에서 좌군과 합류하게 하는 수륙병진작전 명령을 내렸다.

이후 8월 중순에 일본군은 황석산성과 남원성을 공략했다. 우군의 선봉인 가토의 본대가 안양현-장수현-진안현을 거치고, 또 1대는 함양현-운봉현에서 분도하여 안신원과 구등굴로부터 전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8월 25일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일본 제장은 회의를 통해 모리·가토·구로다는 충청도를 향해 북진하고, 시마즈는 좌로로 남하하여 후방에 분산 배치하고, 우키다와 고니시는 남방으로 철수하는 작전방안을 세웠다.<sup>12)</sup>

이에 일본 좌군의 선봉인 고니시는 구례에서 순천을 거쳐 왜교에 진을 구축한 뒤에 성곽을 쌓았다. 이때 주민들에게 패를 발급하여 쌀 3두씩을 바치게 하면서 유인하고 본성과 광양성에 분산 주둔했다. 또 우군의 모리, 가토, 구로다는 여산과 은진에서 북진하였다. 한편 좌군의 우키다는 고니시의 1대와 시마즈·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의 군사와 함께 익산-용안-석성-부여-임천-한산-서천-금산-진산-회덕으로 진격하였다. 또한 은진에서 북진한 우군은 명나라 유격장 진우충을 추격하면서 공주에서 천안으로 북진하고 가토는 천안에서 청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천안에서 북상하던 구로다의 군

12) 『재조변방지』 권4; 『상촌집』 권5; 『춘파당일월록』 권9.

사는 직산에서 명나라 동정군과 충돌하여 9월 7일에 격퇴 당하였다.

한편 좌군의 주력은 서전에서 다시 북상하여 금강을 건너 용안현에서 군사를 구분하여 함예-익산에 침입하였다. 이때 조선군은 조방장 元愼과 金彦恭 등이 좌우 양도에서 추격하여 금구에서 매복전으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금구전투).

이후 일본군은 금구-태인을 거쳐 정읍으로 후퇴하여 군사회의를 열어 향후 전략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일본군은 일부 군사-츠쿠시 히로카도(筑紫廣門) 군사 5백명, 고바 야카와 히데카네(小早川秀包) 1천명만을 성주성에 남겨놓고 나머지 군사들은 남하하여 후위진지를 구축하기로 했다.<sup>13)</sup> 이에 따라 일본군은 남방 연해지역으로 퇴각하여 엄호하면서 각자 새로운 지역을 선택하여 왜성을 축조하고 농성하기에 이른다.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8월 10일에 조선 주둔의 일본 제 장수들에게 “대명국의 군사가 한성 이남 5,6일정 되는 지점까지 쳐 나온다면 이와 서로 대치하고 이것을 급보하라. 나는 히데요리(秀賴)를 유수로 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 마에다 토시이에(前田利家), 그리고 우에스키 카게카츠(上杉景勝) 등으로 하여금 보좌케 한 다음 나 자신이 2,30기로 바다를 건너 즉일로 대명군을 격파할 것이다.”라고 서면 지시를 내렸다.<sup>14)</sup> 이 내용은 2월 21일자 군령 하달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히데요시의 명군에 대한 전투력 판단이 미흡하고 2월 ~ 8월에도 역시 한성 이북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수군은 그해 9월 16일, 133척의 전선을 이끌고 서진하다 명량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에게 대패하였다. 청주에 들어가 주둔하고 있던 가토는 진천에서 충주로 침입하고 진천에 주둔하고 있던 본대는 죽산-안성에 침입하였다가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또 청주에서 공주로 나왔던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부자의 군사는 전라도로 내려가서 좌군의 대장인 우키다, 시마즈, 고니시 등의 군사와 합류하였다.

좌군의 시마즈 타다토요(島津忠豊), 나베시마 등은 정읍에서 장성으로 내려갔으며, 그 1지대는 순창-담양-광주-창평-옥과-동북-능주-화순 등의 열읍을 점령하였으며 곡성에서 주둔중이던 요시라는 사방에 복병을 마련하고 愚民들을 유인하여 모았다.

9월 20일 우군의 가토는 함창과 상주에서 인동-대구로 남하하여 그 일부는 문경-비안-군위를 지나 달성의 공산성으로 들어갔고, 본대는 청산-황간에서 성주로 남하하였다.

13) 명나라 제독 마귀는 참장 팽우덕으로 하여금 10월말 이 성을 공격하여 되찾았다.

14) 구참모본부, 『日本の戦史5 朝鮮の役』, 徳間書店, 1924

10월 3일, 가토는 영천-경주-서생포-울산으로 철수하고, 모리 히데모토(毛利秀元)은 양산으로 철수하고, 구로다는 동래로 후퇴하였다. 이후 가토는 아사노 나가요시(淺野長慶) 군사와 울산에 성을 쌓았다(도산성).

또 시마즈와 나베시마 등의 군사는 해남-강진-나주, 광주-담양-순창 등지에서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다. 이후 이들은 곡성, 구례, 하동, 곤양, 사천으로 이동하였다. 나베시마 등의 군사는 순창-운봉을 거쳐 경상도로 들어와 김해와 죽도에 철수하였다.

서생포로 돌아온 가토는 11월 15일, 군현의 백성에게 “조선 국왕이 무도하여 이웃나라와 화목하지 않으므로 이에 다시 대병을 일으킨 것이다. 서민들은 생도에 안심하고 각 관과 좌수별감, 그리고 경내에 있는 色掌, 有司들은 성명을 등록하고 각관리의 수효와 전결수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서생포와 울산 진중으로 가지고 올 것이다.”<sup>15)</sup> 라고 포고를 내렸다.

11월 22일, 일본군 일부가 운봉-함양-산음-삼가를 통해 남하하니 경상우병사 김응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산음에서 의령의 정암진에서 격퇴하였다. 이후 고니시의 1대는 남원-함양을 거쳐 남하하여 장흥-보성-순천-홍양에 있는 병력들과 낙안에서 합세한 뒤 그곳에 성을 쌓고 주둔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유 년간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일본군이 바둑판처럼 주둔하여 일본군의 지배하에 들지 않은 고을이 없었다. 따라서 히데요시의 의도대로 재침의 전략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2) 조선군의 방어전략

한편 조선 조정은 일본군의 재침이 확실시된 1596년 9월 이후 대응책에 고심하였으나, 일본군의 침공 목표와 방향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청야작전을 실시하여 군·민의 피해를 줄이고 일본군의 군량 사정을 악화시켜 전진 속도를 지연시킨다는 소극적인 방책을 세웠다. 청야작전은 중심으로 깊숙이 쳐들어오는 적에 대한 방어책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방책이 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조선 조정에서는 戰局을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5) 선조실록 권94, 30년 11월 임인조

이후 조선은 1596년 11월에 명의 책봉사 이종성과 함께 도일했던 통신사 황신의 비밀 서계에 따라 일본의 재침 사실을 인식하고 방어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적의 계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이 경주와 좌우도의 연해인 서생포·부산포·안골포·죽도·거제·가덕 등 여러 곳에 와서 주둔하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둔전의 경작을 널리 개척하고 아울러 시장을 설립하며 식량을 비축한 후에 합세하여 점차적으로 전진하다 방책을 써서 영남을 잠식하는 것이 그들이 첫째 계책이요, 먼저 호남을 침범하는 것이 둘째 계책이요, 마지막으로 미친듯이 곧바로 전진하여 전일과 같이 깊숙이 들어와 거침없이 몰아가는 것이 셋째 계책입니다. (중략) 또한 調信이 말하기를 ‘조선이 점차 수전에 익숙해지고 배도 견고하여 피차가 서로 버티면서 밀고 당기며 싸운다면 꼭 승리를 거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어두운 밤에 몰래 가서 불시에 공세를 퍼서, 조선의 큰 배 한척에 일본의 작은 배 5~6척 내지 7~8척이 한꺼번에 공격해 싸운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 또한 흉악한 적의 약삭빠른 계책인데 우리 군대가 대비할 줄을 알지 못한다면 속임을 당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sup>16)</sup>

그 결과 각 지역의 거점 산성을 중심으로 한 ‘堅壁淸野戰略’과 수군을 이용한 ‘海路遮斷戰略’을 수립하였다. 먼저 해로 차단전략은 지난 임진년의 전투에서 유일하게 완승을 거둔 수군을 활용하여 일본군을 해상에서 격퇴하자는 적극적인 전략이었다. 조정의 분위기는 대부분 이에 동의하고 있었는데, 그해 11월 7일, 병조판서 이덕형이 ‘수전이 상책이고, 그 다음이 산성을 지키는 것이니, 아무쪼록 수군으로 하여금 적이 오는 길을 막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나,<sup>17)</sup> “체담인의 말에 의하면, 왜선이 이미 대마도에 많이 도착했는데 우리나라 병선이 많은가 의심하여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반드시 믿을 것은 못되지만 현재의 상황을 헤아려보면 또한 그럴듯합니다. 만약 왜적의 선박이 기세를 타고 크게 이르러 거제도를 다시 왜적의 소굴로 삼게 한다면, 비록 명나라군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형편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sup>18)</sup>는 주장이 그러하다.

이후 해로 차단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수군의 병력 충원, 거제도 점령 및 수비, 그리고 인사 조치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었고<sup>19)</sup>,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정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16) 『선조실록』 권83, 29년 12월 을유.

17) 『선조실록』 권82, 29년 11월 기해.

18) 『선조실록』 권89, 30년 6월 을유.

19) 당시 조선 수군 함대 규모는 1597년 5월 1일자 도원수 권율의 장계에 “지금 한산도에 도착한 배는

었다. 특히 거제도 점령 문제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부산 앞바다에서 맞아 격퇴하기 위해 해로상의 요충인 거제도를 반드시 장악해야 했기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sup>20)</sup>된 바가 있었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거제도 점령을 강력하게 주장한 이는 윤근수였다. 그는 1596년 6월초에 거제도를 점령하여 지킬 것과 이곳에 원군을 파견하자는 김응남의 발언에 찬성하면서, 한산도를 포기하더라도 거제도는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이러한 수군에 대한 기대 심리는 당시 육지에서의 일본군과의 전투는 거의 명군이 담당하고 있었고, 조선군은 그나마 수군의 활약을 통해 일본군의 호남 진출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정에는 이순신과 원군 사이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제기되었고, 선조와 일부 신료들 사이에 이순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 논의된 이순신의 죄는 그가 거제 등지로 나아가 일본군을 공격하는 것을 회피하고 진영에만 머물며 방관한다는 것이었다.<sup>22)</sup> 특히 선조는 가토가 바다를 건너온 것이 전적으로 이순신의 책임이라고 운운하더니 마침내 1597년 2월 6일 이순신을 체직시키고 압송해 오라고 지시했다.<sup>23)</sup> 그 결과 조선 수군의 지휘체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이순신 후임으로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은 두 차례에 걸친 장계를 통해 수륙병진책을 주장하였으나, 도원수 권율은 원균의 작전을 묵살하고 계속하여 출전을 종용하였다.<sup>24)</sup> 또한 6월 19일, 권율은 경상수사 배설·충청수사 최호·전라우수사 이억기 등에게 직접 출전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sup>25)</sup> 이에 원균은 6월 18일, 대소 군선 100여 척을 이끌고 한산도를 출항하여 안골포와 가덕 등지에서 적선을 나포하는 등의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sup>26)</sup>

이후 원균은 한산도 통제영에 머무르면서 경상우도·전라우도·충청도의 세 수사로 하여금 웅천, 안골, 가덕 등지에서 계속 시위하도록 하였다. 이에 세 수사는 7월 4일 다

134척이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배는 5~6척이며, 따로 건조 중인 것으로 20일내에 건조가 끝나는 배가 48척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판옥선입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20) 『선조실록』 권74, 29년 4월 을사.

21) 『선조실록』 권76, 29년 11월 신축.

22) 『선조실록』 권84, 30년 1월 무오.

23) 『선조실록』 권85, 30년 2월 경묘.

24) 『선조실록』 권89, 30년 6월 경해.

25) 『난중일기』 정유 6월 19일.

26) 『선조실록』 권89, 30년 6월 무자.

시 출정하여 7월 7일 밤을 이용하여 다대포에 진을 치고 8일에는 적선 10여 척을 부수는 전과를 올렸다.<sup>27)</sup> 이후 조선 수군은 절영도로 향하였으나 대규모의 적선이 밀려왔고, 역류까지 타게 되어 7척의 전선을 잃고, 5척이 두모포로 표류하는 손실이 있었다.<sup>28)</sup> 손실을 입은 조선수군은 한산도로 후퇴하여 원병을 청하게 되었다. 한편 권율은 7월 4일의 출정시 원군이 직접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 문책하고<sup>29)</sup> 직접 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군이 계속 출전을 미루자 원군에게 곤장을 치고 출전을 독촉하였다.<sup>30)</sup>

결국 원군은 함대를 이끌고 한산도를 떠나 부산으로 출항했다가 7월 15일 벌어진 이른바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 수군에 대패하여 그 자신은 물론, 경상우수사 이억기까지 전사하고 조선 수군은 거의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조선군의 방어전략으로서 또 하나의 전술인 견벽청야전략은 1593년 윤11월 2일, 유성룡에 의해 이미 언급된 바 있고<sup>31)</sup> 이후에도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전략이다.<sup>32)</sup> 이후 일본군의 재침이 확실해지자 육상의 방어대책으로 채택된 것이다.<sup>33)</sup> 따라서 주요 지점에 산성을 수축하고 군량을 모아들이는 등 준비를 진행하면서<sup>34)</sup> 도원수와 각도 관찰사가 각 지역의 산성에 들어가 지킬 것을 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sup>35)</sup>

이처럼 조선군은 견벽청야를 기본 전략으로 각도의 산성을 수축하고 海防을 엄하게 하며, 훈련도감군을 양성하고 전국을 속오군 체제로 편성하는 등 군비를 갖추었으나 조선군의 지휘체계는 일본군의 공격에 작전권을 둘러싸고 도체찰사와 도원수 등 여러 장수들의 이해가 상충되어 전투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형국이었다. 실제 1597년 정월에는 가토가 군선 130여척을 이끌고 들어와 서생포에 주둔했을 때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둘러싸고 도체찰사와 도원수·장수 간에 작전권과 관련된 이견이 발생하였다.<sup>36)</sup> 이에 비변사

27) 『선조실록』 권90, 30년 7월 계묘; 『난중일기』 정유 7월 16일; 『난중잡록』 3, 정유년 7월.

28) 『난중일기』 정유 7월 14일. 이 상황과 관련하여 『조선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7월 8일, 죽도로 출항하라고 해서 뱃머리를 죽도로 돌렸는데 적선이 나타나서 사츠마(薩摩)의 배 여덟 척을 빼앗아 불을 질러 버렸기 때문에 부산해로 되돌아오고 말았다.(중략) 7월 10일, 적선들이 거제도의 입구와 그 밖의 섬에 이르렀으므로 성주 또는 휴가(日向), 사츠마, 아와(阿波) 성주, 토사(土佐) 성주, 히센노카미(飛驒守) 성주를 필두로 적선을 무찌르고 불태워서 적병을 남김없이 죽이니 이후부터 적선은 마침내 물러났다.(케이넨/신용태 역주, 『조선일기』, 경서원, 1997)

29) 『난중일기』 정유년 7월 초7일.

30) 『선조실록』 권94, 30년 11월 신묘.

31) 『선조실록』 권45, 26년 윤11월 임오.

32) 『선조실록』 권53, 27년 7월 신사; 권68, 28년 10월 병진.

33) 『선조실록』 권82, 29년 11월 기해.

34) 『선조실록』 권82, 29년 11월 정유.

35) 『선조실록』 권82, 29년 11월 무신.

는 체찰사가 4도의 사무를 총괄하니 원수 이하가 모두 절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후에는 군율에 따라 처벌토록 하였다.<sup>37)</sup> 아울러 도원수의 명령에 대한 각 지방의 제장의 불복종도 문제가 되었다. 문신 京將에 대한 지역 무신 장수의 불복종은 이미 오래된 것이었지만 급박한 전쟁 상황이기에 이들 무장을 즉시 치죄할 수 없었던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당시 일본군은 1차 침략의 실패가 조선이 호남을 끝까지 확보했기 때문이고, 호남 확보의 가장 큰 요인이 조선 수군의 활약이었음을 주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군이 재침을 통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조선 수군이었던 것이다. 일본군은 제일 먼저 조선 수군을 격퇴한 뒤 수륙병진작전을 통해 전라도를 점령하고 충청도로 북상하려 했다.

이에 일본군은 당시 조선군 지휘체계의 문란을 이용하여 요시라에 의한 이간책을 펴으로써, 급기야 조선 수군의 최고 지휘관인 이순신을 파직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반면에 조선의 수군 전력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sup>38)</sup>

한편 일본군의 재침이 본격화되자 조선은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명은 경략 형개를 중심으로 지원군을 편성하여 5월 8일에 선봉대로서 부총병 양원이 3천명을 이끌고 들어왔고, 이어 6월 14일에는 오유충의 남병 4천명, 7월 3일에는 제독 마귀, 9월 3일에는 경리 양호를 파견하였다. 11월까지 조선에 들어온 명군은 경략 형개 휘하 본진 2만 2천, 양호 휘하 4천, 제독 마귀 휘하 5만 4천명 등 도합 8만여명이 되었다.

아울러 명군이 작전권을 요구함에 따라 전시 군사지휘권은 명의 장수에게 넘어갔다. 이후 조선의 도원수 이하의 장수들은 명장의 절제를 받게 됨으로써 도체찰사나 도원수의 독자적인 작전이 거의 불가능하였다.<sup>39)</sup> 이로 인한 문제점은 바로 나타났다.

그해 8월, 남원성전투에서 명장 양원이 산성 대신 평성인 남원성의 방어를 고집한 결과 대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유재란 초반의 전세는 그 동안 兩南을 중심으로

36) 『선조실록』 권84, 30년 정월 을묘, 당시 조선군 1만여 병력의 활용방안에 대해, 이원익은 수군으로 거제도 먼저 점령하여 해로를 차단한 후에 부산의 일본군 공격때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권율은 수군이 모이기를 기다려 연합작전을 통해 직접 부산을 공격하여 연양과 양산을 차단하자는 입장이었다(『梧里續集』 권2, 장계, 정유 정월 십오일).

37) 『선조실록』 권85, 30년 2월 병술. 하지만 이후에도 도체찰사와 도원수 사이에는 작전권 행사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에 도체찰사의 지휘를 지시하였다(『선조실록』 권88, 30년 5월 임인).

38) 허선도, 「임진왜란론」 『한국학논총』 3, 1981.

39) 차문섭, 「조선중기 왜란기의 군령 군사지휘권 연구」 『한국사학』 5, 1983, 28쪽.

가장 주력했던 견벽청야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된 셈이었다.

또 일본군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영남에 내려가 있던 下四道 도체찰사인 이원익은 도원수 권율과 함께 군사권을 지휘하고 있다가, 일본군의 공세에 밀려 1597년 4월 호남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군은 명장의 작전권 행사로 독자적인 군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지만 수군 통제권을 강화하고 海戰을 논의하는 등 지휘 체계를 다져갔다.<sup>40)</sup> 그 과정에서 조선 수군은 무리한 작전 주도로 칠천량해전에서 큰 패배를 당하였다.

한편 일본군은 8월말에 전라도 일대를 점령한 뒤 서울을 향해 직산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기용하여 해상에서 반격전을 펴는 한편, 上四道 도체찰사 유성룡은 沿江除置大使로, 부체찰사 盧稷을 副使로 삼아 한강 방어를 강화하였다.<sup>41)</sup> 이에 명의 경리 양호는 한강 방어를 위해 도원수 권율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적극 공세로 남하하여 9월 5일, 직산 소사평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펼친 끝에 일본군을 대파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시 일본군은 직산전투에서 조명연합군에게 크게 패함에 따라 더 이상 북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조선군은 일본군을 추격하며 남하해 명나라군과 함께 4로 병진작전을 계획하기에 이른다.

### 3. 주요 전투경과와 양상

#### 1) 칠천량해전

칠천량해전은 정유재란 개전과 동시에 펼쳐진 전투로서 전쟁 전 기간을 통해서 해전으로서는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일본 수군의 입장에서 이 해전은 조선 수군에게 거둔 유일한 승리이다. 특히 이 해전은 어느 정도 예고된 전투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40)이형석, 『임진전란사』,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1000쪽.

41)『선조실록』 권89, 30년 6월 갑자.

먼저 칠천량해전의 이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597년 초에 조선에서는 그동안 수군을 이끌었던 통제사 이순신이 파직되고, 대신 원균이 임명되었다. 이순신이 통제사가 된 1593년 8월말부터 파직된 1597년 2월말까지의 약 3년 6개월의 기간은 강화교섭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조선 수군은 군량 부족과 전염병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기에 힘든 나날을 보내던 시기였다. 반면 강화 교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선조는 별다른 전투를 치르지 않고 전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순신에 대해 개을러졌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실제 선조는 수차례에 걸쳐 출전을 명했고, 이순신에 대해 한산도에 머물러 앉아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2)</sup>

또한 선조와 이순신은 전황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선조는 조선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군이기에 본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본 군선을 공격하는 해로차단전략을 주문한데 반해 이순신은 부산 출병 불가를 주장하며,<sup>43)</sup> 조선 수군의 전력을 보강하며 해상권을 확보하자는 전략을 고수하였다. 즉 군의 통수권자인 국왕과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순신 사이에 전략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이순신에게 불리한 사건이 터지면서 선조의 불신은 커졌고, 급기야 통제사 교체와 체포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원균과 이순신과의 갈등인데, 이순신에 대한 불신이 커진 선조는 반대급부로 원균은 충성스럽고 용감한 장수라는 인식을 갖기에 이르렀다.<sup>44)</sup> 물론 여기에는 선조 주변에서 원균을 두둔한 일부 서인 인사들의 역할이 없지 않았다. 또 하나는 1597년 1월 초에 벌어진 부산 왜영 방화사건과 관련된 허위보고 논란인데, 이로써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불신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 데 그것은 고니시와 요시라 등이 꾸민 反間計이다. 일본의 반간계에 현혹된 선조가 이순신에게 수차례 출전을 명했으나 이순신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선조는 정유재란 개전을 앞둔 결정적인 시기에 통제사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sup>45)</sup>

이렇듯 조선 수군은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장기간 조선 수군을 이끌던 통

42) 『선조실록』 권76, 29년 6월 임술.

43) 이순신이 주장한 부산 출병 불가 사유로는 첫째 조선 수군이 정박할만한 항구가 없다는 것, 둘째 조 함대의 움직임이 일본군에게 모두 노출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당시 판옥선의 구조상 기본적으로 파고가 높은 遠海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 등 이었다.

44) 『선조실록』 권81, 29년 10월 갑신.

45) 『선조실록』 권84, 30년 2월 정묘.

제사를 교체하여 수군 지휘통제체계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새로 통제사에 임명된 원균은 평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이순신 휘하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부하 장수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이로써 지휘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원균은 기존의 지휘 질서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지휘체계를 확립하려 하여 제장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서서히 고립과 갈등에 시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sup>46)</sup>

한편, 수군의 해로차단전략에 대해서는 원균도 전임자 이순신과 다르지 않아 부산로의 출전은 신중해야 하고 부득이 출전해야 한다면 수륙합동작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7)</sup> 그러나 조선 조정은 1597년 5월, 도원수 권율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sup>48)</sup> 수군을 3개조로 나누어 일본군이 차지하고 있는 안골포 등지를 피하여 가덕도 바깥쪽을 통하여 부산과 대마도 간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도원수로 하여금 통제사를 지휘하여 작전을 수행할 것을 독촉하였다.<sup>49)</sup> 이러한 도체찰사와 도원수·장수 간에 작전권과 관련된 갈등은 조선 수군의 궤멸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조선 수군의 軍令權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근대인 조선시대 군의 통수권은 국왕에게 있었지만,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권이 주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유재란 직전 수군의 출전과 관련해서는 국왕 선조와 체찰사 이원익, 그리고 도원수 권율이 통제사의 의견과는 달리 부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출전할 것을 강요하는 상황이었다.<sup>50)</sup> 이렇듯 일본군에 대한 작전권을 둘러싸고 도체찰사와 도원수, 통제사 등 여러 장수들의 이해가 상충되어 전투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을 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는 통제사까지 도원수가 지휘 감독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수군의 군령권을 통제사가 아닌 도원수와 체찰사가 행사하도록 조장했던 것이다.<sup>51)</sup>

따라서 체찰사 이원익과 도원수 권율은 종사관 남이공을 원균에게 보내 해로차단전략을 위해 부산 방면으로 출전할 것을 독촉하였다.<sup>52)</sup> 이에 따라 통제사 원균은 6월 18일 대소 군선 100여 척을 이끌고 한산도를 출발하여 첫 번째 출전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46) 『선조실록』 권133, 34년 1월 병진.

47) 『선조실록』 권87, 30년 4월 기묘.

48) 『선조실록』 권88, 30년 5월 임인.

49) 『선조실록』 권88, 30년 5월 을사; 권89, 30년 6월 정해; 권89, 30년 6월 무자.

50) 선조와 조정은 해로차단전략을 주장했고, 수군통제사는 수륙병진전략을 주장했던 것이다.

51) 『선조실록』 권89, 30년 6월 경오.

52) 『선조실록』 권89, 30년 6월 정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작전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칠천량해전은 사실 이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이때의 출동 결과는 6월 29일에 올라온 도체찰사 이원익의 전황 보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sup>53)</sup> 당시 원균 휘하의 조선 수군은 6월 19일 안골포와 가덕도에서 소규모 해전을 치렀는데, 안골포에서 일본 군선 2척을 빼앗고 가덕도에서도 추격전 끝에 군선 여러 척을 포획하였다. 그러나 이 날 전투를 마치고 회항하려 할 때에 안골포의 일본 수군이 역습을 감행하여 다시 전투가 벌어졌다. 이 때 일본 수군은 우리 함대의 후미를 둘러싸거나 좌우를 협공하면서 탄환을 난사하였다. 격렬한 전투 중에 평산포만호 김축은 눈 아래에 총상을 입었고, 보성군수 안홍국은 머리에 탄환을 맞고 전사하였다.<sup>54)</sup> 이날의 해전 결과를 패전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장수 1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후 원균은 일단 한산도 통제영으로 귀항하여 본영에 머무르면서 상부의 명령대로 경상우도·전라우도·충청도의 세 수사로 하여금 웅천, 안골, 가덕 등지에서 계속 시위하도록 하였다. 이후 두 번째 출전은 원균이 빠지고 휘하의 세 수사가 출전했는데, 이들이 이끈 조선 수군은 7월 8일, 일본군과의 소규모 전투에서 일본 군선 10여 척을 격파하였다. 한편 당시 1천여 척의 대규모 적 함대를 만나기도 했는데, 일본 함대는 조선 수군과의 전면전을 회피하는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다. 조선 수군 역시 일본 함대가 대규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전하지 않고 일단 물러났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 조선 수군의 일부 전선들이 표류하였고, 그 중 5척은 두 모포에 또 다른 7척은 서생포에 표착하였다. 이들 조선 수군들은 상륙하다가 주변의 일본군에게 전멸당하고 말았다.<sup>55)</sup> 이처럼 조선 수군은 6월 18일 이후 7월초까지 상부의 지시대로 부산 앞 바다까지 왕래, 몇 차례 해전을 벌여 소소한 전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원수 권율은 7월 4일 출정 시에 통제사 원균이 직접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 원균 휘하의 군관 박영남을 불러 죄를 묻고 직접 출정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원균이 계속 출전을 미루자 권율은 그를 불러 곤장을 쳤고<sup>56)</sup> 동시에 국왕이 파견

53) 『선조실록』 권89, 30년 6월 무자

54) 『난중일기』 1597년 6월 25일

55) 『선조실록』 권90, 30년 7월 계묘; 『난중일기』 1597년 7월 16일; 『난중잡록』 권3, 정유년 7월.

56) 『선조실록』 권94, 30년 11월 신묘.

한 선전관이 도착하여 출전을 다시 독촉하였다.<sup>57)</sup> 이에 원군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장졸들을 이끌고 재차 출정을 강행하게 되었다. 출정 시기에 대하여 여러 정황자료를 토대로 할 때 7월 14일일 가능성이 높다.<sup>58)</sup>

『난중일기』에 의하면 7월 14일은 날씨가 맑았다. 그러나 원군이 무리하게 일본 수군을 추격한 나머지 판옥선의 기동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물마루[水宗]를 지나 조선 수군 전체가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sup>59)</sup> 당시 조선 수군에 대해 일본 수군은 철저히 유인작전을 벌여 싸울 듯 하며 회피하는 작전을 계속 구사하였다.<sup>60)</sup>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의 작전에 말려들어 전투다운 전투를 해보지 못한 채 판옥선의 기동이 어려운 外海까지 나감으로써 스스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휘하 장수들의 조언에 따라 원군이 함대를 수습해서 후퇴하려 할 때에는, 수군 전체가 종일 항해로 매우 지친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선 수군은 오후 늦게 가덕도로 후퇴하여 임시 정박한 뒤 식수를 구하려 했으나, 일본군의 매복으로 상륙을 포기했다. 이후 조선 수군은 거제도 북단의 영등포로 이동했는데, 이곳에서 일본군의 매복작전에 휘말려 병력 400여 명이 살상되는 피해를 입었다.<sup>61)</sup> 결국 조선 수군은 식사·물 보급도 받지 못한채 종일 항해에 시달려 피로한 상태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7월 15일 오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항해 할 수 없어 영등포에 머물렀으나 계속 상황이 악화되자 오후에 풍랑을 무릅쓰고 보다 안전한 칠천량으로 이동하였다.<sup>62)</sup>

한편,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의 이동과 정박상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sup>63)</sup> 당시 일본 수군의 제장들은 안골포에 모여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조선 수군이 매우 강성하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공격해야만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었다.<sup>64)</sup> 일본 수군 장수들은 조선 함대의 위용에 놀려 상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일부 장수들은 눈 앞의 적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적

57) 『선조실록』 권90, 30년 7월 기해.

58) 『난중잡록』은 곤장을 맞은 당일인 7월 11일 밤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군의 정확한 출전일을 밝히고 있는 기록은 없는 실정이다.

59) 조경남, 『난중잡록』 정유년 7월 16일; 이금익, 『연려실기술』 권17, 「선조조고사본말」 丁酉倭寇再出.

60) 유성룡, 『징비록』 권2

61)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朝鮮役』 하권, 1922, 461쪽; 구참모본부, 『日本の戦史5 朝鮮の役』, 徳間書店, 349~350쪽

62) 『임진장초』 1592년 7월 15일; 안재진 역, 『海蘇實記』, 영천전통문화연구소, 1987.

63) 『난중잡록』 권3, 1597년 7월 16일.

64) 「朝鮮記」 乾.

극적인 공격 자세를 견지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주장을 펴던 장수들에 의해 칠천량 해전이 이끌어져 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7월 15일 늦게 칠천도에 도착하여 원균은 휘하 장수들을 불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균은 죽음을 각오하고 날이 밝는 대로 일본 함대와 결전을 벌이겠다는 주장을 했으나 반면 배설은 작금의 상황은 교전을 하기 보다는 퇴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5)</sup> 이후 밤새 비가 크게 내리는 상황<sup>66)</sup>에서 원균은 전선 4척을 복병선으로 삼아 경계를 하며 야영했으나 이들 복병선이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7월 16일 새벽, 일본 수군은 작은 선박 10여 척을 이용하여 원균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와 야습을 감행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 수군의 복병선 4척이 적의 공격으로 全燒되었고, 전열을 재정비하고자 했으나 어려웠다. 이후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을 여러 겹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sup>67)</sup>

이에 조선 수군은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한산도 쪽으로 퇴로를 뚫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미 주변 바다는 일본 수군에 의해 점령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특히 견내량 입구로 추정되는 형도 등지에 일본 수군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조선 수군이 한산도로 퇴각하지 못하고 고성 앞의 넓은 바다로 유도되었다. 이는 마치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로 일본 수군을 끌어내어 바다 한가운데서 전투를 벌였던 것과 유사한 양상을 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포위된 채 전투가 진행된 곳은 가조도 근처 해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의 해전에서 원균, 김완 등은 분전하여 왜선 10여 척을 격파하였으나,<sup>68)</sup> 그 사이에 배설 휘하의 전선들은 견내량을 통과하여 한산도로 퇴각하였고, 원균은 중과부적인 데다가 배설의 퇴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고성 쪽으로 밀려 추원포에 상륙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전투는 새벽 5~6시 경에 시작되어 가조도 근방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진 것이 오전 10시 경이었으며, 원균 등이 추원포에 상륙한 것은 늦어도 일몰 이전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결론적으로 칠천량해전은 한 마디로 조선 수군에게는 불운의 연속이었고, 일본 수군

65) 『난중잡록』 권3, 1597년 7월 16일

66) 『난중일기』 1597년 7월 15일

67) 당시 전투상황에 대해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록에 나오는 선전관 김식의 보고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선조실록』 권90, 30년 7월 신해) 이 기록은 전투에 직접 참가한 이후에 실제 상황을 올린 보고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조경남의 『난중잡록』도 내용이 자세하다.

68) 『원릉군실기』 <원균행장>; 『선조실록』 권91, 30년 8월 계해

은 그들이 준비한 대로 잘 진행된 해전이였다. 조선 수군이 패전한 요인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중요한 결전을 앞둔 시점에서 최고 지휘관이 경질된 것과 이로 인해 파생된 지휘체계 혼란 상황이다. 두 번째는 국왕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전략상 인식 차이와 이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군령권이 현장 지휘관에게 주어지지 않고,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체찰사와 도원수에게 군령권을 행사하게 했던 선조의 오판이다. 세 번째는 원군의 지휘 책임을 들 수 있다. 습격을 받은 후 지휘·통솔이 안된 점, 많은 도망병이 형성된 점, 경계에 실패한 점 등은 그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최초 복병선 4척이 공격받았을 때 더욱 경계를 강화하고 대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출전시 불량했던 기상 조건이다. 판옥선의 특성상 파도가 높은 외해 지역에서의 안정성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불량한 기상은 전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비해 일본 수군은 강력한 조선 함대에 대응할 뚜렷한 전략 없이 오히려 단순하게 조선 수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며 지치도록 하였으며, 이후 퇴각하는 조선 수군에 ‘야간기습’과 ‘포위 협격’, 그리고 전통적인 등선육박전술을 동원해 승기를 잡았다.<sup>69)</sup> 이후 수세에 몰린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 정박하자 일본 수군은 야음을 틈타 칠천량 주변 해역까지 넓게 포진하여 조선 수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고, 한없이 퇴로를 찾아 헤매는 조선 수군을 주변 해역에서 각개격파 했던 것이다.

## 2) 남원성전투

조선은 정유재란에서 일본의 침략 목표를 전라도와 충청도 점령이라고 판단하고 남원성을 일본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최전방의 보루로 인식했다. 남원은 지리적으로 경상도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전라도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충청도와 경기도의 바깥 울타리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정유재란시 가장 먼저 조선에 왔던 명군을 남원에 배치할 정도였다.

한편 일본군이 전라도 구례를 점령하고 남원으로 북상하고 있을 때, 남원에는 명의 부총병 楊元이 3,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원성을 지키고 있었다. 양원은 일본군이

69) 調信이 말하기를 ‘조선이 점차 수전에 익숙해지고 배도 견고하여 피차가 서로 버티면서 밀고 당기며 싸운다면 꼭 승리를 거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어두운 밤에 몰래 가서 불시에 공세를 퍼서, 조선의 큰 배 한척에 일본의 작은 배 5~6척 내지 7~8척이 한꺼번에 공격해 싸운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선조실록』 권83, 29년 12월 을유)

북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라병사 이복남에게 조선군의 증원을 요청하여 관군 1,000명을 받아 4,000여 명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군은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가 거느린 56,000여 명의 대병력이었다.

1597년 8월 12일, 일본군은 남원 외곽지역에 진영을 설치하고 정찰대를 파견해 남원성의 방어태세를 확인했다. 8월 13일, 일본군이 성 외곽을 포위하고 소수 병력을 동원해 조총 사격을 가했다. 이에 조명 연합군은 승자총통과 비격진천뢰 등을 발사하여 이를 격퇴했다. 특히 성 주위에 마름쇠를 대량 설치하고 4대문 밖의 석교를 제거하여 일본군의 접근을 어렵게 했다.

일본군은 8월 14일부터 공성장비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외곽의 해자를 메꾸는 등 본격적인 전투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듯 일본군의 총공세가 임박해지자 명나라 총병 楊元은 전주성의 진우충에게 두 차례 구원을 요청했으나 진우충은 전주성 방어를 핑계로 구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명나라 총병 양원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일본군에게 포위되었다.

8월 15일, 일본군은 본격적으로 대공세를 펼쳐왔다. 남원성 동남쪽에는 높은 누각을 만들고 그 위에서 조총 사격을 가해 방어군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사이, 또 다른 일대에서는 성 밖의 해자를 메꾸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조명 연합군은 필사적인 저항을 하였으나 밤에 일본군은 명나라군이 지키고 있던 서문과 남문을 돌파하여 성 안으로 들어오고 이어 동문을 점령하고 북문을 지키고 있던 조선군을 포위했다.

결국 북문을 지키던 병사 이복남과 방어사 오응정, 조방장 김경로 등이 화약고에 불을 질러 자폭하여 자결했고 명나라군 역시 동문을 지키던 중군 이신방, 남문의 천총 장표, 서문의 천총 생승선 등이 전사했다. 명나라 양원 만이 50기의 부하만 데리고 탈출했고, 접반사 정기원은 남원성전투에서 순절하였다. 그리고 조명연합군 4천명과 7천명의 남원성의 군민들이 모두 전사하거나 일본군에게 살해당했다.

이 전투와 관련하여 『조선일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8월 13일, 남원성 50리밖에 진을 쳤다.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의논한 끝에 저녁 무렵 가까이에 공격해가기로 되었다. 성안에는 5~6만에 달하는 명나라 군사가 진을 치고 있다고 한다. 전라도의 성도 그 방어벽이 거의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들으니 모든 진에서 기뻐하며 휴식을 취하도다.

8월 14일, 초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다. 한동안 비

바람이 집중적으로 진막에 휘몰아쳐 올때 비내리는 것이 공포스러울 정도이다. 잠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더더욱 아니다. 이세모노가파리(伊勢物語)의 鬼一口와 같은 상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읊어본다. 여지없이 거세게 내리는 비야 말로 이세모노가파리의 鬼一口의 이야기를 실감케 하는구나.

8월 15일, 성의 공격준비가 시작되어 내일 새벽에는 공격해 들어간다고 한다. 석벽의 가장자리에 딱 붙어서 벌써 해가 기울어 저녁 무렵이 되니 모든 진에서 쏘는 대포와 화살에 생각지 않던 사람이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읊어본다. 적의 성을 향해 쏘는 대포와 화살에 뜻밖의 사람이 죽는구나. 그건 그렇고 그날 저녁에 공격하여 성을 함락하였다. 히슈우(飛州) 성주의 부하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기에 그에 대한 포상의 朱印을 건의할까 말쑤드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sup>70)</sup>

남원성전투의 패배로 인해 호남과 충청 지방의 일부는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서울까지 민심이 동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군은 남원성에서 대대적인 살육을 자행해 성 안팎은 조선인의 시체로 그야말로 屍山血河를 이루었다고 케이넨의 『조선일일기』에는 기록되어 있다.

8월 16일, 성안의 사람은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서 살아있는 사람이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일부는 돈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었다.

8월 17일, 어제까지는 죽는다는 것도 알지 못했는데 오늘은 有爲轉變의 법칙에 의하여 무심한 연기로 바뀌어 버렸구나. 이것을 어찌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8월 18일, 성안으로 진을 이동하다 날이 밝아 성 주위를 돌아보니 길바닥 위에 죽은 자가 모래알처럼 널려 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남원성을 나와서 거닐어 보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태의 비참한 모습이구나.<sup>71)</sup>

케이넨은 비록 종군해온 왜승이지만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일본군의 잔혹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들은 자신들의 전공을 뽐내기 위하여 조선인의 코를 베고 귀를 잘라갔다. 지금도 일본에는 그 때 가져갔던 조선 사람의 코와 귀를 묻은 코무덤과 귀무덤이 남아 있다. 특히 일본군은 죽은 사람의 코 뿐만 아니라 산 사람의 코, 심지어는 아이를 갓 낳은 집에 들어가 산부의 코는 물론이고 갓난아이의 코까지 잘라가는 잔혹성을 보였다.

70) 『조선일일기』(케이넨/신용태 역주, 『임진왜란종군기』, 경서원, 1997, 64~66쪽에서 재인용)

71) 『조선일일기』

### 3) 직산전투

직산전투는 1597년 9월 7일 전주에서 북진하여 충청도를 진격하던 일본군 우군 모리 히데모토(毛利秀元),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의 부대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진격하여 방어작전에 착수한 명나라의 총명 馬貴가 파견한 부총병 解生의 선봉대와 충돌한 전투이다.

8월 15일, 남원성 함락 이후의 전투상황은 조선과 명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당시 명군은 전라도를 통해서 북진하고 있던 일본군에 대해 남원성에서 1차 방어를 하고 전주성에서 2차 방어를 하고자 했다. 아울러 경상도 지역에서의 북진에 대해서는 충주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러나 남원성이 함락되어 그곳을 지키던 부총병 양원이 패주하였고, 전주성을 지키던 陳愚衷마저도 공주로 퇴각하여 금강 북안에 주둔함에 따라 일본군은 1597년 8월 24일, 아무런 제지 없이 전주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에 명 총병 마귀는 서울에서 유격 牛伯英, 유격 頗賽 등을 증파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이들은 진우총과 함께 금강 북쪽의 광정역, 천안 등지에 머물며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일본군은 우키다 히데이에를 주장으로 하는 좌군이 남원성을 공략한 뒤 진격하여 전주를 점령하였고, 모리 히데모토를 주장으로 하는 우군도 전주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일본군은 제 장수들의 회의를 통해 이후 진격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 우군은 계속 북상을 하여 공주 방면으로 진격하고, 좌군은 충청·전라도의 잔여 지역에 대한 점령을 맡기로 한다.

일본군은 8월 29일, 우군의 주력인 모리 히데모토(毛利秀元),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와 군감 오다 가츠요시(太田一吉)·타케나카 시게토시(竹中重利)의 다섯 장수가 병력 1만여 명을 이끌고 전주를 출발하여 공주에 도착했다. 당시 공주에는 전주에서 퇴각한 명나라 진우총이 제독 마귀가 한성에서 보낸 지원부대인 유격 우백영의 병력과 합류하여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군이 대거 북진한다는 정보를 듣고 한성으로 후퇴함에 따라 일본군은 저항없이 공주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부대를 둘로 나뉘 가토와 오다의 2대는 9월 6일에 청주에 도착하고 모리는 구로다 군을 선봉으로 같은 달 6일에 천안에 도착했다.

물론 서울로 향하던 일본군은 조선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9월초에 공주로 진출하

려던 일본군은 여산·은진 등지에서 충청방어사 朴名賢의 공격을 받았고, 회덕·임천·한산으로 침입한 일본군에 맞서 충청병사 李時言이 방어전을 펼치기도 했다.

직산전투는 일본군의 천안 점령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군의 총병 마귀는 부총병 진우충이 일본군이 금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퇴각함에 따라 일본군의 군세가 강해 한성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경략 형개에게 한성을 포기하자고 건의했다.

한편 또다시 한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조선 조정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선조는 평양에 머물고 있는 경리 양호(楊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군대를 출전시켜 줄 것을 간청했고 명과 조선 사이에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접반사 이덕형 또한 명군의 출전을 독려하기 위해 줄곧 양호를 면담했다. 심지어 9월 3일, 선조는 자신이 왕위에서 물러날 뜻이 있음을 手書하여 승정원에 封下하는 등 전국의 다급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sup>72)</sup>

양호는 먼저 남원성전투의 패배로 야기된 조선의 정치·외교적인 혼란을 수습하고, 경략 형개의 世子監軍 요구에 따른 선조의 禪位 주장을 일축하고, 감군 蕭應宮의 대외 강화교섭의 재개론을 배제하고 조선군과 함께 명군이 북상하는 일본군과 결전할 결의를 굳건히 하였다.

9월 1일, 한성으로 들어온 양호는 마귀에게 전진하여 일본군의 북상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麻貴는 수원으로 내려가 부총병 解生, 유격 牛伯英 이하에게 2천명의 정예군사를 이끌고 직산으로 진격하도록 했다. 이에 조선 조정도 도체찰사 이원익으로 하여금 명군의 좌익을 경계 지원토록 하였다.<sup>73)</sup>

부총병 해생이 지휘한 명군 기병부대는 급속 행군하여 9월 7일 새벽, 직산 남쪽 1km 지점인 소사평에 진출하여 인근 야산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구로다의 선봉대로 1,500~2,000명이 천안에서 북상하여 직산 홍경원을 향하여 이동중이었으며, 새벽녘에 직산의 남쪽지점에 도착한다. 이에 명군은 일본군을 좌우에서 포위한 뒤 한 번에 격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일본군은 동이 트면서 산야를 가득 메운 명군을 발견하고 선제공격에 나섰다. 당시 명군은 일본군의 선봉의 복장색이 흰옷이어서 조선군으로 착각하여 공격치 않았는

72)『선조실록』 권92, 30년 9월 경인; 『춘파당일월록』 권9.

73)『춘파당일월록』 권9.

데, 일본군의 조총 사격을 반자 즉각 대응하였다. 이어 명군은 삼협으로 나누어 일본군을 포위하고 기병으로 돌격하여 일본군 선봉대에 큰 타격을 주었다. 명군은 수적인 우위와 중형포를 포함한 무기의 적절한 운용 전술로 일본군의 보병을 압도하였다.<sup>74)</sup> 이후 천안에서 북상중이던 구로다의 본진 병력 3,000명이 전투에 합류하여 학익진을 펼치는 등 명군을 압박했고, 오후에 들어서 명의 유격 擺蕩가 기병 2천명을 이끌고 전투에 합류하여 일본군과 접전을 펼쳤지만 쉽게 승패가 나지 않았다.<sup>75)</sup> 이후 오후 3시경에 모리의 본진 병력이 추가로 합류되어 명군의 측면을 공격하자 명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각했다. 이후 명군은 직산을 떠나 수원으로 퇴각하여 유격 파새에게 정예병 2천 5백명으로 방어토록 했다.<sup>76)</sup>

한편 일본군도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어 추격을 하지는 않고 천안으로 퇴각하게 된다. 이후 구로다 군은 9월 8일에도 전진하여 직산에 주둔하는 등 이 일대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는 9월 10일에 일본군이 직산에서 북상하여 경기도 안성과 죽산 일대를 노략질했다는 실록 기사에서 드러난다.<sup>77)</sup>

한편 명나라 해생은 9월 10일, 일본군에 편지를 보내 화의를 청하는 한편 한성에 승리를 보고하게 된다.<sup>78)</sup> 1597년 9월 9일, 직산 전투의 승리 소식이 알려지면서 왕세자는 廟社를 받들고 왕비를 모신 다음 西遷하였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직산전투에 대한 전과는 9월 8일, 접제도감이 중국군이 올린 전과 보고에서 “적의 머리 30급을 베었고 총에 맞아 죽은 자는 부지기수이다. 오후에 각각 수습하여 진을 쳤는데 벤 수급 중에는 金盔와 金甲을 입은 자가 몇 명 있었다.”<sup>79)</sup>라고 하였고, 9월 9일 제독 집반사였던 장운익의 보고에서는 “죽은 왜적이 거의 5백~6백 명에 이르렀고 수급은 30여 개를 베었으며 (중략) 중국 병사들도 죽은 사람이 많다.”<sup>80)</sup>라고 하여 일본측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명측 기록에는 160명<sup>81)</sup> 또는 29명<sup>82)</sup>으로 나온다. 특히 『兩朝

74) 『亂中雜錄』3, 정유 9월 6일.

75) 中村英孝, 『日鮮關係史の研究』중, 吉川弘文館, 1970, 230~236쪽

76) 『선조실록』 권92, 30년 9월 병신.

77) 『선조실록』 권92, 30년 9월 신축.

78) 北豊山人『文祿慶長朝鮮役』, 博聞社, 1894, 132쪽.

79) 『선조실록』 권92, 30년 9월 을미.

80) 『선조실록』 권92, 30년 9월 병신.

81) 九月 副將解生遊擊牛伯英頗貴 于稷山水源設伏各有斬獲 參將彭文德等亦報 追倭至青山 獲級百六十 軍聲益振 經略乃移郎中薰漢儒屯義州 海防使蕭應宮屯平壤 又聲言 調南北水陸兵七十萬旦暮且至 福浙直水兵直搗日本 倭聞遂不敢進 行長奔井邑 離王京六百里 清正踰竹嶺奔慶尚 離王京四百里(『万曆三大征考』)

82) 九月初七日 副總兵解生 恐倭直犯王京 分發部下于稷山水源等處防剿 而倭已至全義館 距王京百五十里 城中

『平壤錄』에는 직산전투가 비록 참획수는 많지 않지만 왕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 기록에는 직산전투에서 일본군 29명 전사, 명나라 군 200명 이상 전사했다고 하고,<sup>83)</sup> 구로다가 히데요시에게 보낸 문서에 명군의 코 숫자가 85개에 달하고<sup>84)</sup> 이후 구로다가 히데요시에게 보낸 수일간의 보낸 문서에 나타난 코 숫자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sup>85)</sup> 이러한 점에서 직산전투에서 명군과 일본군 모두 상당한 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산전투에 대해 다소 과대 포장되어 있었던 점이 있다. 분명 직산전투는 승리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전투이기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명군은 자신들이 목표했던 일본군 대군을 격파하는데는 실패했으나 전체 전황에서 일본군의 전략 변화를 이끌어내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직산전투의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군의 입장에서는 평양성탈환전투처럼 전황의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명군 지휘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일본군의 서울로의 급속한 진격을 좌절시켰다. 이로써 남원성전투 패배로 떨어진 명군의 위상을 회복하고 정유재란에 대한 명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조선군의 전투력 열세와 명군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서 칠천량해전을 비롯하여 남원성·황석산성 공략, 전주성 함락 등 승승장구하며 신속히 자신들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나 명군 지휘부의 적극적 개입 의지와 직산전투 초반에 보여준 명군이 보여준 인상깊은 전투력,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회전까지 감수하는 모습 등은 이전의 명군과 달랐다. 이로써 일본군은 공격 전략의 재검 전략의 변화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일본군은 화력과 기동성이 우세한 명군에 대한 부담감, 군량

人戸 晝夜驚走殆盡 我兵方溪五里迎遇之 同參將楊登山 遊擊牛伯英頗貴直冲之 ?死倭二名落馬 因乘勢追趕十里之外 殺傷數多 後兩哨山谷倭執打旗号 擁衆齊出 適撫院下千總李益喬 把總劉遇節 引兵驟至 灰塵大起 并力協攻 良久賊始大敗退去 解生見賊衆兵寡 乃收兵回 共斬首級二十九顆 降倭葉春認得落馬者 係清正下倭將葉一枝也 此時官兵未集 倭目中已無王京 而一戰挫其銳氣 雖斬獲不多 然王京之守 自此方方固矣」(『兩朝平壤錄』)

83) 구참모본부, 『日本の戰史5 朝鮮の役』, 徳間書店, 1965, 194쪽.

84) 『黒田文書』 黒田長政·竹中隆重·太田一吉 連署 鼻請取狀(秋月郷土館 소장 문서)

「請取申はな数事

合八拾五 但かくなミ者 稷山にて

慶長二年 九月七日 竹中源介(花押)

太田飛驒

黒田甲斐守殿」

85) 9월 14일 241개, 9월 15일 510개, 9월 16일 457개.

의 부족과 기온의 저하에 따른 일본군 사기가 위축으로 군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한성 공격을 포기하고 후퇴하게 되었다.

#### 4) 명량해전

조선 수군은 원군이 새로운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일본 수군과 접전을 벌였으나 칠천량해전에서 대패하여 다수의 장병과 대부분의 전선을 잃고, 조선은 제해권을 상실하였다. 이에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복권하여 삼도수군통제사로 기용하였다.

그러나 조선 수군에게 남겨진 전선은 겨우 13척에 불과하였다. 한편 선조는 칠천량의 패전에 따른 수군의 손실이 커 회복 불가능이라 판단하고 수군을 폐지하려고도 하였다. 그러자 이순신은 선조에게 수군폐지불가를 주장했다. 이후 이순신은 남해안 일대를 돌아다니며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수군 재건에 전력을 다했다. 이순신은 8월에 일본 전투선이 어란포에 나타난 것을 격퇴한 후, 9월에 일본 함대가 어란포에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9월 15일에 벽파진에서 해남의 우수영으로 진을 옮겼다.

한편 일본 수군은 구루시마 미치후사와 도도 다카토라, 와키사카 야스하루, 가토 요시아키, 구키 요시타카가 지휘하는 200척의 전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장수들은 칠천량해전 이후 일본군 좌군에 포함되어 남원성 공격까지 참여했으나 이후 수륙병진작전을 위해 좌군에서 이탈하여 전선으로 복귀했던 것이다.

일본 수군은 명량해협을 통과하여 전라도로 서진하여 서해안에서 육군과 합류하여 북상할 계획을 가졌다. 그러나 명량해협은 진도와 화원 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수로로 조류가 조선의 수로 중에서 가장 빠른 곳이었다. 특히 수심이 얕아서 배가 항해할 수 있는 범위는 좁고, 그 중에서도 밀물 때 넓은 남해의 바닷물이 좁은 울돌목으로 한꺼번에 밀려와서 서해로 빠져 나가면서 해안의 양쪽 바닷가와 급경사를 이뤄 물이 쏟아지듯 빠른 조류가 흘렀다. 또한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암초가 솟아 있어 급조류로 흐르던 물살이 암초에 부딪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소용돌이치게 되는 것이다.

당시 일본군은 빠른 수로를 이용하여 남겨진 조선 수군을 격파한 후 일본 육군과 합류하여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 수군은 남해안 대부분의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고, 육지에서도 1597년 8월 중순에 황석산성과 남원성을 공략하고 나아가 8월 25일 전주성을 점령하는 등 전라도 내륙 깊숙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후 충

청도 직산까지 진격하여 명나라군과 대치중인 상황이었다.<sup>86)</sup>

따라서 일본 수군이 수륙병진작전을 통해서 서해로 진입한다면 일본군의 전략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순신이 복귀했지만 13척의 전선뿐인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 차례의 전투를 통해서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은 서로의 전투력을 시험해보았다.

한편, 이순신은 일본 수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받고 9월 15일, 장병들에게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必死即生 必生即死)’고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一夫當逕足懼千夫)’고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즉시 군율을 적용하여 조금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거듭 말하며 결전 의지를 불태웠다.<sup>87)</sup>

한편 일본 수군의 지휘부는 순류에 맞춰 울돌목을 단숨에 넘어가 고니시 육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구루시마 수군은 원래 해적 출신으로 이같이 물살이 빠른 지역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기에 명량해협에서 이순신이 막는다 하더라도 무리없이 돌파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9월 7일, 조선 수군은 벽파진 근처에서 일본 수군의 소함대와 전투를 벌여 격퇴했다. 소규모 전투에서 패했지만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이 13척뿐임을 알고 더욱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이순신은 역시 일본군이 조선군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유인하고자 했다. 이순신은 벽파진에서 우수영으로 본진을 옮긴다. 그 이튿날인 9월 16일 새벽 3~4시 경 어란진에서 출병한 일본 수군 133척이 7~8시경 順潮를 타고 울돌목으로 접근한다는 보고를 접하고 이순신은 즉시 출전하게 된다.

이미 적선의 선봉대열이 통과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순신 상선의 즉각적 포격으로 세키부네 3-4척이 격침되며 전투가 시작되자, 뺄뺄히 명량을 채운 적의 기세에 밀려 조선 수군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순신이 탑승한 기함은 계속 자리를 고수하며 부하들을 독려하며 약 40분 가량을 버텼고, 적의 진격이 소강상태가 되자 초요기를 올려 뒤로 물러나있던 중군장 미조항 첨사 김응함과 거제현령 안위를 진격해 오도록 한 뒤, 그들을 매우 다그쳤다. 두 사람의 배가 적진으로 공격하기 시작하고 안위

86) 『조선일일기』 정유년 9월 1일~15일(케이넨/신용태 역주, 『임진왜란중군기』, 73~78쪽에서 재인용)

87) 『난중일기』, 정유년 9월 15일.

의 군선으로 일본 수군의 공격이 집중되었다. 이후 안위의 배를 둘러싼 적장선을 포함한 3척의 적선에 대한 화포공격으로 적장이 바다에 빠졌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순신 기함에 탑승하고 있던 항왜 俊沙가 “저기 그림무늬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적장 馬多時다”라고 알렸다. 이순신은 즉시 마다시를 끌어올려 효수해 조선 수군의 사기는 급격히 올라갔다.

오후 12시 경에 조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자 일본군에게는 악재가 되었다. 조류의 방향이 조선 수군에는 順潮가 되고 일본 수군에 逆潮가 되어 전투 운영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이후 조선 수군은 10여 척의 전선이 합세하여 일본 수군에 맹공을 펼쳤다. 이에 견디지 못한 일본 수군은 유시(酉時 오후 5시~7시) 무렵, 물살이 느려지고 바람이 일본 수군 쪽으로 부는 것을 이용하여 퇴각하였다.

이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13척의 배로 133척에 달하는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 기적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일본 수군의 전선 133척 중 30여 척을 격침시켰다. 반면 조선 수군은 단 하나의 전선도 격침되지 않았다. 다만 순천감목관 김탁과 이순신의 종 계생이 전사하였고, 안위의 전함의 격군 7~8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

조선 수군의 승리 요인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전함인 판옥선과 거북선 그리고 전함에 장착된 우수한 성능의 대형화포가 있다. 이와 함께 수군 지휘관이었던 이순신의 뛰어난 전술 능력과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의 투지를 일깨운 리더십 역량이 있다. 적선을 파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대형 화포와 대형 화포로 무장한 ‘판옥선’의 전투력이 하드웨어적인 전투력이라 한다면 이순신장군의 ‘전술 능력’과 ‘리더십’은 소프트웨어적인 전투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수군의 연승은 대형 화포와 판옥선으로 대변되는 조선 수군의 하드웨어적 전투력과 위대한 수군의 리더였던 이순신에 의해 조성된 소프트웨어적 전투력의 융합을 통해서 강력한 전투력을 형성하여 일궈낸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난중일기』 1597년 9월 16일자 기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앞으로 돌진하면서 지자포·현자포 등 각종 총통을 어지러이 쏘아댔다. 마치 나가는 게 바람과 우뢰 같았다. (중략) 우리 배들이 일제히 북을 치며 진격하면서 지자포·현자포 등을 쏘고, 또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그 소리가 바다와 산을 뒤흔들었다.<sup>88)</sup>

88) 『난중일기』 정유년 9월 16일

전투는 하드웨어적인 전투력과 소프트웨어적인 전투력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 난다. 즉 아군의 전투력이 적군 보다 우위에 있을 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명량해전도 이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명량해전은 정유재란의 판세를 역전시키는 결정적 전투가 되었다. 당시 일본군은 육군과 수군의 수륙병진작전을 통해 한양 공격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이 해전에서 패함으로써 수륙병진작전이 무산되었다. 그 결과 일본군의 군량 보급 및 측면 전투지원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본군은 남하하여 남해안 일대에 분산되어 왜성을 쌓고 농성전에 들어 가게 된다. 이후 정유재란은 농성하는 일본군을 조명연합군이 수륙 양면에서 협공하는 공성전으로 바뀌게 된다.

#### 4. 정유재란 초기 군사전략과 전투의 특성

이상과 같이 정유재란 초기 조일 양국의 군사전략과 전투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일 양국의 군사전략과 전투의 특성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정유재란기 일본군의 재침 전략의 핵심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강화조건의 하나인 남쪽 4도를 무력으로 확보하고자 한 점이다. 먼저 일본군은 재침의 주공격대상으로 하삼도를 상정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화회담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한반도 남부지역에 대해 기득권을 명나라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무력을 이용하여 장악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히데요시의 작전 지침이나 전쟁 기간중에 제장수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안골포성을 비롯하여 가덕도성, 죽도성, 서생포성에 대한 전담 수비군을 편성하여 성곽 수축과 군량 확보 등 후방기지로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했다. 이는 향후 전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인 것은 군량이라 할 수 있다. 1596년 재침을 대비하여 일본군은 ‘置兵糧’이란 이름으로 상당량의 군량을 수송하여 부산을 비롯하여 여러 왜성에 비축했다.<sup>89)</sup> 그리고 재침 이듬해인 1598년에도 히데요시

의 장입미 2만4천석의 수송이 추진되었다.<sup>90)</sup> 또한 조선에 파병된 장수들도 별도로 각자의 군사에게 지급할 군량과 군수물자를 자기의 영지에서 수송해야만 했다.<sup>91)</sup> 서생포성에 주둔했던 가토가 구마모토의 자신의 領國에 편지를 보내 군량과 각종 군수물자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다.<sup>92)</sup> 이처럼 일본군들은 전쟁 초기에는 각 왜성과 남해안 상륙거점에 가져다 놓은 군량을 활용했다. 그러나 부대가 전라도와 충청도의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군량 운반과 군량 부족의 문제에 봉착한다. 이에 일본군들은 현지조달로 해결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일본군의 현지 군량 조달과 관련하여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항왜나 포로에서 탈출한 사람 또는 일본군 점령지에서 농사를 짓던 조선인이 도망하여 관가에 보고해 온 정보 등에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sup>93)</sup> 전주를 점령한 일본군 일부는 방향을 돌려 전라도 내륙으로 진출하여 각 고을을 점령하였다. 일본군들은 순천에 있는 옛 성을 수축하여 주둔하는 한편 전라도의 각 지역에서 군정 실시를 기도하였다. 일본군들이 달아난 백성들의 환주를 추진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年貢을 받으려고 계획하였다. 또 강진에 주둔했던 나베시마 나오시게는 군량이 소진되자 사방에 방을 붙이고 매 1인당 쌀 1되씩 가져오면 免死帖을 주고 소지한 자는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가지 않는다 하여 조선인들로부터 하루만 쌀 2천석을 얻었다는 기록도 있다.<sup>94)</sup> 『선조실록』에도 일본군이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인을 사로잡아 남자는 쌀 5斗를 받고 여자는 쌀 3斗를 받고 면사첩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sup>95)</sup> 이를 위해 일본군들은 임진왜란 때와는 달리 더욱 잔혹하게 조선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 코를 베어가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다고 본다.

셋째는 전투지도를 위해서 7명의 감독관을 설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제 장수를 긴밀

89) 中野等, 『朝鮮侵略戰爭における豊臣政權の兵糧補給について』『九州大學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35, 九州大學校, 1990, 16~17쪽.

90) 中野等, 『豊臣政權の對外侵略と太閤檢地』, 校倉書房, 1996, 130쪽.

91) 沈安頓吾[시마즈 요시히로]의 병력은 원래 3만명이었는데 일본에서 가져온 군량은 조선에 있는 10개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군량은 처음 이곳으로 올 때 큰 배 30여 척에 싣고 왔고 그 후 가끔 본국에서 운반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에서 노략질하여 군량을 보충하기도 하였는데 일본군은 식량을 인원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博多 출신의 한 항왜가 보고하였다.(『선조실록』 권136, 34년 4월 계사)

92) 가토는 가신들에게 쌀은 5천석에서 1만석까지 대두는 2천석 내지 3천석을 보내달라고 지시했다.(三鬼清一郎, 「朝鮮役における兵糧米調達について」『名古屋大學文學部三十週年記念論集』, 名古屋大學文學部, 1981, 611쪽.)

93) 『선조실록』 권71, 29년 1월 병신

94) 北豊山人, 『文祿慶長朝鮮役』, 博文社, 1894, 122쪽

95) 『선조실록』 93권, 30년 10월 정묘; 기묘.

히 통제코자 했다. 이들은 주요 전투가 끝난 후 전략을 수정하여 전쟁을 이끌어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니시와 가토의 불화는 자칫 전투 진행에 장애로 판단하여 엄격히 통제하려 했다.

넷째는 임진왜란때와는 달리 수군을 적극 활용코자 했다. 도도, 가토, 와키사카를 비롯한 사국의 장수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륙병진작전을 도모했다. 특히 칠천량해전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 이들은 섬진강 연안을 따라 북상하여 일본군의 남원성 공략을 적극 지원했으며, 이후에는 해상으로 복귀하여 서해로 진출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서해안을 통한 부족한 군량을 대량 수송하고 측면에서 전투 지원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명량해전에서 대패함으로써 일본군의 전략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는 직산 전투 이후 일본군의 한성 공략을 포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선의 대응전략은 크게 해로차단전략과 견벽청야전략으로 구분된다. 먼저 해로 차단전략은 임진년의 전투 결과를 토대로 전투력이 우수한 수군을 활용하여 일본군을 해상에서 격퇴하자는 적극적인 해상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로차단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군의 병력 충원, 해상 요충지인 거제도 점령, 군사 지휘권의 원활한 협조 등이 필요했으나 병력 부족현상은 여전했고, 거제도 점령도 무산되었다. 특히 군사 지휘체계의 갈등과 불안은 원활한 작전 수행을 방해했다. 특히 수군 최고 지휘관의 교체에 따른 지휘체계의 혼란 상황은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크게 약화시켜 급기야 전쟁 초기에 조선 수군은 칠천량해전에서 대패하여 기왕에 구축해놓은 전력을 모두 소진시키기에 이르렀다. 결국 해상에서의 일본군의 재침에 대한 대응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또 다른 견벽청야전략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재침에 대비하여 산성을 수축하고 훈련도감군을 양성하고 전국을 속오군 체제로 편성하는 등 군비 강화에 노력했으나 정유재란 초기 조선군의 전체적인 전력은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일본군에 비해 매우 열세의 상태였다. 따라서 일본군의 재침 전략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명군의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일본군에 대한 작전권을 둘러싸고 도체찰사와 도원수, 병사·수사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지휘체제의 갈등과 불안으로 나타나 그나마 유지된 전력의 활용에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명군이 들어오면서 군사지휘권이 명군에게 넘어감에 따라 조선군은 명군의 보조 전력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일본군이 전쟁 초기에 남원성을 함락하면서 북상하게 되자 조선 조정은 전전공궁하며 명군 주력부대의 남쪽으로의 출전만을

간청하는 딱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정유재란 초기에 벌어진 전투 중에서 군사전략의 변화를 보이는 계기가 된 전투는 칠천량해전, 남원성전투, 직산전투, 명량해전 등이다.

칠천량해전은 일본군이 재침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며 벌어졌다. 전쟁 초기 일본군은 조선 수군과의 전투를 매우 조심스러워했는데, 이는 “조선의 舟師가 정예롭고 용맹하다. 한산도에서 성공한다면 이는 요행일 뿐이다. 따라서 자주 요격해서는 안 된다.”<sup>96)</sup>, “조선이 점차 수전에 익숙해지고 배도 견고하여 피차가 서로 버티면서 밀고 당기며 싸운다면 꼭 승리를 거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어두운 밤에 몰래 가서 불시에 공세를 펴서, 조선의 큰 배 한척에 일본의 작은 배 5~6척 내지 7~8척이 한꺼번에 공격해 싸운다면 성공할 수 있다.”<sup>97)</sup> 등에 잘 드러난다. 그렇기에 히데요시도 수군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별도 편성을 하고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칠천량해전은 조선 수군의 지휘체계의 혼란, 조선 조정의 무리한 출전 압박, 지휘관의 전술 부족,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조선 수군의 대패로 끝이 났다. 이로써 일본군은 예상 외의 성과를 거두고 자신들이 계획했던 재침전략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일본군의 재침 목표인 전라도의 요충지인 남원에서 벌어진 남원성전투는 명군의 일본군 재침에 대한 1차 방어선적인 의미를 지녔다. 당시 일본군은 해상기동력을 발휘하여 진주와 고성에 군사를 집결시킨 다음 하동 방면에서 섬진강의 수로를 활용하여 남원으로 북상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5만 이상의 일본군이 육상의 여러 험지를 피해 우회작전을 펼침으로써 신속하게 남원으로 쳐들어왔던 것이다. 반면 명군과 조선군은 일본군의 수륙 병진작전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하였다. 그 결과 명군 지휘부의 무리한 계획, 수성 병력의 절대적인 열세, 수성병력의 사기 저하, 나아가 전장에 대한 이해와 전술 부족 등으로 조·명 연합군은 남원성전투에서 대패하였다.

남원성 함락이후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전주를 거쳐 북상하자 조명연합군은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조선 조정은 한성이 재차 함락될 것을 우려하여 평양에 있던 명군의 지휘부에 남쪽으로의 출병을 간청했다. 그 결과 명군 지휘부는 한성으로 내려와 주요 병력을 남하시키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직산에서 북상하는 일본군과 명군이 격돌을 펼쳤는데, 전투는 명군과 일본군 어느 누가 승리했다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만

96)『선조실록』 권97, 31년 2월 무인.

97)『선조실록』 권83, 29년 12월 을유.

직산전투에서 보여준 명군 지휘부의 적극적 개입 의지와 명군의 강한 전투력, 후방 지원군의 신속한 지원체계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본군이 채침 전략의 변화를 꾀하는데 일조하였다.

일본군도 비록 전략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화력과 기동성이 우세한 명군에 대한 부담감, 군량 부족과 기온 하락에 따른 일본군의 사기 저하, 반전 분위기 형성 등 군을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한성 공격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하였던 것이다.<sup>98)</sup>

명량해전은 직산전투 이후 일본군의 전략 수정과정에서 벌어지게 된다. 남원성전투 이후 수군의 제장들은 해상으로 복귀하여 육군의 복상에 따른 해상 측면 지원을 계획하게 된다. 그러나 명량해전에서 패함으로써 일본군의 수륙병진작전이 무산되었다. 그 결과 일본군의 군량 보급 및 측면 전투지원 등의 어려움에 따라 일본군은 남하하여 남해안 일대에 분산되어 왜성을 쌓고 농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98) “당초에 행장과 청정의 뜻은 세 길로 나누어 직접 서울로 올라가려 했는데 관백이 사람을 보내어 전령하기를 ‘서울은 침범하지 말고 9월까지 닥치는 대로 무찔러 죽이고 10월 안으로 서생포나 부산 등의 소굴로 돌아오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산전투의 승패가 후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선조실록』 권93, 30년 10월 경신)

## [토론문]

## 정유재란기 조·일양국의 군사전략과 전투양상

이상훈(한국국제대학교)

조선을 배제한 채 진행된 3년 여의 강화협상이 종래에는 결렬되고, 파탄을 선언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6년 9월 이후 재침을 계획하였다. 그 결과 420년 전 발발하게 된 것이 정유재란이다. 박제광의 이 글은 정유재란을 계획한 시점에서부터 일본군의 침략 이후 공세가 꺾이던 명량해전까지 조선과 일본의 군사전략과 주요 전투를 고찰한 글이다. 임진왜란을 다룬 많은 논문이 있으나 정유재란 발발 시기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본 학술대회와 이 논문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논지나 주요전투로 칠천량해전, 남원성전투, 직산전투, 명량해전 등을 사례로 삼은 점에 대해서 토론자도 공감한다. 다만 논문 전체적으로는 작성 시간상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조금 덜되어 산만한 느낌을 준다. 특히 일본군의 침략과정과 조선군의 방어전략, 명군의 참전 등이 하나의 시간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듯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겹도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이 학술대회의 성격과 여타 발표 논문을 비추어 볼 때 명군 참전이후 정유재란 종전기의 작전과 전투가 다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감이 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유재란의 목표를 조선의 하4도 점령으로 삼고 구체적인 군사행동에 대한 작전지침을 시달하였다. 1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지침을 소개한 것은 향후 일본군의 행동에 대한 방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임진왜란 개전 명령과 비교 하여 달라진 점을 분석한다면 좀더 정유재란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선봉문제(1), 감독관의 문제(2), 진격지역 문제(15), 후방 방어문제(17), 명군 대비(18) 등이 중요한 점이라 본다. 이 중 (1), (2)에 대한 비교를 추가 언급해주기 바란다.

이와 결부하여 전라도 등 4도 점령문제에 대해 발표자는 강화조건으로 요구했던 지역의 점령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강화협상 결렬과 관계없이 이 지역의 점령과 조

선 왕자의 인질이 중국과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요구하고 조선이 거부하자 무력으로 이를 점령하려 한 것이 정유재란의 본질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일본군의 침략 진격로는 크게는 전라도의 전주를 1차 목표로 하고 다시 북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좌-우군으로 나누고, 수군을 따로 편제한 것인데 중간에 일본 수군의 전략이 바뀐 이유, 그리고 점령지 곳곳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본군 수뇌가 전주를 점령하고 나서 열었던 전주 회의, 일본군의 본격적인 퇴각이 이루어진 후 열린 정읍회의가 중요하다. 특히 전라도 지배와 관련이 큰 정읍회의 결과를 보충해야 할 것 같다.

조선군의 방어전략에 대해 발표자는 청야전벽과 수군 선제공격을 들었는데, 특히 군령권 행사의 난맥에서 조선군의 대응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였다. 육군의 방어와 관련 자료에는 전주 지역의 방어를 통해 전라도 침입을 막으려 했는데 이 시기 김덕령 제거의 영향은 없었는지 질문하고 싶다.

명군은 조선의 요구에 응하여 신속한 원병을 파병하였는데 처음부터 남원의 방어를 중시하였다. 발표자의 견해와는 명군은 경성의 방어를 위해 조령-충주와 남원-전주를 방어하려는 전략을 구사했고 이에 따라 남원에 주둔했던 것이다. 이곳의 방어는 실패했지만 직산에서의 전투로 일본군들이 후퇴하게 된다. 발표자의 고찰과 같이 직산전투는 명의 주장과 같이 대승이 아니었음에도 일본군은 후퇴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과 곳곳에서의 조선의 전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하다.

명량해전은 조선 수군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일본군의 진격을 꺾었다는 점에서 전략상 매우 중요한 전투였다. 그런데 조선 수군이 13척으로 여전히 소규모였으며, 본거지가 없었던 점, 전라도의 곳곳에 -특히 해남, 영암 지역까지- 진격하였으면서도 한번의 패배로 더 이상 조선 수군을 밀어 붙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다른 이유가 없는지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재고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 제4주제

---

### 전쟁의 파장,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

정유재란 이후 조·명·일 삼국관계의 변화  
-에도막부의 초기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발 표 : 김문자(상명대학교)

토 론 : 김정태(고려대학교)

1. 머리말
2. 豊臣政權 말기 상황과 동아시아
3. 에도막부 초기의 대외관계와 동아시아
4. 이에야스의 국내 정치적 한계와 대외정책
5. 맺음말



## 1. 머리말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에 걸쳐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명 중심의 조공·책봉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서유럽 세력들의 동아시아 진출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 에도막부의 명과의 국교회복 좌절, 명·청 교체로 인해 국제질서가 재구축된 것이다. 특히 일본의 근세 대외관계는 막번체제의 형성과정과 맞물리면서 쇄국=海禁 또는 ‘일본형 화이질서’라는 체제를 거쳐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정착되었다. ‘일본형 화이질서’라는 용어에 문제점은 적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에도막부의 대외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역사적 개념이 되었다.<sup>1)</sup>

본고에서는 정유재란이 끝난 뒤 17세기 전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에도막부(1603~1868)를 설립한 시기에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갔는지를 일본 국내사정과 연관하여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 死後, 규슈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국 다이묘들의 교역활동을 견제하였다. 동시에 류큐(琉球) 왕국을 중개로 일명무역을 재개하면서 외교권과 무역권을 계승·장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조선과 류큐, 아이누 등 異國과 異域에 대해 대마도의 宗씨와 島津氏·松前氏 등을 매개로 외교·무역관계를 맺었다.<sup>2)</sup> 네덜란드와 중국(明·淸)에 대해서는 長崎를 창구로 직접 또는 막부 관할 하에 무역을 장악해 나가려 했던 것이다.

결국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두 번에 걸친 조선침략에 의해 동아시아 사회에서 고립

1) 당시 동아시아 삼국에서 사용했던 ‘海禁’정책은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명·청과 조선의 경우 해금은 자국민들이 사사로운 해외교류 금지와 대외무역을 장악하려는 의도에 왜구를 금압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이 컸다. 반면에 일본의 해금은 그리스도교를 금제하는 것을 의미했다.—신동규, 「近世 동아시아 속에서 일본의 ‘국제질서’론 고찰-세계觀 변화와 ‘日本型 華夷秩序’론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35, 2009, 226-234쪽; 荒野泰典, 『江戸幕府と東アジア』 日本時代史14, 吉川弘文館, 2003 참고.

2)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민덕기, 「에도막부의 동아시아 국제사회로의 진입노력-무로마치 막부와 비교하여」 『일본사상』 6, 2004 ; 同, 「임진왜란의 ‘戰後처리’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 『한일관계사 연구』 36, 2010 ; 이계황, 「에도막부의 대외관계 형성과정」 『한국학연구』 20, 2009 ; 紙屋敦之, 『大君外交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1997 ; 加藤榮一, 『幕藩制國家の成立と對外關係』 思文閣出版, 1998 ; 永積洋子, 『近世初期の外交』 創文社, 1990 ;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近世日本の國際秩序と朝鮮觀』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 上原兼善, 「初期德川政權の貿易統制と島津氏の動向」 『사회경제사학』 71-5, 2006 등이 있다.

된 국제관계를 회복하고, 조선과 명과 국교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국가주권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막대한 부와 군수물자를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는 해외무역을 통해서 국내경제를 발전시키고 무역이윤을 추구하면서 도쿠가와 자신의 재정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지금까지 에도막부의 초기 대외관계에 대해서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는 달리 평화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朱印船제도나 이토와부(絲割符)를 통해서 기독교는 금하지만 해외무역은 장려했다던가, 활발한 해외무역도 막번체제가 견고해 지면서 일본인들의 해외 도항과 무역에 제한을 가하고, 소위 쇄국=海禁체제를 실시하면 막부가 무역 및 다이묘들을 통제해 나갔다고 파악하고 있다. 즉, 慶長(1596-1614)년간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강화 및 국교회복, 류큐를 통한 일명무역재개, 동남아시아의 주인선 무역 활성화 등 「대통상국가」를 구상할 정도로 적극적이며 다채로운 외교와 무역정책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에도막부 초기의 대외관계는 이에야스의 주도하에 형성·정착해 갔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이에야스가 처해있던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당시 대외적인 외교 분야에서는 일본 최고의 권력자인 이에야스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히데요시의 사후에도 변함없이 전국적인 범위가 아니었다. 다만 기나이(畿内)와 교토(京都) 근처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히데요리(秀頼)와 유력한 다이묘들, 그리고 교토에 있는 천황을 비롯한 조정·공가세력 등은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정치집단으로서 존재했었다. 세키가하라 전투, 에도막부의 성립, 오사카 전투가 끝날 때까지도 국내정치에서 이에야스는 영지 지배를 허가하는 領地朱印狀 발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sup>3)</sup>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이에야스는 초기 대외를 어떻게 전개해 나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에도막부 초기 이에야스(히데타다)가 전개했던 대외정책이 국내 사정과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에도막부가 정유재란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 가면서 국제질서 속에 편입되어 갔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3) 堀越祐一, 『豊臣政權の權力構造』 吉川弘文館, 2016.

## 2. 豊臣政權 말기 상황과 동아시아

1595년 5월 정유재란이 발발하기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산에서 돌아온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만난다. 그는 명의 책봉사가 부산에 도착하여 곧 渡日한다는 사실을 히데요시에게 보고하기 위해 귀국했던 것이다. 그런데 히데요시는 과거 명나라 강화사인 謝用梓에게 제시했던 강화요구 조건과는 다른 새로운 3가지 안을 제안하면서 조선에서의 불리한 戰況을 만회하려 했다.

즉 (1)조선 왕자를 자신의 거처로 보내면 조선 8도 전체가 아니라 남부 4도만 일본이 소유하겠다. (2)유키나가의 진영이었던 웅천까지 조선 왕자가 오면 일본진영의 3분의 2를 소각시키고 일본군을 철수한다. (3)자신은 명이 요구한대로 조선을 사면하는 대신 명 칙사(책사)의 파견과 무역재개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다.<sup>4)</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히데요시가 일본군의 부분철수를 인정한 것과, 명 책사가 일본에 올 때 禮儀로서 詔書を 갖고 올 것과 앞으로 명과 일본이 무역을 할 경우에는 ‘금인’을 그 증거로 삼자고 한 점이다. 당시 중국은 주변 국가와 책봉관계를 맺을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중국황제로부터 피 책봉국의 통치자에게 印綬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인수는 책봉을 알리는 冊書,금인,刺綬를 주는 것이 관례였다. 금인을 요청했다는 것은 명의 책봉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시한 3가지 요구 조건을 통해서 히데요시는 사전에 자신이 일본국왕으로 임명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히데요시가 무역재개를 바란다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히데요시가 정유재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학계에서는 히데요시의 일본국왕 거부와 조선 남부지역 점령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up>5)</sup> 그러나 당시 일본의 병력은 조선 남부의 4도까지 공격할 상황이 아니었다. 즉, 1597년 전쟁이 재개되자마자 일본측 상황이 「全羅道亦無留住之意」라 한 것처럼 조선 남부를 점령하기는커녕 전라도 지역을 확보하는 것도 무리한 戰況이었던 것이다.<sup>6)</sup> 그러므로 히데요시는 일단 조선측이 먼저 강화를 요청하도록 유인하고, 성사되면 승전국의 입장에서 강화조건을 내세우려 했던 것이다. 국내에 이 점을 선전함으로써 전쟁발발의 책임을 면하고, 장기화된 전쟁을 종결시키

4) 『江雲隨筆』 文祿4년 5월 22일.

5) 北島万次, 『豊信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년, 180~183쪽.

6) 『선조실록』 권93, 30년 10월 경신조(3일).

면서 조선지역에서 무역재개라도 할 계획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히데요시가 조선과 무역재개를 원했던 당시 동아시아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580년대 히데요시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규제 없이 해외로 도항하는 일본인이 급증하였다. 특히 명의 해금정책이 완화된 이후 복건성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했으며, 루손(필리핀)을 향한 일본상인들의 도항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때 일본선이 적재한 물품으로는 小麥·穀物粉 등 식료품이 많았다. 그 외에 牛馬·刀劍·수산물 등 식료품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필리핀에서 일본에 보낸 수출품 중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던 것은 금이었으며 은생사견직물·그리고 鹿皮·蠟·蘇木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히데요시 정권기에 일본국내에서 유통된 금은 생사견직물의 대부분은 필리핀 무역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었다. 이는 루손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sup>7)</sup> 특히 1591-1607년까지 당시 일본상인들이 납입한 상품명과 필리핀 총독부가 지불한 금액을 살펴보면 화약·硝石·布鐵 등이 많았고, 수입한 것은 양질의 小麥粉이었다고 한다.<sup>8)</sup> 사츠마를 비롯한 서국의 다이묘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필리핀 총독부에 사신을 파견하고, 통신헌계를 확립해서 무역에 적극 참가하려 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일본국내에서 통용된 화폐는 금은 그리고 구리로 만든 동전이였다. 동일본에서는 금을, 서일본에서는 은을 주로 사용했으며, 동전은 일상의 소액 화폐로 널리 유통되었다. 금은 동전의 교환은 일상적이였다. 때문에 일본 내 금은 구리의 양은 화폐의 질이나 교환 비율과 직결되어 경제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당시 일본의 소비생활은 해외무역에 의존했던 부분도 컸기 때문에 해외 무역은 일본 경제를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수입을 늘리면 주력 상품인 은이나 구리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수입을 억제하면 국내의 물자가 부족해지고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최고 권력자는 무역의 수출입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시기에도 戰場에서 은의 유통량은 증가했다. 큐슈지역·나고야(名護屋)까지 金·銀·錢이 사용되었다. 각지에서 금·은을 환전해서 錢으로 바꾸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히데요시는 국내 각지의 금은 주요 광산을 여러 다이묘를 통해서 장악하려 했다. 나고야로 전쟁에 동원된 동북지역의 다이묘들은 나가사키지역에 있는 포르투갈

7) 이하 히데요시 정권기의 은의 지배와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本多博之, 『天下統一とシルバーラッシュ-銀と戰國の流通革命-』, 歴史文化ライブラリ-404, 2015, 178-182쪽.

8) 清水有子, 『近世日本とルソン「鎖國」形成史再考-』, 東京堂出版, 2012, 303-308쪽.

상인과 교류해서 대량의 상품을 구입하였다. 동남아시아산 향료와 염료·약철포·硝石·화약 연료 등 외국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대내외적으로 무역이 활발해졌고 은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 갔다. 국내 여러 광산으로부터 은의 운상이 이루어지면서 히데요시 정권이 국제통화를 장악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 이때 金銀의 주요 광산을 갖지 못한 큐슈 대명 가운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외무역을 추진했다. 1596년 자신의 지인에게 보낸 서장에 ‘1597년 봄에 필리핀을 향해 唐船을 파견해서 小麥을 수출한 뒤, 금을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필리핀에 보낼 무역선 파견에 필요한 히데요시 주인장을 세이쇼 조타이(西笑承兌)에게 의뢰했다는 점이다. 즉, 히데요시는 외교권을 장악하는 통일정권으로서 여러 다이묘의 해외무역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허가제로 함으로써 무역 통제를 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에도막부가 제도화한 朱印船 무역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히데요시 정권 말기의 이와 같은 상황은 에도막부 초기 이에야스가 전개했던 외교 및 무역정책에 그대로 계승되어 갔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히데요시 정권 말기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고립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큐슈 특히 肥前·薩摩 지역에는 중국남부와 류큐·동남아시아로부터 온 상선이 내항하였고, 시마즈(島津)씨의 영역을 경위해서 타국으로 도항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처럼 상선들이 빈번하게 활동하자 히데요시는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빌미로 조선의 일부 지방에 무역이라도 재개하여 조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전쟁을 종결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또한 이시기에 에도막부가 제도화한 朱印船 무역의 원형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3. 에도막부 초기의 대외관계와 동아시아

이에야스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고립된 국제관계를 회복하고, 조선·명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여 국가의 주권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제는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군들을 무사히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이때는 豊臣정권(히데요리)은

9) 中島樂章, 「16世紀末の九州-東南アジア貿易-加藤清正のルソン貿易をめぐる」『史學雜誌』118-8, 2009.

물론 이에야스 입장에서든 정권의 향방을 두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였다. 조선과의 강화와 국교회복은 단순히 무역을 통해서 재정을 강화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사회로 편입·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야스의 입장에서는 꼭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과제였던 것이다. 이 難題가 해결되면 도쿠가와 정권은 국제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오사카에 남아있는 豊臣氏 및 그의 추종세력과 격차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정유재란 직후 에도막부와 조선과의 국교회복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에야스가 어떠한 국제인식을 갖고 어떠한 방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sup>10)</sup>

### 1). 정유재란 종결과 일본의 국내 상황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12월 9일 도토우 다카도라(藤堂高虎)가 ‘일본 군 완전 철수’를 보고하면서 조선과 일본간의 7년 전쟁은 종결되었다.<sup>11)</sup> 이에야스의 외교는 조선문제 해결부터 시작됐다. 그는 전쟁에 대한 懷疑와 厭戰 분위기가 일본 국내에 만연하자 철수와 관련해서 兵站 보급이나 후방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다. 그는 조속하게 일본 국내를 안정시키면서 권력 구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군의 철수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였다. 그 결과 철수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대부분 무사히 귀국하였다.

당시 조선에서 철수하여 돌아온 일본무장 사이에서는 전쟁 중의 功過 문제가 영지배당 및 전후처리에 중요한 변수였다. 때문에 이에야스가 조선과 和好를 맺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sup>12)</sup> 즉, 조선과 復交를 한다 해도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정권의 잘못을 사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선과 쉽사리 직접적인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선 측에서도 전쟁 중의 피해로 강화에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양국 간의 냉전 상태는 지속되었다.

10)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국서 진위 문제’ 등 다수의 선행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에야스가 당시 국내에 처한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高山藤實錄 7』『高山藤實錄 藤堂高虎』131-132쪽. “上關よりの書狀、披見申し候、仍って高麗表御無事に相濟み、何れも歸朝の儀、大慶に候、猶面を以て申すべく候間、具さ能わず候、恐々謹言”

12) 北島万次, 『加藤清正』, 吉川弘文館, 2007 ; 津野倫明, 「蔚山の戦いと秀吉死後の政局-五月二五日付秀吉朱印狀の政治的意義を中心に-」 『ヒストリア』 180, 2002.

한편 조선과의 외교 무역을 전담했던 대마도는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조선과 교섭을 시도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이 당시만 해도 대마도는 히데요시를 통해서 영지의 安堵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야스에게 종속된 상황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과 무역을 재개하고 명과의 인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과 강화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이에야스의 영향력은 거의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sup>13)</sup>

조선과의 국교회복이 성사되기 전, 전술한 것처럼 히데요시 정권말기부터 큐슈 특히 肥前·薩摩 지역에는 중국남부와 류큐·동남아시아로부터 온 상선이 내항하였다. 시마즈(島津)씨의 영역을 경유해서 타국으로 도항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필리핀과 인도지나 반도·말레시아 반도 등 동남아시아에 도항해서 무역하는 사람들 중에는 타 지역에서 해적과 용병으로 활동하는 일본인도 적지 않았다. 큐슈지역을 중심으로 해적이나 몇몇의 독보적인 일본인 무역상(다이묘, 상인), 그리고 유럽인들에 의해 무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서 이미 1599년 4월과 8월 五大老가 해적행위를 금지하는 영을 내렸었다.<sup>14)</sup> 이와 관련해서 五大老의 중심인물이었던 이에야스는 타국과 발생하는 외교 무역과 관련한 사건처리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sup>15)</sup> 즉, 그는 히데요시가 장악했던 외교권을 자신이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점차적으로 외교권과 무역권을 장악하려 했다.

정유재란이 끝난 직후부터 세키가하라 전투가 발발하기 전까지 이에야스는 일본군의 철수 문제를 제외한 조선과의 외교·무역보다는 오히려 큐슈지역의 외국선 관리 및 무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조선이 강화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냉전 상태가 지속되자 조선과의 국교회복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정상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조선과의 국교재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이었다. 때문에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는 조선과의 국교회복을 대마도를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했다. 즉, 조선과 전후처리를 마무리한 후 명과의 통교, 통상관계를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파악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隣國인 조선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침략위험을 해소하고, 국내 안정과 무역 독점 및 정권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조선에 신사 파견을 요청하면서 국교를 재개하려

13) 후일 대마도는 1605년 惟政使行과의 교섭을 성공시킨 공으로 이에야스로부터 2만 8천석을 加贈받았고, 참근교대도 2년에서 3년에 한번으로 실행하라는 특전을 받았다.

14) 『島津家文書』1090, 1091호.

15) 上原兼善, 「初期徳川政權の貿易統制と島津氏の動向」 『사회경제사학』71-5, 2006, 506쪽 참고.

했다. 이것은 새로운 정치지도자인 이에야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따라서 이에야스는 점차적으로 대마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조선과의 국교재개를 재촉하였던 것이다.

## 2) 세키가하라 전투와 일본의 국내 상황

1600년 9월, 히데요시 사후 전국의 다이묘들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 벌인 세키가하라 전투는 10월 말 이에야스가 패권을 장악하여 에도막부 정권을 세우는 기반이 되었다. 우선 세키가하라 전투로 권력을 쥔 이에야스는 자신과의 친밀도 및 충성도에 따라 改易減封・轉封譜代大名을 확대하면서 도쿠가와 지배 구조를 만들어 나갔다. 또한 정치의 통제·생산과 유통·사회 구성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새로운 지배 시스템을 만들어갔다.

이에야스는 전후 처리를 한 후 1601년 3월부터 오사카에서 후시미로 거점을 이동한다. 즉, 후시미를 ‘公儀’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이다. 그는 1601년-1608년 동안 분주하게 에도와 오사카·후시미를 왕래하면서 권력체계를 쌓는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시기에 조선과의 국교문제와 명과의 관계회복 문제, 주인선 무역의 활성화 등 대외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점이다.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난 다음 해인 1601년, 이에야스는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도항하는 商船에 대해 朱印狀을 발급하면서 해외무역을 통제하였다.<sup>16)</sup> 주인선 무역의 시작인 것이다. 같은 해 10월 이에야스는 安南國(베트남 북부)의 統兵元帥瑞國公阮潢에게 답서를 보내면서 일본에 내항하는 배의 안전보장과 주인장을 소지하지 않은 일본상선이 안남에서 교역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sup>17)</sup> 또한 같은 시기 명과 일본의 해적 처벌과 세키가하라 전투의 종결을 알리는 필리핀 총독 서한에도 주인장을 소지하지 않은 상선의 마닐라 교역 금지를 요구했다. 1602년 8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필리핀 총독에게 멕시코와의 통교를 위해 기항지를 관동지역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sup>18)</sup>

16) 本多博之, 『天下統一とシルバーラッシュ-銀と戰國の流通革命-』 歴史文化ライブラリ-404, 2015, 194-197쪽.

17) 藤井讓治, 『天下人の時代』 吉川弘文館, 2011, 155-157쪽.

18) 安野久, 「關ヶ原前役前における徳川家康とフィリピンとの交渉-ロ-マイエズス會文書による-」 『キリスト教史學』28, 1974, 48쪽 : 笠谷和比古, 『徳川家康』 ミネルヴァ書房, 2016. 256-257쪽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관동 8주 지역에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에야스와 센다이에 城을 갖고 있었던 伊達政宗 등 동쪽

이후 이에야스는 동남아시아의 타이·캄보디아·太泥國 등 여러 나라에 국서를 보내면서 친선관계를 수립했다. 그 결과 慶長년간 출항한 朱印船만 해도 167척에 이른다. 결국 이에야스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일본의 통치자임을 대외적으로 어필하였다. 朱印을 찍은 도항 허가증을 발행함으로써 일본의 무역 상인을 파악하고, 외교권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에야스는 류큐왕국·유럽국이 해 왔던 동아시아 교역루트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이 만든 에도막부를 ‘大通商國家’로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이에야스는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무역활동을 재개했으나,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603년 2월 정이대장군으로 취임하여 에도막부를 연 후 이제 조선과는 講和가 아니라 국교회복이 절실한 과제로 부상했다. 앞으로 일명무역(감함무역) 및 명과의 국교회복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조선의 조력이 필요했다. 때문에 조선과의 국교회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점차 대마도를 통해 조선외교의 창구로서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당시 국내 政況을 보면 히데요시 사후 무가는 분열·항쟁의 위기에 놓여있었다. 세키가하라 전투를 마친 후에도 전쟁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본 국내 사회의 저류에는 대량의 牢人と 무사의 길이 끊겨버린 地寺奉行人 층의 불평불만이 산적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면 다시 전란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무사계급을 결집시키고, 중심이 되는 절대적인 권력 기관이 필요했다. 때문에 무가의 동량인 에도막부가 성립되었고, 이에야스가 정이대장군으로 임관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상태가 아니었다. 전투에서 이에야스가 승리는 하였으나 히데요리와 풀어야 할 難題가 남았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과의 국교회복은 히데요시가 남긴 대외적인 과제를 청산해 주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 있는 反이에야스 세력에 대한 막부의 정통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동시에 조선은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의 정치·전략 면에서 중요한 정보원이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에야스는 본격적으로 조선과의

지역 태평양 연안 방면에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다이묘들은 큐슈, 서국지역의 다이묘나 上方의 오다 노부나가, 히데요시처럼 외국 무역을 통해서 철포, 유력한 문물 등을 조속히 입수하기 힘든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었던 점이다. 이런 대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동 지역에 기항지를 만들어서 주인선 무역을 활성화 하려 했던 것이다.

19) 渡邊美季, 『近世琉球と中日關係』 吉川弘文館, 2012, 65-132쪽.

교섭에 돌입하였다.

한편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군의 재침략 풍문이 있었기 때문에 1602년 12월 전계신과 손문옥을 대마도에 파견하여 일본정세를 정탐했다.<sup>20)</sup> 이후 1604년에는 惟政을 파견해서 일본사정을 탐색하였고, 이에야스를 만나서 통신사 파견을 기정사실화 했다.<sup>21)</sup> 조선에서도 일본과의 국교회복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조선은 2개의 요구, 즉, ‘先爲致書’와 ‘犯陵賊縛送’을 요구하였다. 에도막부(대마도)가 이에 응하자 1607년 제 1회 회답검쇄환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에야스가 조선통신사 파견을 요구한 목적 중에는 조선을 통해서 명과의 교역(進貢)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조선 측은 명 황제에게 직접 進貢을 의뢰하고 무로마치 시대에 이용했던 해로를 이용하라고 일축하면서 일본 측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1607년 에도막부는 조선을 통해서 명나라에 접근하려 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1614년 이에야스는 다시 조선 사절을 요청하여 명과의 관계회복에 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실제로 사절이 도착한 것은 오사카 전투가 끝나고 이에야스가 사망한 1617년이었다. 이후 1624년 제 3차 회답검쇄환사도 渡日하지만 明과의 進貢·貢路건은 다시 제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태는 우선 명이 일본과 책봉관계를 갖고 무역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했던 것과, 류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과 사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sup>22)</sup>

결과적으로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조선의 정식 사절인 통신사가 渡日한 것은 쇼군의 권위와 막부의 정통성을 과시하려는 이에야스의 의도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편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면 재침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대내외적으로 국토를 재건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북방 방위에 전념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일본의 수도까지 왕복하면서 일본의 정치와 사회정세를 직접적으로 관찰하여 그들의 實情을 탐색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조선과 에도막부는 상호간의 목적이 일치함에 따라 국교가 회복되었고 통신사 왕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7세기 전반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조선과 공식적인 ‘통신 국가’가 성립되어 1811년까지 외교관계를 유지해 갔다.

20) 『선조실록』권152, 35년 7월 20일 기묘.

21) 『선조실록』권145, 35년 1월 17일 경술.

22) 민덕기, 「에도막부의 동아시아 국제사회로의 진입노력-무로마치 막부와 비교하여」 『일본사상』 6, 2004, 160-165쪽.

### 3) 명류큐에의 접근과 일본의 국내 상황

히데요시 시대부터 유럽 세력들과의 무역은 마카오를 거점으로 포르투갈과 이루어졌다. 이때 마카오·나가사키 교역 루트가 형성되었다.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도 테라사와 마사나리(寺澤正成)가 奉行이 되어서 나가사키의 무역관리를 했고 이 루트는 정착되었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지속되고 있었다. 때문에 이에야스는 종래의 무역루트와는 다른 별도의 것으로 루손을 거점으로 하는 스페인과의 교역을 원했다. 그러나 루손과의 교역은 이미 큐슈의 시마즈씨와 가토 등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국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이에야스가 참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히데요시 死後 외교권을 계승하고, 자신이 정권 계승자라는 입장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에야스는 무엇인가 적극적 대외정책을 주도할 필요가 있었다. 그 방법으로 히데요시와 마찬가지로 이에야스도 명과의 교역을 회복하려 하였으나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직후여서 직접적인 무역재개 교섭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야스는 전술한 것처럼 조선과 류큐를 통해 루트를 모색하면서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주인선 무역에도 주력하였던 것이다.<sup>23)</sup>

여기서는 초기 에도막부가 명·류큐와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는지 살펴보자. 우선 정유재란 시기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으로 파견한 강화사신들을 돌려보내고, 재차 조선 침략을 감행한 일본에 대해 명은 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전쟁 직후 1600년 이에야스는 시마즈씨(島津氏)를 통해 조선과 국교를 회복한 후, 명으로부터 금인과 감합부를 받아 통교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여기에 명의 인질도 보내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명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후 전술하였듯이 1607년 회담검쇄환사를 통해서도 명에 접근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sup>24)</sup>

조선을 통해서 명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에도막부는 1609년 시마즈씨의 지배를 받게 된 류큐 왕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명과의 국교회복 의사를 표명하였다. 여기서 에도막부는 책봉에 의한 조공무역이 또 좌절되자 명의 허락을 전제로 복건성

23) 曾根勇二, 『大坂の陣と豊臣秀頼-敗者の日本史 13』吉川弘文館, 2013, 60-61쪽.

24) 1609년 대마도의 승려 겐소가 조선에 상경하여 貢路건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것이 에도막부의 의사가 아니라 대마도의 자의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에도막부가 조선을 통해서 명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1609년을 전후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나 나가사키에 중국 상인이 와서 무역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명무역을 독점하려 하였다.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명은 이러한 움직임에도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17세기 이후 에도막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편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1619년 후금이 발흥하여 대외정세의 변화가 생기자 명은 에도막부와 안정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일본에 사절을 파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일본의 거부로 이것 또한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1635년 에도막부는 조선에 보낸 국서를 통해 명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국서에 쇼군의 칭호를 ‘日本國大君’으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은 명에서 요구하는 외교 관계(책봉)의 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노선을 선택한다는 뜻을 표명했던 것이다. 이로써 명과 에도막부 사이에서 직접적인 국교회복외교를 맺는 일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1635년 이후 에도막부는 명의 상선을 나가사키에만 내항하게 하여 명은 이른바 ‘通商之國’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고, 민간무역이 양국 사이에서 단절된 공적인 대외무역=외교관계를 완충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였다. 명·청 교체기 이후에는 청의 책봉체제 속에 편입된 류큐를 통해서 간접적인 무역을 행하였다. 막번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4개의 창구’ 중에 하나인 나가사키를 통해서 무역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sup>25)</sup>

다음으로 에도막부가 류큐에 취한 대외정책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자. 초기에는 무역 상대국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류큐는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전후로 변화하였다. 즉, 1588년 8월 히데요시는 시마즈씨를 통해서 류큐의 복속입공을 요구하는 서장을 보냈다. 그리고 시마즈씨는 류큐에 1592년 10월 조선침략의 군역으로 7000인 분의 병량미 10개월분과 나고야성 공사에 쓰이는 금·은·식량을 요구했다.

이에야스와 류큐와의 관계는 1600년 명과의 관계회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실패하였다.<sup>26)</sup> 공식적인 접촉은 1602년 류큐선의 오슈(奥州) 표착에서 시작된다. 즉, 이에야스는 류큐 선박이 다테(伊達)번에 표착했을 당시 표류민을 송환한 것을 계기

25) 신동규, 「近世 동아시아 속에서 日本의 ‘국제질서’論 고찰-世界觀 변화와 ‘日本型 華夷秩序’論을 중심으로」 『전북사학』35, 2009, 205쪽.

26) 眞榮平房昭上, 「16~17世紀における琉球海域と幕藩制支配」 『沖縄縣史』 尙生堂, 2005, 35쪽.

로 1603년 사절을 파견하도록 류큐에 요구했다.<sup>27)</sup> 이 같은 요구의 저변에는 명과의 국교회복을 류큐에게 중개시키려는 노림수가 있었다. 이후 거듭된 사절 파견 요구에도 류큐는 사츠마에게만 사절을 파견하고 막부에는 사절 파견을 미루어왔다. 이를 계기로 막부에는 사절 파견 지연과 조선침략 군역 부담의 거부, 사츠마 가독상속에 대한 축의의 지연 등을 이유로 사츠마에서는 류큐 침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상은 사츠마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류큐 점령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고, 1606년 6월 이에야스에게 류큐정벌을 요청하자 허락하였던 것이다. 이후 일정이 연기되다가 1609년 4월 슈리성(首里城)이 함락되었다.

이에야스는 류큐를 사츠마의 영지로 인정하고 류큐 통치를 지시하였다. 사츠마번은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류큐의 생산량을 파악하여 상납하도록 명했다. 또한 고위 관료인 三司官을 통해서 왕가와 정사를 감시하고, 국왕과 그 외의 중신들의 이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질을 가고시마에 보내게 했다. 또한 쇼군의 계승을 축하하는 慶賀使, 류큐국왕의 교체시에는 謝恩使를 에도막부에 파견하여 ‘異國’으로 그 지위를 보전하게 했다. 이후에 사절단들은 항례화되었고, 류큐국왕의 일행은 조선통신사에 준하는 ‘외교사절’로 대우받았다. 다시 말해서 1610년 류큐국왕의 일행은 사츠마번의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도막부는 병례사절로 취급하여 도요토미에서 도쿠가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데 이용되기도 했다.

한편 류큐는 사츠마번의 지배하에 놓이면서도 尙氏 왕조는 유지되어 명과 청조에 책봉 조공무역을 지속하였다. 막부에는 慶賀·謝恩使를 파견하여 ‘異國’으로 그 지위를 보전받기도 하였다. 명은 류큐가 사츠마번의 지배하에 놓여 있고, 명에 대한 류큐의 움직임이 사실상 에도막부의 의향에 따른 것임을 감지하면서도 류큐의 兩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명은 북방의 후금에 전력 대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편을 취했던 것이다. 이는 華夷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조공무역·책봉체제를 명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또한 명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질서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에도막부의 경우에는 류큐를 ‘異國’으로 규정함으로써 경하사 일행들을 ‘외교사절’로 취급하여 에도막부의 권위와 외교권을 높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에야스는 조선침략의 사후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히데요시 정권을 계승하면서 정이대장군이 되어서 에도막부를 세웠다. 국내적으로는 소위 말

27) 豊見山 和行, 「江戸幕府外交と琉球」『沖繩文化』22-1, 1985, 23-25쪽.

하는 ‘막번체제’를 완성시키려 했고, 대외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조선과의 국교회복, 명과의 복교와 서구세력 및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접촉, 그리고 일본의 해외 도항선을 둘러싼 여러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당시 변해가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대응하면서 외교권을 장악하였고, 에도막부의 권위를 향상시켰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에도막부 초기 이에야스의 쇼군 정치가 국내에서는 豊臣氏와 히데요리의 존재에 의해서 제약을 받은 것에 비해서, 외국과의 국교 및 무역관계 분야에서는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해 갔다는 것이다. 즉, 이에야스의 외교 및 대외정책은 어느 면에서 전권과 독단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실행해 나갔다는 것이다. 무역=외교권을 강화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국내정치와 연결되어 그의 권력구조를 강화시키고 대명통제를 수월하게 확립시켜 나갔다는 점이다. 이점이 바로 에도막부 초기 대외관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키가하라 전투 시기와 에도막부를 설립할 당시, 그리고 오사카 전투 이후의 일본국내 사정을 살펴보면서 이에야스가 어떻게 內政을 강화해 가면서 초기에도막부의 외교 및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4. 이에야스의 국내 정치적 한계와 대외정책

이에야스는 히데요시 死後부터 교토에 머물면서 일본군 철수문제를 처리하면서 전국의 패권을 장악하려 했다. 즉 五大老의 중심인물로 히데요시의 후계자로서 자리매김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히데요시가 유언했던 정책과 법령을 위반했다하여 反이에야스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주요 다이묘들이 소유한 영지는 히데요시 시기부터 배정받은 것으로 이에야스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五大老라는 체제도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에야스와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sup>28)</sup> 물론 당시 이에야스는 제일의 실력자였지만 히데요리의 추종세력이

28) 堀越祐一, 「『五大老』『五奉行』の成立と政治構造」『豊臣政權の權力構造』吉川弘文館, 2016 : 山本博文外「豊臣五大老の實像」『豊臣政權の實體』柏書房, 2014, 293-328쪽.

건재한 상황에서 그는 豊臣家の 일개 大名으로 현실적으로는 히데요리의 가신에 지나지 않았고 그와의 주종관계는 상당히 지속되었다. 즉,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난 상황에서도 이에야스의 정치적인 위치는 히데요리를 능가하지 못하였다. 豊臣씨의 公儀체제 하에서 히데요리의 名代, 정무대행자라는 지위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는 세키가하라 전투도 豊臣씨의 公儀體制를 해체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9)</sup>

한편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오사카로 입성한 이에야스는 자신을 지지했던 동군의 다이묘들에게는 전공에 따라 영지를 나누어 주었다. 서군에 참여했던 다이묘들은 영지를 몰수하거나 축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때 이에야스는 당시 일본전체 1,850만석의 약 40%에 해당하는 789만석을 소유했다. 히데요리는 셋츠(攝津)·가와치(河内)·이즈미(和泉) 등 3개 지역의 65만석 영지를 보유한 일개 대명으로 전락시켰다.<sup>30)</sup> 전투 후 영지를 증액 받은 다이묘가 100여명에 달했으나 이에야스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外様大名 즉 친豊臣系 다이묘들이 몰수했던 총 石高 600만석의 8할에 해당하는 500만석을 차지하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 히데요리의 영지는 대폭 감소했지만 그와 인연이 깊고 충성심이 강한 淺野·池田·福島·山内·黒田 등의 영지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결국 큐슈를 중심으로 하는 西國의 다이묘들에게 영지확장과 세력 확대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이는 이에야스나 徳川系の 패권확립이 요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이에야스의 세력이 확대되고 최고의 정권 책임자로서 에도막부를 확립시켜 나갔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는 달리 여전히 히데요리의 정치적인 권위는 존재하였고, 이에야스는 히데요리를 보좌하는 정무대리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서국지역의 친豊臣系 다이묘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이에야스의 무역=외교권 확립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술한 것처럼 히데요시 정권말기부터 큐슈지역에는 해외무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막대한 부와 군사 물자를 구입하는 다이묘들이 많았다. 해외도항선의 해적행위를 금지하고 무역 경영자인 다이묘와 상인들의 해외 무역 통제를 서두르지 않으며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야스는 선박에 주인장을 배부하면서 해외무역을 통제하는 ‘주인선 무역’을 1601년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서국 다이묘들의 세력 확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국내의 정치상황이 이에야스로 하여금 朱印船

29) 矢部健太郎, 『關ヶ原合戦と石田三成-敗者の日本史12』, 吉川弘文館, 2014.

30) 藤井讓治, 『天下人の時代』 吉川弘文館, 2011, 151-154쪽.

무역이라는 대외적인 정책에 집중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領地朱印狀 문제이다. 즉, 논공행상으로서 영지 지배를 허가하는 주인장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히데요시의 주인장이 오히려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이에야스의 영지주인장은 국내정치에서 관동지역의 영지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다. 반면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논공행상의 영지분배를 허가하는 주인장으로 이에야스 것이 아닌 히데요시 것이 그대로 효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이에야스가 천황·豊臣家·히데요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전권·독단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에도막부의 최고 권력자로서 이에야스가 발급했던 주인장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정치에서는 히데요시의 영지 지배 허가권이 더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참고로 領地주인장에 한해서는 오사카 전투가 끝나고 도요토미 집안이 멸망한 후에도 이에야스의 영지주인장은 발급되지 못했다. 결국 본인이 사망한 후인 1617년 아들 히에타다가 군사 지휘권은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후에 여러 다이묘와 공가, 문적과 사원, 신사에 영지 지배를 허가하는 영지 주인장을 처음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에도막부의 확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냈다.<sup>31)</sup>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에야스의 국내에서 쇼군으로서의 권위나 권력 장악도가 확고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이에야스는 1602년 ‘天下普請(公儀普請)’ 명목으로 二條城 축성을 단행하였다.<sup>32)</sup> 이곳은 이에야스의 공식적인 교토 거처로서 훗날 에도막부 시대 권위의 상징인 곳이다. 지금까지 성을 축조할 때는 해당 가문이 자신들의 집안 인력을 동원해서 해 왔었다. 또한 ‘天下普請’은 최고의 권력자인 히데요시만이 내릴 수 있었던 명령이었다. 그런데 이에야스가 자신의 교토 거처를 만드는데 軍役을 부과하면서 전국의 여러 다이묘들에게 동원령을 내려 축성한 것이다. 이어서 1603년 이에야스는 쇼군이 되자마자 ‘天下普請(公儀普請)’ 명목으로 전국의 다이묘들을 재차 동원하여 에도성의 시가지 조성 및 확장 공사를 명하였다. 이것은 이에야스가 쇼군으로서 군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다이묘들을

31) 曾根勇二, 『大坂の陣と豊臣秀頼-敗者の日本史 13』 吉川弘文館, 2013, 55-59쪽. 같은 맥락에서 1614~1615년 오사카 전투(겨울, 여름)의 종결은 에도막부 체제의 안정을 가져왔다. 명실공히 에도막부가 전국의 여러 다이묘들에 대해 포괄적인 재배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막부가 성립된 지 17년 만에 전국의 다이묘를 대상으로 하는 ‘武家諸法度’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의 ‘法度(법규)’도 만들어지는 점이 흥미롭다.

32) 졸고, 「임진왜란 이후의 朝日국교재개와 徳川家康」 『중앙사론』 44, 164-177쪽 참조.

종속시키고 점차 주종관계를 맺으려 의도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친풍신계 다이묘들도 히데요리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쇼군 이에야스의 군사지휘권에 종속되어 갔다. 그 결과 이에야스가 이제는 豊臣大名 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무가의 중심에서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에도막부의 將軍은 군역을 동원했던 이전의 절대 권력과 같은 존재이며 무가 권력이 계승해야 할 관직은 ‘관백’이 아니라 ‘쇼군’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이에야스는 끊임없이 풍신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1605년에는 아들 히데타다(秀忠)에게 장군직을 양위하면서 계승 문제도 마무리하였다.<sup>33)</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도막부는 세키가하라 전투, 에도막부의 창립, 오사카 전투의 승리로 풍신정권에 대해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豊臣系 다이묘들이 서국지역 포진, 히데요시의 영지주인장 효력, 빈번한 ‘天下普請(公儀普請)’ 명령 등을 통해서 오히려 1617년까지도 이에야스 및 에도막부의 국내 장악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内政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외교·무역에 집중함으로써 에도막부의 위신을 높이고 장군 권력의 절대성을 알리기 위해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1607년 조선의 회답검쇄환사, 1610년 류큐국왕의 일행, 오사카 전투의 승리와 국내 통일을 축하하기 위한 1614년 통신사 파견 요청 등이 바로 그런 부분을 증명해 준다고 본다. 대내외적인 선전 효과를 염두에 둔 통신사나 류큐국왕 일행은 철저하게 쇼군의 권위를 고양하는 이국사절로 소개되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5. 맺음말

정유재란이 끝난 직후부터 세키가하라 전투가 발발하기 전까지 이에야스는 대외적으로 일본군의 철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과제였다. 이후 조선과의 강화국교회복보다는 오히려 큐슈지역의 외국선 관리 및 무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즉, 전쟁 중에

33) 이와 관련해서 이에야스는 1606년 풍신계의 다이묘들이 에도막부의 추천 없이는 무가 관위에 승진할 수 없도록 後陽成天皇에게 주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히데요리 계통의 다이묘들을 견제하였다.

입은 피해로 조선이 강화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조선과의 국교회복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히데요시 사후 외교권을 계승하고 정권계승자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에야스는 어떻게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주도할 필요가 있었다. 시마즈가 류큐와 중국 무역, 가토 기요마사가 루손무역, 대마도의 宗씨가 조선 무역, 오사카의 豊臣氏가 나가사키 무역 등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데요리나 큐슈의 다이묘보다도 강인한 외교를 진행해야 했다.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정상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조선과의 국교재개가 최우선이라 생각한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는 대마도를 통해서 조선과 국교회복을 실현하였다.

한편 세키가하라 전투로 이에야스는 세력을 확대시키고 최고의 정권 책임자로서 에도막부를 확립시켜 갔으나 히데요리를 능가하지 못하고 豊臣公儀 체제하에서 히데요리의 名代, 정무대행자라는 지위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서 세키가하라 전투는 豊臣씨의 公儀體制를 해체시키지 못하고 이후에도 건재하였던 것이다. 히데요리의 정치적인 권위는 엄연하게 존재하였고, 이에야스는 히데요리를 보좌하는 정무대리자였던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豊臣氏와 히데요리의 존재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자 불안한 정황을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외무역의 중심지역인 큐슈지역을 장악하여 동아시아 무역=외교라는 대외적인 면에 주력하여 도쿠가와 정권의 안정을 꾀한 점이 에도막부 초기의 대외관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에도막부 초기, 그중에서도 이에야스가 주도했던 慶長(1596-1614)년간의 대외정책은 조선, 명, 류큐와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역=외교를 하면서 국내의 정권 안정화를 도모하려 한 점이다. 동시에 무역을 통해서 다이묘들을 통제하려는 과정을 보면 막번체제=쇄국체제의 원형을 보여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에야스의 허가 하에 단행된 류큐 정벌 또한 히데요시의 조선침략과 마찬가지로 화평외교가 아닌 일명교섭=감합무역을 목표로 했던 것이 흥미롭다.

한편 1615년 오사카 전투의 승리로 도요토미 집안이 제거되고, 이에야스의 사망으로 「二元정치(이에야스와 히데타다)」 고유의 역할이 소멸되었다. 後陽成 천황의 서거가 이어지면서 쇼군의 지위와 정통성에 대한 국내의 적대세력이 약체화되자 에도막부의 히데타다는 내정의 취약점을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주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 결과 1630년대부터 일본인들의 해외도항과 무역에 제한을 가하더니 1642년을 기점으로 에도막부는 소위 쇄국=해금 상태가 되었다. 이후 200여 년 넘게 조선·명(청)·네덜

란드·류큐 왕국 이외의 나라와는 교류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쇄국=해금정책을 통해 에도막부는 무역을 독점하게 되었고, 일본 국내에는 기독교에 대한 금압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며 에도막부의 통제력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토론문]

전쟁의 파장,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 에도막부의 초기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

토 론 : 김정태(고려대학교)

본 발표문은 임진·정유재란과 에도막부의 대외정책을 단절된 과정이 아닌 연속된 역사적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일본 국내를 완전히 장악했던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에 비해 활발히 전개하였던 대외정책을 통해 국내 정치를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다는 이론은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추후 16세기 말 ~ 1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의문과 관계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화파탄과 정유재란 발발을 설명하신 부분에서, 히데요시는 사전에 자신이 일본국왕으로 임명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셨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연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문을 통해 에도막부 설립 이후에도 막부는 명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책봉이라는 절차를 완전히 배제한 대명관계를 상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책봉을 받거나 책봉을 원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정권 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책봉이 전제하고 있는 사상적 배경이나 책봉 후의 의무 등에 대한 정보는 미흡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이 상국의 입장에서 속국의 정권 담당자를 국왕으로 임명하는 절차이며, 이 절차를 통해서만 공식적인 교류 내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유재란시 히데요시의 목표가 조선남부 지배가 아니었으며(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강화교섭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는 말씀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강화교섭을 통해 원하였던 것 중의 하나가 ‘조선과의 무역재개’

라고 보셨습니다. 히데요시가 생각한 ‘조선과의 무역’은 어떤 형태였을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조선과 국교를 성립한 후 추진하려했던 명과의 교역형태는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조선과 에도막부의 교섭을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국교회복’ ‘復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호는 이전과 같았으나, 정권 담당자는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국교를 ‘회복’ 한다면, 근원이 조선과 무로마치막부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인지, 조선과 도요토미 정권과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신사’를 서술할 때, 1607년의 회답겸쇄환사를 1회로 보고 있으나, 이때는 조선전기에 보냈던 통신사와 히데요시에게 보냈던 2차례의 통신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과 관계되어,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권 초기, 국내 정치가 제약되었던 것에 비해 외교 및 대외 정책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고 성취했다고 하셨습니다. 강력한 대외 정책 추진은 이에야스의 아이디어 내지 능력이었는지, 그를 보좌할 외교분야의 ‘브레인’이 존재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혹시 이전까지 일본의 ‘외교’(무역을 제외한 정치적인 영역)가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무풍지대’에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차례의 오사카 전투 후 도요토미 가문이 멸망하고, 이후 쇼군의 지위와 정통성이 공고해지자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셨습니다. 에도막부의 쇄국=해금정책은 그러한 흐름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외교는 오직 내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쇼군 교체와 당대 쇼군의 성향, 외국 세력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전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요토미 정권 시기 일본 상인들의 주요 수출품 중에 소맥과 곡물분이 눈에 띕니다. 전국시대 일본에서 수출할 정도로 곡물이 넉넉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소맥은 국내소비용이 아니라 수출용으로 따로 재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 제5주제

### 전쟁의 경험과 기억

#### 황석산성(黃石山城) 전투와 김해부사 백사림(白士霖)

발 표 : 민덕기(청주대)

토 론 : 한성주(강원대)

1. 머리말
2. 황석산성 전투와 평가
3. 백사림 論罪의 전개
4. 황석산성 전투 순절자들에 대한 顯彰 및 추모
5. 맺음말



## 1. 머리말

황석산성 전투란 정유재란 초기단계인 1597년 8월 중순, 거창에서 전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인 황석산의 산성에서 조선의 함양·안음·거창의 지역 군민과 일본 右軍의 선봉 가토 기요마사 등의 군대가 벌인 전투를 말한다. 당시 황석산성은 안음현감 곽준을 수성장으로, 別將으로 김해부사 백사림, 그리고 前함양군수 조종도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 전투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선봉으로 하는 일본 左軍과 수군에 의한 남원성 공략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이루어진 전투였다.

8월 16일 전투가 개시되어 기요마사는 성곽의 남쪽에서,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는 서쪽에서, 구로다 나가마사는 동쪽에서 일제히 공격하여 갔고, 중과부적인 조선군은 18일에는 완전 궤멸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시기부터 일본군의 조선인에 대한 코베기가 적극적으로 자행되어졌다.

황석산성 전투는 조명연합군 전투인 남원성 전투에 비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산성의 조선의 군관민이 7천으로 추정되고 있고, 일본 우군은 기요마사의 1만, 나가마사의 5천, 나오시게 12,000 등 도합 75,000 여명이 참여했을 것이다. 일본측 사료인 『鍋島家文書』엔 성안에서 조선인의 수급 353을 취했다고 하며, 함락 직후 산과 계곡에서 수천 명을 참살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난중잡록』엔 500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되었다고만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규모 전투가 행해진 황석산성 전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sup>1)</sup> 관련 사료가 많지 않음에 기인한 것이지만 『고대일록』 등을 더해 검토하여 황석산성

1) 관련 논저는 다음과 같다.

정출현, 「문학과 정치 혹은 문학의 정치 : 17세기 전반기 재지사족의 자기정체성 확립과 기억의 정치학 - 황석산성(黃石山城) 전투에 대한 엇갈린 기억의 『용문몽유록(龍門夢遊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46, 2011

이상필, 「대소헌 조종도의 행적과 사상 :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의 학문(學問)과 삶의 태도(態度)」 『南冥學研究』 38, 2013.

정경주, 「대소헌 조종도의 행적과 사상 : 대소헌 조종도의 인물 형상에 대하여」 『南冥學研究』 38, 2013.

정진영, 「大笑軒 趙宗道와 存齋 郭準의 의병활동」 『南冥學研究』 2, 1992.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경상도의 산성 축조와 전투」 『지역과 역사』 33, 2013.

박선호, 『黃石山城戰鬪와 임진대전쟁』 서경문화, 2009.

함양군, 『咸陽 黃石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함양군, 1992.

경상남도, 한국산업정보연구소, 『黃石山城 戰鬪 考證 研究』 함양군, 2008.

전투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sup>2)</sup>

황석산성 전투 이후 이에 대한 평가로 함락 직전 도주한 김해부사 백사림을 비난하고 처형하자는 논의가 이어진다. 즉 백사림이 김해 군사만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는 오히려 공격을 당하자 ‘附賊者’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모친과 두 첩을 데리고 몰래 도주했고, 그 결과 패배하여 안음현감 곽준 등이 살해되었다고 주장하여 백사림의 처형을 요구하는 상소가 광해군대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요구의 주체는 안음을 중심으로 한 영남 在地土族과 이를 지지하는 兩司에 의한 것이었다.

광해군대 이후의 文集 기록 등은 곽준 부자와 백사림을 선과 악으로 각각 대비하여 황석산성 전투를 묘사하기에 이른다. 국가차원에서도 곽준 父子와 조종도는 도망간 백사림과는 달리 성안에 남아 장렬하게 전사한 충신으로써 顯彰의 대상이 되어 旌門이 세워지고 致祭의 대상이 된다. 숙종대엔 곽준의 祠宇에 額號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백사림은 어떻게 도주할 수 있었을까? ‘附賊者’의 도움은 무엇이었을까? 곽준 부자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창의 대상으로 부상하였을까? 등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황석산성 전투와 평가

### 1) 황석산성 전투와 관련한 기본 사료

#### 가) 『선조실록』 30년 9월 1일(무자) 3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용순이 馳啓하였다.

“戰士 강홀이 와서 보고하기를 ‘황석 산성에 달려가 패몰한 상황을 살펴본 결과 本城이 함락당한 것이 확실했다. 城中 사람들로써 피살된 자와 죽은 노약자들이 총 1백여 명이며, 서문 밖에서 피살된 사람들의 수효도 많았다. 본성에 다시 들어가 겨우 살아난 사람과 서로 만나 함락당한 이유를 물어보니 「이 달 17일에 수효를 셀 수 없이 많은 왜적

2) 『고대일록』은 함양의 士族 정경운이 1592년 4월부터 1609년까지 쓴 일기로, 발굴되어 학계에 최초로 공개된 것은 1986년 경상대학교 오이환 교수에 의해서였다. 현재 번역본으로는 정경운 지음, 남명학연구원 옮김, 『譯註 고대일록』(태학사, 2009)과, 정경운 지음, 문인채·문희구 옮김, 『고대일록』(서해문집, 2016)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도 있다.

들이 올라와 성을 포위하였는데 여러 산의 봉우리마다 진을 치고서 무수히 포를 쏘아대어, 4更에 함몰되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달아날 때 초목이 우거진 곳에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왜적을 만나 피살된 사람도 많았다. 안음현감은 남문을 지키다가 피살되었으며, 김해부사는 성을 넘어서 도망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당초에 부사가 백성들과 약속하기를, 비록 죽을지언정 城中에 앉아 있겠다고 하자, 백성들은 그 약속을 금석처럼 믿고서 성중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왜적들이 쳐들어오자 먼저 달아나버려, 온 성중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미도 모르고서 모조리 왜적의 손에 함몰되게 하였으므로, 사로잡힌 사람의 족속들이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김필동은 왜적들이 성을 넘어오기도 전에 김해사람 20여 명을 인솔하고 몰래 성을 빠져나가 왜적에게 투항하였다. 안음 현감은 머리를 베어 갔고 그 이외에 피살된 사람들은 코를 베어 갔으며, 나머지 생존한 백성들은 성을 탈출할 즈음에 落傷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목격한 바가 慘惻하였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 나) 『선조수정실록』 30년 8월 1일(기미), 『징비록』의 내용도 거의 類似.

적이 안음의 황석산성을 함락시켰다. 현감 곽준과 전 함양군수 조종도가 전사하였다. 처음에 가등청정이 서생포에서 서쪽으로 전라도로 들어와 행장과 함께 남원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원수 이하가 모두 소문을 듣고 도망하였다. 안음현감 곽준은 관직에 있는 지 겨우 2년이었는데 吏民의 마음을 얻고 있었다. 체찰사 이원익은 황석산성이 호남과 영남의 요충지이므로 적이 반드시 빼앗고자 할 것이라 여겨서 세 고을의 군사를 예측시키어 곽준에게 지키도록 명하고, 김해부사 백사림으로 하여금 돕도록 하였다.

수많은 적이 남문으로 쳐들어오자, 곽준은 밤낮으로 督戰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사림은 사세가 위급함을 알고는 그의 처자를 줄에 매달아 내려보내고 도망하였다. 곽준의 아들과 사위 및 吏民들이 모두 울면서 빨리 계책 세울 것을 청하자, 준은 웃으며 ‘이곳이 내가 죽을 곳인데, 무슨 계책을 다시 세운단 말인가.’ 하고는 태연한 기색으로 胡床에 걸터앉아서 끝내 해를 당하였다. 그의 두 아들 광이상과 광이후가 시체를 부둥켜안고 적을 꾸짖으니, 적이 함께 죽었다. 준의 딸은 유문호에게 시집을 갔는데, 문호가 적에게 사로잡히자 이미 성을 빠져 나왔다가 그 말을 듣고는 여종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같이 죽지 않은 것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남편도 사로잡혔으니 내가 어찌 차마 홀로 살아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다.

조종도는 전에 함양군수를 지내고 집에 있었는데, 일찍이 ‘나는 녹을 먹은 사람이니, 도망하는 무리와 초야에서 함께 죽을 수는 없다. 죽을 때는 분명하게 죽어야 한다.’ 하고는 처자를 거느리고 성으로 들어가, 공동산 밖의 생활도 즐거웠지만 장순·허원처럼 성을 지키다 죽는 것도 영광일세, 라는 시를 지었는데, 마침내 곽준과 함께 전사한 것이다.

## 다) 『난중잡록』 1597년 8월 15일

청정 등의 군사가 함양에 이르렀는데, 선봉 수천 명이 진군하여 황석성 밑에 임박하여 通事를 시켜 介山을 불러 말하기를, “너의 부친이 여기 있으니 문을 열고 나와 보라.” 하였다. 백사림이 개산을 참수하여 성밖으로 내던졌다. 왜적이 말하기를, “비록 백 명의 개산을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아깝게 여기겠는가?” 하였다. 다음날 적병이 고향쳐 말하기를, “성을 비어 두고 나가면 쫓아가 죽이지는 않겠다.” 하니 백사림이 줄을 타고 성에서 매달려 내려가고 군사는 무너져 달아났다. 적이 입성하여 마구 죽이니, 함양 군수 조종도·안음현감 광준 등은 가족과 함께 죽었으며, 근처 疊入官과 장졸 등 죽은 자가 5백여 명에 달했다. 개산은 김해사람이다. 아버지가 임진란 초부터 적에게 붙어 적이 성을 함락시키는 계책을 도왔다.

## 라) 『고대일록』 1597년 8월 28일 병술(丙戌)

郭養靜(광준) 三父子가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며 성안에서 같이 죽었다 하니, ‘삶을 버려서 義를 취한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구나. 오호라! 양정은 그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았도다. 변란이 일어난 이후로 땅을 지키는 신하치고서 맡은 지역을 지키다가 의로써 죽었다는 이는 전혀 들을 수 없었는데, 홀로 양정이 죽기를 각오하고 곳곳이 절개를 세웠으니 옛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

황석산성이 비록 자연적으로 험하다고는 하지만, 壁堅·岳堅·正介 등의 城이 소문만 듣고서도 무너짐에 인심이 놀라 흩어졌으니, 성을 지켜 낼 이치가 만무했다. 김해부사 백사림은 만에 하나의 공을 도모하여 패군의 죄를 모면하고자 망녕되이 스스로 큰소리 치기를, “비록 세 고을의 군사가 없더라도 내가 김해의 군사만 가지고도 적을 막기에는 넉넉하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런데 적군이 성을 침범하는 날에는 김해 사람 ...〈缺〉... 사림은 밤중에 도망가 버려, 양정으로 하여금 줄지에 흉한 칼끝에서 죽게 했으니, 어찌 할거나. 우리 좋은 인물들이 다 죽는구나.

## 마) 『鍋島家文書』(刊本119, 慶長2年9月22日、毛利秀元外11名宛、豊臣秀吉朱印状写)

八月十七日注進状并絵図到来、加披見候、赤国(전라도)与白国(경상도)之堺、安陰郡之内、黄石山之城、金海上官相抱候处、仕寄申付、八月十六日夜、責崩、彼上官首、黒田甲斐守(長政)手へ討捕、其外、於城中三百五十三、并谷々(各々力)つき崩候处、於手前数千人切捨候由、粉骨之至神妙ニ被思召候、弥先々動之儀、左手之衆申談、不可有由断候、猶徳善院(前田玄以)・増田右衛門尉(長盛)・石田治部少輔(三成)・長束大蔵大輔(正家)可申候也、九月二十二日 御朱印。<sup>3)</sup>

3) 이것은 8월 14일~16일(일본曆)의 황석산성의 싸움에 대해 보고한 注進状과 絵図를 본 히데요시가 발급한 朱印狀의 사본으로, 北島万次, 『豊臣秀吉 朝鮮侵略関係史料集成 3』(平凡社, 2017) 639쪽, (津野倫明,

이상의 5개의 사료에 의거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피살자 100여 명, 서문 밖 피살자도 다수. 17일 공격당해 늦은 밤에 함락. 숲속에서 또한 다수 피살. 김해부사 도망. 김해부사가 애초엔 큰소리하여 백성들 안심. 김필동이 김해사람 20여 명 대동해 투항. 코베기 자행.
- 나) 남문으로 왜적 공격. 백사림 처자와 함께 도망. 안음현감 곽준과 그 두 아들의 순절 상황 구체 묘사. 곽준의 시집간 딸의 자결 묘사. 전 함양군수 조종도와 그 가족의 순절 묘사.
- 다) 8월 15일, 백사림이 附倭의 아들 介山을 참수하며 왜적에 대항. 그러나 16일 백사림 투항. 함락되어 피살된 자 500여 명.
- 라) 8월 28일, 곽준 3부자의 피살 평가. 김해부사 백사림의 큰소리. 함락될 때 도망.
- 마) 8월 16일 밤 함락. ‘金海上官’의 목을 취하고, 성안에서 353명을, 도망가는 ‘數千人’을 살해하였다.

## 2) 황석산성 전투에 대한 한일 양국간의 개설적인 설명

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9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탐구당, 2003, 117쪽.

전주로 진격하려던 왜우군의 선봉인 가등청정은 서생포를 출발하여 창녕·안음(현 安義)을 경유하면서 창녕에서 경상좌방어사 곽재우가 지키던 화왕산성을 공격하려다가 守城軍의 위세에 눌려 黃江을 건너 경상우도로 피해갔다. 이때 곽재우군은 가등청정군의 후미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가등청정군은 영·호남간의 요충인 안음 황석산성에서도 안음현감 곽준과 함양군수 조종도의 수성전에 직면하여 성을 함락시켰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이 전투에 참전하였던 과도직무군은 다시 성주방면으로 북상하여 8월 중순 고령에 진출하려다가 도체찰사 이원익 휘하의 상주목사 정기룡의 군대에게 공격을 받고 큰 손실을 입었다. 이로써 임진왜란 때 왜군의 북상으로 가운데 중로로 진출하려던 왜군은 조선군에게 저지되었다. 이리하여 왜우군은 가등청정을 필두로 전주에 들어가 일단 왜좌군과 합류하였던 것이다.

---

「黒田長政宛鼻請取状について」『高知大学人文学部人間文化学科人文科学研究』17) 16쪽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 사)일본의 辭典 사이트인 ‘weblio’에 실린 ‘黃石山城の戦い’ 내용

日本軍の右軍先鋒加藤清正は7月25日西生浦を發し梁山に至り主將毛利秀元（吉川広家、安国寺惠瓊これに属す）及び黒田長政、鍋島直茂父子、池田秀氏、中川秀成、長宗我部元親父子等と會し、ここに全軍の集中を終え、靈山を経て昌寧に到る。此地の東方約1里に火王山城があり郭再祐等がここを守っていたが、日本軍はこれを無視して前進する。

右軍は昌寧より西に折れ草溪、陝川を経て安陰に向かう。すると所在の朝鮮軍は皆逃散する。日本軍が安陰に至ったとき黃石山城がただ独り堅守して屈せず。

黃石山城は安陰の西北約2里に在り四方斗絶し險峻甚だしく慶尙、全羅2道の咽喉を扼していた。安陰縣監郭シユンが入ってこれを守り、金海府使白士霖、前咸陽郡守趙宗道は兵を率い來てこれを助け安陰、居昌、咸陽3郡縣の軍民數千人を募り、城の各所に分置する。西南二方面は郭シユン自らこれに當り、東北二方面は白士霖が指揮し、趙宗道は遊軍となる。白士霖は武官の出身であつたため城兵はこれを頼みとした。

8月中旬（日子未詳、蓋し14、5日頃）日本軍は諸隊を部署し加藤清正は南面より、鍋島直茂父子は西面より、黒田長政等は東面よりこれを囲み（其の他の区分未詳）、竹束盾を連ね、柵を結って城に迫り、16日（明曆17日）の夜、月明に乗じて總攻撃を開始する。このとき白士霖は逃走した。郭シユンは持場を離れず戦ったが、加藤の士森本義太夫等が南門に先登し、神田對馬が郭シユンを打ち取った。郭シユンの子、郭履常、郭履厚及び趙宗道等は皆ここに戦死し、日本軍は350餘の首級を挙げ黃石山城は陥落した。さらに諸隊は追撃し、山谷の間に斬殺するもの無数。翌日勝利を豊臣秀吉に報ず。

右軍はその後、六十嶺を越え鎮安を経て全州に至り左軍と會合し、兩軍ここに駐まること數日、24日全州城を破毀する。

\*황석역사연구소 박선호 소장은 그 블로그(<http://blog.daum.net/hwangsuksansung/55>)의 ‘잃어버린 역사 백성의 전쟁 황석산성 대첩’에서 다음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황석산성 대첩은 참전 왜군 75,300명을 조선의 백성군 약 7,000여 명이 1597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을 싸워서 백성군의 열배가 넘는 일본의 지상군을 궤멸시켜 7년 임진전쟁을 종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결정적인 전투다. 임진전쟁이 일본인들이 말하는 대로 풍신수길이가 죽어서 철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황석산성 전투로 인하여 왜군의 주력 지상군이 소실되지 상심한 풍신수길이 고향병이 들고 그 병으로 정신을 잃고 죽음으로서 임진전쟁이 종료되는 것이다.”

“정유재침략 당시의 왜병 우군 75,000명의 임무는 북에서 전라도로 내려오는 조명연합군을 차단하는 것이었으나 황석산성에서 75,300명 중 48,300명의 사상자를 내고 27,000명

만이 전투가 가능한 상태에서 조명연합군 차단이라는 본래의 임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모리데루모도의 우군(후략)”

박선호 소장은 황석산성 전투 이후의 일본군의 동태를 가지고 전투를 ‘대첩’으로 증명하려 하고 있으나, ‘대첩’이라면 조선측이 이를 간과할 리가 없을 것이다. 전투 이후 조선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된 것은 백사림의 도망으로 성이 함락되고 광준 3부자가 그 때문에 순절했다는 논지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황석산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함양 선비 정경운은 『고대일록』에 전투가 벌어진지 10여 일이 지난 8월 28일에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라)에서 보듯 패전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1개월 후인 『고대일록』 9월 27일에는 “밥을 먹은 뒤, 梧岵를 지나 雨落洞에서 君子亭을 구경했다. 머리를 들어 산성(황석산성)을 바라보고 굽어 적진을 바라보다가 養靜(광준)의 죽음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프다! 양정이 백사림에게 속임을 당하여 흥측한 칼끝에서 헛되이 죽었으니, 애달프기 짝이 없다.” 라고 일기에 적고 있다. 君子亭은 함양군 화림동 계곡에 위치해 있다. 그곳에서 정경운은 황석산성 전투가 어땠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을 터였다.<sup>4)</sup>

### 3. 백사림 論罪의 전개

전술하듯이 백사림은 정유재란기 황석산성에서 도주했던 김해부사를 말한다. 다음의 a) ~ f)는 『고대일록』에 있는 白士霖과 관련된 기록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자.

a) 1597년 8월 28일(병술) : 前揭한 라)

b) 1597년 9월 27일(을묘) : 양정이 백사림에게 속임을 당하여 흥측한 칼끝에서 헛되이 죽었으니 애달프기 짝이 없다. 사림은 일찍이 성안에 있으면서, 노약자는 성을 나가게

4) 『고대일록』에는 실록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에 대하여는 민덕기, 「임진왜란기 정경운의 『孤臺日錄』에서 보는 아래로부터의 聞見정보 -實錄의 관련정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45, 2013)를 참고.

하라는 도체찰사의 전령을 숨겼다. 또한 남몰래 자신의 어머니와 두 첩을 내보내고도, 안음과 거창의 두 관아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마음 쓰는 것이 왜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c)1599년 2월 17일(정묘) :하성원·문군변·류임가 등 여러 형이 列邑에 통문을 돌렸다. 백사림이 사람들을 속이고 敗軍한 죄를 장차 상소를 올려 드러내고자 하였다. 백사림은 많은 사람 앞에서 큰소리치면서 말하기를, “비록 함양·거창·안음 등 세 읍에 군사가 없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 김해 사람들과 함께 산성을 지킬 것이다.”라고 했다. 왜적이 침입해 오던 날에 자기가 먼저 도망가서는, 항복한 왜놈 한 명과 함께 산골짜기에 숨어서 재물을 약탈하여 자기 집 식구들을 보전했으며, 곽양정에게 해를 입게 하여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를 갈았다. 그래서 臺論이 일어나 왕명으로 그 죄를 다스렸다. 그러나 도리어 죄를 면하려고 죄 없는 사람을 언급하여 연루시키니 土論이 원통하게 여겼다.

d)1604년 6월 9일(무자) :백사림이 풀려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아! 유일은 죄를 받고 사림은 석방되었으니, 형벌의 적절하지 않음이 극도에 다다랐구나!

e)1604년 8월 7일(을유) :안음 사람들이 이리로 통문을 보내었는데, 상소하여 백사림을 죄주자는 내용이라고 한다. 생각지 못했던 바라고 말할 만하겠다.

f)1604년 윤9월 12일(기축) :듣건대 안음 사람이 백사림의 죄를 청하기 위해 대궐로 가서 상소하니 啓字를 찍어 의금부에 회부했다고 한다.

1597년 8월말 정경운은 황석산성의 함락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다. 그런데 왜군으로부터 산성을 방어하는데 자신이 거느린 김해의 군사만으로 족하다고 백사림은 큰소리쳐 오다가 막상 공격을 당하게 되자 밤중에 도주하여 곽준(안음현감)이 살해되었다고 하였다(a). 그로부터 1개월 후인 9월말, 성을 수비하는데 노약자는 성밖으로 나가라는 도체찰사 이원익의 분부를 백사림이 감추었고,<sup>5)</sup> 정작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두 첩을 몰래 성밖으로 내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b).<sup>6)</sup>

백사림은 황석산성 전투 이전엔 어떤 활동을 했을까 실록에서 찾아보자. 1592년 8월 湖城監 李柱가 선조에게 백광언의 아우인 백사림이 있는데 장수로 삼을 만하다고 천거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다음해인 1593년 5월, 선조는 백사림의 군대가 흩어졌다고 하여 그

5) 당시 도체찰사는 『고대일록』 1597년 5월 15일(을사)의 일기로 보건대 이원익이다.

6) 황석산성과 관련한 백사림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정출현, 「문학과 정치 혹은 문학의 정치 : 17세기 전반 재지사족의 자기정체성 확립과 기억의 정치학 -황석산성 전투에 대한 엇갈린 기억의 『龍門夢遊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46, 2011. 오인택, 「임진왜란기의 삶과 죽음, 그 표상방식 : 김해부사 백사림과 동래부사 송상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사의 인물과 라이벌』 아세아문화사, 2008. 등이 있으나 모두 문학적 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평가를 유보한다.

활약이 미미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8)</sup> 1593년 윤11월 백사림이 김해부사라는 정식 관직을 갖게 되고, 1594년 1월엔 戰功이 있으나 포상을 미처 받지 못한 장수들의 한 사람으로 비변사에 의해 거론되고 있다.<sup>9)</sup> 아마도 이때에 이르러서야 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았는가 여겨진다. 그리고 1596년 9월 초 도체찰사 이원익의 장계에는, 김해부사 백사림 같은 사람은 김해 백성들이 보파리를 지고 따라 다닐 정도로 고을의 인심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0)</sup>

그러면 황석산성 전투와 그 이후 백사림은 실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표>를 가지고 검토해 보자. ‘기사 날짜’에 숫자만 있는 것은 『선조실록』이며, ‘광’이라 特記한 것은 『광해군일기』이다.

1597년 9월 단계까지는 황석산성과 백사림의 행위에 대해 백사림의 死守 약속을 믿고 백성들이 성에 들어갔는데 도망갔다고만 알고 있는 듯. 구체적인 실정은 아직 파악되지 못한 듯했다. 오히려 백사림을 산성에서 탈출시켜 무사히 구조한 항왜 사백구(沙白鳩)를 표창해야 한다는 김응서의 제안까지 더해지고 있다. 2개월 후인 11월엔 백사림을 守城將으로 보고 있다. 『고대일록』의 전개한 a)·b)와 비교해 볼 때, 노약자는 성밖으로 나가게 하라는 도체찰사 이원익의 전령을 백사림이 숨겼다는 내용과, 백사림의 두 첩도 도주했다는 내용은 실록에선 나타나지 않는다.

1598년 1월에 이르러 백사림에 관한 처벌은 백의종군으로 이미 판결났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엔 미리 도주한 것이 아니라 함락 직전 도주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다만 우의정 이원익이나 병조에선 백의종군 이상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후 백사림은 왜적 7명을 참획하여 속죄했음을 1598년 9월의 의금부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다.

백사림을 처형해야 한다는 논의는 1598년 12월에 집중되어 있다. 정흠 권진이 매일 처럼 4회나 요청하고 있으나, 宣祖는 이미 속죄한 입장이라고 追罪를 거부하고 있다. 12월엔 정언 홍문도가, 그리고 비변사도 나서고 있다.

1599년 5월 이후엔 사헌부가 나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조는 일단 내린 석방령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6월, 사헌부의 추죄 요청에 선조는 北道로 보내 공을 세우게

7) 『선조실록』25년 8월 26일(계축).

8) 『선조실록』26년 5월 5일(무오).

9) 『선조실록』26년 윤11월 14일(갑오), 27년 1월 21일(경자).

10) 『선조실록』29년 9월 1일(갑오).

하라는 속죄조건을 다시 세우고 있다. 2년 후인 1601년 2월, 비변사는 백사림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니 부산에 充軍시켜 속죄케 하자고 건의하고 있고 선조가 허락하고 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604년 5월에 이르러 백사림은 부산포에 충군되는 듯하다. 사헌부는 1604년의 9월말 이후 2차에 걸쳐 백사림의 추죄를 건의하나 선조는 단죄가 끝났다는 입장이다. 1605년 선조가 사소한 공을 세웠다고(‘原從之功’) 職牒을 내리려 했던 듯하다. 즉 6월 사헌부가 이를 철회하여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후인 1607년 윤6월에 사간원이 직접 환수를 건의하고 있다.

광해군 1(1609)년 11월 의금부의 啓에 의하면, 백사림은 宣祖 때 이미 두 차례 투옥되어 刑罰을 받았고 恩赦도 수차례 받은 입장이었다. 또한 함락 직전에 가서야 성을 탈출했다는 믿을 만한 증언도 확보하고 있었다. 게다가 광해군으로선 先王이 종료시킨 사안을 반복할 수 없었다. 그런 처지에 있었던 1609년 11월의 광해군은 다음 달인 12월엔 변경에 가서 공을 세우게 하라고 재삼 속죄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결국 백사림은 처형되지 않고 생을 마감한 듯하다.

그런데 백사림사건을 둘러싸고 臣權, 구체적으로 영남 在地士族과 이를 지지하는 兩司가 왕권을 압박하고 있고, 이에 왕권이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98년 12월 사간원의 正言 권진과 홍문도가 수차례 백사림의 처형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비변사도 가세하고 있다. 권진은 영남의 士論(‘南中士論’)이 통분해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성안에서 끝내 학살되었는데 백사림의 모친과 자식 및 김해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무사했다는 것에서였다. 비변사도 영남인(‘南方之人’)의 분노와 ‘公論’을 들어 追罪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선조는 이런 영남의 士論에 대해 12월 16일 “(백사림이 城을 왜적에게 팔아넘겼다는 등) 영남사람들은 본래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南人素多橫議)” 라고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1598년 말에 집중된 실록의 백사림에 대한 ‘南中士論’을 『고대일록』이 처음으로 구체화하여 기록한 것은 전제한 1599년 2월인 c)이다. “臺論이 일어나 왕명으로 그 죄를 다스렸다. 그러나 도리어 (백사림이) 죄를 면하려고 죄 없는 사람을 언급하여 연루시키니 士論이 원통하게 여겼다.”는 부분이다. 영남지역에서 일어난 ‘남중사론’이 1598년 12월 중앙으로 가 영향을 주었다가, 다시 영남으로 내려와 더 큰 여론을 조성하려 했었는지 c)에서 보듯 1599년 2월엔 하성원 등이 통문을 돌려 연명상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599년 6월 사헌부가 守城將으로서 도망간 백사림에 대한 영남인들(‘南中之人’)의 분노를 강조하고 있다. 이때 의금부도 그 분노를 ‘公論’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같은 시기 현풍의 儒生 곽근도 상소로 처형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황석산성 함락 때 살해당한 사람의 친척이었다. 1604년 5월 백사림이 부산포에 충군되자 史臣은 처형했어야 할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사일록』은 그 다음 달인 1604년 6월 백사림이 석방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d). 아마도 부산포에 충군된 것을 석방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고사일록』의 전개한 1604년 8월 7일의 e)는 안음 선비들이 통문을 돌려 연명상소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윤9월 12일엔 안음사람들이 대궐로 올라가 상소하여 의금부로 그것이 회부되었다고 하고 있다(f). 그렇다면 이 상소에 대해 실록은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1604년 9월 30일 사헌부의 追罪요청에 선조가 “지금 그쪽 유생들(‘渠輩儒生’)의 상소 때문에 이런 의논이 있게 되었는데, 조정의 刑政이 영남 유생들의 우롱거리가 된다면 크게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다. 王獄의 죄인에 대해 그들에게 操縱당할 수는 없다.”라고 크게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다음 날인 윤9월 1일 사헌부가 성안 사람들 다 죽었는데 백사림쪽은 다 생존하여 公議가 그 처벌을 소망하는 것이지, 결코 영남의 한 두 선비의 伸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대일록』의 e)의 상소가 9월 말에 조정에 올려진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리고 왕명을 받아 의금부에서 백사림 사건이 논의되는 것은 그 다음 달인 윤9월 3일이다.

1607년 6월 사간원이 백사림이 황석산성 수비의 主將으로써 도주하였으므로 영남 인심이 아직도 통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1609년은 광해군 1년인데 10월 비변사가 근래의 유생 禹惇 등의 상소는 영남의 분노를 표명한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11월 10일의 의금부 啓의 말미 割註엔 정인홍이 그의 門徒를 시켜 상소해 백사림의 처벌을 요청한 것이라 부언하고 있다.

한편 1609년 10월 24일에 보인 우돈의 상소는 11월 14일에도 보이고 있다. 20일이 경과되었다는 점에서 2회째 상소로 보인다. 그가 안음 출신이라는 것은 황석산성을 死守했던 안음현감 곽준 父子와 당시 살해되었을 안음의 많은 士民들의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대일록』의 전개한 e)·f)에서 상소를 준비한 사람들도 안음사람들이었다. 영남 유생들의 상소는 1612년에까지 이어진다. 광해 4년 11월이다. 이에 대해 광해군은 “이들이 상소를 하여 다그치니 사체에 손상이 있다. 이 소장을 돌려주도록

하라(此輩投疏督迫, 有傷事體, 此疏還出給).” 고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도 할주에 정인홍이 문인으로 하여금 번번이 상소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1)</sup>

전제한 『고대일록』의 a) ~ f)엔 백사림을 도망한 장수로만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실록에선 백사림과 그를 모시는 김해사람들을 왜군과 내통한 즉 ‘通倭’者로 의심하고 있다.<sup>12)</sup> <표>를 참조해가며 설명하여 보자.

1597년 9월, 경상도 관찰사 이용순은 김필동이 김해사람 20여 명을 데리고 몰래 왜적에게 투항했다고 하고, 경상 우병사 김응서는 김해사람이 왜적과 내응하여 먼저 도주하였고 백사림이 텅그러니 남았었다고 전하고 있다.

1598년 1월엔 이원익이, 백사림이 ‘附賊者’의 인심을 얻고 있어 그들과 더불어 몰래 도망칠 계책을 꾸몄다고 했고, 병조도, 백사림이 ‘附賊吏民’의 꾀으로 도망했다고 하고 있다. 9월의 의금부 탄에도 ‘附賊吏民’의 꾀으로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다. 12월의 정언권진도 백사림의 늙은 어미와 어린 자식 및 부하인 김해사람들이 성이 함락되었는데 부상자조차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왜적에게 성을 팔아넘겨 목숨을 구걸했기 때문일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백사림 사건을 보는 한 시각이기도 한 듯하나 증명할 길이 없거나 수면 아래에 있었는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백사림사건이 마지막으로 실록에 거론된 1612년 11월 5일의 할주에는 성의 함락에도 백사림이 살아난 것은 왜적에게 항복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적고 있다.

전술했듯이 백사림이 김해부사가 된 것은 1593년 말이었고, 1596년 9월의 이원익의 표현으로 김해사람들이 보따릴 지고 백사림을 따라다닐 정도로 고을 인심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황석산성 전투 때의 김해사람들의 동향은 백사림과 불가분의 관계였을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사림은 과연 ‘通倭’하여 목숨을 부지한 것일까?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실록을 통해 검토하여 보자.

1594년 10월 병조좌랑 김상준이 거제도 왜군에 대한 조선측의 공격에 대해 선조에게 설명 하는 중에 선조가 이번 거사는 누구의 의견으로 한 것인가 하고 물었다. 김상준이

11) 광해군 재위기간 정인홍은 최측근이었을 것인데, 백사림건에 관한 한 先王의 결정을 존중한 듯하다.

12) 『고대일록』엔 전제한 c)에서처럼 “왜적이 침입해 오던 날에 자기가 먼저 도망가서는, 항복한 왜놈 한 명과 함께 산골짜기에 숨어서 재물을 약탈하여 자기 집 식구들을 보전했으며,”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표>에 보이듯 1597년 9월 8일 실록에서의 김응서는 항왜 백사구의 기지와 용기로 백사림이 왜적에게서 화를 모면했으니 표창해야 한다고 하여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답하여, 거제도 왜적의 분탕질이 특히 심하여 “백사림이 豊茂守를 통하여 小西行長에게 傳言해서 行長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측이 백사림-豊茂守 라인을 통해 유키나가와 협의하여 거제도 왜군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13)</sup>

이와 관련하여 1594년 11월에도 김해부사 백사림에 대한 주목되는 기사가 있다. 경상도 순변사 이빈의 치계에, 김해에 있는 ‘將倭’의 조카로 군관이라고 호칭하는 왜인 源十良과 卒倭 7명이 각각 창검을 휴대하고서 附賊人 崔億과 通事인 승려 印思와 더불어 倭書 3통을 가지고 나왔기에, 김해 부사 백사림으로 하여금 그들을 접대케 하였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 왜서 3통 중에 “茂守가 김해부사 백사림에게 답한 서신은 直茂의 서신과 내용이 같다”, 고 적고 있다. 여기서 直茂는 豊臣直茂로 순변사 이빈에게 講和를 위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茂守는 豊茂守를 가리킬 것이다.<sup>14)</sup> 김해부사 백사림이 유키나가 진영의 豊茂守와 강화문제로 서한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 ‘附賊人’이나 통역관이 유키나가 진영에서 나오면 그 접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키나가의 副將인 豊茂守가,<sup>15)</sup> 황석산성이 함락되는 해인 1597년 3월엔 김해에 주둔하고 있다.<sup>16)</sup>

그렇다면 백사림은 왜군, 특히 유키나가의 제1군 수뇌부와 강화교섭 주선역으로 아는 관계였던 것이다. ‘附賊人’들과도 친분이 있었을 터였다. 이로 보아 유키나가 제1군의 배려나 그들과 협력하고 있는 ‘附賊吏民’의 안내로 황석산성의 함락 이전에 안전한 피신이 사전에 양해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경상도 안음현 출신인 정온(1569~1641)은 『桐溪集』 제2권의 「傳 - 書郭義士傳後」에서 다음처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백사림이) 비록 세 邑의 군민이 없더라도 ‘우리 군졸’이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며 의기가 매우 드높았다. 이른바 ‘우리 군졸’이란 김해사람들로 새로 적중으로부터 온

13) 『선조실록』27년 10월 15일(기미).

14) 『선조실록』27년 11월 18일(임진). 이때 보내진 3통의 倭書 중엔 대마도의 豊臣調信(柳川調信)의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키나가가 지휘하는 제1군임을 알 수 있다.

15) 『선조실록』29년 5월 28일(갑오)에 行護軍 黃愼의 치계 내용에, 유키나가가 副將 豊茂守를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

16) 『선조실록』30년 3월 25일(을묘)의 경상우병사 김응서의 서장에, 3월 19일 김해 섬 주둔 왜장 豊茂守가 왜인 3명을 보내어 臣에게 通門하였다고 하고 있다. 『선조실록』30년 6월 14일(계유)에도 도원수 권율의 치계에서, 豊茂守는 유키나가의 참모장수로 조선측과 교섭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자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왜적의 옷과 신을 은밀히 전대 속에다 감추어 가지고 다니면서 만약 사태가 악화되면 이 옷과 신을 신고 적중으로 투항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백사림이 어찌 그들을 믿고 쓸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몰랐겠는가마는, 요행으로 왜적이 오지 않으면 성을 완전히 보존한 것을 자기 공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때에 곽준은 남문을 지키고 백사림은 동북쪽의 子城을 지키고 있었는데, 자성은 지세가 매우 험한 곳으로 백사림이 스스로 자리를 잡은 곳이었다. 왜적이 가까이 오자 성안은 술렁거렸고, 사람들이 보니, 김해 사람들은 날도 저물지 않았는데 모두 행장을 꾸려서 성을 빠져나갈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초저녁이 되자 북문을 트고 나갔고 백사림의 식구들도 따라서 나갔다. 군민이 와해되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백사림은 성을 순시한다는 핑계를 대고 창을 들고 몰래 도망을 갔다. (중략)

그 당시에 성에 들어갔던 자들은 거의 붙잡혀 죽었고, 비록 單身으로 걸음이 빠른 자들도 모면한 자가 적는데, 백사림의 가족은 무려 30여 명이나 되고 그중에 7, 80세 된 노인도 있었으며 4, 5세 된 어린아이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서로 먼저 나가거나 뒤에 나간 자가 없었고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다친 자가 없었으니, 과연 먼저 도망간 증거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하늘이 불충한 역적을 사랑하여 귀신으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정온은 왜군에게서 되돌아온 김해사람들이 여차하면 ‘감추고 있던 왜적의 옷과 신을’ 감추고 투항하려는 무리들이었는데 저물어오자 도망쳤고 백사림의 가족 30여 명도 뒤따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사하게 도망쳤다고 하여 백사림의 ‘통왜’를 시사하고 있다.

#### 4. 황석산성 전투 순절자들에 대한 顯彰 및 추모

황석산성 전투에서 순절한 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표창은 광해군 초기에 이루어지는 듯하다. 다음 기사가 이를 말해준다.<sup>17)</sup>

예조가 아뢰기를,

"황석 산성(黃石山城)을 죽음으로 지킨 수령 및 공로가 드러난 곽준(郭遵)·곽이상(郭履常)·곽이후(郭履厚)·한형(韓詔)과 그의 처 이씨(李氏)와 그의 딸 김견(金健)의 처 한씨(韓氏),

17) 『광해군일기』2년 1월 5일(임오) 1번째 기사.

곽준의 딸 유문룡(柳文龍)의 처 곽씨(郭氏), 충의위 유강(柳樞), 서인 박은후(朴銀厚), 조종도(趙宗道)와 그의 처자 등의 사절(死節)한 사실은, 본도의 장계로 인하여 지난해에 충신·효자·열녀 등을 차례로 표창하여 추증할 때 이미 정문(旌門)과 복호(復戶)를 하라고 계하하셨으므로 그 행적을 별단에 써서 아뢰었습니다. 함양 박봉(朴奉)의 처 노씨(盧氏)도 황석산에서 사절하였으므로 본도의 장계에 의하여 본조에서 함께 기록하여 아뢰었는데, 지난해에 의정부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여 삭감하는 중이어서 아직 다시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곽준 일가의 충효 대절은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심을 일어나게 하니 표상하는 은전을 마땅히 넉넉하게 하여야 할 것 같으며, 그리고 박봉의 처 노씨도 마땅히 정표하여야 할 것이다. 어찌 인원이 많다고 하여 그 선행을 버리겠는가. 다시 대신과 논의하고 <복계(覆啓)하여> 시행토록 하라."

이처럼 곽준 부자와 가족 및 조종도의 가족 등이 충신·효자·열녀 등으로 표창·추증되었다. 여기에 함양 박봉의 처 노씨도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의정부에서 지난해에 인원이 너무 많다고 삭감을 요청하였다고 하자 광해군은 포함시키라 명하고 있다.

광해군 9(1617)년 사간원이 부령부사로 천거된 조영혼의 인물됨을 낮게 평가하며 그 대체를 제기하자 광해군은 조영혼이 조종도의 아들로 비국에서 천거된 사람이라며 묵살하고 있다.<sup>18)</sup>

인조 1(1623)년 조정은 곽준을 致祭하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선조조에 병조 참의를 추증하고 사제하였고, 광해군 때에도 증직을 더하고 사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19)</sup>

숙종 1(1675)년 대사헌 허목은 현풍에 있는 곽준의 祠宇에 賜祭와 賜額을 요청하고 숙종이 이에 응하고 있고, 다음 해에는 額號를 내리라 하고 있다.<sup>20)</sup>

숙종 18(1692)년에는 곽준에게 正卿을 贈職하고 後嗣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며, 이어 해당관청으로 하여금 자손을 錄用하도록 하고 있다.<sup>21)</sup> 곽준의 순절은 忠으로, 그 두 아들은 그 아버지를 감싸고 피살되어 孝로, 그리고 딸은 지아비를 따라 자결하여 節

18) 『광해군일기』9년 7월 12일(갑술) 5번째 기사. 그런데 황석산성 전투를 보고하는 경상도 관찰사 이용순의 치계에서는 조영혼이 아버지 조종도와 함께 피살된 것으로 보고 있다(『선조실록』30년 11월 14일(신축) 1번째 기사).

19) 『인조실록』1년 11월 2일(무오) 2번째 기사.

20) 『숙종실록』1년 12월 7일(경신) 1번째 기사, 2년 1월 8일(신묘) 3번째 기사.

21) 『숙종실록』18년 8월 23일(경자) 1번째 기사.

로 三綱이 한 집안에서 나왔다고 칭송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조판서로 추가 贈職하였고 영남 유생(嶺儒)의 시호를 내려 줄 것을 청하는 상소로 인하여 임금으로부터 특별히 贈諡하라는 敎旨가 있었다.<sup>22)</sup> 이에 숙종 34(1708)년 곽준에게 忠烈, 조종도에겐 忠毅란 시호가 내려졌다.<sup>23)</sup>

경종 1(1721)년엔 경상감사 조태억이 상소하여 영남의 인재 임용을 요청하는 가운데 곽준의 후손의 임용을 요청하고 있다.<sup>24)</sup> 영조 13(1737)년엔 경상감사 민응수의 상소에 서는 조종도의 자손들 錄用을 요청하고 있다.<sup>25)</sup>

황석산성은 1987년 사적 제322호로 지정되었다. 지정면적 44만 6186㎡, 성곽 높이 3m, 둘레 약 2.5km라고 한다. 현재 복원작업이 한창으로 필자가 2017년 4월 21일 탐방하였을 때도 남문지에서 돌을 깎는 것같은 굉음이 동문지쪽으로부터 들려왔다(복원도 참고). 그런데 황석산성 그 자체가 민간차원에서의 추모의 공간이 되기엔 접근도에 있어 문제가 크다. 험난한 山頂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가들이 오하려 탐방하는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석산성의 남문으로 접근할 때 지나는 곳에 ‘피바위’가 있다(이정표 참고). 그 안내판에는 “(전략) (황석산성에서) 왜구와의 격전이 벌어지면서 여인들도 돌을 나르며 부서진 병기를 손질하는 등 적과의 싸움에 온갖 힘을 다하였으나 황석산성이 함락되자 여인들은 왜적의 칼날에 죽느니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고 수십척의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져 순절하고 말았다. 꽃다운 여인들이 줄줄이 벼랑으로 몸을 던졌으니 이 어찌 한스러운 비극이 아니겠는가. 그때의 많은 여인들이 흘린 피로 벼랑아래의 바위가 붉게 물들었다. 피땀한 한이 스며들어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그 흔혈은 남아있어 이 바위를 피바위라 한다.” 라고 적혀 있었다. 야사같은 전설일 것이나 위치로 볼 때 충분히 실제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황석산성 전투의 순절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에 위치한 黃巖祠가 유일하다. 황암사 정문 앞에는 다음 같은 내용의 안내판이 있다.

이곳은 1597년 정유재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순국선열의 위

22) 『숙종실록』34년 8월 20일(계해) 2번째 기사.

23) 『숙종실록』34년 12월 13일(을묘) 3번째 기사.

24) 『경종실록』1년 5월 11일(신미) 2번째 기사.

25) 『영조실록』13년 3월 3일(신묘) 4번째 기사.

패를 모신 곳이다.

황석산성 전투는 조선을 다시 침략한 왜군 14만명 중 우군 7만 5천명이 음력 8월 16일에 가토, 구로다 등의 지휘로 황석산성을 공격하면서 일어난 3일간(8월 16일~8월 18일)의 치열한 공방전이었다.

이 때 안의 현감 곽준과 전 함양군수 조종도는 소수의 병력과 인근의 7개 고을(거창, 초계, 합천, 삼가, 함양, 산정, 안의)의 주민들을 모아 관민남녀 혼연일체가 되어, 피아간의 포격과 함께 조총으로 공격하는 왜군에 맞서 활과 창칼과 투석전으로 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음력 8월 18일 황석산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이 전투에 참여한 주민 및 병사의 수를 일부 사서(史書)에서는 550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수천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숙종 40년(1714)에 황석산 밑에 사당을 짓고 황암사라 사액되어 당시 황석산성 싸움에서 순절한 모든 분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지내왔으나 일제강점기에 사당이 헐리고 추모행사마저 중지되었다.

1987년 황석산성이 사적 제322호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민의 정성을 모아 2001년 호국의충을 정화하고 서당을 복원하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이어받고자 한다.

충주 탄금대에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장렬히 전사한 신립·김여물 장군과 8천 孤魂의 넋을 달래는 ‘팔천고혼위령탑’은 2003년 건립되고 매년 4월 28일 위령제가 거행되고 있다고 한다. 황석산성 전투 순절자들에 대한 추모행사도 참고 되었으면 좋겠다.

## 5. 맺음말

1597년 8월의 전투 전에 황석산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안음현감 곽준을 따르는 안음 사람들, 전 함양군수 조종도를 흠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관 출신 김해부사 백사림의 활약에 기대를 건 사람들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함양읍 백연리에 사는 정경운이 황석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1597년 1월~8월까지를 『고대일록』을 통해 알아보자.

- 1월 19일, "조카가 산성에 이르렀다."
- 1월 21일, "조카 주한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산성이 가파르고 험한 것이 기이하다고 하였다."
- 1월 25일, "이른 아침에 최정준君과 산성에 같이 갔다."
- 1월 26일, "일찍이 산성에 올랐는데, 城이 험한 것은 하늘이 만든 것이다. 만약 수년 동안 먹을 군량만 비축되어 있다면, 왜노와 충돌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황혼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
- 4월 10일, "城主가 사직할 뜻이 있어서, 산성으로 갔다."
- 6월 12일, "조카가 황석산성에 가서 성 쌓는 일을 감독했다. 성 쌓는 일이 지금의 급선무라고는 하지만, 6월에 일꾼을 동원하는 것은 어떠한가, 어떠한가."
- 7월 26일, "산성으로 가서 郭養靜(곽준)과 公幹(박여량) 등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잤다."
- 8월 6일, "벽견산성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적군이 경계 내에 박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兵使가 먼저 스스로 아내를 내보내어 피난할 생각을 보인 까닭에, 士卒들이 모두 흩어져 도망갈 계획을 세웠다. 또 따로 주장을 일으켜 말하기를, '산성을 고수한다 해서 적이 조금도 물러날 리 없고, 외부의 지원도 전혀 없으니, 헛되이 죽을 따름이다. 이는 구차하게라도 살아남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한다."
- 8월 7일, "벽견·악견·정개 등 세 산성을 모두 버리고 지키지 않는다 하니, 정말 한탄스럽다. 사람의 智謀가 이와 같으니, 天運을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놀라 흩어져 모두 성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 이 같은 상황에서는 비록 李廣과 郭子儀 같은 장수가 있어도 국가를 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8월 8일, "동이 틀 무렵 가족과 여러 아낙네들을 이끌고 開心寺로 피난했다. 인심이 무너지고 흩어져 마을이 텅 비었고, 한 사람도 산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 8월 9일, "假將 이윤이 郡에 도착해서 산성으로 갔다."
- 8월 12일, "北面으로 가다가 길에서 土古와 조유인을 만나 산성 소식을 들었는데, 대단히 허술하다는 것이었다. 안음으로부터 북쪽 3리는 단지 다섯 명이 들어갔으며, 거창에서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함양 백성 역시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무지 성에 들어갈 뜻이 없으니, 끝내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가."
- 8월 13일, 왜적이 거창과 함천 등지를 침략.
- 8월 14일, 피난하여 栢田 도착.
- 8월 15일, 왜적이 안음 침략. 太防村으로 피난.
- 8월 16일, 왜적이 함양 침략해 분탕질. 寶國庵으로 피난.
- 8월 17일, 왜적의 출현 소식에 백운산 산골짜기로 도망.
- 8월 18일, 왜적의 갑작스런 산골짜기 출현으로 도망치다가 큰딸과 막내딸을 잃음. 백운

산 피난.

8월 19일, 백운산에 왜적 출현.

8월 20일, 백운산 계곡에서 딸을 찾아 해마다 생존한 막내딸 찾음.

8월 21일, 큰딸 시신 발견

8월 22일, 장안산 피난, 왜적이 산골짜기에서 살육행위

8월 23일, 백운산 피난

8월 26일, 장수로 피난하려다 왜적이 장수와 진안에 진입했다 하여 백운산행. 함양 왜적은 전주행.

8월 27일, 墨界寺로 피난.

8월 28일, 황석산성 함락의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다.

1월의 정경운에게 황석산성은 잘만 수비하면 천하의 요새로 인식되고 있다(1/26). 조카가 다녀오기도 하고(1/19, 1/21), 그 자신도 가서 다녀오곤 하고 있다(1/25, 1/26). 봄에도 다녀오는 곳이다(4/10).

한여름인 6~7월이 되자 성 쌓기가 한창이다. 조카가 그 감독 일을 맡고 있지만(6/12), 그 자신도 가서 둘러보고 자고 오기도 한다(7/26). 마침 산성에서 만난 1550년 출생인 곽준과는 6세의 형뻘로 막역한 사이다.<sup>26)</sup>

그런데 칠천량 패전 소식을 접한 7월 18일 이후 정경운은 왜군의 함양 침입에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듯하다. 진주의 벽견산성을 비운다거나(8/6),<sup>27)</sup> 게다가 함천의 악견산성, 하동의 정개산성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을 접하고는 남들처럼 황석산성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8/7). 8월 8일 피난생활을 시작하는 정경운도 한 사람도 가려않는 황석산성이 아닌 開心寺(위치 미상)로 떠나고 있다(8/8).

여기서 황석산성의 인근 지역민들이 전투에 앞서 얼마나 산성으로 들어갔는지 살펴보자. 8월 7일에도, 8월 8일에도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8월 12일엔 안음백성이 5명, 거창사람은 0명, 함양백성 또한 도망가려고만 하고 있다고 관찰하고 있다. 그 자신도 산성이 아닌 栢田(함양군 백전면)이나 백운산·장안산 등지로 피신하고 있다.<sup>28)</sup>

황석산성 전투가 벌어지는 즈음의 함양 일대엔 ‘왜적’이 곳곳에 출몰했던 듯하고, 해

26) 『고대일록』엔 곽양정이 20회 검색된다. 1597년 7월에만도 정경운은 곽양정을 3회 만나고 있다(7/5, 7/8, 7/26).

27) 『난중일기』에 의하면 1597년 8월 13일에 벽견·개성산성이 ‘罷散自潰’했다고 한다.

28) 白雲山은 함양군 백전면·서상면과 전북 장수군 번암면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산으로, 높이 1,279m이며 소백산맥에 속하며 주위에 월경산·장안산 등이 있다.

당지역의 피난민들도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던 듯하다. 8월 16일 함양에 들어온 왜적은 19일까지 함양 일대에서 분탕질과 학살을 이어가는 듯하다. 특히 8월 18일은 두 딸과 찢어진 날인데, 그날은 마침 황석산성이 함락된 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본 右軍은 황석산성만 함락에 소軍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함양 일대 여기저기서 날뛰고 있었던 듯하다. 8월 하순에 이르러 정경운이 큰 딸의 시신을 백운산에서 발견하는 것도, 장안산으로 피난 가는 것도 右軍의 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황석산성 전투에 이르는 과정, 황석산성에 들어간 지역민들의 규모와 그 피살자의 수, 일본 우군의 함양 일대에서의 행태와 이동경로 등을 밝히는데 『고대일록』의 검토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표〉 실록에 나타난 황석산성 전투 이후의 백사림 기사

| 실록기사 날짜         | 발언자              | 백사림 평가                                                          | 비고                                               |
|-----------------|------------------|-----------------------------------------------------------------|--------------------------------------------------|
| 30(1597).09.01. | 경상<br>관찰사<br>이용순 | 백사림의 死守 약속을 믿고 백성들이 入城했었다.                                      | 김필동이 김해사람 20여 명을 데리고 몰래 왜적에게 투항.                 |
|                 | 비변사              | 死守한 관준에게 포창을, 도망한 백사림에게 처벌을 요구                                  | 구체적인 실정 未 파악                                     |
| 30(1597).09.08. | 경상<br>우병사<br>김응서 | 降倭 백사구(沙白鷗)의 기지와 용기로 백사림을 함락하던 산성에서 구출했으니 표창해야                  | 김해사람이 왜적과 내응하여 도주.                               |
| 30(1597).11.14. | 경상<br>관찰사<br>이용순 | 守城의 主將이면서 도망                                                    |                                                  |
| 31(1598).01.05. | 예조<br>판서<br>심희수  | 비변사, 함락에 즈음한 도주라면 백의종군감. 우의정 이원익, 백의종군으로는 부족.                   | 이원익, 백사림이 附賊者의 인심을 얻고 있어 그들과 더불어 몰래 도망칠 계책을 꾸몄다. |
| 31(1598).01.07. | 병조               | 백의종군으로는 부족                                                      | 백사림이 附賊吏民의 꾀으로 도망                                |
| 31(1598).09.19. | 의금부              | 御命으로 放送한 바 왜적 7명 참획                                             | 백사림이 附賊吏民의 꾀으로 도망                                |
| 31(1598).12.12. | 正言<br>권진         | 백사림의 모친과 자식 및 김해사람만 모두 살해 모면. 영남의 士論이 통분. 백의종군형은 失刑. 宣祖, 追罪를 거부 |                                                  |
| 31(1598).12.14. | 정언<br>권진         | 위의 12일자과 유사한 내용                                                 |                                                  |
| 31(1598).12.15. | 정언<br>권진         | 영남의 士論 통분. 처형해야 할 것.                                            | 그의 가족과 부하인 김해사람은 부상자조차 없는 것은 왜적에게 賣城한 것과 같음.     |

|                 |           |                                                                |                                    |
|-----------------|-----------|----------------------------------------------------------------|------------------------------------|
| 31(1598).12.16. | 정언<br>권진  | 처형 요청. 宣祖, 속죄했으므로 불허                                           | 선조 왕, 남방인들은 말을 함부로 한다(南人素多橫議)      |
| 31(1598).12.17. | 정언<br>홍문도 | 처형 요청. 宣祖, 비변사에 논의케                                            |                                    |
| 31(1598).12.19. | 비변사       | 영남인들 분노 전달과 追罪 건의                                              |                                    |
| 31(1598).12.23. | 비변사       | 公論의 분개 들어 추죄 요청                                                |                                    |
| 32(1599).05.21. | 사헌부       | 체포와 추죄 요청                                                      |                                    |
| 32(1599).06.23. | 사헌부       | 守城將으로서 도망. 영남인들 통분. 立功 속죄조치도 失刑인데 석방령에 여론 더욱 분격. 宣祖, 석방이 마땅하다. |                                    |
|                 | 의금부       | 公論 때문에 수차례 수감했다. 선조, 석방하라.                                     |                                    |
| 32(1599).06.24. | 사헌부       | 위의 23일의 내용과 유사                                                 |                                    |
| 32(1599).06.25. | 사헌부       | 추죄를 요청. 선조, 북도에 보내 공 세우게 하라.                                   |                                    |
| 32(1599).06.26. | 儒生<br>곽근  | 상소로 사면 아닌 처형 요청                                                | 곽근의 친척이 산성 함락시 피살.                 |
| 34(1601).02.19. | 비변사       | 力戰의 壯士이며 누차 처벌받았으니 부산에 充軍시켜 속죄케. 선조, 윤희.                       |                                    |
| 37(1604).05.28. | 의금부       | 부산포로 流三千里에 처하고 充軍                                              |                                    |
|                 | 史臣        | 처형했어야 할 인물                                                     |                                    |
| 37(1604).09.30. | 사헌부       | 다시 체포하여 추죄해야. 선조, 이미 단죄해 완료된 사안.                               | 宣祖, 영남 유생들의 상소 때문에 조정의 刑政이 우롱당한 꼴. |

|                 |          |                                                                            |                                           |
|-----------------|----------|----------------------------------------------------------------------------|-------------------------------------------|
| 37(1604).윤9.1.  | 사헌부      | 성안 사람들 다 죽었는데 백사림 쪽은 다 생존하여 公議가 그 처벌을 소망. 결코 영남의 한 두 선비의 伸冤 위한 것이 아니다.     |                                           |
| 37(1604).윤9.3.  | 의금부      | 군법상으론 사형.                                                                  |                                           |
| 38(1605).06.17. | 사헌부      | 방면한 것도 失刑인데 사소한 공을 세웠다고 직첩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하다                                   |                                           |
| 40(1607).윤6.11. | 사간원      | 主將으로 도주하여 영남 인심 아직도 통분. 직첩을 환수해야 마땅.                                       |                                           |
| 광1(1609).10.24. | 비변사      | 유생 禹惇 등의 상소는 영남의 분노를 표명한 것.                                                |                                           |
| 광1(1609).11.10. | 의금부      | 2회 투옥과 刑訊을 받았고 恩赦도 수차례 있었다. 함락 직전에서는 성을 탈출했다는 증언도 믿을 만. 광해군, 선왕의 결정을 존중해야. | 割註에, 정인홍이 그의 門徒를 시켜 상소해 처벌을 요청한 것.        |
| 광1(1609).11.12. | 사헌부      | 守城將으로써 전투 이전에 도망. 판결 종료라 해도 추죄해야한다.                                        |                                           |
| 광1(1609).11.14. | 생원<br>禹惇 | 안음 출신으로 상소해 처단 요청.                                                         |                                           |
| 광1(1609).12.12. | 광해군      | 선왕이 이미 용서했으니 변경에 보내 공을 세우도록 하라.                                            |                                           |
| 광4(1612).11.05. | 유생<br>상소 | 영남 유생이 상소하여 백사림 처단 요청. 광해군, 先朝에 마무리, 상소로 다그치나 受理 불가.                       | 할주에, 백사림이 적에게 항복했다고 의심. 정인홍이 문인으로 번번이 상소. |

○정유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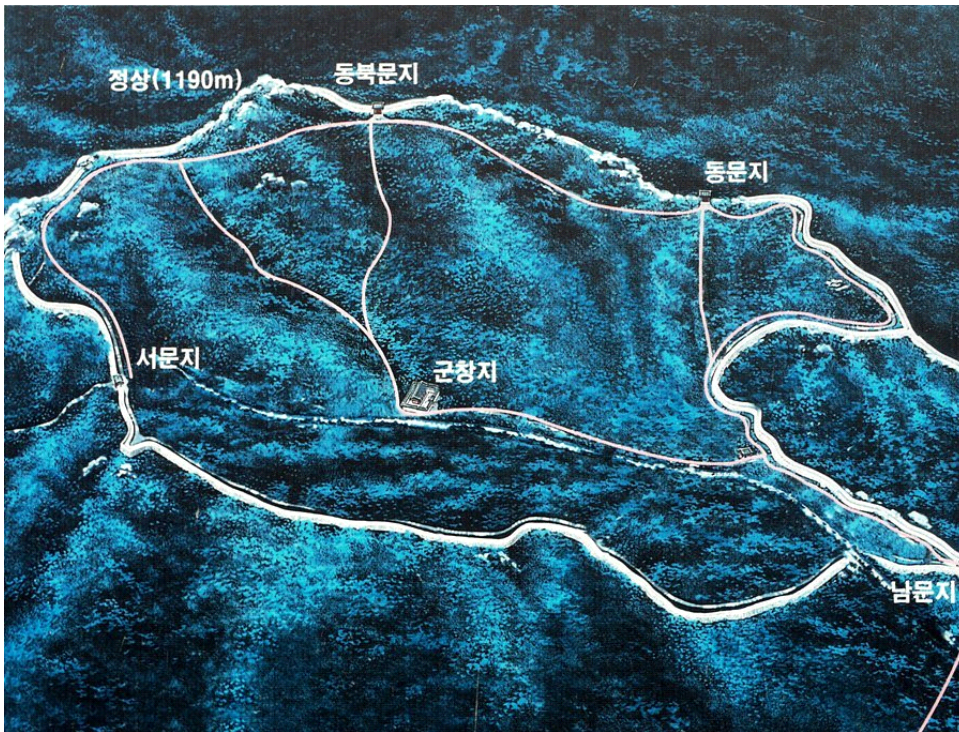
전개 ; 퍼온 곳 ; <http://shibayan1954.blog101.fc2.com/blog-entry-190.html>



○황석산성 등반도



○황석산성 상상도 ; 퍼온 곳 ; <http://blog.daum.net/bae6607/5850094>



○황석산성 頂上





[토론문]

‘황석산성 전투와 백사림’에 대한 토론문

한성주(강원대)

1. 발표문의 의의

민덕기 선생님의 논문은 정유재란 중 황석산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황석산성 전투는 1597년 8월 정유재란이 일어난 초기에 발생한 대규모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생님의 재조명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셨던 정경운의 『孤臺日錄』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논지 전개나 주장에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몇 가지 느낀 점 또는 질문을 통해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 느낀점 & 질문

- 1) 선생님께서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아마도 “백사림의 도주와 ‘附賊者’의 도움” 등에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규명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백사림의 항복 의혹, 通倭의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강한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석산성 전투에서 백사림이 도주한 것은 분명하지만 ‘부적자’의 도움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사료에만 등장합니다. 정유재란 전이지만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1594) 3월 9일 정해 1번째 기사에는 “백사림이 招來한 附賊人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어 죽지 않게 해야 하는데 굶주려 죽는 자가 많으므로 다시 賊營으로 들어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백사림을 비판하는 사료들은 백사림의 도주와 혼자 살아남았다는 비판과 오욕 등에서 나온 말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백사림의 도주와 부역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보다 부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2) 백사림이 김해부사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최전방에 배치되었다는 것과 같고, 정유재란이 개시되기 전 전투가 없는 동안 조선의 지휘관과 일본의 지휘관이 서로 사람을 보내서 정세를 파악하거나 또는 서신이나 정보의 교환, 예물을 주고받거나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 있던 백사림도 그와 같진 않았을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백사림이 황석산성 전투에서 유기나가 제1군의 배려(?)나 안전한 피신이 사전에 양해(?)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附倭의 아들 介山을 참수한 것은 오히려 이것과는 반대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 3)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8일 을미 4번째 기사를 보면 경상우병사 金應瑞의 치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보셨겠지만, 이것에 의하면 백사림은 성에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거느렸던 降倭 沙白鷗의 도움과 지략으로 전투 다음날이 되어서야 성을 빠져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사림의 도주와 부적자와의 관계를 다룬 일부 사료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당시의 정황에 대한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논문에서 항왜 사백구를 표창해야 한다는 김응서의 제안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김응서의 치계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4) 선생님께서는 이미 「임진왜란기 ‘부왜’(附倭) 정보와 조선 조정의 대응-‘附賊’ 용례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 47, 2014)라는 논문을 쓰신바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부왜’에 대해 최초로 검토하셨는데, 임진·정유재란과 관련된 부왜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5) 맺음말 부분의 『고대일록』을 보면 1월 21일에는 ‘산성이 가파르고 험한 것이 기이하다고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월 12일에는 ‘산성 소식을 들었는데, 대단히 허술하다는 것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셨던 『桐溪集』 제2권의 「傳 -書郭義士傳後」의 내용 앞부분에는 “세 읍의 군민들이 모두

성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거창 현감한형이 본현으로부터 달려와서 말하기를, “벽이 견고한데도 이미 무너졌으니,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자, 군민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성으로 들어간 자는 열 명 중에 한두 명도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월과 8월 사이에 산성의 일부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6) 황석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대일록』 및 『동계집』 등의 내용을 참고하면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군사들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지역민과 피살자들이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일본측 사료인 『鍋島家文書』에는 성안에서 조선인의 수급 353을 취했다(물론 함락 직후 산과 계곡에서 수천 명을 참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고 하고 있는 것도 참고해 볼만합니다. 황석산성 전투의 순절자들을 헌창하고 추모하는 과정에서 전투의 규모나 인원들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終)